

국립국어원 2014-01-41

발간등록번호
11-1371028-000543-01

# 2014년 표준 국어 문법 개발

연구 책임자  
유현경



국립국어원



연세대학교  
연구처/산학협력단



#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국립국어원과 체결한 연구용역 계약에 따라 ‘2014년 표준 국어 문법 개발’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사업기간: 2014년 4월 ~ 2014년 12월

2014년 12월 18일

연구책임자: 유현경(연세대학교)

연구책임자 : 유현경

공동연구원 : 강현화

구본관

김성규

김홍범

이병규

이정택

이진호

한재영

황화상

이대성

보조연구원 : 전후민

김소영

주향아

강계림

협력 기관 :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4년 표준 국어 문법 개발

본 연구는 국어학계와 국어 교육학계 및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학계, 그리고 일반 언중들의 언어생활에 기준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표준 국어 문법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1) 문법 지식 세부 항목의 상세범주화 및 위계화 점검

본 연구에서는 1단계 ‘표준 국어 문법 개발 기초 연구’에서 제시한 상세범주화 체계를 체계의 정합성과 문법 지식 항목의 위계화의 관점에서 정비하였다. 그 연구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체계의 정합성과 문법 지식 항목을 위계화를 고려하여 상세범주화 체계 정비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 기준에 따라 상세범주화 체계를 거시적·미시적으로 점검하였다. 거시적으로는 음운, 형태, 통사, 담화 간의 체계 정합성을 점검하고 국어학 각 영역별 대범주 체계의 정합성과 위계화를 점검하였다. 미시적으로는 각 영역별 중범주 이하 체계의 정합성 및 위계화를 점검하였다. 이와 같은 사항들을 점검하여 올해 연구에서는 전체 상세범주화 체계 중에서 30%에 해당하는 상세범주화 체계를 제시하였다.

### (2) 문법 기술의 쟁점 상세 분석 및 기술 방안

본 연구에서는 표준 국어 문법 기술을 위해 문법 내용 기술 대상으로 선정된 전체 항목 중 30%의 상세범주화에 포함된 쟁점들을 대상으로 쟁점 항목을 점검하고 확인한 후 논문을 비롯한 추가 분석 자료를 수집하여 쟁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여러 차례의 자문회의와 워크숍을 통해 쟁점 기술 방안을 점검하여 쟁점 분석 기술 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쟁점 분석에 반영하였다.

### (3) 표준적인 문법 용어 권장안

본 연구에서는 문법 용어의 표준화 작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별도의 ‘문법 용어 표준화 위원회’를 두어 문법 용어 표준화의 원칙을 세우고, 수립한 원칙에 따라 표준적인 문법 용어 권장안을 제시하려 하였다. 문법 용어 표준화 작업의 구체적인 진행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졌다. 먼저 문법 용어 표준화 원칙을 수립하고 표준화 작업 대상 문법 용어를 선정하여 비교 분석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표준화가 필요한 문법 용어 목록을 제시하였다.

#### (4) 영역별 문법 내용 기술

본 연구에서는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담화론 각 영역별로 전체 상세범주화 체계 중에서 30%에 해당하는 영역을 실제 기술하였다. 연구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각 영역별로 상세범주화 체계를 점검하고 확정하여 문법 내용 기술 대상을 선정하고 1단계에서 제시한 표준 국어 문법의 기술 모형을 점검 및 수정하여 문법 내용을 기술하였다.

#### (5) 표준 국어 문법의 웹서비스 설계

본 연구에서는 향후 표준 국어 문법이 웹서비스될 것을 고려하여 표준 국어 문법의 웹서비스 설계 방향을 설정하고 웹서비스를 고려한 표준 국어 문법 기술 모형을 설계하였으며 향후 표준 국어 문법을 웹서비스하였을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 (6) 학계 의견 수렴 - 자문회의, 워크숍 결과

본 연구에서는 연구를 진행하는 중에 나오는 결과물에 대해 자문회의와 워크숍을 통해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객관성을 확보하고, 연구 결과물에 대한 수정·보완 작업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자문회의는 문법 기술 결과물의 교열과 검토를 중심으로, 워크숍은 발굴된 쟁점을 주제로 하여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자문회의를 원로 자문회의와 전문가 자문회의로 이원화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원로 자문회의에서는 표준 국어 문법 개발의 의의와 방향성에 대한 거시적인 자문을 받고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는 문법 기술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교열 및 검토를 하였다. 자문회의는 5월, 8월, 11월 총 3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워크숍은 7월과 10월 2회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7월 워크숍은 상반기 문법 내용 기술 과정에서 도출된 쟁점들에 대하여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10월 워크숍은 하반기 문법 내용 기술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주요어: 표준 국어 문법, 문법 표준화, 참조 문법, 기반 문법, 위계화, 문법 용어, 웹 서비스

# 차 례

<b>I. 연구 개요</b>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1.1. 연구의 목적	1
1.2. 연구의 필요성	1
1.2.1. 표준 국어 문법 개발의 필요성	1
1.2.2. 표준 국어 문법 개발 연구의 필요성	2
2. 연구의 범위 및 전제 조건	3
2.1. 연구의 범위	3
2.2. 연구의 전제 조건	3
3. 연구진의 구성 및 특징	4
3.1. 연구진의 구성	4
3.2. 연구진의 특징	10
4. 연구의 장점 및 기대 효과	11
4.1. 연구의 장점	11
4.2. 연구의 기대 효과	13
5. 연구 수행 전략 및 계획	14
5.1. 연구 수행 전략	14
5.2. 연구 수행 계획	15
<b>II. 연구 추진 방법 및 절차</b>	17
1. 국어 문법 표준화 방향	17
1.1. 표준 국어 문법의 개념: 참조 문법, 기반 문법	17
1.2. 표준 국어 문법의 성격	18
1.3. 표준 국어 문법 기술의 원칙	20
1.4. 표준 국어 문법 기술의 수준	23
1.5. 표준 국어 문법 개발 최종 결과물의 활용 방안	24
2. 문법 지식 세부 항목의 상세범주화 및 위계화	26
3. 문법 기술의 쟁점 상세 분석 및 기술 방안 도출	34
4. 표준적인 문법 용어 권장안 마련	40
5. 영역별 문법 내용 기술	42
6. 웹서비스를 고려한 표준 국어 문법 기술안 설계	45
7. 학계 의견 수렴 - 자문회의, 워크숍 개최	46
<b>III. 연구 추진 결과</b>	47
1. 문법 지식 세부 항목의 상세범주화 및 위계화 점검	47

1.1. 상세범주화 체계 정비 기준 마련 .....	47
1.2. 상세범주화 체계의 거시적 점검 .....	47
1.3. 상세범주화 체계의 미시적 점검 .....	48
1.4. 상세범주화 체계 제시 .....	50
2. 문법 기술의 쟁점 상세 분석 및 기술 방안 .....	55
2.1. 쟁점 항목 점검 및 확정 .....	55
2.2. 추가 분석 자료 수집 및 분석 .....	58
2.3. 쟁점 항목에 대한 기술 방안 도출 .....	59
2.4. 자문회의, 워크숍을 통한 기술 방안 수정·보완 후 확정 .....	60
3. 표준적인 문법 용어 권장안 .....	61
3.1. 문법 용어 표준화 원칙 수립 .....	61
3.2. 표준화 작업 대상 문법 용어 선정 및 비교 분석 .....	61
3.3. 문법 용어 표준화 안 제시 .....	65
3.4. 자문 내용 반영 및 표준화 안 확정 .....	72
3.5. 문법 용어 데이터베이스 구축 .....	72
4. 영역별 문법 내용 기술 .....	73
4.1. 각 영역별 문법 내용 기술 대상 선정 .....	73
4.2. 기술 모형 점검 및 수정 .....	76
4.3. 표준 국어 문법 내용 기술 .....	79
4.3.1. 음운론 .....	80
i. 말소리 .....	80
1. 말소리의 생성 .....	80
1.1. 말소리의 산출 과정 .....	80
1.2. 발음 기관 .....	80
2. 음성과 음운 .....	81
2.1. 음성 .....	81
2.2. 음운 .....	82
2.2.1. 음운과 변이음 .....	82
2.2.2. 음운의 종류 .....	83
ii. 자음 .....	85
1. 자음의 개념 .....	85
2. 자음 목록 .....	85
3. 자음의 분류 기준 .....	86
4. 자음 체계 .....	87
iii. 모음 .....	91
1. 모음의 개념 .....	91
2. 단모음 .....	91

2.1. 단모음의 목록 .....	92
2.2. 단모음의 분류 기준 .....	92
2.3. 단모음 체계 .....	94
3. 반모음 .....	95
3.1. 반모음의 개념 .....	95
3.2. 반모음 목록 .....	96
4. 이중 모음 .....	98
4.1. 이중 모음의 개념 .....	98
4.2. 이중 모음 목록 .....	99
4.3. 이중 모음의 분류 .....	100
4.4. 이중 모음 체계 .....	101
iv. 음장 .....	105
1. 음장의 정의 .....	105
2. 음장의 변별력 .....	105
3. 장음의 실현 위치 .....	105
4. 용언 어간의 음장 변동 .....	106
5. 보상적 장음화 .....	107
6. 파생어와 합성어의 음장 변화 .....	108
7. 표현적 장음 .....	108
v. 휴지 .....	111
1. 휴지의 정의 .....	111
2. 휴지의 생리적 기능 .....	111
3. 휴지의 음성학적·음운론적 역할 .....	112
4. 휴지와 의미·통사 정보 .....	112
vi. 억양 .....	116
1. 억양의 정의 .....	116
2. 억양의 일반적 유형 .....	116
3. 문말 억양 .....	117
vii. 음절 .....	119
1. 음절의 정의 .....	119
2. 음절의 구조와 유형 .....	119
3. 음절의 성립 .....	120
4. 음절 실현에 대한 제약 .....	121
4.3.2. 형태론 .....	124
i. 형태소 .....	124
1. 형태소의 정의 .....	124
2. 이형태와 기본형 .....	124

2.1. 이형태와 교체 .....	124
2.2. 이형태 교체의 양상 .....	125
2.2.1. 음운적 조건에 의한 교체와 형태적 조건에 의한 교체 .....	125
2.2.2. 자동적 교체와 비자동적 교체 .....	126
2.2.3. 규칙적 교체와 불규칙적 교체 .....	126
2.3. 교체와 기본형 .....	127
3. 형태소의 하위 유형 .....	128
3.1.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 .....	128
3.2.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 .....	130
4. 형태소 분석 .....	130
4.1. 형태소 분석의 개념 .....	130
4.2. 형태소 분석의 기준 .....	131
4.3. 형태소 분석의 실제 .....	132
4.4. 형태소 분석에서 나타나는 어려운 문제들 .....	134
ii. 단어 .....	143
1. 단어의 정의 .....	143
1.1. 단어의 일반적 정의 .....	143
1.2. 조사와 어미의 단어 인정 여부 .....	144
1.3. 단어의 여러 측면들 .....	145
2. 단어의 구조 .....	146
2.1. 단어의 구성 요소와 단어의 구조 .....	146
2.2. 단어 구조의 분석: 직접 구성 요소 분석 .....	148
3. 단어 구성 요소의 구분 .....	149
3.1. 어근과 접사, 어간과 어미 .....	149
3.2. 어근의 구분 .....	151
3.3. 접사의 구분 .....	151
4. 단어의 유형 .....	154
4.3.3. 통사론 .....	161
i. 문장을 구성하는 문법 단위 .....	161
1. 문장의 구성단위 .....	161
2. 단어(單語, words) .....	163
3. 구(句, phrase) .....	163
4. 절(節, clause) .....	166
5. 문장(文章, sentence) .....	167
5.1. 문장 성립의 필요충분조건은 ‘외적 독립’ .....	168
5.2. ‘외적 독립성’의 확인과 문장의 규정 .....	168
5.3. 통사론의 대상로서의 ‘문장’의 범위 .....	169

ii. 단문의 구조: 문장 성분 .....	175
1. 문장 성분의 개념과 종류 .....	175
2. 문장 성분의 분석 .....	176
3. 문장 성분 .....	178
3.1 주성분 .....	178
3.1.1 주어 .....	178
3.1.1.1. 주어의 성립 .....	178
3.1.1.2 주격 조사 .....	179
3.1.1.3. 주격 조사 및 주어의 생략 .....	179
3.1.1.4. 주어의 통사적 특징 .....	179
3.1.1.5. 중주어 구문 .....	180
3.1.2 목적어 .....	181
3.1.2.1. 목적어의 성립과 목적격 조사 .....	181
3.1.2.2. 목적격 조사와 목적어의 생략 .....	181
3.1.2.3. 중목적어 구문 .....	182
3.1.2.4. 자동사 서술어와 목적격 조사 .....	182
3.1.3 서술어 .....	183
3.1.3.1. 서술어의 성립 .....	183
3.1.3.2. 서술어의 자릿수와 선택제약 .....	183
3.1.4 보어 .....	184
3.1.4.1. 보어의 성립과 보격 조사 .....	184
3.1.4.2. 보격 조사와 보어의 생략 .....	184
3.1.4.3. 보어의 범위 .....	185
3.1.4.4. 보어의 특성 .....	185
3.2. 부속성분 .....	186
3.2.1. 관형어 .....	186
3.2.1.1. 관형어의 성립 .....	187
3.2.1.2. 관형어의 특성 .....	187
3.2.1.3. 관형어의 종류와 중복 .....	187
3.2.2. 부사어 .....	188
3.2.2.1. 부사어의 성립 .....	188
3.2.2.2. 부사어의 종류와 특성 .....	190
3.3. 독립성분 .....	190
3.3.1. 독립어 .....	191
<b>4.3.4. 담화론 .....</b>	<b>199</b>
i. 담화의 성립과 구성 .....	199
1. 담화의 성립 .....	199

1.1. 담화의 개념 .....	199
1.2. 담화와 언어 단위 .....	201
2. 담화의 단위 .....	203
2.1. 담화와 발화 .....	203
2.2. 담화의 하위 단위 .....	205
ii. 담화의 구성 요소 .....	214
1. 담화 구성 요소와 전달 매체 .....	214
2. 담화 참여자 .....	216
3. 메시지(발화 의도) .....	217
4. 맥락 .....	217
5. 표준 국어 문법의 웹서비스 설계 .....	222
5.1. 표준 국어 문법의 웹서비스 설계 방향 설정 .....	222
5.2. 웹서비스를 고려한 표준 국어 문법 기술 모형 설계 .....	222
5.3. 표준 국어 문법의 웹서비스를 위한 고려 사항 .....	223
6. 학계 의견 수렴 - 자문회의, 워크숍 결과 .....	225
6.1. 자문회의 결과 .....	225
6.1.1. 1차 자문회의 결과 .....	225
6.1.2. 2차 자문회의 결과 .....	227
6.1.3. 3차 자문회의 결과 .....	230
6.2. 워크숍 결과 .....	232
6.2.1. 1차 워크숍 결과 .....	232
6.2.2. 2차 워크숍 결과 .....	234
<b>IV. 향후 일정 및 계획 .....</b>	<b>239</b>
1. 5개년 계획의 단계 설정 .....	239
2. 단계별 세부 연구 계획 .....	239
<b>참고 문헌 .....</b>	<b>243</b>

\* 부록 목록(별도의 CD에 수록)

[부록1] 표준국어문법개발(2단계) 영역별 쟁점 분석

[부록2] 표준국어문법개발(2단계) 문법 용어 데이터베이스

[부록3] 표준국어문법개발(2단계) 자문회의 회의록

[부록4] 표준국어문법개발(2단계) 워크숍 토론 내용 정리

## 표 차례

<표1-1> 연구 수행 월별 추진 일정 .....	16
<표2-1> 표준 국어 문법 상세범주화 체계-총론 .....	27
<표2-2> 표준 국어 문법 상세범주화 체계-음운론 .....	28
<표2-3> 표준 국어 문법 상세범주화 체계-형태론 .....	30
<표2-4> 표준 국어 문법 상세범주화 체계-통사론 .....	32
<표2-5> 표준 국어 문법 상세범주화 체계-담화론 .....	32
<표3-1> 기존 쟁점 항목과 수정 쟁점 항목-음운론 .....	55
<표3-2> 기존 쟁점 항목과 수정 쟁점 항목-형태론 .....	56
<표3-3> 기존 쟁점 항목과 수정 쟁점 항목-통사론 .....	57
<표3-4> 기존 쟁점 항목과 수정 쟁점 항목-담화론 .....	57
<표3-5> 1차년도 문법 용어 데이터베이스 일부 .....	63
<표3-6> 2차년도 문법 용어 데이터베이스 일부 .....	64

## 그림 차례

<그림1-1> 업무 조직도 .....	10
<그림1-2> ‘표준 국어 문법 개발’ 연구 수행 전략 .....	14
<그림1-3> ‘표준 국어 문법 개발’ 연구 수행 계획 .....	15
<그림2-1> 표준 국어 문법의 개념 .....	18
<그림2-2> 표준 국어 문법의 성격 .....	20
<그림2-3> 표준 국어 문법 기술의 원칙 .....	23
<그림2-4> 상세범주화 체계 정비 과정 .....	33
<그림2-5> 쟁점 상세 분석 및 기술 방안 도출 과정 .....	39
<그림2-6> 문법 용어 표준화 과정 .....	41
<그림2-7> 표준 국어 문법의 역할 .....	43
<그림2-8> 각 영역별 문법 내용 기술 과정 .....	44
<그림2-9> 자문회의와 워크숍 일정 .....	46
<그림4-1> 5개년 계획의 단계 .....	239
<그림4-2> 5개년 사업의 단계별 이행 계획 .....	242

# I. 연구 개요

##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1. 연구의 목적

국가 어문 정책 차원의 국어 문법 표준화의 일환으로 ‘표준 국어 문법 개발’ 연구를 통하여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어 교육,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과 일반 언중들의 언어생활의 기준으로 삼을 표준적인 국어 문법을 개발한다. 세부 목표는 아래와 같다.

- 표준 국어 문법 기술을 위한 문법 지식 항목의 상세범주화 체계를 정비한다. 음운, 형태, 통사, 담화 등 국어 문법 각 영역에서 서로 상치되는 부분을 조정하여 체계의 내적 정합성을 확보한다. 더불어 세부 문법 지식 항목을 위계화한다.
- 표준 국어 문법 개발을 위한 문법 기술의 쟁점 항목을 검토하여 보완한 후, 다양한 관점에서 쟁점 항목에 대해 상세하게 분석하고 기술 방안을 확정한다.
- 표준 국어 문법 기술 모형을 검토하여 기술 모형을 확정된 후, 확정된 모형에 따라 음운, 형태, 통사, 담화 각 영역별로 30% 정도의 분량을 기술한다.
- 문법 용어 비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문법 용어 표준화 안을 마련하여 전체 문법 용어 중 30%의 문법 용어를 정비한다.
- 쟁점 사항 기술, 용어 표준화, 표준 국어 문법 기술 모형 등에 대한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자문회의, 워크숍 등을 개최한다.

### 1.2. 연구의 필요성

#### 1.2.1. 표준 국어 문법 개발의 필요성

- 국어 교육이나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의 혼란을 막기 위한 표준화된 문법의 체계와 용어의 통일 필요
- 이론 문법과 일반 언중들의 언어생활에 기반으로 삼고 참고할 문법의 필요
- 이론 문법과 교육 문법의 선행 연구 성과를 반영하면서 교육 현장, 일반 언중들의 언어생활의 괴리를 줄일 수 있는 실용적인 문법의 필요
- 한국어의 확장으로 인해 국가 어문 정책 차원에서의 국어 문법 정비의 필요

표준 문법은 주로 교육 문법과 관련하여 논의되어 왔다. 국어 교육이나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 현장에서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 단일화된 문법의 체계와 용어의 통일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러나 국어 교육과 한국어 교육에서뿐 아니라 학문적 연구와 일반 언중들의 언어생활에 이르기까지 기반으로 삼을 만한 새로운 표준 문법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간 이론 문법과 교육 문법은 서로 순환적으로 도움을 주며 발전해 왔다. 이론 문법에서 연구된 성과가 교육 문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또 그 결과로 정립된 교육 문법의 체계와 용어는 이론 문법의 중요한 기반으로 기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론 문법과 교육 문법의 순환적 관계는 두 문법 체계가 발전적으로 전개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현재 국어 문법 교육의 상황에서는 이론 문법과 교육 문법의 순환적 관계의 고리가 끊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교과서 개발이 검인정 체제로 되면서 다양한 문법서의 체계와 기술이 공존할 수 있게 되었으나 실제 상황은 오히려 그 반대로 어느 한 교과서, 즉 2002년도 문법 교과서를 기준으로 하여 교과서가 개발되는 현상이 지속되는 것이다. 현재의 체제에서는 2002년도 문법 교과서에 구현된 학교 문법의 개정이 실현되기 어렵다. 그러나 검인정 교과서 체제가 가지는 많은 장점이 있으므로 검인정을 국정 체제로 되돌릴 것이 아니라 이론 문법과 교육 문법 사이를 매개할 발전된 문법의 체계를 개발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도 국어 교육 못지않게 문법의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되어 왔다.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학습자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면서 수업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학습 효과를 높일 표준적인 한국어 교육 내용에 대한 표준화가 현장에서 요구되는 것이다.

이론 문법이나 교육 문법뿐 아니라 언중들의 언어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출판계와 언론계 등에서도 참조 문법으로 삼을 만한 국어 문법의 체계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대사회에서 출판계와 언론계는 언어를 생산하고 유통시키는 중요한 매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들의 국어 문법에 대한 수요 또한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동안 출판계와 언론계에서는 학교 문법, 어문 규정, 『표준국어대사전』 등을 주요한 참조 기준으로 삼아 왔는데 학교 문법은 난이도 측면에서, 어문 규정은 문법에 대해 다루는 범위의 측면에서, 『표준국어대사전』은 정보량의 측면에서 언론·출판 현장의 실질적인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인식했을 때, 국어학과 국어 교육, 한국어 교육계의 그간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하며 학계, 교육계는 물론이고 일반 언중들의 언어생활에 지침이 될 수 있는 범용적이고도 표준적인 국어 문법의 개발이 절실하다.

### 1.2.2. 표준 국어 문법 개발 연구의 필요성

○ 개별 문법 지식 세부 항목의 상세범주화 및 위계화 필요

- 문법 기술의 쟁점 사항 상세 분석 및 기술 방안 도출
- 각 영역별 문법 기술 모형 확정 및 문법 내용 기술 필요
- 표준적인 국어 문법 용어 권장안 마련 필요

1단계 사업에서는 표준 국어 문법의 개념 및 성격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문법 지식을 상세범주화하고 각 영역별 쟁점을 발굴하였으며 문법 기술 모형을 제시하였다면, 2단계 ‘표준 국어 문법 개발’ 연구에서는 문법 지식의 상세범주화 및 위계화를 다시 한 번 정비하고 1단계에서 발굴한 쟁점을 상세하게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총론, 음운, 형태, 통사, 담화 각 영역별로 문법 기술 모형을 확정하고 확정된 모형에 따라 실제적인 기술을 해 봄으로써 표준 국어 문법의 본격적인 개발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문법 기술과 더불어 문법 기술 시 사용되는 문법 용어 역시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문법 표준화는 용어 표준화의 바탕 위에서 구현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2단계 ‘표준 국어 문법 개발’ 연구에서는 문법 용어 표준화 작업도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다.

## 2. 연구의 범위 및 전제 조건

### 2.1. 연구의 범위

표준 국어 문법의 상세범주화 체계와 모형을 정비하고, 표준 국어 문법 기술 시 쟁점이 되는 내용을 상세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음운, 형태, 통사, 담화별로 표준 국어 문법을 실제로 기술한다.

- 개별 문법 지식 세부 항목의 상세범주화 체계 정비 및 문법 지식의 위계화
- 표준 국어 문법 기술을 위한 쟁점 항목 검토와 쟁점에 대한 상세 분석 및 기술 방안 도출
- 표준 국어 문법 각 영역(음운, 형태, 통사, 담화)별 문법 기술 모형 확정 및 전체 내용 중 30% 실제 기술
- 표준적인 국어 문법 용어 권장안 마련
- 자문회의와 워크숍을 통한 학계 의견 수렴

### 2.2. 연구의 전제 조건

- 본 연구는 1단계 표준 국어 문법 개발 기초 연구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표준 국어 문법의 개념과 성격은 1단계의 연구 성과를 따른다. 또한 2단계

의 주요 연구인 상세범주화 체계 정비, 쟁점 상세 분석, 문법 용어 표준화 연구, 문법 내용 기술 등을 진행할 때 1단계의 연구 결과물인 문법서 분석 데이터베이스, 상세범주화 체계, 쟁점 분석, 기술 모형 등을 출발점으로 삼을 것이다.

- 본 연구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문법 표준화 작업으로서 학계, 교육계, 일반 언중들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어야 한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고 이를 통해 문법 표준화의 합리적 기준을 정한다.
- 표준 국어 문법 개발의 최종 결과물은 인쇄물과 함께 사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온라인상으로 웹서비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종 결과물의 보급 방식을 염두에 두고 진행할 것이다.

### 3. 연구진의 구성 및 특징

#### 3.1. 연구진의 구성

- 참여 연구 인력

구분	성명	소속(담당영역)	직위	최종 학력
책임연구원	유현경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통사론)	교수	박사
공동연구원1	강현화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한국어 교육, 담화)	교수	박사
공동연구원2	구본관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국어 교육, 형태론)	교수	박사
공동연구원3	김성규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음운론)	교수	박사
공동연구원4	김홍범	한남대학교 국어교육과 (국어 교육, 형태론)	교수	박사

공동연구원5	이병규	서울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국어 교육, 담화)	부교수	박사
공동연구원6	이정택	서울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통사론)	교수	박사
공동연구원7	이진호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음운론)	부교수	박사
공동연구원8	한재영	한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형태론, 국어사)	교수	박사
공동연구원9	황화상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형태론)	교수	박사
보조연구원	김소영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 과정	석사
	전후민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 과정	석사
	주향아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 과정	석사
	강계림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 과정	석사

본 연구의 참여 연구원은 국어학, 국어 교육학, 한국어 교육학과 관련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며, 또한 국어학의 하위 분과인 음운, 형태, 통사, 담화 영역의 전문가들이다. 국어학의 각 하위 분과와 국어학을 기본으로 하는 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한국어 교육까지 아우르고 있어 표준화, 대중화, 통합화를 지향하는 표준 문법의 개발에 가장 적합한 연구진 구성이라고 볼 수 있다. 특정 학파를 초월한 학계의 전문가들이 망라되어 있으므로 표준 문법 개발을 위한 심화 연구로서 다양한 측면에서의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다.

○ 자문위원회 구성

원로 자문위원회	국어 교육 : 박갑수(서울대학교 국어 교육과 명예교수) 음운 : 임용기(대만 정치대학교 한국어학과 교수) 형태 : 고영근(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통사 : 남기심(前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前 국립국어원 원장) 담화 : 장경희(한양대학교 국어 교육과 교수) 언어유형론 : 홍재성(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명예교수)
전문가 자문위원회	음운, 형태, 통사, 담화 등 각 영역의 전문가로 4명 이내 섭외

본 연구의 자문위원회는 원로 자문위원회와 전문가 자문위원회로 구분된다. 원로 자문위원회는 본 과제에서 제시한 거시적 방법론과 기술 방향을 감수하는 역할을 맡았다. 본 연구의 원로 자문위원들은 교육, 음운, 형태, 통사, 담화 각 영역별로 최고의 전문가들이며 언어유형론적 관점에서 큰 틀을 검토할 자문위원까지 총망라되어 있어 본 연구의 거시적 검토 및 감수를 하기에 매우 적합하다. 또한 전문가 자문위원은 음운, 형태, 통사, 담화 등 각 영역을 대표하는 전문가로서 중간, 최종 결과물에 대한 감수와 교열을 담당하였다.

○ ‘문법 용어 표준화 위원회’ 구성

문법 용어 표준화 위원회	위원장 : 한재영(한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위원 : 강현화(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김홍범(한남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각 영역의 집필진 참여 객원위원 : 이선웅(경희대학교 한국어학과 교수)
---------------------	--

본 연구의 문법 용어 표준화 위원은 문법 용어 표준화 방법론을 개발하여 문법 용어 표준화 원칙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표준적인 문법 용어 권장안을 마련하는 일을 한다. 본 연구의 문법 용어 표준화 위원회의 위원들은 국어 교육이나 한국어 교육, 국어학의 전문가이며, 그간 사전 편찬, 교재 개발, 각종 전문 용어 및 문법 용어 정비 등의 연구를 수행한 바 있어 용어 표준화 연구를 하기에 매우 적절하다. 특히 객원 위원은 표준 국어 문법과 관련된 ‘규범 사전 개발’, ‘한국어 교육 문법 표현 내용 개발 연구’ 등 국어원의 과제에 참여하고 있어 국립국어원의 타 과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문법 용어 표준화 연구를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문법 용어 표준화 작업은 실제 문법 기술과 밀접히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문법 용어 표준화 위원회에는 표준 국어 문법 기술의 음운, 형태, 통사, 담화의 집필진도 사안에 따라 참여하게 된다.

○ 참여 연구 인력의 업무 분장

구분	성명	소속	수행 업무
책임연구원	유현경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 총괄</li> <li>- 연구 목표와 방향 설정, 연구 일정 조정</li> <li>■ 전체 상세범주화 체계 검토</li> <li>■ 통사론 내용 기술 및 통사론 집필 팀장</li> </ul>
공동연구원1	강현화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화론 상세범주화 체계 검토</li> <li>■ 담화론 내용 기술 및 담화론 집필 팀장</li> <li>■ 한국어교육 문법 기술 검토</li> <li>■ 용어 표준화 안 제시</li> </ul>
공동연구원2	구본관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태론 상세범주화 체계 검토</li> <li>■ 국어교육 문법 기술 검토</li> <li>■ 형태론 내용 기술 및 형태론 집필 팀장</li> </ul>
공동연구원3	김성규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운론 상세범주화 체계 검토</li> <li>■ 생활 문법 기술 검토</li> <li>■ 음운론 내용 기술 및 음운론 집필 팀장</li> </ul>
공동연구원4	김홍범	한남대학교 국어교육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론 상세범주화 체계 검토</li> <li>■ 총론 기술</li> <li>■ 국어교육 문법 기술 검토</li> <li>■ 용어 표준화 안 제시</li> </ul>
공동연구원5	이병규	서울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화론 상세범주화 체계 검토</li> <li>■ 담화론 내용 기술</li> <li>■ 국어교육 문법 기술 검토</li> </ul>
공동연구원6	이정택	서울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사론 상세범주화 체계 검토</li> <li>■ 통사론 내용 기술</li> <li>■ 생활 문법 기술 검토</li> </ul>
공동연구원7	이진호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운론 상세범주화 체계 검토</li> <li>■ 음운론 내용 기술</li> <li>■ 이론 문법 기술 검토</li> </ul>
공동연구원8	한재영	한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론 상세범주화 체계 검토</li> <li>■ 총론 기술 및 총론 집필 팀장</li> <li>■ 한국어교육 문법 기술 검토</li> <li>■ 용어 표준화 안 제시 및 문법 용어 표준화 위원장</li> </ul>

공동연구원9	황화상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태론 상세범주화 체계 검토</li> <li>■ 형태론 내용 기술</li> <li>■ 이론 문법 기술 검토</li> </ul>
원로 자문위원	박갑수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교육에 활용 가능한 표준 문법의 체계 설정에 대한 자문</li> </ul>
	임용기	대만 정치대학교 한국어학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준 국어 문법 기술(음운론) 방안 및 내용에 대한 자문</li> </ul>
	고영근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준 국어 문법 기술(형태론) 방안 및 내용에 대한 자문</li> </ul>
	남기심	前 연세대학교 국 어국문학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준 국어 문법 기술(통사론) 방안 및 내용에 대한 자문</li> </ul>
	장경희	한양대학교 국어교육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준 국어 문법에서의 담화 층 위 수용 방안 및 기술 방법에 대한 자문</li> </ul>
	홍재성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준 국어 문법에서의 언어유형론 논의 적용에 대한 자문</li> </ul>
보조연구원	김소영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쟁점 항목에 대한 기존 연구 정리</li> <li>■ 문법 용어 정리 분석</li> <li>■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기술 보조 및 편집</li> <li>■ 자문회의, 워크숍 진행 보조</li> </ul>
	전후민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주향아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강계림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본 연구진은 국어학계, 국어 교육계, 한국어 교육계의 전문가들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표준 국어 문법을 기술할 때 국어학의 각 하위 영역에 대한 전문적 기술이 가능하며, 한국어 교육적, 국어 교육적 관점에서의 기술 검토도 가능하다.

참여 연구자의 업무 분장을 소개하면 먼저 연구의 총 책임은 책임연구원이 맡았다. 책임연구원은 실무적인 부분에 있어 연구를 총괄하며 연구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연구진의 연구 일정을 조정하였다. 실제 연구에서는 전체 상세범주화 체계를 검토 조정하며, 표준 국어 문법 내용 기술의 통사론 부분을 담당하였다. 국어학 각 영역별 상세범주화 체계 점검과 표준 국어 문법 집필의 분담은 다음과 같다. 총론은 공동연구원4와 공동연구원8, 음운은 공동연구원3과 공동연구원7, 형태는 공동연구원2와 공동연구원9, 통사는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원6, 담화는 공동연구원1과 공동연구원5가 맡았다. 이중 총론, 음운, 형태, 통사, 담화 각 영역의 집필 팀장은 공동연구원8, 공동연구원3, 공동연구원2,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1이 맡았다.

그리고 집필 내용 중 이론 문법 기술 검토는 공동연구원7, 공동연구원9가 맡고, 국어 교육 문법 기술 검토는 공동연구원2, 공동연구원4, 공동연구원5가 맡고, 한국어 교육 문법 기술 검토는 공동연구원1, 공동연구원8이 맡고, 생활 문법 기술 검토는 공동연구원3, 공동연구원6이 맡았다.

문법 용어 표준화 위원회는 표준 국어 문법의 용어를 표준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문법 기술 시 발생하는 용어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을 담당하는데, 공동연구원1, 공동연구원4, 공동연구원8이 담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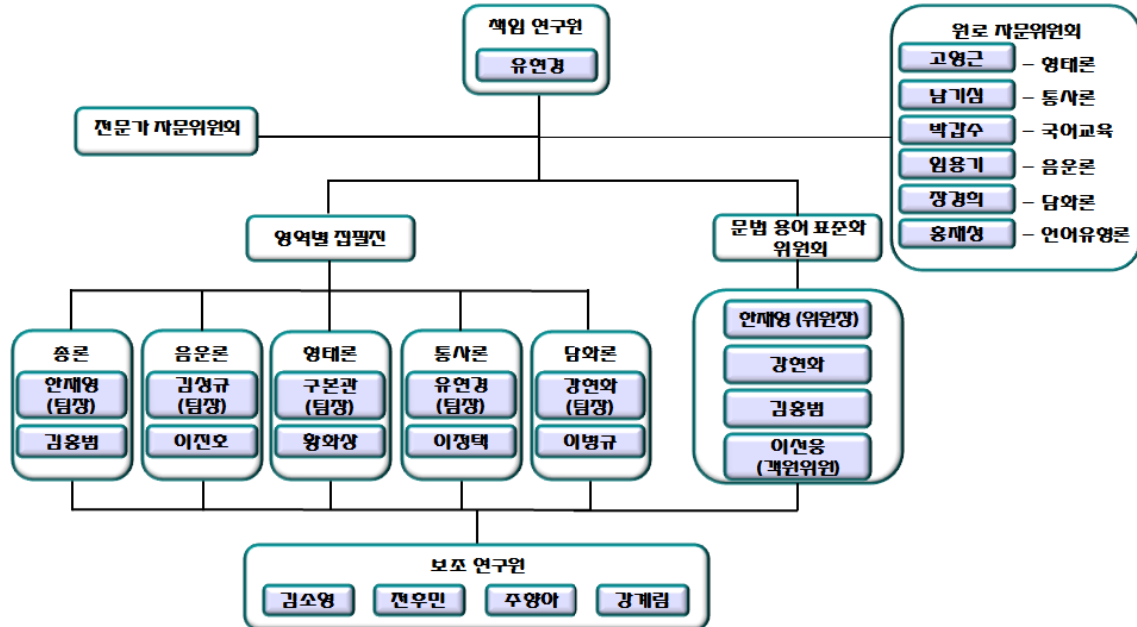
보조연구원은 연구 책임자와 공동연구원을 도와 쟁점에 대한 기존 연구 성과물을 비교·정리하는 일과 자문회의와 워크숍의 진행 보조 업무를 담당하였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연구진 전체 회의에서 전반적인 문법 기술에 대하여 논의하는 동시에 각 집필 영역 간 연구진 회의, 용어 표준화 위원회 회의, 각 적용 문법적 기술 감수와 관련한 회의 등 소그룹의 특수 목적 회의들이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였다.

#### ○ 업무별 담당자

업무		담당자
연구 총괄		유현경
영역별 담당 기술	총론	한재영(팀장), 김홍범
	음운론	김성규(팀장), 이진호
	형태론	구본관(팀장), 황화상
	통사론	유현경(팀장), 이정택
	담화론	강현화(팀장), 이병규
원로 자문		고영근, 남기심, 박갑수, 임용기, 장경희, 홍재성
전문가 자문		주요 쟁점에 따라 섭외
용어 표준화		한재영(위원장), 강현화, 김홍범, 이선웅
연구 보조		김소영, 전후민, 주향아, 강계림

○ 업무 조직도



<그림1-1> 업무 조직도

### 3.2. 연구진의 특징

- 정부 기관의 다양한 연구 용역 수행 경험 다수
- 국어학의 각 하위 영역인 음운, 형태, 통사, 담화의 전문가
- 교과서 개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 등의 경험을 가진 국어 문법 교육학 전문가
- 전문 용어 정비와 문법 용어 표준화에 대한 연구 및 과제 수행 경험 다수

본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진들은 국어학 및 문법교육학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국어학의 세부 하위 분야인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담화론 등 제 분야를 연구하는 현직 교수들과 문법교육학을 연구하는 현직 교수들, 그리고 해당 분야를 전공하는 석박사 대학원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연구진들은 정부 기관의 다양한 연구 용역을 담당한 이력을 많이 지니고 있어 본 과업의 목표를 완수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

책임연구원은 중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문법 영역을 집필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어 학습자용 사전과 국어사전의 편찬 사업, 전문 용어 표준화 사업 등의 과제 수행 경험을 지니고 있다. 공동연구원들도 2005년도 한국어 교육용 국어 문법 표준화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거나 전문 용어 및 국어학 용어의 표준화 과제를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국어 교과서,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 등을 수행했거나 수행 중에 있다.

이처럼 본 연구진은 국어학 및 국어 교육학, 한국어 교육학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 활동을 통하여 학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연구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진의 구성은 ‘표준 국어 문법’ 개발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담화 등 전공 영역별로 학계의 중진들인 이들 연구원들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집필 활동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진은 최고의 전문가들이 망라된 전문가 자문위원회는 물론 문법 용어 표준화를 전문적으로 진행할 ‘문법 용어 표준화 위원회’를 따로 두고 있어 전문적이고도 효율적인 과업 수행이 가능하다. 특히 전문가 자문위원을 원로 자문위원과 전문가 자문위원으로 이원화함으로써 사업의 전체적인 방향을 점검함과 동시에 실질적인 교열과 감수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 4. 연구의 장점 및 기대 효과

### 4.1. 연구의 장점

#### ○ ‘1단계 기초 연구’를 통한 연구 기초 자료 다수 확보

- ‘1단계 기초 연구’ 성과물인 상세범주화와 기술 모형, 표준 문법 기술을 위한 쟁점과 분석 데이터베이스, 문법 용어 비교 분석 데이터베이스 등은 각각 ‘2단계 연구’의 주요 연구인 상세범주화 체계 점검, 쟁점 상세 분석 및 기술 방안 도출, 표준적인 문법 용어 권장안 제시, 각 영역별 문법 내용 기술 30% 등의 기초 자료가 된다.
- ‘1단계 기초 연구’에서는 표준 국어 문법 방향과 설계를 위해 국어학, 국어 교육 전문가 집단과 언론, 출판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요구조사를 시행하여 분석한 바가 있다. 이 요구조사의 결과로 상세범주화, 모형 점검, 쟁점 항목 기술 방안에 대한 각 전문가 집단의 요구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요구 사항들은 2단계에서 각 연구를 수행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 ○ 연구진의 전공 적합성

‘표준 국어 문법 개발’ 연구의 주요 목표는 ‘국어능력’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인 국어 문법의 표준화·체계화이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전문성과 교육 적용 경

힘을 갖추고 정책적 수행의 이해도가 높은 연구진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진은 ‘국어 음운론, 국어 형태론, 국어 통사론, 국어 교육, 한국어 교육, 국어사전, 국어 정책, 전문 용어 정비’ 등 여러 영역에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풍부하게 축적하고 있는 연구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각 영역의 전문적 지식은 물론 그를 활용한 교과서 및 교재 편찬, 각종 국가시험의 출제 및 평가·기획, 정책에 대한 경험 및 이해도가 충분하여 국어원에서 계획하는 문법 내용 구성은 물론이고 정책적인 역할, 문법의 위상 및 가치 제고 방안 등을 제시할 역량을 가지고 있다.

#### ○ 개발 내용의 공개 및 평가를 통한 공적 합의 체제 마련

표준 국어 문법이 ‘표준’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내용적인 정합성은 물론 폭넓은 논의와 관련 학계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 공개적인 논의와 합의 장치를 실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하여 과제가 진행되는 동안 공개적인 워크숍과 관련 학회를 통해 연구 내용을 발표함으로써 각 영역의 전문가는 물론 현장의 목소리까지 폭넓게 청취하는 체제를 마련하여 개발된 표준 문법이 내용뿐 아니라 절차상으로도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 문법 용어 표준화 위원회 별도 운영

본 연구팀은 표준적인 문법 용어 권장안 마련을 위해 용어 표준화에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된 ‘문법 용어 표준화 위원회’를 두어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문법 용어의 표준화 연구는 실제적 문법 기술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전체 문법 용어를 대상으로 하여 내적 정합성을 갖춘 표준화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문법 용어 전반을 검토하고 문법 용어 표준화와 관련된 문제들이 무엇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으며, 일관된 표준화 방향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문법 용어 표준화 위원회에는 본 연구진 이외에 객원 위원을 참여하게 하여 표준 국어 문법 개발과 관련된 과제와의 연계성을 확보할 것이다.

#### ○ 자문회의 이원화를 통한 과제 완성도 제고

본 연구팀에서는 개발 과정에서 나온 각종 결과물을 점검하고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본 연구팀의 자문회의 위원회는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하나는 중간결과물과 최종결과물의 실질적인 감수와 교열을 담당한 전문가 자문위원회이고 또 다른 하나는 거시적인 시각으로 표준 국어 문법 개발 사업의 전체적인 방향을 점검하는 원로 자문위원회이다.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서는 실제적인 연구 결과물을 점검하여 연구 성과물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원로 자문회의는 음운, 형태, 통사, 담화, 국어 교육, 언어유형론의 관점에서 표준 국어 문법 개발 사업의 방향성을 점검하여 표준 국어 문법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거시적 시각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4.2. 연구의 기대 효과

### ○ 상세 범주화 체계 정비를 통한 표준 국어 문법 기술의 기본 틀 확립

본 연구에서는 총론, 음운, 형태, 통사, 담화 등 각 영역에서부터 각 문법 지식의 세부 항목의 체계까지 서로 상치되는 부분을 조정하여 체계의 내적 정합성을 확보할 것이다. 상세범주화는 문법 기술이 본격화되면서 계속 체제 정비를 통해 조금씩 수정될 수도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 결과물로 제시된 상세범주화 체계는 향후 표준 국어 문법 기술의 기본 틀의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문법 지식을 위계화함으로써 교육 문법이나 생활 문법에 적용 시 범위를 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 쟁점 상세 분석을 통한 표준 국어 문법의 기초 자료 마련

본 연구에서는 1단계에서 도출된 쟁점의 항목을 검토하고 문법서 분석 이외에 주요 논문 분석을 추가하여 하나의 쟁점에 대한 국어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분석·정리할 것이다. 이러한 쟁점 상세 분석 자료는 쟁점에 대한 표준적 논의를 이끌어 내어 표준 국어 문법을 기술하는 데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 ○ 확정된 기술 모형의 다양한 분야 적용 가능성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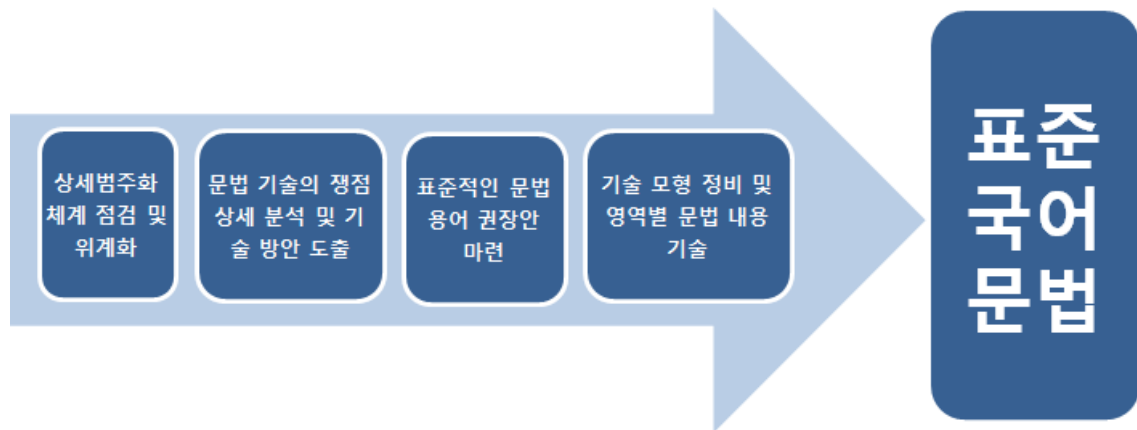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1단계에서 제시한 문법 기술 모형을 확정하고 이 모형에 따라 전체 내용 중 30% 정도를 실제적으로 기술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확정하게 될 기술 모형과 기술의 틀은 앞으로의 연구 수행에 기초가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문법 기술 모형을 핵심 문법부와 적용 문법부로 나누어 제시하는데, 이와 같은 기술 방법론은 다양한 분야(교육 문법, 생활 문법)에 적용 가능하다. 이와 같은 넓은 적용 가능성을 지닌 본 연구의 기술 모형이 확립되면 여러 분야에서 이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 문법 용어 표준화를 통한 용어 사용의 통일성 확보

본 과제에서 제시할 문법 용어의 표준화 안은 향후 개발될 표준 국어 문법 기술에 적용될 것이다. 문법 용어 권장안은 국내에서는 교육부, 교육과정평가원 등과의 협의를 통해 교육과정, 교과서, 사전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외에는 세종학당, 한국어 교육 관련 학회 등을 통해 보급될 수 있을 것이다. 표준 국어 문법 개발 사업을 통해 완성될 표준적인 문법 용어 권장안은 향후 국어 교육, 한국어 교육 현장과 일반 언중들의 언어생활에 가장 큰 어려움인 용어 사용의 혼란을 줄이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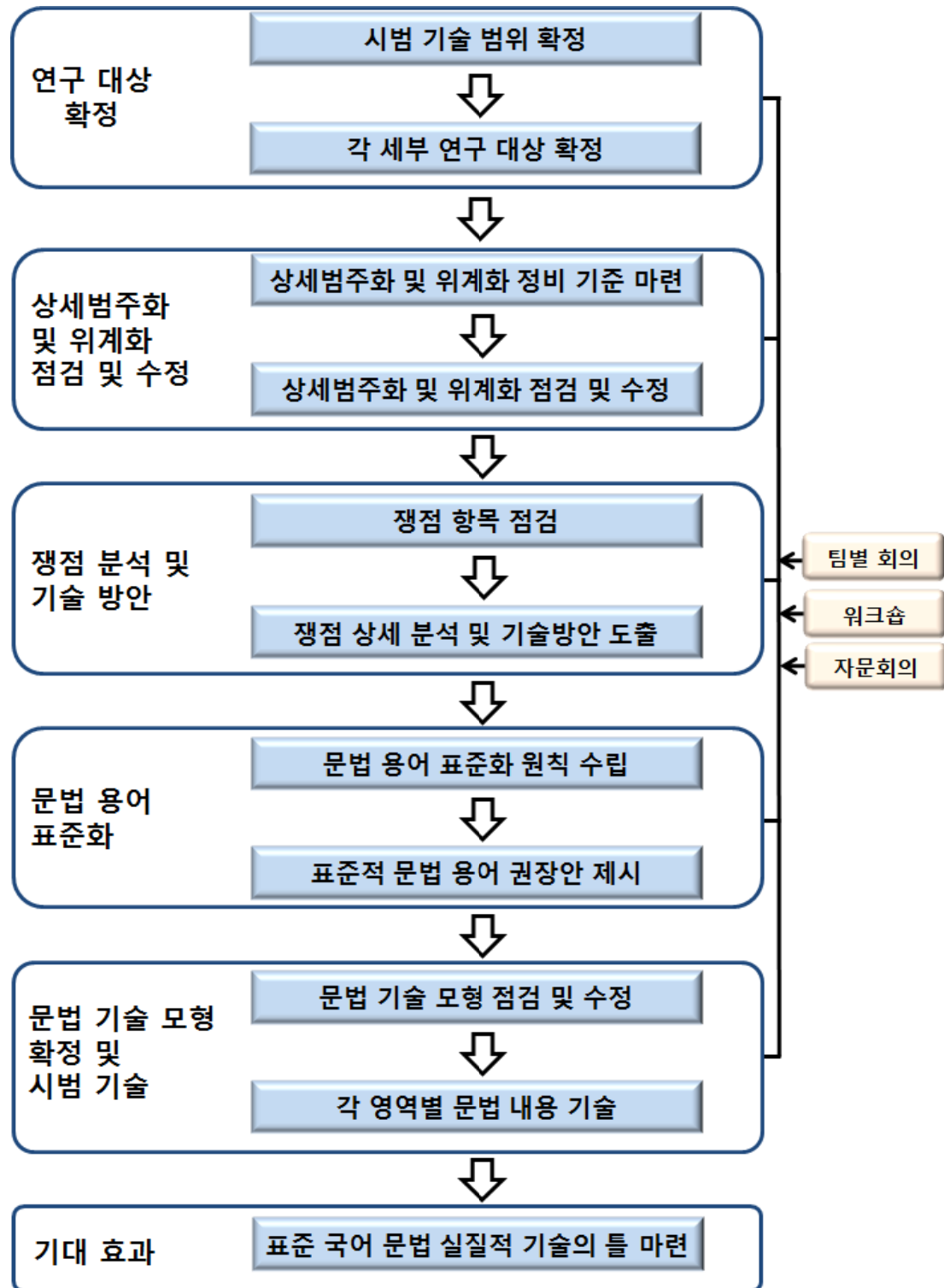
## 5. 연구 수행 전략 및 계획

### 5.1. 연구 수행 전략



<그림1-2> ‘표준 국어 문법 개발’ 연구 수행 전략

## 5.2. 연구 수행 계획



<그림 1-3> '표준 국어 문법 개발' 연구 수행 계획

○ 연구 수행 월별 추진 일정

목표 및 단계	추진 내용	추진 일정(월)									
		4	5	6	7	8	9	10	11	12	
2단계: 표준 국어 문법 개발	문법 지식 상세범주 화 검토 및 체계 조 정 및 위계화	■	■	■	■	■	■	■			
	쟁점 상세 분석	■	■	■	■	■	■	■			
	기술 모형 검토	■	■								
	문법 내용 기술			■	■	■	■	■	■	■	
	문법 용어 표준화		■	■	■	■	■	■	■	■	
	워크숍				■			■			
	전문가 자문회의		■						■		
	원로 자문회의					■					
	중간보고회					■					
	최종보고서 작성								■	■	
	최종보고회									■	

<표1-1> 연구 수행 월별 추진 일정

## Ⅱ. 연구 추진 방법 및 절차

### 1. 국어 문법 표준화 방향

#### 1.1. 표준 국어 문법의 개념: 참조 문법, 기반 문법

표준 국어 문법은 국내외에서 국어 문법의 표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국어의 자료와 문법 현상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국어 문법 체계이다. 현재까지 논의된 학계의 연구 성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정립된 표준 국어 문법은 교육 문법, 이론 문법, 생활 문법에 기준을 제공하고 하위 유형의 문법의 체계를 만들 때 기초가 되는 범용적인 문법이 된다. 따라서 표준 국어 문법은 참조 문법과 기반 문법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다.

##### ○ 참조 문법(reference grammar)

본 연구에서는 ‘표준 문법’을 참조 문법(reference grammar)으로서 국어 교육 문법이나 한국어 교육 문법 등의 교육 문법뿐 아니라 이론 문법이나 생활 문법에 기준을 제공하는 문법이라고 정의한다. 참조 문법으로서의 ‘표준 문법’은 한국어 교육 문법 중 ‘교사를 위한 한국어 교육 문법’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문법은 ‘표준 문법’의 체계나 용어 등에 구애 받지 않고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 그 기술이 달라질 수 있다. 임철성(2010)에서도 ‘표준 문법’을 일종의 참조 문법(reference grammar)을 가리키는 것이라 하면서 언어 현상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나 언어 사용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하는 문법이라고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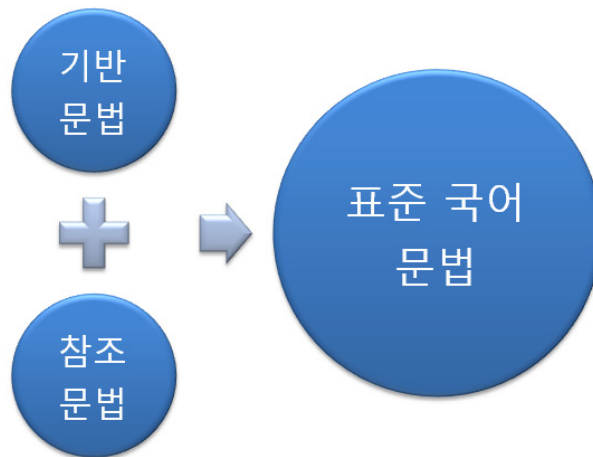
참조 문법은 문법 교육을 설계할 때 토대로 삼을 수 있는 문법으로 정의하기도 하며 문법의 여러 유형 중 이론 문법을 참조 문법으로 간주하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이론 문법은 체계나 기술의 다양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문법학자에 따라 문법 체계나 용어가 다르다. 그러므로 이론 문법 그 자체는 참조 문법이 되기 어려운 측면을 가지고 있다. 학교 문법은 단일한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통일된 문법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참조 문법으로서의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육 문법은 언어 사용자의 지식 체계 속에 있는 규칙들을 교육적 목적과 관점에서 기술한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 문법의 초점은 언어에 내재된 원리나 규칙 그 자체보다 규칙들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즉 용법(usage)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육 문법이 가지는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학교 문법은 참조 문법으로서의 기능이 제한적이다. 그러므로 참조 문법은 최초의 출발부터 이론 문법이나 학교 문법과는 다르게 설계되어야 한다. 참조 문법으로서의 표준 국어 문법은 국어에 내

재되어 있는 규칙과 원리를 표준화된 문법 용어를 사용하여 객관적으로 기술하며 단순하고 일관성 있는 체계를 가져야 할 것이다.

#### ○ 기반 문법(base grammar)

표준 문법은 참조 문법인 동시에 ‘기반 문법(基盤 文法, base grammar)’이다. 기반 문법은 그 체계나 용어를 사용하여 교육 문법과 생활 문법 등의 여러 유형의 문법을 개발할 수 있는 토대로 사용할 수 있는 문법을 말한다. 지금까지 국어 문법에서 참조 문법의 역할을 담당해 왔던 학교 문법은 국어 교육의 목표에 맞추어 구성한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반 문법으로 기능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표준 문법은 교육적인 목표를 상정하거나 특정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법 전반의 체계를 균형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표준 국어 문법 기술에서 사용된 표준화된 문법 용어는 여러 유형의 국어 문법의 기술에서 유용한 도구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정합성 있는 체계는 문법의 세부 항목의 기술에 있어서 기초적인 전제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2-1> 표준 국어 문법의 개념

## 1.2. 표준 국어 문법의 성격

#### ○ 단순성

표준 문법은 교육 문법뿐 아니라 이론 문법, 나아가 생활 문법에 참조하고 기반이 되는 문법이다. 참조 문법과 기반 문법으로서의 표준 문법의 정립에는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이론 문법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일관성과 통일성을 갖춘 문법 체계를 세워야 하지만 이러한 체계와 용어의 표준화가 이론 문법의 다양성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표준 문법은 국어 교육 문법보다 규범성이 상대

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다. 표준 문법은 ‘표준’이라는 용어 때문에 규범성을 전제로 하게 된다. 규범 문법은 구어 문법이 아니라 문어 문법을 대표하며 언중들의 실제 언어생활의 변화를 쉽게 반영하지 못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규범성이 강화되면 기반 문법으로서 기능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표준 문법의 체계는 이론 문법과 교육 문법, 생활 문법의 참조 문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단순하면서도 명료해야 한다. 표준 문법의 체계를 참조하여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의 문법의 기술이 가능해야 하므로 ‘단순성’을 지녀야 한다.

#### ○ 범용성

국어 교육 문법과 한국어 교육 문법은 기본적인 문법 지식 내용의 핵심은 같지만 대상이 달라짐으로써 여러 가지 기술 체계상의 차이가 발생한다. 표준 문법이 교육 문법의 기반 문법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국어 교육과 한국어 교육에 적용할 수 있도록 범용적인 체계 설정이 필요하다. 표준 문법이 ‘범용성’을 지니기 위하여 기술 관점의 확대라든지 실제 언어 자료의 활용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문법 체계는 형태, 통사 중심의 체계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법 체계는 교육적 활용성이나 대중적 접근성에서 그 한계가 있다. 예컨대, ‘접속’은 기존 문법 체계에서는 형태론의 ‘어미’ 부분에서, 통사론의 ‘문장의 짜임새’ 부분에서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접속’은 화용, 담화적 측면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요소이다. 표준 문법은 형태, 통사 중심의 문법 기술을 벗어나 문법 기술의 관점을 확대하고 다각화하여 기존 문법 기술에서 소략하게 다루어졌던 담화 범주를 설정하고 이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화용이나 담화에 대한 기술 확대를 통하여 교육 문법이나 생활 문법 정립의 기반이 되는 문법으로서 ‘범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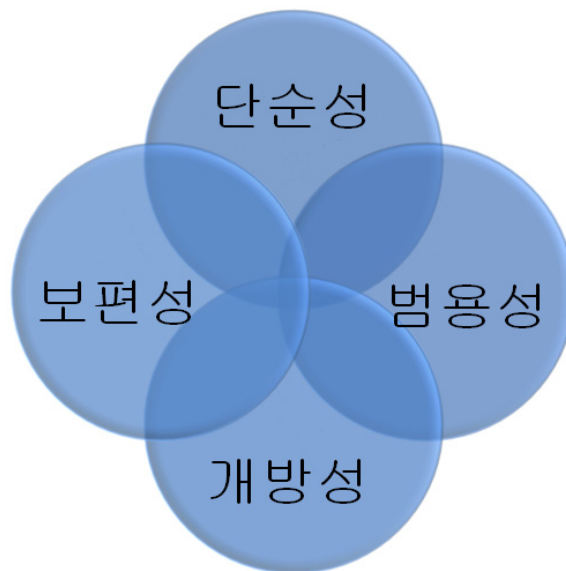
#### ○ 보편성

표준 문법은 국어 체계 내부의 관점만이 아니라 일반언어학적인 사실을 참조하여 기술함으로써 ‘보편성’을 지니게 된다. 최근 언어유형론학회가 설립되고 언어유형론적 관점에서 국어를 연구한 논의들이 많아졌다. 이는 한국어 교육의 확대와 무관하지 않다. 외국인 학습자뿐 아니라 한국어 연구나 한국어 교육에 종사하는 외국인 전문가 집단의 수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한국어와 다른 언어의 대조 연구가 활성화되어 언어유형론이 국어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겼다. 표준 문법의 체계와 용어 기술의 쟁점 중에서 A라는 관점과 B라는 관점이 대립될 때 어느 설명이 더 보편성을 가질 수 있는가를 언어유형론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국어 문법 체계를 세울 때 국어 문법 내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다른 언어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좀 더 객관화된 문법 체계 기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기술된 표준 문법은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통용될 수 있다.

○ 개방성

표준 문법은 그때까지의 학계의 연구 성과가 반영되어 일정한 체계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나 표준 문법은 일시에 완결되는 체계가 아니라 주기적으로 학계의 연구 성과가 반영되어 닫혀 있지 않고 열려 있는 구조로, 개방성을 가져야 한다. 표준 문법은 이론 문법의 성과뿐 아니라 변화하는 교육 문법의 목표를 고려하고 생활 문법의 요구 등을 적절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표준 문법의 개방성은 문법 기술에 대한 현재까지 도출된 결론이 최선이지만 이는 잠정적인 것이며 새로운 이론이나 근거가 제시되면 그 결론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표준 문법은 일정한 주기를 정하여 그동안 진전된 학계의 학문적 성과를 반영하고 시대의 요구에 맞는 문법의 체계와 내용을 갖추도록 개정 작업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그림2-2> 표준 국어 문법의 성격

### 1.3. 표준 국어 문법 기술의 원칙

○ 정합성을 갖춘 체계

표준 문법은 현재 통용되는 국어 교육 문법의 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여러 문법서들의 체계와 내용을 비교하여 각 영역별 쟁점들을 발굴해 낸 다음, 체계의 정합성과 기술의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체계 전체를 수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미 정착된 국어 교육 문법의 체계를 흐트러뜨리고 체계를 처음부터 다시 세우기보다 국어 교육 문법의 체계에서 크게 문제가 없는 부분은 수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국어 문법의 기술에서 각 문법 형태나 범주별로 기술할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던 것이 다른 형태나 범주와의 관계에서 체계가 어긋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문장 성분의 문제는 격조사의 기술과 관련이 있다. 국어 교육 문법에서의 보어의 범위는 격조사의 기술과 맞물려 설정한 것이다.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부사어를 보어로 보게 되면 ‘으로’, ‘과’, ‘에’ 등의 부사격 조사를 보격 조사로 규정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같은 의미와 기능을 가진 조사들을 두 가지로 분류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필수적 부사어를 부정하는 논의에서 부사어는 원래 수의적인 성분인데 ‘필수적’이라는 수식을 허용하는 것이 모순이라는 지적이 있으나 부사어와 필수성이 양립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영희는 예쁘게 생겼다.’, ‘철수는 영희와 잘 지낸다.’ 등의 밑줄 친 부분의 부사어는 용언의 의미적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밑줄 친 부분은 부사어 이외에 다른 성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필수성은 부사어의 문제가 아니라 용언의 문제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어 교육 문법의 보어의 범위는 지나치게 좁다. 이에 논자에 따라 ‘되다’, ‘아니다’ 이외에 ‘가’ 보어를 요구하는 구문들을 예시한 바 있다. 심리 형용사 구문을 비롯하여 ‘나다’, ‘맞다’ 구문 등의 두 번째 명사구는 보어로 인정하여 보어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현재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부사절과 종속 접속절의 문제는 어미의 체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연결 어미의 문제는 내포절의 체계와 어미의 체계를 서로 맞추게 될 때 그 정합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 ○ 일관성 있는 기술

표준 문법은 문법 지식 내용에 관하여 일관성이 있는 기술을 지향한다. 예를 들어 국어 교육 문법에서 기본적인 언어 단위로 보는 ‘어절’이라는 개념은 국어의 문장을 분석할 때 여러 가지 모순을 초래한다. 단어를 비롯하여 어절과 구, 절, 문장 등의 개념 설정은 문법 기술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미 ‘어절’을 문법 단위로 설정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었지만 국어 교육 문법에서는 여전히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문법 단위로 어절을 들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문장 성분의 설명에서 중요한 문제를 초래한다. 조사나 어미는 어절보다 더 큰 단위에 결합되기 때문에 어절이라는 단위를 문장의 기본 단위로 삼는 것은 문법 기술의 일관성을 해치게 된다.

#### ○ 표준화된 용어의 사용

표준화되지 않은 문법 용어는 교육계와 일반 대중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용어의 표준화는 교육 문법, 생활 문법 기반이 되는 표준 국어 문법 체계 수립에서 필수적이다. 뿐만 아니라 이론 문법의 측면에서 볼 때에도 문법 용어의 표준화는 필요한 작업이다. 다양한 학파와 이론에 따라 문법 용어가 달라 생길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합리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문법 용어의 통일은 필요하다.

문법 용어는 체계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따라서 문법 용어는 문법 체계와 마찬가지로 체계성, 정합성을 지녀야 한다. 예컨대, 현재 국어 교육 문법에서는 문장의 확대에서는 ‘이어진 문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그 기능을 담당하는 어미는 ‘연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접속’이라는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품사 부류인 접속부사, 접속조사 등과 비교했을 때에도 체계성, 정합성에서 문제가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국어에서 ‘접속’은 어미로도 실현되지만 문장에서 조사나 부사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접속 조사’나 ‘접속 부사’는 ‘연결 조사’나 ‘연결 부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연결 어미’라는 용어보다는 ‘접속 어미’라는 용어가 조사, 부사와의 관계를 잘 드러내 준다는 측면에서는 더 긍정적일 수 있다. ‘접속’은 ‘접속법’이라는 문법 범주의 명칭으로도 쓰이는 반면 ‘연결법’이라는 용어는 쓰이지 않는다. 그러나 어미 전체의 체계에서 종결 어미와 대비해서 볼 때는 ‘접속 어미’보다 연결 어미라는 명칭이 더 나을 수 있다. 한편 ‘전성 어미’는 한 문장을 명사나 관형사 및 부사에 해당하는 자격으로 바꾸어 준다는 의미로 쓰인다. ‘전성(轉成)’이란 용어는 형태론에서 파생접사가 붙어 품사가 바뀌는 경우에도 사용하는데 용언에 소위 ‘전성 어미’가 붙으면 품사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용언의 품사는 그대로 있고 명사절, 관형사절, 부사절 등의 내포절이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성 어미는 바람직한 용어라고 볼 수 없다.

국어 문법 용어의 표준화는 집필 단계에서 각 영역별로 표준화가 필요한 용어의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별도의 독립된 기구인 문법 용어 표준화 위원회에서 체계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진행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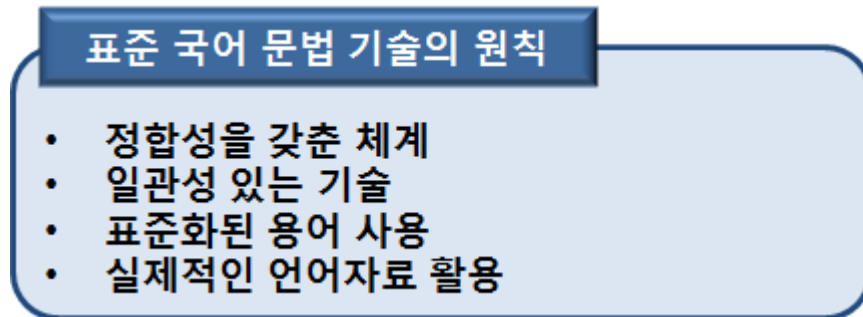
#### ○ 실제적인 언어 자료 활용

1990년대 이후 언어 자료를 기반으로 한 연구들이 활성화되면서 연역적인 연구에서 밝혀내지 못했던 사실들이 귀납적으로 증명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국어 문법 연구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쟁점 중 하나는 ‘이다’의 범주 문제일 것이다. 국어 교육 문법에서는 ‘이다’를 서술격 조사로 규정하고 한국어 교육 문법에서는 이를 동사, 형용사와 비슷한 부류로 본다. ‘이다’는 격조사의 일종이면서 활용을 하는 용언이다. ‘이다’가 조사로 분류되는 유일한 이유는 체언 뒤에 결합된다는 형태적인 특성 때문일 것이다.

‘이다’의 범주 설정에 대해 형태적, 통사적 특징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 양상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판단해 볼 수도 있다. 한국어 교육 문법에서 ‘이다’를 계사(copula)로 보고 있는데 ‘이다’의 사용 양상을 양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다’가 영어의 be 동사로 번역되는 경우는 41.7% 정도라고 한다. 즉, ‘이다=be 동사’로 보는 관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이다. 이렇게 실제 언어 자료를 분석해 보면 기존의 가설이 무너지고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기도 한다.

국어 교육 문법은 구어보다는 문어 위주의 문법 기술을 하고 있는데 비하여 한국어 교육 문법은 구어를 중심으로 기술하는 경향을 띤다. 그러므로 표준 문법에서는 문어

자료뿐 아니라 구어 자료를 분석한 연구 결과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실제적인 문법 기술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그림2-3> 표준 국어 문법 기술의 원칙

#### 1.4. 표준 국어 문법 기술의 수준

지금까지 100년 넘게 국어 문법에 대한 연구 결과가 양적, 질적으로 축적되어 왔으나 국외에 표준화된 국어 문법으로 제시할 만한 결과물이 아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현배(1937)을 비롯하여 남기심·고영근(1985) 등 중요한 연구 업적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상당히 오래 전에 체계가 세워지고 세부적인 문법 기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학계의 연구 결과가 모두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국내외에서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까지의 학계의 연구 결과를 반영한 표준 국어 문법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국어 교육과 한국어 교육, 그리고 국어학계에서 참조 문법의 기능을 해 왔던 1985년도 국어 교육 문법 통일안은 적어도 그때까지 축적된 학계의 논의를 충실하게 반영된 문법 체계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1991년도와 1996년도, 2002년도 개정을 거쳐 오면서도 그 틀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정에서 검인정으로 교과서 집필 체제가 바뀌면서 문법 교과서의 전면 개정은 불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2002년도 국어 교육 문법은 화석화된 채로 오늘에 이르렀다.

이러한 외적인 환경 변화와 더불어 국어 교육 문법이 참조 문법이나 기반 문법으로 기능하기 어려운 내적인 이유도 존재한다. 국어 교육 문법은 초등, 중등에서의 국어 교육을 위하여 규범적인 성격을 가진 문법이며 교육 현장을 고려하여 적절한 난이도를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문법 기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현재 국어 교육 문법이 국어의 자료를 설명하지 못하고 언어 현실과 괴리되어 있는 것은 문법 설명의 난이도 문제와, 국어를 있는 그대로 기술할 수 없는 규범적 성격 때문이다. 그러므로 표준 국어 문법의 기술에서는 초등과 중등의 국어 교육 수준이 아니라 대학교의 국문과 3,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에 난이도를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표준 국어 문법 기술은 설명력 있는 국어 문법의 틀을 갖

추기 위해서 학교 문법(school grammar)이 아니라 대학교 문법(college grammar) 수준의 문법 기술을 지향한다.

## 1.5. 표준 국어 문법 개발 최종 결과물의 활용 방안

### ○ 사용자별 문법의 참조 문법 및 기반 문법으로 기능

향후 5개년 사업이 종료되어 표준 국어 문법의 최종 기술이 완료되면 그 결과물은 국어 교육 문법, 한국어 교육 문법 등 교육 문법의 기술에 기반 문법으로 기능할 수 있다. 표준 국어 문법의 체계와 문법 기술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사용자의 특성이나 요구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문법 기술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표준 국어 문법은 이론 문법의 기술의 참조 문법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론 문법은 다양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표준 국어 문법의 체계나 기술을 따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론 문법의 세부 기술에서 특정한 체계를 참조할 필요가 있을 때 표준 국어 문법의 기술이 유용한 틀로 제시될 수 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생활 문법의 기술에서도 표준 국어 문법이 기반 문법이나 참조 문법으로 기능할 수 있다. 현재의 국어 교육 문법은 규범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언어 자료를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생활 문법의 설명에서 실제 언어 자료에 근거하여 기술한 표준 국어 문법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 표준화된 문법 용어의 확산

현재 국어 교육 문법의 문법 용어는 가장 널리 쓰이고 있지만 문제점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표준 국어 문법의 기술 과정에서 제시된 표준화된 용어는 국어 교육 문법의 문법 용어의 한계를 극복하여 향후 국어 문법 기술에서 국어 교육 문법의 용어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문법 용어의 표준화를 위하여 별도의 ‘용어 표준 위원회’를 두어 각 분야별 용어를 선정하게 될 것이다.

### ○ 규범 사전과의 연계

『표준국어대사전』으로 대표되는 국어의 규범 사전은 향후 보다 정밀하고 상세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 문법은 이론 문법이나 교육 문법과 달리 문법 체계에 대한 기술이나 학문적인 설명력보다 언어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법 항목에 대한 기술이 더 중요하다. 예를 들어,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의 온라인 가나다의 질의 응답 분석을 통하여 중요도 순으로 문법 항목을 선정하여 이를 상세화하여 생활 문법용 규범 사전을 구성할 수 있다. 표준 국어 문법은 이러한 규범 사전의 체계적인 준거틀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 ○ 한국어의 표준 문법으로 전 세계에 보급

국어 문법 연구가 시작된 지 100년이 지났지만 국외에 보급용으로 제시할 만한 표

준화된 한국어 문법은 아직까지 없다고 할 수 있다. 표준 국어 문법은 영어, 중국어, 일어 등 세계의 주요 언어로 번역되어 한국어의 표준적인 문법으로 전 세계에 보급할 수 있다. 이는 한국어 교육뿐 아니라 한국어학, 그리고 언어유형론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참조 문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2. 문법 지식 세부 항목의 상세범주화 및 위계화

표준 국어 문법 기술을 위한 문법 지식의 상세범주화 체계는 1단계 연구에서 제시된 바 있다. ‘표준 국어 문법 개발 기초 연구’에서 제시한 상세범주화의 방향은 크게 국어학의 하위 범주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었다. 표준 국어 문법 기술을 위한 문법 지식을 상세범주화하는 방향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언어 단위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국어학의 주요 하위 범주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언어 단위를 중심으로 문법 지식을 배열하면 음운-단어-구-절-문장-담화 순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국어학의 주요 하위 범주를 중심으로 문법 지식을 배열하면 음운-형태-통사-담화의 순서로 문법 지식을 배열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는 국어 교육 문법이나 한국어 교육 문법에서 주로 취하는 방식이며, 후자는 국어학 개론류의 문법서에서 주로 취하는 방식이다.

이 두 가지의 문법 지식 배열 방법이 큰 틀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그 방향이 크게 상충되는 것은 아니다. 언어학의 주요 하위 범주를 중심으로 문법 지식을 배열해도 사실 언어 단위 중심의 배열 방식이 고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음운론이 언어학의 가장 작은 단위를 다루고, 형태론-통사론-담화론으로 갈수록 각 영역에서 다루는 단위들이 순차적으로 커지므로 언어 단위의 확장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두 가지 문법 지식의 배열 방법이 서로 상충되는 방식이 아니라면 어떤 방법을 취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표준 국어 문법은 국어 교육 문법이나 한국어 교육 문법뿐 아니라 이론 문법이나 생활 문법 전반에 참조가 되는 범용 문법의 성격을 가지므로 문법 지식을 배열할 때 기존의 국어학 개론류의 문법서에서 주로 취하는 ‘음운-형태-통사-담화’의 순서를 택하게 될 것이다. 국어학의 범주별로 문법 지식을 배열하는 것은 문법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상세범주화한 체계는 언어 단위를 중심으로 문법 지식을 배열하는 방식과 크게 상충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유형의 문법 개발 시 참조 자료로서의 역할에 무리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1단계 기초 연구에서는 상세범주화 체계를 제시할 때 국어학의 영역별로 제시하는 방법을 취했다. 그러나 적용 문법부의 상세범주화 체계는 경우에 따라 핵심 문법부에서 제시하는 상세범주화 체계에서 다소 수정될 수도 있다. 국어 교육 문법이나 한국어 교육 문법 등의 교육 문법에서는 학습자의 학습의 용이성을 위해 언어 단위별로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며, 이론 문법의 경우 기술자의 문법관에 따라 상세범주화 체계는 달라질 수 있다.

이상의 판단에 근거하여 1단계 연구에서 제시한 표준 국어 문법 기술을 위한 상세범주화 체계는 아래와 같다.

(1) 총론

대범주	중범주	세부 항목(내용)
한국어 의 특성 과 표준 문법	한국어의 특징	한국어의 유형론적 특징
		한국어의 음운적 특징
		한국어의 형태적 특징
		한국어의 통사적 특징
		세계 속의 한국어
	표준 문법 의 특징 및 단위 설정	표준 문법의 개념 및 성격
		표준 문법의 체계 구성
		대상에 따른 문법의 유형
		문법의 기술 단위(음운, 단어, 문장, 텍스트)

<표2-1> 표준 국어 문법 상세범주화 체계-총론

(2) 음운론

대범주	중범주	세부 항목(내용)
음운론의 단위	음성	말소리의 생성
		이음
	음소	자음
		모음
		반모음
		이중 모음
	운소	음장
		억양
		휴지
	음절	
	자질	
	기저형	
음운 과정	대치	음절말 평파열음화
		경음화
		활음화
		조음위치동화
		유음화
		비음동화
		비음화
		구개음화
		움라우트
		모음조화
		원순모음화

		비원순모음화
		전설모음화
		모음의 완전순행동화
	첨가	L-첨가
		활음 첨가
	축약	격음화
		모음 축약
	탈락	후음 탈락
		자음군 단순화
		으-탈락
		유음 탈락
		동일모음탈락
		y-탈락
		동조음위치 장애음 탈락
	도치	

<표2-2> 표준 국어 문법 상세범주화 체계-음운론

### (3) 형태론

대범주	중범주	세부 항목(내용)
형태소와 단어	형태소	형태소의 정의
		변이형태와 대표형태: 상보적 분포, 가상적(이론적) 대표형태, 음운론적 변이형태, 형태론적 변이형태, 문법적 변이형태
		형태소의 하위 유형, 유일형태소(불구형태소)
		형태소 분석의 실제, 형태소 분석의 문제
	단어	단어의 정의: 언어형식, 자립형식, 구속형식, 직접성분, 최소자립형식, 휴지, 분리성
		단어의 식별원리, 확대의 원리, 대치의 원리
		단어와 형태소의 차이
품사	품사 분류의 기준	형태, 기능, 의미: 전통 문법 품사 분류의 문제점
	체언	명사: 명사의 정의, 명사의 특성, 명사의 종류, 고유명사, 보통명사, 자립명사, 의존명사, 형식

		적 의존명사, 단위성 의존명사, 관형성명사, 동작명사
		대명사: 대명사의 정의, 대명사의 특성, 대명사의 종류,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 장소대명사, 부정칭대명사, 지칭대명사, 재귀대명사
		수사: 수사의 정의, 수사의 특성, 수사의 종류, 서수사, 양수사
		명사, 대명사, 수사의 차이
	용언	동사와 형용사: 동사의 정의, 동사의 특성, 동사의 종류, 자동사, 타동사, 능격동사, 형용사의 정의, 형용사의 특성, 형용사의 종류, 지시형용사, 성상형용사, 동사와 형용사의 구분 기준, 존재사
		활용: 어간, 어미, 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 음운 규칙
		보조용언: 보조용언의 판별, 보조동사, 보조형용사, 이중용언, 합성용언
		어미: 어미의 종류, 어말 어미, 선어말 어미, 종결 어미, 연결 어미, 전성 어미, 평서형어미, 의문형어미, 청유형어미, 보조적 연결 어미, 명사형 어미, 관형사형 어미, 부사형 어미, 어미결합의 제약
	수식언	관형사: 관형사의 정의, 관형사의 특성, 관형사의 종류, 성상관형사, 지시관형사, 수관형사, 관형사 목록의 확대, 관형사의 겹침
		부사: 부사의 정의, 부사의 특성, 부사의 종류, 문장부사, 성분부사, 성상부사, 지시부사, 부정부사, 상징부사, 접속 부사, 체언수식부사, 용언수식부사, 부사의 겹침
		부사와 관형사의 차이
	관계언	준굴곡론
		조사: 조사의 정의, 조사의 특성, 조사의 종류,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 조사의 생략, 조사의 상호 결합, 조사 통합의 제약, 서술격 조사
	독립언	감탄사: 감탄사의 정의, 감탄사의 특성, 감탄사의 종류
		감탄사와 간투사
	품사통용	품사통용의 정의

		품사통용의 일관성: 품사통용의 실제, 품사통용의 문제점, 사전에서의 품사통용, 동형어, 다의어
단어 형성	단어의 종류	단일어, 파생어, 합성어, 복합어, 어간, 어미, 어근, 어기, 접사, 어근의 규칙성과 불규칙성
	파생어	파생어의 정의, 파생어의 종류, 접두파생어, 접미파생어, 한정적 접사, 지배적 접사, 파생접미사, 굴절접미사
	합성어	합성어의 정의, 합성어의 종류,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합성어, 이은말, 반복합성어, 합성의 식별방법
	합성 후 파생과 파생 후 합성	
	새말 단어형성	

<표2-3> 표준 국어 문법 상세범주화 체계-형태론

#### (4) 통사론

대범주	중범주	세부 항목(내용)
문장의 구성단위	어절	어절의 정의
	구	구의 정의, 구와 절의 구별
	절	절의 정의
	문장	문장의 정의, 문장의 종류
문장의 구조	단문의 구조	문장 성분의 개념
		문장 성분 하위범주
		주성분: 주어(개념, 성립, 통사적 특징, 생략, 무주어문, 이중주어문), 목적어(개념, 성립, 생략, 이중목적어문), 서술어(개념, 성립, 자릿수, 선택제약, 생략), 보어(개념, 성립, 생략, 문제점)
		부속 성분: 관형어(개념, 성립, 어순, 특징), 부사어(개념, 성립, 특징)
		독립성분: 독립어(개념, 성립, 특징)
	복문의 구조	복문구성의 원리
		접속문(개념, 표지)

문법요소의 기능과 의미		명사절 내포문(개념, 표지, 종류)
		관형사절 내포문(개념, 표지, 종류)
		부사절 내포문(개념, 표지)
		인용절 내포문(개념, 표지, 종류)
		서술절 내포문(개념)
	높임 표현	개념
		하위범주
		주체높임(개념, 표지, 간접높임)
		상대높임(개념, 화계와 표지)
		객체높임(개념, 표지)
		기타 높임 어휘
	시간 표현	개념
		하위범주
		시제표현(개념, 과거 시제, 비과거 시제)
		상(相) 표현(개념, 지속상, 완료상)
		법(法) 표현(개념, 미정법, 회상법)
	부정 표현	개념
		하위범주
		단순부정(개념, 종류, 표지, 제약)
		능력부정(개념, 종류, 표지, 제약)
		금지부정(개념, 표지, 제약)
	종결 표현	개념
		하위범주
		서술 (개념, 화계 및 장면에 따른 표지)
		의문 (개념, 화계 및 장면에 따른 표지)
		명령 (개념, 화계 및 장면에 따른 표지)
		청유 (개념, 화계 및 장면에 따른 표지)
		종결표현과 수사법
피동 표현	개념	
	하위범주	
	접미사 피동(표지, 종류, 문장구조, 의미적 특징)	
	통사적 피동(표지, 문장구조, 의미적 특징)	
사동	개념	

	표현	하위범주
		접미사 사동(표지, 종류, 문장구조, 의미적 특징)
		통사적 사동(표지, 문장구조, 의미적 특징)

<표2-4> 표준 국어 문법 상세범주화 체계-통사론

##### (5) 담화론

대범주	중범주	세부 항목(내용)
담화의 개념과 구성	담화의 개념	담화의 정의
		담화와 문장
		담화와 문단
	담화의 구성	담화의 구성단위
		담화의 구성 요소
담화의 기능과 유형	담화의 기능	정보전달/호소/약속/친교/선언
	담화의 유형	담화의 유형/담화의 종류
담화의 구조	담화의 짜임	거시적 짜임/미시적 짜임
		발화의 연결 관계
	담화의 특성	통일성
		응집성
		의도성
		정보성
		상황성
		상호텍스트성
담화의 표지	담화 구조 표지	담화 구조 표지의 개념
		담화 구조 표지의 유형
	담화 표지	담화 표지의 개념
		담화 표지의 유형

<표2-5> 표준 국어 문법 상세범주화 체계-담화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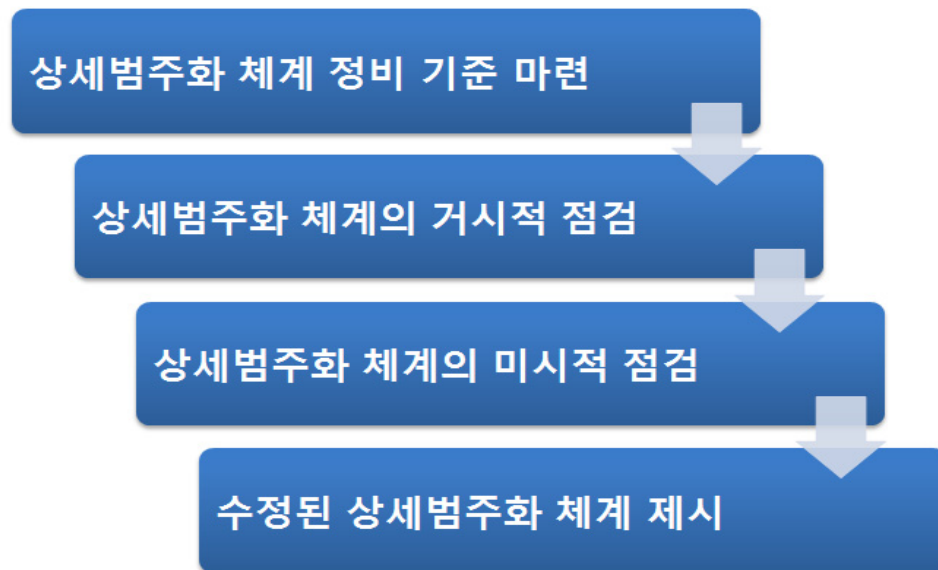
위의 상세범주화 체계는 국어학의 하위범주별로 문법 지식을 제시한다는 큰 틀에서 가능한 범위의 모든 항목을 제시한 것으로 2단계 이후 실제 표준 국어 문법을 기술하면서 계속적으로 점검되고 수정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단계 ‘표준 국어 문법 개발 기초 연구’에서 제시한 상세범주화 체계를 체계의 정합성과 문법 지식 항목의 위계화의 관점에서 정비하였다. 그 연구 진행 과정은 아래와 같다.

##### ○ 상세범주화 체계 정비 기준 마련

- 체계의 정합성
- 문법 지식 항목의 위계화

##### ○ 상세범주화 체계의 거시적 점검

- 총론, 음운, 형태, 통사, 담화 간의 체계 정합성 점검
  - 국어학 각 영역별 대범주 체계 정합성, 위계화 점검
- 상세범주화 체계의 미시적 점검
- 국어학 각 영역별 중범주 이하 체계 정합성, 위계화 점검(전체의30%)
- 수정된 상세범주화 체계 제시



<그림2-4> 상세범주화 체계 정비 과정

### 3. 문법 기술의 쟁점 상세 분석 및 기술 방안 도출

실제 표준 국어 문법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문법 현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적절히 조율하고, 다양한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합리적인 문법 기술 방향을 찾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쟁점을 발굴하고 분석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미 1단계의 ‘표준 국어 문법 개발 기초 연구’를 통해 주로 국어학개론, 교과서, 문법론류의 문법서들을 대상으로 하여 문법 기술의 각종 쟁점들을 발굴하여 분석·기술하였고 데이터베이스화하였다. 분석 대상 자료와 분석한 쟁점 항목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1단계 분석 대상 문법서 목록>

▶ 음운론(총 21권)

저자명	출판 연도	제목	출판사
강범모	2010	언어(개정3판)	한국문화사
김진우	2007	언어	탐출판사
이석주·이주행	2007	한국어학 개론(신정판)	보고사
이익섭	2011	국어학 개설(3판)	학연사
최전승	2008	국어학의 이해	태학사
국립국어원	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1- 체계편	국립국어원
김광해 외	1999	국어지식탐구	박이정
허웅	1983	국어학	샘문화사
강옥미	2011	한국어 음운론	태학사
김무림·김옥영	2009	국어음운론	새문사
김성규·정승철	2013	소리와 발음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 부
배주채	2011	국어음운론 개설(개정판)	신구문화사
신지영	2011	한국어의 말소리	지식과교양
이병근·최명옥	1997	국어음운론	한국방송대학교출판 부
이진호	2005	국어 음운론 강의	삼경문화사
최명옥	2008	국어 음운론(2판)	태학사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2002	고등학교 문법	교육인적자원부
이남호 외	2012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비상교육
이삼형 외	2012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지학사
박영목 외	2012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천재
윤여탁 외	2012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미래엔

▶ 형태론·통사론(총 22권)

저자명	출판 연도	제목	출판사명
신지영 외	2012	한국어학의 이해	지식과교양
국립국어원	2005 ㄱ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1- 체계편	국립국어원
김광해 외	1999	국어지식탐구	박이정
이관규	2002	학교문법론(개정판)	월인
임지룡 외	2005	학교문법과 문법교육	박이정
최현배	1937/ 1971	우리말본	정음사
허웅	1983	국어학	샘문화사
고영근·구본관	2008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남기심·고영근	1985/ 2011	표준 국어 문법론(제3판)	탐출판사
민현식	1999	국어 문법 연구	역락
왕문용·민현식	1993	국어문법론의 이해	개문사
이익섭·임홍빈	1983	국어문법론	학연사
이익섭·채완	1999	국어문법론강의	학연사
임홍빈·장소원	1995	국어문법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이희승	1949	초등국어문법	박문출판사
주시경	1910	국어문법	박문서관
정열모	1946	신편고등문법	서울: 한글문화사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2002	고등학교 문법	교육인적자원부
이남호 외	2012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비상교육
이삼형 외	2012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지학사
박영목 외	2012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천재
윤여탁 외	2012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미래엔

▶ 담화론(총 12권)

저자명	출판 연도	제목	출판사명
김태엽	2008	국어학 개론	역락
국립국어원	2005 ㄱ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1 - 체계편	국립국어원
이관규	2002	학교문법론	월인
김광해 외	1999	국어지식탐구	박이정
임지룡 외	2005	학교문법과 문법교육	박이정

정경일 외	2002	한국어의 탐구와 이해(개정판)	박이정
임지룡 외	2010	문법 교육론	역락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2002	고등학교 문법	교육인적자원부
이남호 외	2012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비상교육
이삼형 외	2012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지학사
박영목 외	2012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천재
윤여탁 외	2012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미래엔

<표준 국어 문법 기술을 위한 쟁점>

▶ 음운론의 쟁점

대범주	쟁점
음운론의 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음체계에서 ‘치조음’과 ‘경구개음’의 구별 문제</li> <li>○ 단모음 개수</li> <li>○ 반모음 /ɥ/의 설정</li> <li>○ /ɣ/의 음운 체계상의 지위: 상향이중모음 vs. 하향이중모음</li> <li>○ 장단의 음운론적 변별력에 대한 기술 차이</li> <li>○ 음절 구조적 측면에서 /w/, /y/의 해석: 음절 핵 vs. 음절 초</li> <li>○ 매개모음 ‘으’의 해석</li> <li>○ 불규칙 활용의 기저형 설정</li> </ul>
음운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절말 평파열음화 /ㅎ/→/ㄷ/에 대한 해명</li> <li>○ 경음화의 동기</li> <li>○ 경음화 후 ㄷ-탈락 현상의 해석</li> <li>○ /ㄴ/에 의한 /ㅎ/의 직접동화 문제</li> <li>○ 구개음화</li> <li>○ 모음의 완전순행동화</li> <li>○ 활음 첨가의 종류</li> <li>○ 후음 탈락의 범위</li> <li>○ ‘-으오’ 등의 앞에서 일어나는 유음 탈락</li> <li>○ 동일 조음 위치 장애음 탈락</li> </ul>

▶ 형태론의 쟁점

대범주	쟁점
형태소와 단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자어 분석</li> <li>○ 형태소 분류의 기준</li> <li>○ 조사와 어미의 지위</li> </ul>
품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사의 종류와 개수</li> <li>○ 대명사/수사의 품사 설정</li> <li>○ 동사와 형용사의 구분 기준</li> <li>○ ‘있다’와 ‘없다’의 품사</li> <li>○ 불규칙 활용의 범위</li> <li>○ 수관형사의 설정</li> <li>○ 체언 수식 부사의 지위</li> <li>○ 접속 부사의 지위</li> <li>○ 조사 및 격조사의 종류와 개수</li> <li>○ ‘이다’의 품사</li> <li>○ 격조사의 비격조사적 용법</li> <li>○ 조사의 생략</li> <li>○ 조사 통합의 불완전성</li> <li>○ 감탄사와 간투사의 문제</li> <li>○ 품사 통용 설정 문제</li> </ul>
단어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어의 구성 요소</li> <li>○ 단어의 분류</li> <li>○ ‘해돋이’류의 분석</li> <li>○ 한자어 조어법</li> </ul>

▶ 통사론의 쟁점

대범주	쟁점
문장 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중주어문에 대한 해석</li> <li>○ 이중목적어문의 해석</li> <li>○ 보어의 범위</li> <li>○ 필수적 부사어</li> <li>○ 문장 성분과 격 체계의 대응</li> </ul>
문장의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장의 분류</li> <li>○ 어미 체계와 복문 체계의 일치</li> </ul>
높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높임법을 가리키는 용어</li> <li>○ 압존법의 설정 여부</li> </ul>

	○ 상대높임법의 체계
사동과 피동	○ 피사동 기술의 범위
시제와 동작상	○ 시제 범주의 설정 ○ 시제 체계 ○ 동작상 범주의 설정 ○ 동작상의 체계
문장 종결법	○ 문장 종결법의 설정과 명칭 ○ 문장 종결법의 체계
부정	○ 부정법 설정 ○ 부정문의 범위
서법과 양태	○ 서법 범주의 설정 ○ 서법의 하위 범주 ○ 서법과 문장 종결법과의 관계 ○ 서법과 양태의 관계 ○ 양태 범주의 설정 ○ 양태의 하위 범주와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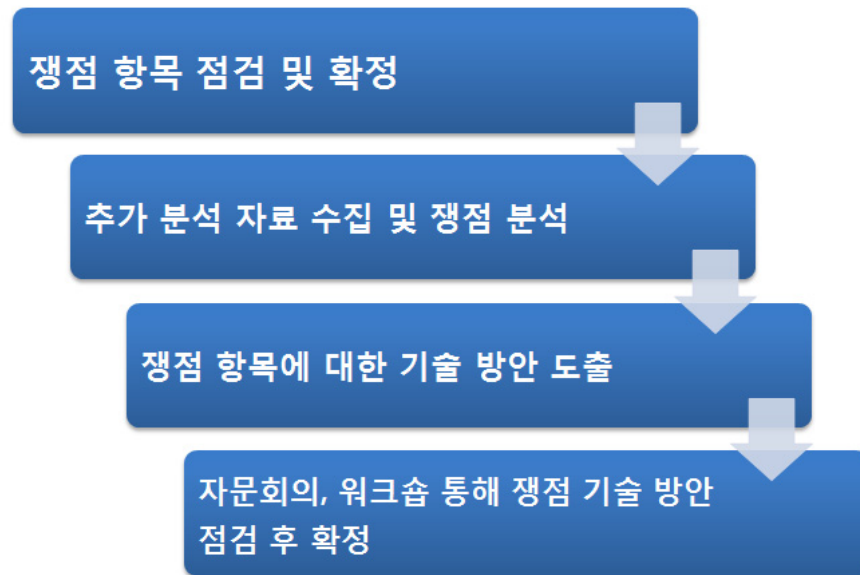
#### ▶ 담화론의 쟁점

○ 담화론 주요 단위의 용어 정비
○ 담화의 기능과 유형
○ 담화의 구조
○ 텍스트성의 구성요소
○ 담화론의 범위
○ 담화론의 체계

위의 국어학 각 영역별 쟁점들은 국어 문법 표준화 작업에서 선결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들의 합리적 기술 방향을 찾아야 표준 국어 문법 체계를 잡고 실제 기술을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표준 국어 문법 기술을 위해 문법 내용 기술 대상으로 선정된 전체 항목 중 30%의 상세범주화에 포함된 쟁점들을 대상으로, 쟁점 항목을 정비하고 상세 분석 후 그 기술 방안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연구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된다.

- 쟁점 항목 점검 및 확정
- 추가 분석 자료 수집 및 쟁점 분석
- 쟁점 항목에 대한 기술 방안 도출

○ 자문회의, 워크숍을 통해 쟁점 기술 방안 점검 후 확정



<그림2-5> 쟁점 상세 분석 및 기술 방안 도출 과정

## 4. 표준적인 문법 용어 권장안 마련

표준화되지 않은 문법 용어는 교육계와 일반 대중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용어의 표준화는 교육 문법, 생활 문법에 기반이 되는 표준 국어 문법 체계 수립에서 필수적이다. 뿐만 아니라 이론 문법의 측면에서 볼 때에도 문법 용어의 표준화는 필요한 작업이다. 다양한 학파와 이론에 따라 문법 용어가 달라 생길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합리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문법 용어의 통일이 필요하다.

문법 용어는 체계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학문적으로 볼 때 문법 용어의 통일은 문법 체계와 마찬가지로 체계성과 정합성을 지녀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한국어 교육과 생활 문법에서는 용어의 체계성과 정합성 못지않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쉽고 평이한 용어의 사용이 중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어 교육에서는 국어학이나 학교 문법에서 자주 사용하는 ‘선행절, 후행절’ 대신 ‘앞절, 뒷절’을, ‘체언’ 대신 ‘명사’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명사’는 체언의 일부이므로 이론 문법이나 학교 문법에서는 잘못된 용어의 사용이지만 ‘체언’이 학습자에게는 생소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워 사용하지 않는다. 즉 때로는 용어 표준화에 있어 서로 다른 입장이 부딪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사용자별 문법의 요구를 아우르고 서로의 요구가 상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합리적인 문법 용어 표준화 방향을 모색하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법 용어의 표준화 작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별도의 ‘문법 용어 표준화 위원회’를 두어 문법 용어 표준화의 원칙을 세우고, 수립한 원칙에 따라 표준적인 문법 용어 권장안을 제시할 것이다. 전체 문법 용어 중에서 문법 내용 기술 대상으로 선정된 항목에 포함된 30% 정도의 문법 용어를 대상으로 권장안을 제시할 것이다. 문법 용어 표준화 작업의 진행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 문법 용어 표준화 원칙 수립
- 표준화 작업 대상 문법 용어 선정 및 비교 분석
- 문법 용어 표준화 안 제시
- 표준화 안에 대한 자문위원회의 검토
- 자문 내용 반영 및 표준화 안 최종 확정



<그림2-6> 문법 용어 표준화 과정

## 5. 영역별 문법 내용 기술

2단계 ‘표준 국어 문법 개발’ 연구에서는 실제 표준 국어 문법 기술이 시작된다. 따라서 1단계에서 제안한 표준 국어 문법 기술을 위한 모형을 점검하고 문법 내용 기술을 위해 모형을 확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1단계에서 제안한 표준 국어 문법 기술 체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는 참조 문법과 기반 문법으로서의 문법을 기술한 ‘핵심 문법 기술부’이고 두 번째는 이를 이론 문법이나 교육 문법, 생활 문법에서 적용할 때 ‘핵심 문법 기술부’의 내용에서 달라지거나 더해지는 내용을 기술한 ‘적용 문법 기술부’이다. ‘핵심 문법 기술부’와 ‘적용 문법 기술부’는 각각 별개의 체계를 가질 수 있고 별도의 결과물로 활용할 수 있다.

‘핵심 문법 기술부’는 말 그대로 문법 표준화의 핵심 부분으로 표준 국어 문법에서의 입장을 제시하는 부분이다. 일반 문법 개론서와 같이 해당 항목에 대한 정의와 표준 국어 문법에서의 입장을 예와 함께 제시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기술하는 방식을 취한다. ‘핵심 문법 기술부’의 내용은 단순하고 명료하게 기술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과정을 보여 주는 논쟁의 내용은 ‘적용 문법 기술부’의 이론 문법 항목에서 기술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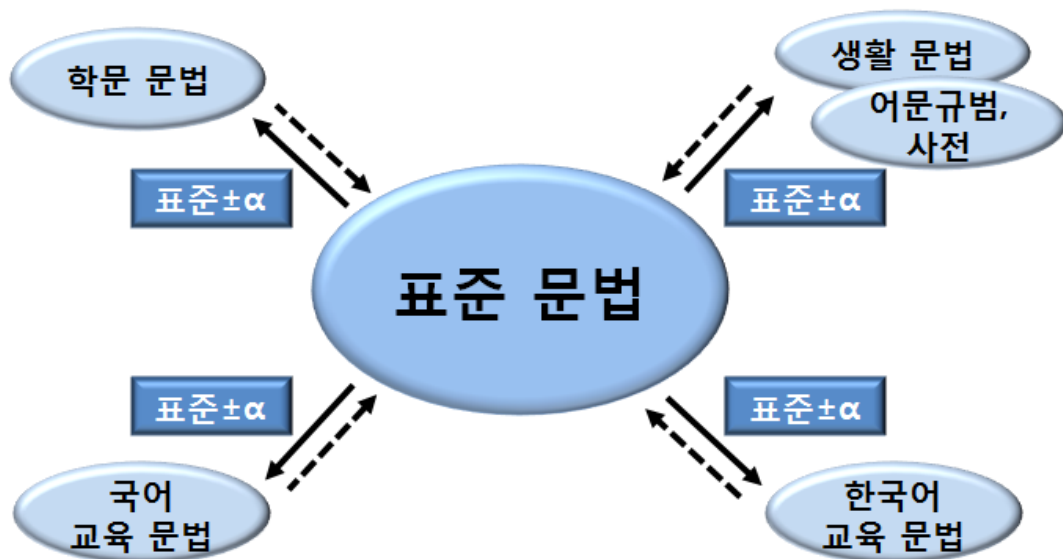
‘핵심 문법 기술부’가 표준화한 문법을 보여 주는 부분이라면, ‘적용 문법 기술부’는 표준 문법을 여타의 문법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보이는 부분이다. ‘적용 문법 기술부’ 중 ‘이론 문법’에서는 항목의 성격에 따라 선행 연구사를 정리하거나 해당 주제에 대한 핵심적인 논의를 소개하고 그 중 핵심 문법 기술부의 기술이 어떤 근거로 이루어졌는지 설명한다. 그럼에도 남은 문제는 앞으로의 연구거리로 남긴다.

교육 문법 항목에서는 현행 국어 교육 문법이나 한국어 교육 문법의 체계 설정과 관련된 내용과 교사가 학습 자료로 사용하거나 해당 항목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다. 전자의 내용이 해당 사용자 문법의 체계와 관련된 다소 학문적 내용이라면 후자는 학습자나 교수자를 위한 것이다. 국어 교육 문법이나 한국어 교육 문법의 체계와 핵심 문법 기술부의 체계를 비교할 때는 최대한 핵심 문법 기술부나 이론 문법 항목에서 기술한 것과 겹치지 않도록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의 내용과 목적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학습자를 위해 제시하는 내용은 별도의 약물과 함께 기술할 수도 있다. 실제 기술에서 국어 교육 문법의 내용과 한국어 교육의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개념 지도와 학습자들이 자주 혼동하는 내용에 대한 자세하고 쉬운 문법 기술이 들어갈 수 있다.

생활 문법은 일반인들이 언어생활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언어 규범과 관련하여 자주 발생하는 오류나 문법에 대해 일반인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다룰 수 있다. 생활 문법의 내용은 문법의 체계를 중시하는 학문적인 것에 초점이 있지 않으므로 일반인들을 위하여 최대한 쉽고 간결하게 기술한다. 설명하면서 사전이

나 규범의 내용을 참조해야 할 경우 사전의 내용을 그대로 보이기보다 괄호 안에 ‘어문 규정 몇 항’ 혹은 ‘사전의 표제어 oo 등 참조’와 같이 간략하게 제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생활 문법 내용의 기술 시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의 온라인국어생활종합상담 게시판에서 일반인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 무엇인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기술 체계를 바탕으로 표준 국어 문법의 여타의 문법과의 관계를 보이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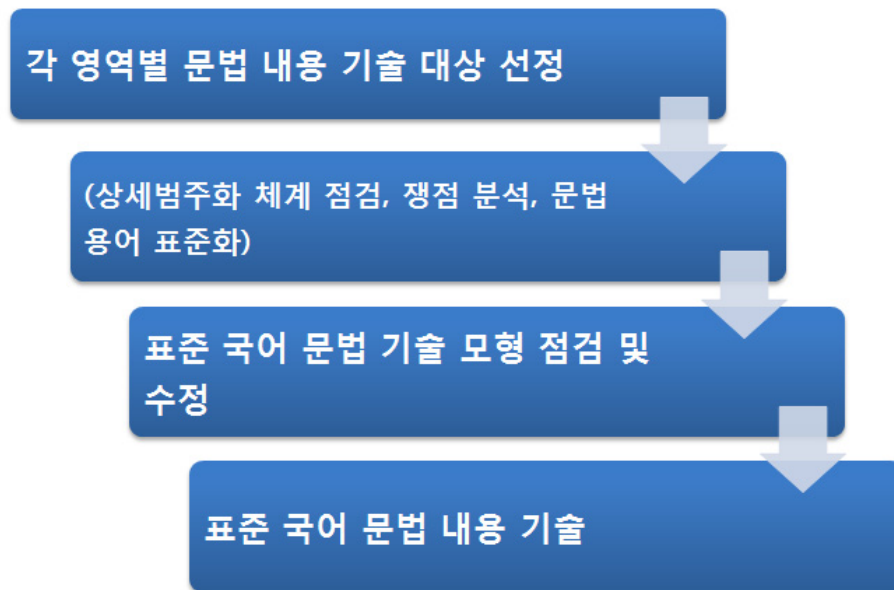
<그림2-7> 표준 국어 문법의 역할

1단계에서 제시한 이러한 기술 체계는 참조 문법이자 기반 문법의 기능을 하는 표준 국어 문법의 개념과 성격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2단계에서는 이러한 기술 체계를 계승하되 기술의 편의성과 표준 국어 문법 기술 완성 이후에 웹서비스로 콘텐츠를 제공할 것을 염두에 두고 기술 모형을 다소 수정할 것이다.

2단계의 ‘표준 국어 문법 개발’ 연구에서는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담화론 각 영역별로 전체 문법 기술의 30% 정도를 기술한다. 각 영역별 문법 내용 기술은 ‘표준 국어 문법 개발’ 프로젝트의 중요 과업인 ‘상세범주화 체계 점검’, ‘쟁점 상세 분석’, ‘문법 용어 표준화’를 전제한다. 즉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담화론 각 영역의 내용을 실제 기술하려면 이들 주요 과업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연구 과정을 보이면 아래와 같다.

- 각 영역별 문법 내용 기술 대상 선정
- 표준 국어 문법 기술 모형 점검 및 수정

○ 표준 국어 문법 내용 기술



<그림2-8> 각 영역별 문법 내용 기술 과정

## 6. 웹서비스를 고려한 표준 국어 문법 기술안 설계

표준 국어 문법의 최종 결과물은 인쇄물 형태와 함께 웹서비스를 병행할 예정이므로 표준 국어 문법을 기술할 때 웹서비스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고려해야 한다. 그에 앞서 여기에서는 표준 국어 문법의 웹서비스가 어떤 점에서 필요한지 그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 ○ 파급 효과 극대화

표준 국어 문법 개발은 일반 언중과 국어 교육, 한국어 교육에서 기준으로 삼을 문법을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향후 표준 국어 문법 개발 연구가 끝나고 완성될 표준 국어 문법은 여타의 문법을 개발하는 데 근간이 될 것이다. 또한 표준 국어 문법은 영어, 일어, 중국어 등으로 번역되어 국외에 보급용으로 제시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표준 국어 문법의 위상을 생각할 때 보급 방법을 용이하게 하여 파급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인쇄물의 형태로만 표준 국어 문법을 제공하면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므로 누구나 표준 국어 문법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면 웹서비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 여타의 국어 관련 연구 프로젝트와의 연계성 고려

표준 국어 문법은 국가 어문 정책 차원에서의 국어 문법 표준화 작업의 결과물이며, 여타 문법 개발의 근간이 되므로 다른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하는 국어 관련 프로젝트와 연계성을 가진다. 규범 사전은 『표준 국어 대사전』뿐만 아니라 표준적인 문법 체계와 설명을 제공하는 표준 국어 문법과도 연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또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표준 발음 및 화법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나 한국어 교육 문법, 표현 내용 개발 연구 등의 사업도 표준 국어 문법과 서로 연계될 수밖에 없다. 그 외에도 국립국어원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온라인 국어생활 종합 상담의 경우에도 답변의 근거로 표준 국어 문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표준 국어 문법은 타 연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일종의 허브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표준 국어 문법의 타 연구와의 연계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표준 국어 문법을 웹서비스하여 접근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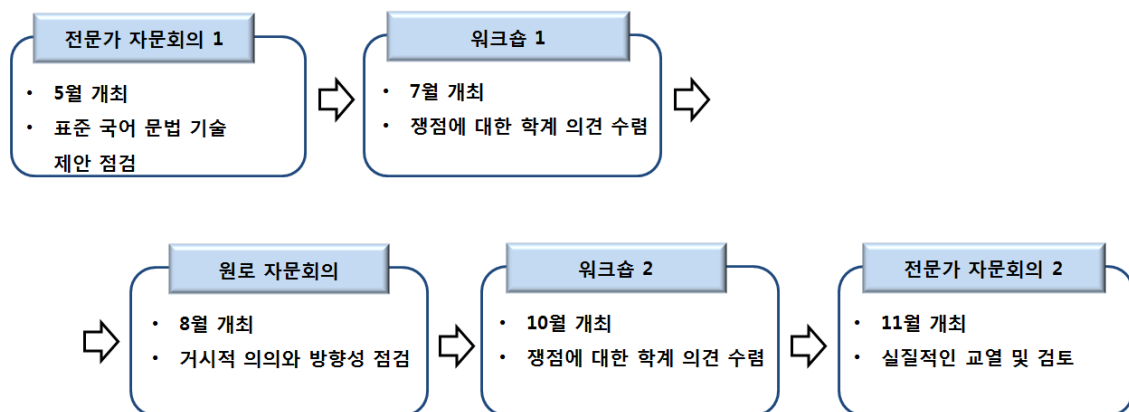
### ○ 문법 용어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표준 국어 문법 개발을 진행하면서 문법 용어 표준화 작업이 병행되는데 표준화된 문법 용어는 단계별 결과물이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구축되어 웹서비스될 것이다. 문법 용어 데이터베이스는 기존의 전문 용어 데이터베이스의 일부로 변환되거나 별도의 결과물로 연동될 수 있다. 이러한 문법 용어 데이터베이스를 웹상에서 서비스하게 되면 학계, 교육계, 언론 출판계 등 여러 분야에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국내뿐 아니라 국외 연구자나 교육자들에게도 필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7. 학계 의견 수렴 - 자문회의, 워크숍 개최

국가적 차원에서 문법을 표준화하는 작업은 그 개념 설정과 성격 규정에서부터 실제 문법 지식을 선정하여 상세범주화하고, 쟁점에 대한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용어를 표준화하고, 실제 기술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학계의 여러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를 진행하는 중에 나오는 결과물에 대해 자문회의와 워크숍을 통해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객관성을 확보하고, 연구 결과물에 대한 수정·보완 작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자문회의는 문법 기술 결과물의 교열과 검토를 중심으로, 워크숍은 발굴된 쟁점을 주제로 하여 진행된다. 워크숍은 7월과 10월 2회에 걸쳐 진행되며 7월의 워크숍은 상반기에 문법 내용 기술 과정에서 도출된 쟁점들에 대하여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10월의 워크숍은 하반기 문법 내용 기술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원로 자문회의 1회, 전문가 자문회의 2회 등 총 3회의 자문회의가 마련되어 있다. 원로 자문회의에서는 표준 국어 문법 개발의 의의와 방향성에 대한 거시적인 자문을 받고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는 문법 기술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교열 및 검토를 한다.



<그림2-9> 자문회의와 워크숍 일정

### Ⅲ. 연구 추진 결과

#### 1. 문법 지식 세부 항목의 상세범주화 및 위계화 점검

##### 1.1. 상세범주화 체계 정비 기준 마련

표준 국어 문법 개발 기초 연구에서 제시한 상세범주화 체계를 점검하려면 먼저 상세범주화 체계 정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체계의 정합성과 문법 지식 항목의 위계화의 관점에서 정비 기준을 수립하고자 한다.

###### ○ 체계의 정합성 기준 확립

문법 지식 항목 간 정합성(문법 지식 항목이 서로 중복되거나 누락된 것은 없는지 점검), 문법 용어 사용의 정합성(상세범주화에 사용된 문법 용어가 통일성이 있는지 점검) 등의 정합성 기준을 확립한다.

###### ○ 문법 지식 항목의 위계화 기준 확립

난이도, 전형성 정도 등의 위계화 기준을 확립하고, 이들 기준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여 적용 순서를 제시한다. 다른 문법 항목에 대한 기반 지식이 필요한 문법 지식과 그렇지 않은 문법 지식이 있다면 후자가 먼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형성이 높은 문법 지식을 먼저 제시하고 주변적이고 특이한 현상을 보이는 문법 지식은 뒤에 제시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시제 체계를 제시할 때는 난이도가 낮은 단문의 시제가 복문의 시제보다 먼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 단문의 시제를 제시한다고 할 때 가령 시제 체계를 삼분하여 ‘-었-’을 과거 시제로 본다면 ‘-었-’이 비과거시제문에 나오는 현상에 대한 문법 지식은 전형성이 떨어지므로 뒤에 제시해야 할 것이다.

##### 1.2. 상세범주화 체계의 거시적 점검

상세범주화 체계 점검 기준을 바탕으로 상세범주화 체계를 거시적으로 점검한다. 국어학의 각 영역 간의 체계 정합성을 점검하고, 국어학 각 영역별 대범주 체계의 정합성과 위계화를 점검한다.

###### ○ 국어학 각 영역 간의 체계 정합성 점검

총론, 음운, 형태, 통사, 담화 간 서로 겹치는 내용이나 누락된 내용이 없는지 점검한다. 예를 들어 통사론에서 ‘문장의 구성 단위’에서도, 담화론의 ‘담화의 개념과 정

의’에서도 ‘문장’의 개념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이때 그 내용이 잉여적으로 겹친다면 한 영역에서만 기술하는 것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기술의 관점에 차이가 있다면 그대로 기술할 수 있으나 이때는 ‘문장’의 개념 규정을 통일성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즉, 상세범주화 전체 체계상에서 기술 내용이 서로 겹치지 않게 조정해야 할 것이다.

#### ○ 국어학 각 영역별 대범주 체계의 정합성과 위계화 점검

총론, 음운, 형태, 통사, 담화 내에서 각 대범주 간 서로 겹치는 내용이나 누락된 내용이 없는지 점검한다. 대범주 제시가 위계화 기준에 적합한지 점검한다. 예를 들어, 담화론의 대범주인 ‘담화의 구조’와 ‘담화의 표지’는 서로 관련이 있다. ‘담화의 표지’ 내에 ‘담화의 구조 표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담화 표지들은 ‘담화의 구조’에서 다루고 있는 담화의 속성들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범주의 내용이 중복적으로 서술될 가능성은 없는지 확인하고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 1.3. 상세범주화 체계의 미시적 점검

상세범주화 체계 점검 기준을 바탕으로 상세범주화 체계를 미시적으로 점검한다. 상세범주화의 미시적 체계는 실제 문법 내용 기술을 하면서 변동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2단계 연구에서 상세범주화 체계의 전 범위에 걸쳐서 미시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향후 3단계, 4단계에 문법 내용을 기술하면서 해당 상세범주화 체계는 계속 재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2단계에서의 미시적 체계 점검은 2단계에서 기술할 표준 국어 문법 내용 기술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국어학 각 영역별 중범주 이하 체계 정합성과 위계화 점검

각 항목 간 서로 겹치거나 누락된 것이 없는지 확인한다. 이 작업은 문법 기술의 쟁점 기술 방안 도출, 문법 용어 표준화 안 제시와 밀접한 관련을 맺으므로 이 연구를 토대로 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또 상세범주화 체계 정합성과 관련된 쟁점이 있다면 그 항목을 점검하고 쟁점 기술 방안을 토대로 하여 결정한 후 상세범주화 체계 정합성 점검을 진행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통사론의 ‘단문의 구조’는 ‘문장 성분의 개념’, ‘문장 성분 하위 범주’,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으로 하위범주화되어 있다. 이때 ‘문장 성분의 개념’과 ‘문장 성분의 하위 범주’, 그리고 ‘문장 성분의 개념’과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의 내용이 서로 겹치지 않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미시적으로 검토할 상세범주화 체계는 2단계 표준 국어 문법 개발 연구에서 문법 내용 기술 대상으로 선정된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 총론 상세범주화 체계(2단계 기술 부분)

중범주	세부 항목(내용)
한국어의 특징	한국어의 유형론적 특징
	한국어의 음운적 특징
	한국어의 형태적 특징
	한국어의 통사적 특징
	세계 속의 한국어

▶ 음운론 상세범주화 체계(2단계 기술 부분)

대범주	중범주	세부 항목(내용)
음운론의 단위	음성	말소리의 생성
		이음
	음소	자음
		모음
		반모음
		이중모음
	운소	음장
		억양
		휴지
	음절	

▶ 형태론 상세범주화 체계(2단계 기술 부분)

대범주	중범주	세부 항목(내용)
형태소와 단어	형태소	형태소의 정의
		변이형태와 대표형태: 상보적 분포, 가상적(이론적) 대표형태, 음운론적 변이형태, 형태론적 변이형태, 문법적 변이형태
		형태소의 하위 유형, 유일형태소(불구형태소)
		형태소 분석의 실제, 형태소 분석의 문제
	단어	단어의 정의: 언어형식, 자립형식, 구속형식, 직접성분, 최소자립형식, 휴지, 분리성
		단어의 식별원리, 확대의 원리, 대치의 원리
		단어와 형태소의 차이
단어 형성	단어의 종류	단일어, 파생어, 합성어, 복합어, 어간, 어미, 어근, 어기, 접사, 어근의 규칙성과 불규칙성

▶ 통사론 상세범주화 체계(2단계 기술 부분)

대범주	중범주	세부 항목(내용)
문장의 구성 단위	어절	어절의 정의
	구	구의 정의, 구와 절의 구별
	절	절의 정의
	문장	문장의 정의, 문장의 종류
문장의 구조	단문의 구조	문장 성분의 개념
		문장 성분 하위범주
		주성분: 주어(개념, 성립, 통사적 특징, 생략, 무주어문, 이중주어문), 목적어(개념, 성립, 생략, 이중목적어문), 서술어(개념, 성립, 자릿수, 선택제약, 생략), 보어(개념, 성립, 생략, 문제점)
		부속 성분: 관형어(개념, 성립, 어순, 특징), 부사어(개념, 성립, 특징)
		독립성분: 독립어(개념, 성립, 특징)

▶ 담화론 상세범주화 체계(2단계 기술 부분)

대범주	중범주	세부 항목(내용)
담화의 개념과 구성	담화의 개념	담화의 정의
		담화와 문장
		담화와 문단
	담화의 구성	담화의 구성단위
		담화의 구성 요소

본 연구에서는 위의 상세범주화 체계를 대상으로 정합성과 위계화를 미시적으로 점검할 것이다.

## 1.4. 상세범주화 체계 제시

이상의 상세범주화 체계 점검 기준에 따라 수정된 상세범주화 체계를 제시하고 자문위원의 자문을 거쳐 수정·보완하여 확정된 최종안을 수립한다.

현재까지 진행된 상세범주화 체계 점검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총론 상세범주화 체계(수정)(2단계 기술 부분)

중범주	세부 항목(내용)
한국어의 특징	한국어의 유형론적 특징
	한국어의 음운적 특징
	한국어의 형태적 특징
	한국어의 통사적 특징
	세계 속의 한국어

▶ 음운론 상세범주화 체계(수정)(2단계 기술 부분)

대범주	중범주	세부 항목(내용)
음운론의 단위	말소리	말소리의 생성
		음성과 음운
	자음	자음의 개념
		자음 목록
		자음의 분류 기준
		자음 체계
	모음	모음의 개념
		단모음
		반모음
		이중 모음
	음장	음장의 정의
		음장의 변별력
		장음의 실현 위치
		용언 어간의 음장 변동
		보상적 장음화
		파생어와 합성어의 음장 변화
		표현적 장음
	휴지	휴지의 정의
		휴지의 생리적 기능
		휴지의 음성학적·음운론적 역할
		휴지와 의미·통사 정보
	억양	억양의 정의
		억양의 일반적 유형
		문말 억양
	음절	음절의 정의
		음절의 구조와 유형
		음절화
		음절 실현에 대한 제약

음운론의 상세범주화 체계에서 수정이 이루어진 부분은 반모음, 이중모음을 단일화하여 하나의 세부항목으로 설정한 것이다. 기존에 설정하였던 체계에서는 모음, 반모음과 이중모음을 서로 개별 항목으로 보았으나, 기술의 측면에서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정을 하게 되었다. 특히 이중모음은 반모음과 모음의 결합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모음과 반모음에 대한 설명이 선행되면 이중모음에서는 해당되는 내용을 이중적으로 설명하게 되므로,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모음이라는 범주 아래에서 단모음, 반모음, 이중모음을 절을 나누어 기술하는 형식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모음, 자음’을 각각 ‘모음 체계, 자음 체계’로 수정하여 자음과 모음이 음운론적으로 체계를 이루어 존재함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아울러 ‘이음’으로 명명하였던 세부내용을 ‘음성과 음운’으로 수정하여, 음성과 음운의 관계를 통해 이음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도록 수정하였다. 또한 중범주 ‘운소’의 하위 내용으로 휴지, 억양, 음장 등을 배치하였던 기존 체계에서, ‘휴지, 억양, 음장’을 각각의 중범주 요소로 설명하였다. 이는 추후 체계를 재정비할 때에 구성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 형태론 상세범주화 체계(수정)(2단계 기술 부분)

대범주	중범주	세부 항목(내용)
형태소와 단어	형태소	형태소의 정의
		이형태와 기본형
		형태소의 하위 유형
		형태소 분석
	단어	단어의 정의
		단어의 구조
		단어 구성 요소의 구분
		단어의 유형

형태론의 상세범주화 체계에서 수정이 이루어진 부분은 세부 항목이 삭제되거나 추가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기존에 설정했던 상세범주화 체계에서 ‘단어와 형태소의 차이’와 ‘유일형태소(불구형태소)’ 등은 세부 항목에서 삭제하여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단어와 형태소의 차이’는 형태소와 단어를 정의하는 부분에서 다루어지므로 세부 항목으로 설정하여 드러낼 필요가 없었으며, ‘유일형태소(불구형태소)’ 역시 ‘형태소 분석’에서 다루어지므로 굳이 세부 항목 제목으로 하지 않았다. 둘째, ‘단어의 식별 원리’, ‘확대의 원리’, ‘대치의 원리’ 등은 지금까지 학계에서 축적된 연구가 많지 않으므로 따로 세부 항목을 두지 않고 ‘단어의 정의’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었다. 셋째, 문장의 구조가 중요하듯 단어의 구조를 기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단어의 구조’를 새로이 추가하였다. 여기에서는 단어 구조의 개념과 직접 구성 요소 등을 활용한 실제 단어 구조 분석을 다루게 된다. 넷째, ‘단어의 종류’는 ‘단어 구성 요소’와 ‘단어의 유형’으로 나누어 중범주 ‘단어’의 세부 항목으로 옮겨 기술하였다. 이는

단어 분석 측면에서의 단어 구성 요소와 단어 형성 측면에서의 단어 형성 요소가 구별되고, 단어의 유형(단일어, 복합어, 파생어, 합성어 등) 또한 단어 분석 측면에서도 유의미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변이형태와 대표형태’는 ‘이형태와 기본형’으로 용어를 약간 바꾸어서 기술하였다. 여섯째, ‘단어 형성’은 다음 단계에서 기술할 예정이므로 이번 단계 상세범주화 체계에서는 삭제하였다.

▶ 통사론 상세범주화 체계(수정)(2단계 기술 부분)

대범주	중범주	세부 항목(내용)
문장을 구성하는 문법 단위	문장의 구성 단위	
	단어	
	구	구의 정의, 구와 절의 구별
	절	절의 정의
	문장	문장 성립의 필요충분조건은 ‘외적 독립’
		‘외적 독립성’의 확인과 문장의 규정
문장의 구조	단문의 구조: 문장 성분	통사론의 대상로서의 ‘문장’의 범위
		문장 성분의 개념과 종류
		문장 성분의 분석
		문장 성분

통사론의 기술에서는 상세범주화 체계의 수정 없이 기존과 동일한 체계로 기술이 되었다. 일부 제목이나 용어의 수정만 이루어졌다.

▶ 담화론 상세범주화 체계(수정)(2단계 기술 부분)

대범주	중범주	세부 항목(내용)
담화의 성립과 구성	담화의 성립	담화의 개념
		담화와 언어 단위
	담화의 단위	담화와 발화
		담화의 하위 단위
	담화의 구성 요소	담화 구성 요소와 전달 매체
		담화 참여자
		발화 의도(메시지)
		맥락

제안 단계에서는 중범주를 ‘담화의 개념’과 ‘담화의 구성’으로 나누었으나, 담화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담화의 구성 단위가 여타의 언어 단위와 어떻게 변별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중범주에 ‘담화의 단위’를 추가하고, 이에 따라 세부 항목을 조정하였다. 먼저 첫 번째 중범주인 ‘담화의 개념’ 아래에

는 담화의 기본 개념, 담화와 언어 단위 비교를 설정하였다. 기존에 세부 항목으로 설정된 ‘담화와 문장’은 ‘담화와 언어 단위’에 포함되었으며, 여기서는 문장 외에 형태소, 단어 등의 언어 단위와 담화의 차이를 논의하였다. 두 번째 중범주 ‘담화의 단위’에서는 담화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로서 발화를 설명하고, 또 다른 의사소통 단위로서 문단, 단락이 각각 담화와 어떻게 변별되는지 살펴보았다. 이전 상세범주화에서 제시되었던 ‘담화와 문단’, ‘담화의 구성 단위’는 모두 ‘담화의 단위’로 포괄된다. 세 번째 중범주 ‘담화의 구성’에서는 담화의 세부 구성 요소로 전달 매체, 참여자, 메시지, 맥락을 상정하였다. 이들 요소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담화론의 전반적인 성격과 범위를 보다 분명하게 규정하고자 하였다.

## 2. 문법 기술의 쟁점 상세 분석 및 기술 방안

### 2.1. 쟁점 항목 점검 및 확정

1단계에서 제시된 쟁점 중 문법 내용 기술 대상 항목과 관련된 쟁점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들 쟁점 항목을 점검하여 더 추가할 것이나 상세 항목으로 나눌 것을 선정하는 등 쟁점 항목을 검토 및 수정하여 분석 대상 쟁점 항목을 확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설정한 쟁점을 일부 수정하였다. 실제 문법 기술과 논문 분석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상세범주화 체계에 맞추어 쟁점을 다시 설정하였다. 영역별로 쟁점 항목의 변동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 ▶ 음운론 쟁점 항목(2단계)

		공통	수정	
기존 쟁점 항목		○ 반모음 /ɥ/의 음소 설정 ○ /의/의 음운 체계상의 지위 ○ 치조음과 경구개음의 분류 방식		
수정 쟁점 항목 <td>삭제</td> <td>○ 단모음 개수 ○ 장단의 음운론적 변별력에 대한 기술 차이</td>			삭제	○ 단모음 개수 ○ 장단의 음운론적 변별력에 대한 기술 차이
			추가	○ 반모음의 모음적 성격 ○ ‘파열음’과 ‘폐쇄음’의 용어 사용 문제 ○ ‘ㅎ’의 분석: 평음 혹은 유기음

<표3-1> 기존 쟁점 항목과 수정 쟁점 항목-음운론

기존에는 ‘매개모음 ‘으’의 해석’, ‘불규칙 활용의 기저형 설정’을 쟁점으로 설정하였으나 이는 삭제하였다. 1단계 상세범주화 체계를 수립할 때에는 ‘기저형’이 ‘음운론의 단위’에 포함되었으나 이후 삭제되었다. 이는 ‘기저형’은 음운론의 기술 대상이 되는 것은 하나, 다른 ‘음소, 음절’ 등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이론적인 단위에 가깝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용어 사용과 관련하여 ‘파열음’과 ‘폐쇄음’ 중 어떤 용어를 사용할지가 음운론 문법 기술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었기에 이를 쟁점으로 보고 정리하였다. ‘파찰음’과 구별하기 위해 ‘파열음’이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가 많으나, ‘평폐쇄음화’ 등의 용어와의 통일성을 고려한다면 다소 재고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치조음’과

‘경구개음’의 분류, ‘ㅎ’을 ‘평음’으로 볼 것인지 ‘유기음’으로 볼 것인지가 부분적으로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보아 해당 내용을 추가하였다.

▶ 형태론 쟁점 항목(2단계)

기존 쟁점 항목	공통	수정	
		삭제	추가
수정 쟁점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자어 분석</li> <li>○ 조사와 어미의 지위</li> <li>○ ‘해돋이’류의 분석</li> <li>○ 단어 구성 요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태소 분류의 기준</li> <li>○ 단어의 분류</li> <li>○ 한자어 조어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태소의 정의</li> <li>○ 이형태와 기본형</li> <li>○ 형태소의 하위 유형</li> <li>○ 형태소 분석의 문제</li> <li>○ 단어의 정의</li> <li>○ 단어의 구조</li> </ul>

<표3-2> 기존 쟁점 항목과 수정 쟁점 항목-형태론

기존의 쟁점 항목 가운데 ‘한자어 분석’, ‘조사와 어미의 지위’, ‘해돋이’류의 분석’, ‘단어 구성 요소’는 그대로 두고, 일부 쟁점 항목을 삭제하고 추가했다. 기존의 쟁점 항목 가운데 ‘형태소 분류의 기준’, ‘단어의 분류’ 그 자체는 큰 이견이 없는 것들이어서 삭제했고, ‘한자어 조어법’은 3단계 기술 대상인 ‘단어 형성’ 부분에서 다루어질 성격의 것이어서 삭제했다. 새롭게 추가된 쟁점 항목은 ‘형태소의 정의’, ‘이형태와 기본형’, ‘형태소의 하위 유형’, ‘형태소 분석의 문제’와 ‘단어의 정의’, ‘단어의 구조’이다. ‘형태소의 정의’는 ‘최소의 유의미적 단위’라는 정의와 상보적 분포나 배타적 분포와 같은 개념들이 문제가 되어 필요한 쟁점이고, ‘이형태와 기본형’은 이형태 교체의 조건이나 기본형 설정 문제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추가하였다. ‘형태소의 하위 유형’은 자립성과 의미의 허실 등을 기준으로 하여 분류하는 기존의 형태소 유형 분류에 대해 생각해 볼 점이 있어 추가하였고, ‘형태소 분석의 문제’는 ‘오솔길, 지붕, 무덤, 주무시다, 계시다, 새롭다’ 등의 단어들과 관련하여 유일형태소의 문제, 형태소 분석의 공시성과 통시성 문제, 분포 문제 등을 다루기 위하여 새롭게 추가했다. 그리고 ‘단어의 정의’는 단어를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음운론적 단어, 형태론적 단어, 통사론적 단어 등을 구별하기도 하는 점을 반영하여 새롭게 추가했다. 마지막으로 ‘단어의 구조’는 상세범주화 체계가 추가된 관계로 쟁점에서도 새롭게 추가하여 다루기로 하였다.

▶ 통사론 쟁점 항목(2단계)

	공통	수정	
기존 쟁점 항목			
수정 쟁점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중주어문에 대한 해석</li> <li>○ 이중목적어문의 해석</li> <li>○ 보어의 범위와 필수적 부사어</li> </ul>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절의 정의</li> <li>○ 구와 절의 정의, 구와 절의 구별</li> <li>○ 문장의 정의와 종류</li> <li>○ 비주격 주어의 문제</li> </ul>

<표3-3> 기존 쟁점 항목과 수정 쟁점 항목-통사론

통사론의 경우 기존의 쟁점 분석에서는 문장의 구성 단위보다 문장의 구조를 중심으로 쟁점이 설정되었다. 그간 국어학계나 국어교육학, 한국어교육학계에서는 문법 단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보다 기존의 기술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논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문법 기술이 시작되기 이전에 도출된 쟁점에서 문법 단위는 배제되어 있었다. 그러나 표준 국어 문법의 기술에서는 기존의 논의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문법 기술의 기초가 되는 문법 단위부터 다시금 점검하고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상세범주화 체계에 제시된 세부 항목을 중심으로 ‘어절의 정의’, ‘구와 절의 정의, 구와 절의 구별’, ‘문장의 정의와 종류’를 쟁점으로 추가했다. 문장의 구성 단위에 대한 기초적인 논의 이후에는 문장의 구조를 논하는 것이 순서이므로, 1단계에서 문장의 구조와 관련한 쟁점 목록으로 설정했던 것들을 다시금 쟁점으로 정했다. 이 과정에서 문장 성분과 관련한 쟁점들이 분석되었고, 기존에 쟁점 목록에 없었던 ‘비주격 주어의 문제’가 추가되었다. 또 ‘보어의 범위’와 ‘필수적 부사어’는 별개의 쟁점으로 설정되어 있던 것인데, 보어와 필수적 부사어의 관계가 긴밀하여 함께 논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하나의 쟁점으로 수정했다. 본래 쟁점으로 들어가 있었던 ‘문장 성분과 격체계의 대응’은 통사론 전반과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미시적인 쟁점으로 분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제외했다.

▶ 담화론 쟁점 항목(2단계)

기존 쟁점 항목	○ 담화론 주요 단위의 용어 정비
추가 쟁점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화의 개념</li> <li>○ 담화 교육</li> </ul>

<표3-4> 기존 쟁점 항목과 수정 쟁점 항목-담화론

2차년도 기술 범위에 해당하는 쟁점 목록은 ‘담화론 주요 단위의 용어 정비’가 있으나, 이는 담화론의 전 영역 기술에 있어서 문법 용어 정비 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단

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석 대상으로 삼는 대신 잠정적인 쟁점 항목으로 남겨 두었다. 대신 추가된 쟁점 항목은 ‘담화의 개념’으로 국내에서 이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는바 담화의 개념 기술에 앞서 이를 정리하고 살필 필요가 있었다. 또한 ‘담화 교육’을 쟁점 항목으로 추가하여서, 특히 국어교육 분야에서 수행되는 담화 교육을 점검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담화론의 성격과 범위를 구체화시켜 나가고자 하였다. 따라서 2차년도 담화론의 쟁점 항목은 아래와 같다.

## 2.2. 추가 분석 자료 수집 및 분석

1단계의 쟁점 분석은 주로 국어학 개론류나 교과서, 문법론 등의 문법서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1단계에서 분석한 문법서는 각각 나름의 문법 체계를 갖춘 문법서들로서 주요 이론 문법적 시각은 물론 국어 교육 혹은 한국어 교육적 시각을 반영한다. 따라서 위의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쟁점을 발굴하고 해당 쟁점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문법서 분석만으로는 해당 쟁점에 대한 더 깊이 있는 다양한 시각에서의 분석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위의 문법서 분석 외에 해당 쟁점에 대한 주요 논문이나 저서를 참고 자료로 선정하여 추가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1단계에서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각 쟁점에 대한 주요 논문이나 저서를 수집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쟁점을 더 상세하게 분석할 것이다. 즉, 한 쟁점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몇 가지로 분류하여 분석하고, 이 중 국어 교육과 한국어 교육에서의 관점은 무엇인지 확인한다. 또한 각 관점의 설명상의 장단점을 분석한다.

영역별 쟁점 목록을 정리하여 보이면 다음과 같다.<sup>1)</sup>

### ▶ 음운론 쟁점 목록(2단계)

- |  |
|--|
| (1) 반모음 /ɥ/의 음소 설정<br>(2) /의/의 음운 체계상의 지위<br>(3) 반모음의 모음적 성격<br>(4) 치조음과 경구개음의 분류 방식<br>(5) ‘파열음’과 ‘폐쇄음’의 용어 사용 문제<br>(6) ‘ㅎ’의 분석: 평음 혹은 유기음 |
|--|

### ▶ 형태론 쟁점 목록(2단계)

- |                           |
|---------------------------|
| (1) 형태소의 정의<br>(2) 한자어 분석 |
|---------------------------|

1) 영역별 쟁점 분석 자료 목록 및 실제 분석 내용은 별첨 CD의 [부록1]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
|----------------|
| (3) 이형태와 기본형   |
| (4) 형태소의 하위 유형 |
| (5) 형태소 분석의 문제 |
| (6) 단어의 정의     |
| (7) 조사와 어미의 지위 |
| (8) 단어의 구조     |
| (9) ‘해돋이’류의 분석 |
| (10) 단어 구성 요소  |

▶ 통사론 쟁점 목록(2단계)

- |                        |
|------------------------|
| (1) 어절의 정의             |
| (2) 구와 절의 정의, 구와 절의 구별 |
| (3) 문장의 정의와 종류         |
| (4) 이중주어문에 대한 해석       |
| (5) 이중목적어문의 해석         |
| (6) 비주격 주어의 문제         |
| (7) 보어의 범위와 필수적 부사어    |

▶ 담화론 쟁점 목록(2단계)

- |            |
|------------|
| (1) 담화의 개념 |
| (2) 담화 교육  |

## 2.3. 쟁점 항목에 대한 기술 방안 도출

표준 국어 문법은 참조 문법, 기반 문법으로서 단순성, 범용성, 보편성, 개방성을 지녀야 하며 표준 국어 문법을 기술할 때는 정합성을 갖춘 체계, 일관성 있는 기술, 표준화된 용어의 사용, 실제적인 언어 자료 활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 쟁점을 분석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사항들이 반영되어야 하며 또한 쟁점 분석의 내용은 실제 문법 기술에 활용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쟁점을 분석하고 기술할 때 중요한 미시적 사항은 첫째, 해당 주제에 대한 참고 문헌을 합리적으로 선정하고 둘째, 단순히 논문별로 나열하기보다는 논점별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용어 표준화를 염두에 두고 쟁점을 기술해야 한다.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 수정 및 보완이 될 수 있지만 잠정적으로 쟁점 기술 방안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 표준 국어 문법의 개념, 성격, 기술의 원칙에 따른 분석
- 실제 문법 기술에 활용될 수 있는 분석
- 합리적인 참고 문헌 선정
- 논점별 정리
- 용어 표준화 고려

## 2.4. 자문회의, 워크숍을 통한 기술 방안 수정·보완 후 확정

이번 2단계에서는 3회의 자문회의(원로 자문회의와 전문가 자문회의)와 2회의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자문회의에서는 주로 표준 국어 문법이 학교 문법, 한국어 교육과의 연계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워크숍에서는 문법 단위와 각 영역별 기술에 대해 논의했던 만큼 각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많았다. 따라서 실제적인 문법 기술에 앞서 쟁점 분석에서 참고 문헌을 선정할 때는 국어 교육과 한국어 교육에서 해당 주제를 어떤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지도 아울러 고려할 필요가 있고 실제 쟁점을 기술할 때는 영역 간 혹은 영역별로 단위들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고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 등을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 3. 표준적인 문법 용어 권장안

#### 3.1. 문법 용어 표준화 원칙 수립

문법 용어는 문법 체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따라서 문법 용어는 학문적으로는 체계의 정합성을 가져야 한다. 동시에 한국어 교육과 생활 문법 등을 고려했을 때는 사용의 용이성, 직관에 부합하는 용어로 표준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어 교육과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도 표준화된 문법의 체계와 용어의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렇게 용어 표준화에 대한 서로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도 합리적 용어 표준화 방향을 지향할 수 있도록, 문법 용어 표준화 위원회에서는 문법 용어 표준화 원칙을 아래와 같이 잠정적으로 수립하였다.

▶ 표준화의 기본 원칙:

- ① 대상 범위 확대의 원칙: 본 연구에 포함되는 용어는 국어학 관련 용어와 함께 일반언어학 용어를 포함한다.
- ② 국어학 용어 우선의 원칙: 국어학 및 언어학 용어를 분류함에 있어서는 국어학 용어를 우선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소진성 원칙: 가능한 한, 국어학 용어나 언어학 용어가 모두 소속될 수 있도록 분야를 설정한다.
- ④ 전통성 원칙: 국어학의 연구 분야에 대한 전통적인 분류를 존중한다.
- ⑤ 규범성 원칙: 국어학의 연구 분야에 대한 규범적인 분류를 존중한다.
- ⑥ 확장가능성의 원칙: 새로운 용어의 생성과 확장이 용이한 용어를 우선함을 원칙으로 한다.

▶ 표준화의 원칙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 임흥빈·한재영(2003)의 ‘국어학 용어 분류 체계에 관한 연구’
- 권재일·고동호(2004)의 ‘국어학 고유어 용어 분류 체계에 관한 연구’
- 서상규·박석준(2005)의 ‘북한 국어학 용어 분류 체계에 관한 연구’
- ‘1단계 문법서 분석 데이터베이스’에서 수집된 문법 용어 목록

#### 3.2. 표준화 작업 대상 문법 용어 선정 및 비교 분석

표준화 작업 대상 문법 용어는 아래 세 단계를 거쳐 검토되고 있다.

- 2단계 원고 기술에서 사용된 주요 문법 용어 목록화
-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용어와 그렇지 않은 용어 구분

■ 미등재 용어의 경우 원고에서 기술된 피정의항 추출

<참고> ‘표준국어대사전’의 문법 용어 현황

- ① 전체 4,284항목 / 4,267항목(언어) / 847항목(북한)
- ② =: 1,501항목
- ③ 북한: 847항목
- ④ 예전에: 9항목
- ⑤ ≡: 884항목
- ⑥ →: 23항목

구체적으로 문법 용어 검토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먼저 1단계에서 수집된 용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담화론의 문법 내용 기술 대상 범위에 포함된 문법 용어 중 표준화 작업이 필요한 용어를 파악의 기초 자료로 삼았다. 이들 문법 용어는 1단계 연구에서 국어학 개론류, 교과서류, 형태/통사론으로 구성된 문법론류를 대상으로 정리된 것이다.(<표3-5> 참고)

이를 바탕으로 각 원고에서 사용된 주요 문법 용어를 조사하였으며, 목록에 없는 용어는 열을 추가하였고, ‘표준국어대사전’의 등재 여부를 파악하였다.(<표3-6> 참고)<sup>2)</sup> 이들 문법 용어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것과 등재되지 않은 것을 나누어 목록화 하였으며, 후자의 경우 영역별 원고에서 제시된 정의를 기반으로 정의항을 기술하였다.

---

2) 2차년도 문법 용어 데이터베이스의 자세한 내용은 별첨 CD의 [부록2]에서 확인할 수 있다.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1	문법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		문장성체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관형어	부사어	부립어	제시어 (보임말)	제시어 (보임말)	감탄어	정수어	배작주	피배작주	주성체	부속성체	수인성체	필수성체	선택성체	서술어의 자릿수	불완전 자동사	불완전 타동사	불완전 형용사	성체부사어	문장부사어
3	남기삼·고영근 (1985/2011)	문장성체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관형어	부사어	부립어	제시어 (보임말)	제시어 (보임말)	감탄어	정수어	배작주	피배작주	주성체	부속성체	수인성체	필수성체	선택성체	서술어의 자릿수	불완전 자동사	불완전 타동사	불완전 형용사	성체부사어	문장부사어
4	국립국어원 (2005)	문장성체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관형어	부사어	부립어							주성체	부속성체	수인성체	필수성체	선택성체						문장부사어
5	김팔해 외 (1999)	문장성체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관형어	부사어	부립어		제시어					주성체	부속성체	수인성체	필수성체	선택성체						문장부사어
6	임지훈 외 (2005)	문장성체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관형어	부사어	부립어							주성체	부속성체				서술어의 자릿수				성체부사어	문장부사어
7	현종(1983)	불성체	임자말	불이말	부립말			어찌말	불로말																	
8	고영근·구복관(2008)	문장성체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관형어	부사어		제시어 (보임말)	감탄어	정수어	배작주	피배작주	주성체	부속성체	수인성체	필수성체	선택성체	서술어의 자릿수	불완전 자동사		불완전 타동사	불완전 형용사	성체부사어	문장부사어
9	민현식(1999)	문장성체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관형어	부사어	부립어												서술어의 자릿수	불완전 자동사	불완전 타동사	불완전 형용사		
10	이익섭·임흥빈(1983)	문장성체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11	이익섭·채완 (1999)		주어	서술어	목적어		관형어																			
12	임흥빈·장소원(1995)	문장성체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관형어	부사어	부립어									수인성체	필수성체							
13	비상교육 (2012)	문장성체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관형어	부사어	부립어							주성체	부속성체	수인성체	필수성체		서술어의 자릿수					
14	지학사(2012)	문장성체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관형어	부사어	부립어							주성체	부속성체				서술어의 자릿수				성체부사어	문장부사어
15	전재교육 (2012)	문장성체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관형어	부사어	부립어							주성체	부속성체				서술어의 자릿수					
16	왕문용·민현식(1993)	문장성체	주어	서술어	목적어		관형어	부사어	부립어							필수성체	부속성체				서술어의 자릿수	불완전 자동사	불완전 타동사	불완전 형용사	성체부사어	문장부사어
17	최현배 (1937/1971)	불의 조간	임자말	불이말	부립말	기움말	매김말	어찌말	불로말																	
18	미래엔(2012)	문장성체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관형어	부사어	부립어							주성체	부속성체				서술어의 자릿수					
19	고등학교 문법(2002)	문장성체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관형어	부사어	부립어							주성체	부속성체				서술어의 자릿수				성체부사어	문장부사어
20	이관규(2002)	문장성체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관형어	부사어	부립어							주성체	부속성체	수인성체	필수성체		서술어 자릿수				성체부사어	문장부사어
21	신지영 외 (2012)	문장성체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관형어	부사어	부립어							주성체	부속성체				서술어의 자릿수					
22	이희승(1949)	불립의 성체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수식어	관형어	부립어							부속부	부속부									
23	정철모(1946)	성체																								
24	주시경(1910)	관동	임이들	남이들	불이들																					
25																										

<표3-5> 1차년도 문법 용어 데이터베이스 일부

번호	문법 용어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담화론	통합		<표준> 등재 여부
121	관형어,							
122	관형절,			*		*		
123	괄호매김역설		*			*		X
124	교착적선어말어미,							
125	교체,		*			*		(비전문 용어)
126	구,			*		*		
127	구강,							
128	구개수,							
129	구개음,							
130	구개음소화,							
131	구개음화,	*				*		
132	구상명사,							
133	구성소,		*			*		X
134	구성요소		*			*		X
135	구속형식,							
136	구어발화				*	*		X
137	구체명사,							
138	굳은이름씨,							

<표3-6> 2차년도 문법 용어 데이터베이스 일부

이 데이터베이스를 기본으로 하여 이후 필요에 따라 관련 논문 등을 추가 분석하여 문법 용어 비교 분석을 심화한다. 표준화 대상 문법 용어 목록의 기초적 자료 선정은 각 영역의 집필진에서 한다. 선정된 문법 용어들은 비슷한 개념을 가지는 용어들끼리 분류하여 분석할 것이다. 문법 용어 분석 자료는 표준 국어 문법 개발 이후에 가공하여 웹상에 입체적으로 서비스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문법 용어 권장안을 제시하겠지만 권장안이 아니더라도 특정 관점에서는 그 사용이 더 적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개념을 가리키는 용어들 사이에는 일정한 관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후에 가공하여 웹서비스할 수 있도록 분석한 자료를 정리하여 보관하도록 하겠다.

### 3.3. 문법 용어 표준화 안 제시

2차년도에서 확정한 표준화 원칙에 따라 이후 표준화 작업 대상 용어들에 대한 표준적인 문법 용어를 제시한다. 문법 용어 표준화 안 제시는 문법 용어 표준화 위원회에서 담당하며, 집필진과 상의하여 결정한다. 문법 용어 표준화 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는 같은 개념을 가리키는 유사 계열의 문법 용어를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2차년도 상반기에 음운, 형태, 통사, 담화 각 영역에서 사용된 문법 용어 현황은 아래와 같다.

#### ▶ 문법 용어 사용 현황

문법 용어의 사용 현황은 <표준국어대사전>의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두 부류로 나누어 제시한다. 표제어로 등재된 용어인 경우 별도의 정의항을 제시하지는 않으며, 표제어로 등재되지 않는 용어는 해당 영역에서 기술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의항을 제시한다. 다만 아직 명시적인 정의항이 기술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용어가 주요하게 사용된 부분을 인용해 보이는 것으로 대신한다. 더불어 표제어로 등재되기는 하였으나 언어학 관련 전문 용어로 기술되지 않았거나, 수정이 필요한 용어도 함께 제시한다.

#### 1) <표준국어대사전> 표제어(ㄱㄴㄷ 순. 번호는 사전의 어깨번호.)

감탄사, 개구도, 개모음, 개음절, 거센소리, 겹문장, 경구개음, 경음01, 고모음, 공명음, 관계언, 관형격 조사, 관형사, 관형어, 구05, 구개음화, 굴절 접사, 기본형02, 긴소리, 능동부, ㄷ 불규칙 용언, ㄷ 불규칙 활용, 단락01, 단모음, 단문02, 단어, 단음01, 담화03, 당소리, 대명사02, 독립 성분, 독립어, 독립언, 동사09, 된소리01, 두음 법칙, 마찰음, 메시지, 명사03, 명사절, 모음02, 목적격 조사, 목적어, 무성음, 문법01 형태소, 문법, 문장 부호, 문장 성분, 문장02, 반개모음, 반모음, 반폐모음, 발성 기관, 발음 기관, 발화03, 변이음, 보격 조사, 보어01, 보조사, 복
---

문, 복합어, 부사07, 부사격 조사, 부사어, 부사절, 부속 성분, 분절음, 불구 형태소, 불규칙 활용, 비음07, 비종결 어미, 삼중 모음, 생산성, 서술격 조사, 서술어, 선어말 어미, 선택 제약, 설근음, 설단음, 설면음, 설측음, 성문음, 성절음, 수사25, 수식언, 순음03, 실질 형태소, 양순음, 어간04, 어근01, 어두, 어말, 어미06, 어절, 어중03, 어휘 형태소, 억양, 억양구, 역행 동화, 연결 어미, 연구개음, 예사소리, 운소02, 운율구, 원순 모음, 유기음, 유성음, 유음05, 음성 기관, 음성02, 음소02, 음운01, 음운론, 음장01, 음절, 이중 모음, 이중 주어, 이형태, 입술소리, 자립 형식, 자립 형태소, 자모03, 자음01, 장모음, 장애음, 장음02, 장음화, 장음화되다, 장음화하다, 재귀 대명사, 저모음, 전설 모음, 전성 어미, 접두사, 접미사, 접사04, 조사08, 조어론, 조음 기관, 조음 방법, 조음 위치, 조음부, 조음점, 조음체, 종결 어미, 종성04, 종속절, 주격 조사, 주성분, 주어01, 주절02, 중모음01, 중모음02, 중설 모음, 중성04, 지정사, 직접 구성 요소, 짧은소리, 체언, 초성03, 치조음, 탄설음, 텍스트, 통사론, 특이 형태소, 파생 접사, 파열음, 파찰음, 평순 모음, 평음, 폐모음, 폐쇄음, 폐음절, 품사, ㅎ 불규칙 용언, ㅎ 불규칙 활용, 혀끝소리, 혀뿌리 소리, 혀바닥소리, 형식 형태소, 형용사, 형태론, 형태소, 흡소리01, 흡문장, 화용론, 활음, 후설 모음, 후음, 휴지01 (총 190개)

## 2) <표준국어대사전> 비표제어

- 사전 형식에 준하여 제시함.
- 사전에 등재된 표제어이나 언어학 전문용어로 풀이되어 있지 않거나, 뜻풀이 보충이 필요한 용어도 포함함.(교체, 구, 단락, 담화, 문단, 문장, 음조, 청자, 화자)

계열^관계(系列關係): 언어 요소들이 구성체를 이루고 있을 때, 어떤 위치에서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서로 대치될 수 있는 요소들의 관계. 형태소 분석에서 계열 관계를 가지고 대치될 수 있는 요소는 분석할 수 있다.

교체(交替): 하나의 형태소가 환경에 따라 다양한 다른 모습으로 실현되는 현상.

공명-도(共鳴度): 반모음과 단모음의 공명도(sonority)를 비교하면 반모음보다 단모음이 더 크다. 그래서 반모음이 단모음보다 앞에 오는 이중 모음은 공명도가 더 커지므로 '상향 이중 모음'이라고 하고, 단모음이 반모음보다 앞에 오는 이중 모음은 공명도가 더 작아지므로 '하향 이중 모음'이라고 한다.

관형사-절(冠形詞節): 관형사형 어미와 결합하여 관형어의 구실을 하는 절.

괄호매김^역설(----逆說): 형태론적 분석과 의미론적 분석이 불일치하는 현상.

구(句):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단위. 단어와 같거나 단어보다 큰 단위이며, 핵(核, head)과, 그것에 딸려 있는 말들을 한데 묶어 일컫는 말이다.

구성(構成): 하나 혹은 둘 이상의 부분이 모여 전체를 이룰 때 그 전체. 단어 또한 하나의 형태소 혹은 둘 이상의 형태소(혹은 단어)가 모여 만들어지므로 하나의 구성이다.

구성^요소(構成要素): 하나 혹은 둘 이상의 부분이 모여 전체를 이룰 때 그 부분.

단어 또한 하나의 구성이므로, 이를 그 구성 요소들로 나눌 수 있다.
구어^담화(口語談話): 일정한 의사소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된 구어 언어 형식의 담화.
구어^발화(口語發話): 발화는 언어 매체에 따라 문어 발화와 구어 발화로 구분할 수도 있다.
규칙적^어근(規則的語根): 의미와 품사가 분명한 어근.
기본^문형(基本文型): 서술어가 몇 개의 문장 성분들을 요구하느냐에 따라 몇 가지 형식으로 나누어지는 문장의 기본적인 형식.
기저-형(基底形): 기본형과 관련되는 개념으로 기저형이 있다. 기본형은 구조주의 언어학에서 형태소를 통일성 있게 기술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고, 기저형(underlying form)은 변형생성문법에서 주로 논의된 개념으로 다양한 표현형을 하나의 기저 형태에서 온 것으로 설명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내림^겹흡소리: 하향 이중 모음.
내포-절(內包節): 한 문장 속에 절(節)의 형태로 포함되어 있는 문장. <sup>3)</sup>
단락(段落): 문단보다 더 크지만 담화보다는 더 작은 의사소통 단위.
담화(談話): 발신자가 특정한 장면에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수신자에게 전달하고자 표현하는 하나 이상의 발화의 연쇄를 말하는데, 그 연쇄는 문장보다 클 수도 있고 문장보다 작을 수도 있다.
담화론(談話論): 화용론 가운데 발신자가 제보, 설득, 친교 또는 정서 표현 등의 기능(담화 기능)을 수신자에게 전달하고자 통일성, 응집성, 의도성, 수용성, 정보성, 상황성 등을 갖춘 발화나 발화 연쇄의 사용을 연구하는 분야.
대립^관계(對立關係): 친소 관계.
대표-형(代表形): 기본형이라는 용어 대신 대표형을 사용하기도 한다. 기본형은 하나의 형태를 정하고 그 형태에서 다른 형태가 나타나는 것을 설명하기에 더 적합한 용어이고, 대표형은 여러 형태 중 하나를 정했다는 점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용어이다.
등재소(登載素): 머릿속 어휘부의 등재 단위. 흔히 말하는 단어뿐 아니라 속어, 속담과 같은 구나 문장이 포함되며, 연어까지를 포함하기도 한다.
말마디^경계(---境界): 휴지01.
명사형^전성^어미(名詞形轉成語尾): 용언의 어간에 붙어 명사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어미.
무조건^변이음(無條件變異音): 동일한 환경에서 서로 다른 변이음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변이음들을 무조건 변이음, 자유 변이음 등으로 부른다. ≡자유 변이음.
문단(文段): 발화의 연쇄로 이루어지는 담화를 의미적인 결속성의 차이에 따라 더 잘게 나눈 부분.
문말^억양(文末抑揚): 발화 마지막 억양구의 끝 음절에서 실현되는 음높이의 유형.

문장의 제일 마지막 부분으로, 이것에 따라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과 같은 문장의 종결 유형이 달라진다.	
문어^담화(文語談話): 일정한 의사소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된 문자 언어 형식의 담화.	
문어^발화(文語發話): 발화는 언어 매체에 따라 문어 발화와 구어 발화로 구분할 수도 있다.	
문장(文章): 문말 억양과 문장 부호에 의해 종결된 단위.	
문장^부사어(文章副詞語): 문장 전체를 꾸미는 부사어.	
반모음-화(半母音化):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뀌는 현상.	
발동-부(發動部): 말소리의 재료인 공기의 흐름을 만들어 내는 발동 과정에 관여하는 기관.	
발성-부(發聲部): 발동 과정에 의해 만들어진 공기의 흐름을 말소리로 바꾸는 발성 과정과 관련된 기관. 후두가 그 역할을 담당한다.	
보상적^장음화(補償的長音化): 두 개의 음절이 하나의 음절로 줄어들면서 원래의 두 음절이 가지고 있던 길이를 보상하기 위해 일어나는 현상.	
보어(補語): ‘되다’, ‘아니다’ 외에 ‘싫다’, ‘좋다’ 등 두 자리 심리형용사와 ‘맞다’ 등의 일부 자동사 서술어가 그 의미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성분. 체언과 체언 구실을 하는 말에 보격 조사 ‘이/가’가 붙어 이루어진다.	
복수^접미사(複數接尾辭): 결합하는 말에 복수의 의미를 부여하는 접미사.	
불규칙적^교체(不規則的交替): 환경이 같은데도 두 가지 교체 방식이 존재하고 이중 상대적으로 규칙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교체.	
불규칙적^어근(不規則的語根): 제한적으로 쓰여서 그 의미와 품사가 분명하지 않은 어근.	
비자동적^교체(非自動的交替): 교체가 일어나지 않아도 그 언어의 음운 패턴이 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교체.	
사회문화적^맥락(社會文化的脈絡): 의사소통에 관여하는 사회문화적인 상황에 대한 맥락.	
상승^이중^모음(上昇/上升二重母音): 상향 이중 모음.	
상향^이중^모음(上向二重母音): 반모음이 단모음보다 앞서는 이중 모음. ㄴ옴 겹홀소리·상승 이중 모음.	
상황^맥락(狀況脈絡):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의 상황에 대한 맥락.	
선행-절(先行節): 대등하게 연결된 두 개의 문장에서 앞에 오는 문장.	
성분^부사어(成分副詞語): 문장의 한 성분을 꾸며 주는 부사어.	
성상^관형어(性狀冠形語): 사람이나 사물의 모양, 상태, 성질을 나타내는 관형어. <sup>4)</sup>	
소형-문(小形文): 의미상으로는 완결된 내용을 갖추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주어와 서술어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관형어(數冠形語): 사물의 수나 양을 나타내는 관형어.<sup>51</sup>

수동-부(受動部): 조음점은 조음체과 대비하여 ‘수동부’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다.

쓰임-문(--文): 각각의 맥락 및 상황에서 발화된 것으로서 그 크기는 하나의 단어  
에서부터 ‘보통 문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탈맥락화 가능한 언표 수행적  
잠재력을 지닌 텍스트 및 담화의 직접적인 구성 단위.

어순^변이(語順變移): 어순이동.

어휘론적^단어(語彙論的單語): 매우 널리 쓰이는 단어의 개념으로 단어가 사전의  
표제어가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연스럽게 성립하는 단어의 개념. 어휘소  
(語彙素, lexeme)나 등재소(登載素, listeme) 등 어휘부와 관련된 단위가  
있다.

어휘소(語彙素): 사전의 등재 단위로서 단어의 다양한 굴절형의 추상체.

억양-구(抑揚句): 억양에서 하나의 단위로 실현되는 구.

오름^겹홀소리: 상향 이중 모음.

운율^단위(韻律單位): 높낮이가 엮힐 수 있는 음운론적 단위.

유기음-화(有氣音化): ‘ㅎ’은 ‘농고[노코], 국화[구과]’와 같이 다른 평음과 결합할  
때 축약되어 유기음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러한 음운론적 기능을 중시하  
여 유기음으로 분류하게 된다.

유일^형태소(唯一/惟一形態素): 특이 형태소.

음운론적^단어(音韻論的單語): 강세를 가진 언어에서 한 단어에는 한 음절만 강세  
를 받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강세가 부여되는 단위로 파악하는 단어.

음운론적^교체(音韻論的交替): 음운적 조건에 의한 교체.

음운적^교체(音韻的交替): 음운적 조건에 의한 교체.

음운적^조건에^의한^교체(音韻的條件---交替): 선행 요소의 음운론적인 조건에 따  
라 이형태가 교체되는 현상. ≡음운론적 교체·음운적 교체.

음절-화(音節化): 중성을 중심으로 그 앞과 뒤에 초성과 종성이 결합되어 음절이  
이루어지는 것.

음조(音調): 문장이나 구에 얹히는 말소리의 높낮이나 변화 유형.

의미론적^단어(意味論的單語): 단일한 의미를 가진 단위로 파악하는 단어.

‘이’^모음^역행^동화(-母音逆行同化): 단어 또는 어절에 있어서, ‘ㅏ’, ‘ㅑ’, ‘ㅓ’ 등  
의 후설 모음이 다음 음절에 오는 ‘ㅣ’나 ‘ㅣ’계(系) 모음의 영향을 받아 전  
설 모음 ‘ㅐ’, ‘ㅒ’, ‘ㅖ’ 등으로 변하는 현상.<sup>52</sup> ≡음라우트.

이중^목적어(二重目的語): 하나의 서술어와 둘 이상의 목적어가 어울리는 구문.

이차^성분(二次成分): 서술어와 직접 관계를 맺지 않는 문장 성분. 관형어와 독립  
어가 있다.

일차^성분(一次成分): 서술어와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는 문장 성분. 주어, 목적어,  
보어, 부사어가 있다.

자동적^교체(自動的交替): 교체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언어의 음운 패턴이 깨어지

는 결과를 가져오는 교체. 즉, 음운 체계 내지 음소 배열 제약 때문에 일어나는 교체이다.

자릿수(--數): 특정 서술어가 요구하는 체언 성분의 수.

자유^변이음(自由變異音): 무조건 변이음.

자음-군(子音群): 둘 또는 그 이상의 자음의 연속체.

장면(場面): 발화가 이루어지는 시간적·공간적 배경, 독자·청자가 처한 상황이나 사회·문화·역사적 배경, 공동체의 가치나 신념 등. ≒상황·맥락.

절(節): 동사구와 형용사구 중에서 주어와 서술어가 갖추어진 것. 절은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단위라기보다 주술 관계를 가진 구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정서법적^단어(正書法的單語): 띄어쓰기를 하는 표기 체계를 가진 언어에서 띄어쓰기의 단위로 파악하는 단어.

종성^제약(終聲制約): 종성의 자리에서 실현되는 제약. 한국어의 종성에는 자음이 한 개만 실현될 수 있으며, ‘ㄱ, ㄴ, ㄷ, ㄹ, ㅁ, ㅂ, ㅇ[n]’의 일곱 자음만 실현될 수 있다.

지배적^기능(支配的機能): 접미사는 파생어의 품사를 결정하는 기능(곧 지배적 기능)을 갖는다.

지시^관형어(指示冠形語): 특정한 대상을 지시하여 가리키는 관형어.<sup>7)</sup>

직소(直素): =직접 구성 요소.

직접^구성^요소^분석(直接構成要素分析): 하나의 단어를 직접 구성 요소를 따져서 단계적으로 분석하는 일.

직소^분석(直素分析): =직접 구성 요소 분석.

체계-문(體系文): 통사론에서 다루는 최대의 문법 단위로 추상적인 성격을 지닌 문장.

청자(聽者): 발화를 이해하는 역할. ≒독자·수신자.

초-분절음(超分節音): 운소.

초성^제약(初聲制約): 초성의 자리에서 실현되는 제약. 한국어의 초성에는 자음이 한 개만 실현될 수 있다.

최소^대립쌍(最小對立雙): 두 개의 음성이 서로 다른 음운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그 두 음성에 의해서만 뜻이 구별되는 최소 대립쌍이 존재하는지를 살피는 것이 편리하다.

최소^자립^형식(最小自立形式): 단어는 ‘최소 자립 형식(a minimum free form)’으로 정의하는 것이 보통이다. 예를 들어 ‘그, 책, 벌써, 읽었니’와 같이 문장에서 홀로 쓰일 수 있는 단위 가운데 가장 작은 것을 단어로 보는 것이다.

친소^관계(親疏關係): 차이 나는 분류 기준의 수에 따라 두 단모음 사이의 관계는 가까우면서 밀접할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다. 이러한 단모음 사이의 친소 관계는 음운 변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 현상에서 중요하게 작용한다.

<p>≡대립 관계.</p> <p>통사론적^단어(統辭論的單語): 단어가 통사부의 최초 단위라는 점에서 통사 구성에 참여하는 단위로 파악하는 단어.</p> <p>통사^원자(統辭原子): 통사 구성에 참여하는 최소 단위. 국어의 조사나 어미 등이 포함된다.</p> <p>통합^관계(統合關係): 언어 요소들이 구성체를 이루고 있을 때, 서로 관련을 맺고 연결되어 구성체를 이루고 있는 각각의 구성 요소들 간의 관계. 형태소 분석에서 통합 관계를 이루는 요소들 사이에 다른 요소를 넣어 또 다른 통합 관계가 성립하면 분석할 수 있다.</p> <p>폐찰-음(閉擦音): ‘파찰음’은 순수하게 음성적인 과정만 고려한다면 폐쇄 후 마찰이 되므로 ‘폐찰음’이 더 정확하다.</p> <p>표제^명사(標題名詞): 관계관형절의 수식을 받는 명사.</p> <p>표현적^장음(表現的長音): 발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표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어휘 내의 일부 음절을 길게 발음하는 것.</p> <p>하강^이중^모음(下降二重母音): 하향 이중 모음.</p> <p>하향^이중^모음(下向二重母音): 단모음이 반모음에 앞서는 이중 모음. ≡내림 겹홀소리·하강 이중 모음.</p> <p>한정적^기능(限定的機能): 접두사는 어근의 의미를 한정하는 기능(곧 한정적 기능)만 갖는다.</p> <p>형태(形態): 형태소는 엄밀하게 말하면 고유한 의미에 초점을 둘 때 사용하는 용어이고, 고유한 음성 형식에 초점을 맞춘 용어는 형태(morph)이다.</p> <p>형태론적^교체(形態的交替): 형태적 조건에 의한 교체.</p> <p>형태론적^단어(形態論的單語): 단어를 ‘최소 자립 형식’으로 정의하는 개념.</p> <p>형태적^교체(形態的交替): 형태적 조건에 의한 교체.</p> <p>형태적^조건에^의한^교체(形態的條件---交替): 선행 요소의 형태적인 조건에 따라 이형태가 교체되는 현상. 가령, ‘-였-’은 ‘하다’나 ‘X하다’ 용언 어간 뒤에 서만 나타나므로 형태적인 조건의 이형태로 볼 수 있다. ≡형태론적 교체·형태적 교체.</p> <p>화자(話者): 발화를 생산하는 역할. ≡필자·발신자.</p> <p>후핵^언어(後核言語): 우리말은 어떤 언어 단위의 문법적 자격을 결정하는 요소가 뒤에 오는 언어, 곧 후핵 언어이다.</p> <p>후행-절(後行節): 대등하게 연결된 두 개의 문장에서 뒤에 오는 문장.</p>
--

3] <표준> ‘안긴문장’ 정의 참고.  
4] <표준> ‘성상 관형사’ 정의 참고.  
5] <표준> ‘수 관형사’ 정의 참고.  
6] <표준> ‘움라우트’ 정의 참고.  
7] <표준> ‘지시 관형사’ 정의 참고.

### 3.4. 자문 내용 반영 및 표준화 안 확정

자문 받은 내용을 토대로 표준적인 문법 용어 권장안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일부 수정 및 보완하여 문법 용어 표준화 권장안을 최종 확정한다. 문법 용어 표준화안의 최종 확정은 문법 용어 표준화 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아직 확정되지 못한 용어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 1) 명시적인 정의가 필요한 용어  
: 규칙적 교체, 기식군, 핵, 관계관형절, 필수적 부사어
- 2) 영역별 상충되는 용어  
: 지정사/서술격 조사

특히 ‘관계관형절’은 통사론 본문에서 ‘관형절’ 대신 ‘관형사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므로, ‘관계관형사절’로 해야 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필수적 부사어’는 통사론 본문에서 보어의 범위를 확대했기 때문에, 이에 준하여 필수적 부사어의 정의와 범위가 명시될 필요가 있다. 학교 문법에서 ‘서술격 조사’로 지칭되는 ‘-이다’에 대해서는 현재 형태론 영역에서는 이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통사론에서 ‘지정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정이 요구된다.

### 3.5. 문법 용어 데이터베이스 구축

2단계에서 표준화된 문법 용어는 문법 용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다. 다음 단계에서 기술되는 원고는 이 문법 용어 데이터베이스를 참고할 수 있다. 문법 용어 데이터베이스는 5단계 사업 종료 후에 웹서비스를 목표로 하여 단계별로 구축할 예정이다.

## 4. 영역별 문법 내용 기술

### 4.1. 각 영역별 문법 내용 기술 대상 선정

2단계 ‘표준 국어 문법 개발’ 연구에서는 각 영역별 전체 문법 기술의 30% 정도를 완료하려고 한다. 총론, 음운, 형태, 통사, 담화별로 어떤 항목을 기술할지 선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의 선정 기준을 세워 기술 항목을 선정하고자 한다.

첫째, 1단계 표준 국어 문법 기초 연구의 결과물인 상세범주화 중 대범주 중심으로 선정한다. 상세범주화는 표준 국어 문법 개발 2단계 연구를 진행하면서 다소 조정될 수도 있지만 일단은 큰 틀에서는 바뀌지 않을 것이고, 기술의 범위를 선정하려면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1단계의 상세범주화를 토대로 기술 대상을 선정할 것이다. 주로 대범주 중심으로 선정할 것이나 분량이 적당하지 않을 때는 중범주를 선택할 수도 있다.

둘째, 각 영역별 전체 문법 기술 대상의 30% 정도의 분량이 되는 문법 항목을 선정한다. 표준 국어 문법의 1차적 기술은 4단계에서 완성된다. 따라서 본 연구와 향후 2개년의 연구 기간 동안 표준 국어 문법 기술을 1차 완료해야 한다. 이번 연구에서 실제 기술이 처음 이루어지므로 여러 가지 결정하고 조정해야 할 일이 많으므로 2단계인 본 연구에서는 30% 분량의 내용을 기술하는 것으로 하고, 3단계에서는 30%, 4단계에서는 40% 분량의 내용을 기술하는 것으로 한다.

셋째, 향후 3, 4단계의 기술을 위해 먼저 기술해야 할 범주를 중심으로 우선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단계에서는 실제 표준 국어 문법 기술을 시작하므로 향후 기술할 내용의 토대가 되는 부분을 기술하는 것이 기술의 순서상 적절하다.

이상의 원칙으로 선정한 각 영역별 문법 내용 기술 대상을 보이면 아래와 같다.

#### ▶ 총론 기술 대상(2단계)

총론은 두 개의 중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한국어의 특징’, 다른 하나는 ‘표준 문법의 특징 및 단위 설정’이다. 그러나 ‘한국어의 특징’은 한국어의 영역별 특징을 기술하는 부분으로 영역별 내용이 확정된 후에 집필할 수 있으며, ‘표준 문법의 특징 및 단위 설정’ 역시 본 연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후에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번 2단계에서는 총론을 기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 ▶ 음운론 기술 대상(2단계)

대범주	중범주	세부 항목(내용)
음운론의 단위	말소리	말소리의 생성
		음성과 음운

	자음	자음의 개념
		자음 목록
		자음의 분류 기준
		자음 체계
	모음	모음의 개념
		단모음
		반모음
		이중 모음
	음장	음장의 정의
		음장의 변별력
		장음의 실현 위치
		용언 어간의 음장 변동
		보상적 장음화
		파생어와 합성어의 음장 변화
		표현적 장음
	휴지	휴지의 정의
		휴지의 생리적 기능
		휴지의 음성학적·음운론적 역할
		휴지와 의미·통사 정보
	억양	억양의 정의
		억양의 일반적 유형
		문말 억양
	음절	음절의 정의
		음절의 구조와 유형
		음절화
		음절 실현에 대한 제약

1단계에서 제시한 음운론의 상세범주화 체계는 ‘음운론의 단위’, ‘음운 과정’의 두 개의 대범주로 구성되고, 각각 6개, 5개의 중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2단계 기술 대상은 ‘음운론의 단위’ 중 4개의 중범주인 ‘음성, 음소, 운소, 음절’이다. 이들 기술 대상은 음운론 논의의 출발점인 음운론의 단위들이다. ‘음운론의 단위’ 안에는 ‘자질’과 ‘기저형’도 있지만 이들 중범주까지 포함되면 기술의 양이 지나치게 늘어날 수 있어 우선 ‘음성, 음소, 운소, 음절’만을 대상으로 하여 기술하기로 한다. 다만 세부적으로 1단계에서 제시한 상세범주화 체계에서 ‘운소’를 중범주로 두고 그 하위 범주로 ‘음장, 억양, 휴지’를 두었던 것과는 달리 각각의 하위 범주를 중범주로 설정하고 개별적으로 기술하였으며, 또 모음을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나누어 설정했던 것을 하나로 합쳐서 기술하기로 하였다.

#### ▶ 형태론 기술 대상(2단계)

대범주	중범주	세부 항목(내용)
형태소와 단어	형태소	형태소의 정의
		이형태와 기본형
		형태소의 하위 유형
		형태소 분석
	단어	단어의 정의
		단어의 구조
		단어 구성 요소의 구분
		단어의 유형

1단계 기초 연구에서 제시한 상세범주화의 형태론 부분은 ‘형태소와 단어’, ‘품사’, ‘단어 형성’의 3개의 대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2단계에서 기술할 대상은 형태론 분야의 기본이 되는 분야인 ‘형태소와 단어’ 대범주를 기술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형태론의 기술은 형태론의 주요 단위인 형태소, 단어의 개념과 그 종류를 먼저 확정해야 향후 기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통사론 기술 대상(2단계)

대범주	중범주	세부 항목(내용)
문장을 구성하는 문법 단위	문장의 구성 단위	
	단어	
	구	구의 정의, 구와 절의 구별
	절	절의 정의
	문장	문장 성립의 필요충분조건은 ‘외적 독립’
		‘외적 독립성’의 확인과 문장의 규정
문장의 구조	단문의 구조: 문장 성분	통사론의 대상로서의 ‘문장’의 범위
		문장 성분의 개념과 종류
		문장 성분의 분석
		문장 성분

2단계 표준 국어 문법의 기술 대상으로 대범주 ‘문장의 구성 단위’와 대범주 ‘문장의 구조’ 중에서 ‘단문의 구조’를 선정하였다. ‘문장의 구성 단위’는 통사론의 기본 단위를 기술하는 부분으로 향후 통사론 파트를 기술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술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문장의 구조’는 ‘단문의 구조’와 ‘복문의 구조’의 2개의 중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문장의 구조’ 전체를 기술하기에는 ‘복문의 구조’에서 기술할 내용이 많아 기술할 내용이 지나치게 길어질 우려가 있어 우선 ‘단문의 구조’를 2단계에서 기술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단문의 구조’ 안에는 주로 문장 성분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문장의 구성 단위’와 함께 ‘단문의 구조’ 문법 기술 내용은 향후 통사론 기술의

기본이 되므로 이번 단계의 기술 대상으로서 적절하다. 또 통사론은 세 개의 대범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한 개의 대범주와 한 대범주의 절반에 해당하는 분량을 기술하므로 그 양에서도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 담화론 기술 대상(2단계)

대범주	중범주	세부 항목(내용)
담화의 성립과 구성	담화의 성립	담화의 개념
		담화와 언어 단위
	담화의 단위	담화와 발화
		담화의 하위 단위
	담화의 구성 요소	담화 구성 요소와 전달 매체
		담화 참여자
		발화 의도(메시지)
		맥락

담화론은 언어 연구에서 여타의 국어학의 하위 영역들과 달리 다루는 내용의 범위와 체계에 대한 이견이 많고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따라서 담화 체계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다 할 합의된 결과가 없으며 기술에 논란도 많다. 그러나 국어 교육, 한국어 교육 등에서 활용하기 위한 담화 영역의 설득력 있는 기술이 절실하다.

표준 국어 문법 정비의 일환으로 담화 영역의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설득력 있는 담화의 개념 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담화의 개념이 본질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어지는 연구의 타당성이 확보되고 그 활용의 효과가 극대화된다. 따라서 2단계 연구에서는 대범주 ‘담화의 성립과 구성’을 기술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담화 영역은 총 4개의 대범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그 중 한 대범주를 기술하는 것은 기술 분량에서도 적절하다.

담화의 개념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담화의 기본적인 개념 외에 단어, 문장 등의 언어 단위와의 차이가 논의되어야 한다. 따라서 2단계 연구에서는 이들 사이의 비교를 통하여 담화의 개념을 밝혀 설득력 있게 기술하고자 하였다. 또 담화의 개념을 바탕으로 담화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무엇인지, 이것이 문단, 단락 등의 단위와 어떻게 변별되는지 등을 기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담화의 구성 요소를 살펴봄으로써 담화의 개념을 보다 정치하게 다루고자 하였다. 이러한 토대 위에 3단계, 4단계에서 담화 유형, 담화 기능, 담화의 짜임, 담화의 표지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 4.2. 기술 모형 점검 및 수정

1단계에서는 ‘핵심 문법 기술부’와 ‘적용 문법 기술부’를 이원화했으나 2단계부터

이루어질 표준 국어 문법의 내용 기술에서는 ‘핵심 문법 기술부’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적용 문법 기술부’의 내용은 ‘핵심 문법 기술부’의 내용을 기술하면서 관련 항목에서 문법 유형이 무엇인지 약물로 표시하여 주석을 사용하여 기술하기로 한다. 예를 들어 품사 분류에서 ‘이다’의 품사에 대해 기술하면서 ‘핵심 문법 기술부’에서 서술격 조사로 표준화하여 기술한다고 할 때 이 부분에 [한국어 교육] 약물과 함께 주석을 달아서 ‘한국어 교육 문법에서는 ‘이다’를 지정어로 처리하는 것이 외국인들의 학습에 용이하다’는 등의 ‘적용 문법 기술부’에서 기술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기술 방식을 취하려는 이유는 첫째, 최종결과물의 실제적 활용을 위해서이다. 표준 국어 문법 개발 사업의 최종결과물은 웹상에 서비스될 예정이므로 표준 국어 문법의 내용 기술은 이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위의 기술 모형을 취하여 문법을 기술하면 본문의 ‘핵심 문법 기술부’가 웹상에 서비스되고, ‘적용 문법 기술부’의 내용은 관심 있는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링크로 연결하여 서비스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위와 같은 문법 내용 기술 모형을 취하는 이유는 실제적 기술의 편의성과 한계 때문이다. 4개년 동안 핵심 문법 기술부인 표준 국어 문법, 국어 교육 문법, 한국어 교육 문법, 생활 문법의 다섯 가지 유형의 문법 체계를 동시에 기술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들 문법은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체계를 독립적으로 가져야 한다. 표준 국어 문법은 여타 수용자에 따른 여러 가지 문법의 참조 문법이자 기반 문법의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표준 문법의 역할을 하는 ‘핵심 문법 기술부’를 정교하게 기술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적용 문법 기술부’의 내용을 기술해 놓지 않으면 다시 새롭게 이들 각 문법을 개발할 때 연구를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핵심 문법 기술부’를 기술하는 것은 하나의 쟁점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모두 정리하여 표준화하는 작업이므로 이 작업 중에는 표준화 관점 외에 한국어 교육 문법, 국어 교육 문법, 생활 문법에 더 적합한 관점도 나올 수 있다. 따라서 ‘핵심 문법 기술부’를 기술하면서 이런 관점들을 주석으로 정리해 놓으면 적용 문법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적용 문법 기술부에 적용할 중요 내용을 주석으로 정리해 놓으면 웹상에 서비스할 때 적합할 뿐 아니라 표준 국어 문법 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국어 교육 문법, 한국어 교육 문법, 생활 문법 등의 각 문법을 개발하는 데 기반이 될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1단계 기초 연구에서 설정한 기술 모형에 몇 가지 사항을 추가하였다.

#### ○ 주석(각주와 미주)의 사용

각주는 본문의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이나 본문에 들어가기에는 다소 주변적인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쓰인다. 이와 달리 미주는 핵심 문법 기술부에 대한 적용 문법 기술부를 서술하기 위한 용도로 쓰인다. 미주를 사용할 때는 미주 번호 앞에 ‘#이론

#, #국교#, #한교#, #생활#’과 같은 표지를 부가하여 적용 문법 기술부의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핵심어

핵심어는 각 장별로 핵심이 되는 키워드를 제시해 놓음으로써 각 장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개념과 용어들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

○ 관련 항목

관련 항목은 본문에서 다루어지지 않지만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다른 영역의 개념이나 용어들을 제시해 놓은 것으로서 영역 간 연결 고리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표준화 대상 문법 용어

표준화 대상 문법 용어는 기존 논의들에서 같은 개념에 대해 다른 용어를 사용하거나 하나의 용어로 다른 개념을 표현하는 등 정비가 필요한 용어를 제시해 놓은 것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 ‘표준 국어 문법 개발’ 연구에서 어떠한 용어들이 정비되어야 하는지, 표준화되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이 중 관련 항목과 표준화 대상 문법 용어는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에 제시하는 것으로서 문법 기술 시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정된 기술 모형은 다음과 같다.

▶ 표준 국어 문법 개발 기술 모형 체계(2단계 수정안)

▶ 핵심어

- 핵심 키워드 제시

▶ 관련 항목

- 본문에서 기술되지 않은 관련된 항목 제시

▶ 표준화 대상 문법 용어

- 표준화가 필요한 용어 제시

I. 핵심 문법 기술부(필요 시 각주 사용)

- 정합성을 갖춘 체계를 고려한 단순하면서도 명료한 기술
- 표준화된 용어 사용

II. 적용 문법 기술부(미주 사용)

- 표준 문법의 기술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각 분야별로 개별 체계를 고려한 기술을 추가

- (1) 이론 문법
    - 표준 문법 내용이 기술된 과정을 이론적으로 서술
    - 학계의 쟁점을 중심으로 보여 주고 남은 문제를 제시
  - (2) 국어 교육 문법
    - 국어 교육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문법 내용에 대한 기술
    - 난이도, 위계화 등 고려한 내용 배열
    - 개념 지도(Map)를 이용하여 다른 문법 기술과의 관련성을 보여 줄 수 있음
  - (3) 한국어 교육 문법
    - 외국인 학습자를 고려한 문법 기술 제시
    - 기능과 사용을 고려하여 문법의 내용 지식을 설명
  - (4) 생활 문법
    - 규범 문법과 사전을 중심으로 체계보다는 항목별로 생활에 필요한 문법 설명을 기술
    - 국립국어원의 온라인 가나다의 질의응답을 활용
- <부록>
- (1) 표준화된 용어 설명(Glossary)
    - 표준화된 용어를 보여 주고 동일하거나 비슷한 용어와 개념을 비교 설명
  - (2) 참고문헌

새로운 항목들이 추가된 모형에 따라 실제 기술한 문법 원고는 아래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 4.3. 표준 국어 문법 내용 기술

수정된 모형에 따라 각 영역별로 실제적인 문법 내용을 기술한 것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 4.3.1. 음운론

#### i. 말소리

- ▶ 핵심어(keywords): 발음 기관, 음성, 음운, 변이음, 음소, 운소
- ▶ 관련 항목: 음소, 운소, 자음, 모음, 음장
- ▶ 표준화 대상 문법 용어: 변이음, 미파음, 미파화, 반모음, 장단, 고저, 강약

#### 1. 말소리의 생성

##### 1.1. 말소리의 산출 과정

말소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말소리의 재료인 공기의 흐름을 만들어 내는 단계로 흔히 발동(發動) 과정이라고 부른다. 이 과정은 대체로 폐에서 일어난다. 폐가 수축하면서 높아진 압력으로 폐 안의 공기가 기관지를 통해 밖으로 나오게 되고 이것을 재료로 하여 다양한 소리를 내게 된다. 언어에 따라서는 폐가 아닌 다른 부위에서 공기의 흐름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그러나 국어의 말소리는 모두 폐에서 발동 과정이 일어난다.

두 번째는 발동 과정에 의해 만들어진 공기의 흐름을 말소리로 바꾸는 단계로 발성(發聲) 과정이라고 한다.<sup>1)</sup> 이 과정은 후두에서 일어난다. 폐에서 출발한 공기의 흐름은 바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이것이 후두를 통과하면서 말소리로 바뀌게 된다. 또한 후두를 거치면서 중요한 말소리의 구분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성대를 떨리게 하며 내는 유성음이고 다른 하나는 성대를 떨리게 하지 않는 무성음이다.

세 번째는 말소리를 다양한 자음이나 모음 등으로 바꾸어 주는 과정으로 조음(調音) 과정이라고 한다. 조음 과정에 관여하는 기관은 매우 다양하다. 성대의 위쪽에 있는 기관들은 모두 조음 과정에 참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대 위쪽의 기관들이 어떤 상태나 모양을 취하느냐에 따라 다른 말소리가 만들어진다.

##### 1.2. 발음 기관

말소리를 내는 데 관여하는 기관을 ‘발음 기관’이라고 한다. 발음 기관은 분류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말소리의 산출 과정에 따라 발동부, 발성부, 조음부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발동부(發動部)는 발동 과정에 관여하는 기관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폐가 가장 대표적인 발동부이다. 언어에 따라서는 성대의 상하 운동을 통한 압력의 변화를 이용

1) ‘발성’의 ‘성’은 말소리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해 공기가 흐르게 하기도 하고 연구개 부위를 막은 후 공기를 빨아들이는 방식으로 공기가 흐르게 하기도 한다. 폐가 아닌 다른 기관을 발동부로 이용할 때에는 가슴에 손을 대어도 아무런 움직임이 느껴지지 않는다.

발성부(發聲部)는 발성 과정과 관련된 기관으로 후두가 그 역할을 담당한다. 후두는 성대 및 여러 가지 연골로 이루어진 기관이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두 개의 인대가 맞닿은 구조로 된 성대이다. 공기가 성대를 통과하면 두 개의 인대가 서로 닿았다가 떨어지는 과정을 반복하는데 이 과정에서 말소리가 만들어진다.

조음부(調音部)는 조음 과정을 맡는 기관으로 그 종류가 매우 많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혀이다. 혀는 입 안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기관이어서 혀의 어떤 부위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말소리가 만들어진다. 혀 이외에 입술, 이, 구개, 목젖, 인두 등도 모두 조음부에 속한다.

발음 기관은 능동적인 움직임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따라 조음체와 조음점으로 구분 하기도 한다. 조음체는 발음 과정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기관이다. 그래서 조음체를 ‘능동부’라고 부르기도 한다. 혀와 아랫입술과 같이 입 안의 아래쪽에 위치한 기관들이 조음체에 속한다.

반면 조음점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기관을 가리킨다. 윗입술, 치조, 경구개, 연구개 등은 발음할 때 화자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기관이다. 그래서 조음점은 조음체와 대비하여 ‘수동부’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조음점은 말소리가 만들어지는 위치와 관련된다.

## 2. 음성과 음운

### 2.1. 음성

말소리는 조음체가 조음점에 접근하면서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여러 가지 조건의 차이에 따라 물리적으로 다른 말소리가 나오게 된다. 이처럼 서로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져서 그 특성이 구분되는 말소리들을 흔히 ‘음성’이라고 부른다.<sup>2)</sup>

음성의 차이는 여러 가지 요인에 근거한다. 우선 관여하는 조음체나 조음점의 종류가 다르면 그에 따라 음성도 달라진다. 가령 ‘p’와 ‘k’를 보면 ‘p’는 아랫입술(조음체)이 윗입술(조음점)에 맞닿는 과정을 통해 발음되지만 ‘k’는 혀바닥의 뒤쪽(조음체)이 연구개(조음점)에 맞닿는 과정을 통해 발음된다. 이처럼 ‘p’와 ‘k’는 조음체와 조음점이 모두 다른 음성들이다. 물론 조음체와 조음점 중 어느 하나만 달라도 구별되는 음성이 된다. 예를 들어 ‘p’와 ‘f’는 공통적으로 조음체가 아랫입술이지만 ‘p’는 조음점이 윗입술이고 ‘f’는 조음체가 윗니라서 구별되는 음성들이다.<sup>3)</sup>

2) 인간의 말소리에 어떤 음성들이 있으며 이런 음성들이 어떤 특성을 지니는지 연구하는 학문 분야를 ‘음성학’이라고 한다.

3) ‘p’와 ‘f’의 조음체가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는 이 둘을 묶어서 ‘순음(唇音)’이라고 부르지만, 조음점이 다르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에는 ‘p’를 ‘양순음(兩唇音)’, ‘f’를 ‘순치음(唇齒音)’이라고 구별해서 부른다.

조음체와 조음점의 접근 방식이 차이 나는 음성의 예도 많다. 가령 ‘t’와 ‘s’는 조음체와 조음점이 각각 혀끝과 치조로 동일하다. 그러나 ‘t’는 조음체와 조음점이 맞닿았다가 떨어지는 반면 ‘s’는 조음체와 조음점이 가깝게 접근할 뿐 맞닿지는 않는다는 차이를 가진다. 이 외에 성대의 떨림도 음성의 차이를 만드는 데 중요하게 관여한다. ‘k, t, p’는 성대의 떨림이 없는 무성음이지만 ‘g, d, b’는 성대의 떨림이 있는 유성음이다.

모든 음성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 조금씩 다른 음성적 특징을 가지지만 그러한 차이가 모두 동일한 중요성을 지니지는 않는다. 어떤 음성적 차이는 단어의 뜻을 구별하는 데 관여하지만 어떤 음성적 차이는 그렇지 못하다.

(1) 가. 불[pul], 풀[p<sup>h</sup>ul]

나. 안[an], 알[al]

(1가)에서는 ‘p’와 ‘p<sup>h</sup>’의 차이로 ‘불’과 ‘풀’이 구별되고 (1나)에서는 ‘n’과 ‘l’의 차이로 ‘안’과 ‘알’이 구별된다. 국어에서 ‘p’와 ‘p<sup>h</sup>’, ‘n’과 ‘l’은 단어의 뜻을 구별해 줄 수 있는 음성들이다. 반면 무성음 ‘p’와 유성음 ‘b’의 차이는 국어에서 단어의 뜻을 구별해 주지 못한다. ‘부부[pubu]’라는 단어의 표기에서 보듯 서로 다른 음성 ‘p’와 ‘b’를 모두 ‘ㅂ’으로 표기하는 것도 이 두 음성의 차이가 단어의 의미 변별과는 무관한 데서 비롯되었다.

## 2.2. 음운

### 2.2.1. 음운과 변이음

음운(音韻, phoneme)은 단어의 뜻을 구별해 주는 말소리의 최소 단위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서로 다른 음성들 중에는 단어의 뜻을 구분하는 데 관여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음운은 뜻을 구별해 줄 수 있는 음성적 특징을 가진 소리를 가리킨다.

어떤 두 개의 음성이 서로 다른 음운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그 두 음성에 의해서만 뜻이 구별되는 최소 대립쌍이 존재하는지를 살피는 것이 편리하다. 최소 대립쌍은 같은 자리에 오는 두 소리의 차이에 의해 뜻이 구별되는 단어의 쌍을 말한다. 앞선 (1)에서 ‘불’과 ‘풀’은 ‘p’와 ‘p<sup>h</sup>’, ‘안’과 ‘알’은 ‘n’과 ‘l’의 차이에 의해서만 구별되는 최소 대립쌍들이다. 그러므로 ‘p’와 ‘p<sup>h</sup>’, ‘n’과 ‘l’은 별개의 음운에 속한다. 반면 ‘p’와 ‘b’는 국어에서 최소 대립쌍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별개의 음운이 되지 못한다.

한 음운은 항상 동일한 음성으로 실현되지는 않는다. 조건에 따라 조금씩 다른 음성으로 실현된다. 국어의 ‘ㅂ’이라는 음운은 단어의 첫머리에서는 폐쇄되었다가 파열되는 무성음 ‘p<sup>ʰ</sup>’로 실현되지만 유성음 사이에 놓일 때에는 유성음 ‘b’로 실현된다.

또한 음절의 종성에서는 같은 무성음이라도 파열 단계가 생략된 미파음 ‘p’로 실현된다. 이 세 가지 음성은 한 음운에 속하므로 모두 ‘ㅂ’으로 표기하지만 물리적으로는 구분된다. 이처럼 한 음운에 속하지만 서로 다른 음성들을 변이음(變異音, allophone)이라고 부른다.<sup>#1#</sup>

한 음운의 변이음들은 몇 가지 특징을 지닌다. 우선 변이음들은 대체로 실현되는 조건이 정해져 있다. ‘ㅂ’의 변이음만 하더라도 단어의 첫머리, 유성음 사이, 음절 종성이라는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변이음으로 실현된다. 다음으로 변이음들은 서로 상보적 분포를 이룬다. 변이음들이 실현되는 조건이 다르므로 변이음들의 나타나는 분포가 겹칠 수 없다.<sup>4)</sup> 변이음들의 차이로 인해 생겨나는 최소 대립쌍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모든 음운들은 다양한 변이음들을 가지지만 모음보다는 자음에서 변이음의 차이가 더 두드러진다.<sup>5)</sup> 국어 자음의 변이음은 보통 음절 내에서의 위치, 인접 음소에 따라 실현 양상이 달라진다.

(2) 가. 음절의 종성에서는 파열 단계가 생략된다.

나. 유성음 사이에서는 유성음으로 실현된다.

다. 경구개 부근에서 나는 음성 앞에서는 경구개음화가 일어난다.

(2가)는 미파화(未破化) 현상과 관련된다. ‘ㅂ, ㄷ, ㄱ’과 같이 파열 단계를 거쳐야 하는 자음들이 ‘압, 안, 악’처럼 음절 종성에 놓이면 파열 단계가 생략되어 미파음으로 실현된다. (2나)는 유성음화 현상과 관련된다. ‘부부, 바다, 가구’에서 둘째 음절에 놓인 ‘ㅂ, ㄷ, ㄱ’은 앞뒤로 인접한 유성음의 특성에 동화되어 무성음이 아닌 유성음 ‘b, d, g’로 실현된다. (2다)는 음성적 구개음화 현상과 관련된다. ‘니, 녀, 시, 셔’ 등에서의 ‘ㄴ, ㅅ’은 원래는 경구개음이 아니지만 뒤에 오는 모음 ‘ㅣ, ㅟ’ 등의 위치에 동화되어 경구개 부근으로 이끌리게 된다.

## 2.2.2. 음운의 종류

음운은 그 속성에 따라 음소(音素, phoneme)와 운소(韻素, prosodeme)의 두 가지로 구분한다. 음소는 분절음(分節音, segment)이라고도 한다. 쉽게 쪼갤 수 있는 소리가 음소이다. 운소는 초분절음(超分節音, supra-segment)이라고도 한다. 음소와 달리 그것만 따로 쪼갤 수는 없는 소리가 운소이다. 운소는 음운 또는 음운의 결합체에 얹혀서 실현될 뿐 홀로 실현되지는 않는다.

4) 경우에 따라서는 동일한 환경에서 서로 다른 변이음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변이음들은 무조건 변이음, 자유 변이음 등으로 부른다. 가령 ‘부부’에서 둘째 음절의 ‘ㅂ’은 유성 파열음인 ‘b’로 실현되지만 때로는 유성 마찰음 ‘β’로도 실현된다.

5) 모음의 경우 비음에 인접하면 비모음에 가까운 모음이 실현되고, 유기음이나 ‘ㅅ, ㅆ’이 고모음에 선행하면 고모음은 무성음에 가깝게 발음된다.

(3) 가. 음소 : 자음, 모음, 반모음

나. 운소 : 장단, 고저, 강약

(3가)에서 보듯 음소는 다시 자음, 모음, 반모음의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자음과 모음은 그 특성이 최대한 구분되는 소리이다. 뒤에서 자세히 살피겠지만 자음과 모음은 조음 방식이나 음절 내에서의 역할 등에서 모두 상반되는 모습을 보인다. 반모음은 자음과 모음의 중간적인 성격을 가진 음소 부류로 자음과 비슷한 점도 지니고 모음과 비슷한 점도 지닌다. (3나)의 운소는 소리의 길이로 나타나는 장단, 높낮이로 나타나는 고저, 세기로 나타나는 강약이 구분된다. 이 중 현대 국어의 운소로서 표준 발음에서 인정하는 것은 장단뿐이다.

## 참고 문헌

- 김성규·정승철(2005), 『소리와 발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김성근(1995), 『조선어어음론연구』, 사회과학출판사.  
배주채(2003), 『한국어의 발음』, 삼경문화사.  
송철의(1993), 「자음의 발음」, 『새국어생활』 3권 1호, 국립국어연구원, 3~22.  
신지영(2000), 『말소리의 이해』, 한국문화사.  
이문규(2004), 『국어 교육을 위한 현대 국어 음운론』, 한국문화사.  
이병근·최명옥(1997), 『국어음운론』,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이진호(2012), 『한국어의 표준 발음과 현실 발음』, 아카넷.  
이진호(2014), 『(개정판)국어 음운론 강의』, 삼경문화사.  
이현복(1974), 「국어 말토막과 자음의 음가」, 『한글』 154, 한글학회, 5~16.  
이호영(1996), 『국어음성학』, 태학사.  
이희승(1955), 『국어학개설』, 민중서관.  
정연찬(1997), 『한국어음운론』(개정판), 한국문화사.  
최명옥(2004), 『국어 음운론』, 태학사.  
최현배(1937), 『우리말본』, 연희전문학교 출판부.  
허 웅(1985), 『국어 음운학-우리말 소리의 오늘·어제-』, 샘문화사.

---

#1# #국교# #한교# <변이음의 인식과 교육> 모국어 화자의 경우 한 음운의 변이음 실현이 자동적으로 일어나며 변이음의 차이를 잘 인식하지 못한다. 한국인들이 ‘가구’의 두 ‘ㄱ’이 서로 다른 음성에 속한다는 사실을 쉽게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이와 관련된다. 그래서 국어 교육에서는 변이음 교육을 특별히 시킬 필요가 없다. 이미 국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체득되었고 이것을 의식적으로 구별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어 교육은 상황이 다르다. 외국어 화자들은 한국어의 변이음 실현을 따로 익히지 않으면 곤란하다. 따라서 변이음의 실현을 정확히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대다수의 한국인들이 변이음의 실현 양상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즉 한국인들이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때에는 변이음 실현 조건이나 양상을 따로 외우거나 의식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어 교육에서는 스스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잘 구별하지도 못하는 변이음의 차이를 의식적으로 가르쳐야 하는 데서 오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 ii. 자음

- ▶ 핵심어(keywords): 자음, 양순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성문음
- ▶ 관련 항목: 음소, 모음, 음절
- ▶ 표준화 대상 문법 용어: 파열음, 유기음, 성문음

### 1. 자음의 개념

자음(子音, consonant)은 조음 과정에서 공기의 흐름이 다양한 방해를 받으면서 발음되는 소리이다. 조음체와 조음점이 맞닿아서 공기의 흐름이 막히기도 하고 조음체와 조음점 사이의 틈 사이로 강한 마찰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 방식이 어떻든 모든 자음은 공기가 일정한 방해를 받는다.

자음의 속성을 음향 분석기로 살펴보면 파동이 불규칙적이고 비주기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특성은 자음을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는 것과 관련된다. 공기의 흐름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음향적으로 복잡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자음은 음절 내에서 중성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 음절이 자음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언어에 따라서는 일부 자음이 중성의 역할을 대신하기도 하지만 흔한 것은 아니다.<sup>1)</sup> 더욱이 국어는 자음이 음절의 중성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전혀 없다. 자음을 흔히 ‘닿소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것은 자음이 다른 소리와 함께 쓰여야만 날 수 있다는 의미로 자음의 속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sup>2)</sup>

### 2. 자음 목록

현대 국어의 자음 목록은 다음의 19개이다.

- (1) ㄱ, ㅋ, ㄴ, ㄷ, ㅌ, ㄹ, ㅁ, ㅂ, ㅅ, ㅆ, ㅇ, ㅈ, ㅊ, ㅌ, ㅎ, ㅎ

현대 국어의 자음 목록은 지역 차이나 사회적 변수 등과 상관없이 대체로 일정하다. 단모음의 수가 지역이나 세대에 따라 상당히 차이 나는 것과 비교하면 자음 목록은 동질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경상도 방언의 동쪽에 위치한 몇몇 방언에서는 ‘ㅅ’과 ‘ㅆ’이 구별되지 않고 모두 ‘ㅅ’으로만 발음되기도 한다. 그래서 ‘쌀’과 ‘살’을 모두 ‘살’이라고 발음하게 되는 것이다.<sup>3)</sup> 그러나 이런 지역에서조차 젊

1) 가령 영어 단어 중 ‘bottle’의 둘째 음절에는 모음이 없고 중성 역할을 ‘l’이 하고 있다. 이처럼 중성으로 쓰일 수 있는 자음을 성절성 자음(syllabic consonant)라고 한다.

2) 자음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 ‘consonant’의 어원에도 이런 사실이 담겨 있다. ‘consonant’는 어원적으로 ‘함께’를 의미하는 ‘con’과 ‘소리’를 의미하는 ‘sona’가 결합된 말이다. 이에 반해 홀로 음절의 중성으로 쓰일 수 있는 모음은 ‘홀소리’라고 부르기도 한다.

은 세대로 올수록 ‘ㅅ’과 ‘ㅆ’의 구별이 어느 정도 되고 있다. 이것은 교육과 매체 언어의 영향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3. 자음의 분류 기준

자음의 분류 기준은 자음이 발음되는 특징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즉 자음을 발음할 때 일어나는 공기의 방해 과정을 중시하여 그러한 방해가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방해가 일어나는 위치를 조음 위치, 방해가 일어나는 방식을 조음 방법이라고 한다.

조음 위치는 발음에 관여하는 조음체와 조음점을 기준으로 하는데 대체로 조음점을 더 중시한다. 조음 위치에 따라서는 크게 ‘양순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성문음’의 다섯 가지 부류를 구분한다.<sup>4)</sup>

#### (2) 국어 자음의 조음 위치

양 순 음	ㅍ, ㅑ, ㅓ, ㅕ
치 조 음	ㅌ, ㅍ, ㅎ, ㅗ, ㅛ, ㅜ, ㅠ
경구개음	ㄱ, ㅋ, ㆁ
연구개음	ㄷ, ㅌ, ㄴ, ㅇ
성 문 음	ㅎ

양순음은 두 입술 사이에서 발음되는 자음이다. 아랫입술과 윗입술이 맞닿으면서 내게 된다. 치조음은 혀끝을 치조 부근에 대거나 가까이 접근시켜 발음한다. ‘혀끝’은 모든 조음체 중 가장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자음을 발음하는 데 관여한다. 국어에서도 혀끝을 이용하는 치조음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가장 다양하다. 경구개음은 혀바닥의 앞부분을 경구개 부근으로 이동하여 내는 자음으로 여기서 발음되는 자음의 유형은 많지 않다.<sup>5)</sup> 연구개음은 혀바닥의 뒷부분을 연구개 부근에 대고 발음하는 자음이다. 연구개음의 유형은 양순음과 평행적이다. 성문음은 후두, 더 정확히는 성대 사이인 성문을 통과하면서 발음되는 소리이다. 후두는 여러 가지 말소리를 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언어든지 다양한 자음이 속하기 어렵다.

자음의 조음 방식은 조음체와 조음점의 접근 정도나 방식, 코 안으로 공기가 흐르는지의 여부에 따라 구별된다. 국어 자음은 조음 방식에 따라 ‘파열음, 마찰음, 파찰

- 3) 이런 방언에서는 경음화가 적용되어야 하는 환경에서도 ‘ㅅ’이 ‘ㅆ’으로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 가령 ‘없어서’는 표기 그대로 ‘[업서서]’로 발음하는 것이다.
- 4) 조음체를 중시할 때에는 ‘순음(또는 입술소리), 설단음(또는 혀끝소리), 설면음(또는 혀바닥소리), 설근음(또는 혀뿌리소리)’ 등으로 구분한다.
- 5) 치조음과 경구개음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부류로 묶는 방법도 제안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을 택하면 ‘구개음화’로 설명해 오던 일련의 현상들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점, 경구개음 뒤에서 주로 일어나는 반모음 ‘j’의 탈락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이 부담으로 남는다.

음, 비음, 유음’의 다섯 가지가 구별된다.

### (3) 국어 자음의 조음 방식

파열음	ㅂ, ㅃ, ㅍ, ㄸ, ㅌ, ㅊ, ㅋ, ㆁ
마찰음	ㅅ, ㅆ, ㅎ
파찰음	ㅈ, ㅊ, ㅍ
비 음	ㅁ, ㄴ, ㅇ
유 음	ㄹ

파열음은 특정한 조음 위치에서 공기의 흐름이 ‘폐쇄-지속-파열’의 세 단계를 거쳐 발음되는 자음이다. ‘파열음’이라는 용어는 세 번째 단계를 반영한 용어인데 때로는 첫 번째 단계를 반영한 ‘폐쇄음’을 쓰기도 한다. 국어의 파열음은 음절 종성에 놓이면 파열 단계가 생략되는 미파음으로 실현된다. 이것은 국어의 중요한 발음상 특징이다.

마찰음은 파열음과 달리 공기의 흐름이 차단되는 경우가 없다. 조음체가 조음점에 근접한 상태에서 그 사이로 공기가 흐르며 발음되는 것이 마찰음이다. 파찰음은 파열음과 마찰음의 성격을 모두 지닌다. 처음에 공기의 흐름이 폐쇄된 후 유지된다는 점은 파열음의 앞부분과 같지만 그 이후 틈을 조금만 열어 마찰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마찰음과 같다.<sup>6)</sup> ‘파찰음’이라는 용어는 이러한 조음상의 특징을 반영한 것이다.<sup>7)</sup>

비음은 입 안에서 공기가 폐쇄-지속-파열의 단계를 거쳐 발음된다는 점에서는 파열음과 동일하다. 그러나 공기가 코 안으로 흐른다는 차이가 있다. 즉 입 안에서 공기가 차단된 순간에도 코 안으로는 공기가 계속 흐르는 것이다.

유음은 조음 방식을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 유음은 자음 중 공기의 방해 정도가 가장 약하며 유음에 속하는 여러 음성들은 그 특성이 상이하다. 그래서 유음의 자음적 특성을 하나로 일반화해 내기가 어렵다. 유음은 공기가 마찰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만 방해를 받으면서 물 흐르듯 나오는 소리로 정의해 두기로 한다.

국어 유음의 변이음에는 크게 탄설음과 설측음이 있다. 탄설음은 혀끝을 치조 부위에 가볍게 대었다가 내는 소리인데 ‘나라’와 같이 비어두(非語頭)의 음절 초성에서 발음된다. 설측음은 혀끝을 치조 가운데 대고 혀의 측면으로 공기가 흐르게 하여 내는 소리이다. 설측음은 ‘ㄹ’이 음절 종성에 놓이거나 ‘ㄹ’ 뒤에 이어질 때 나타난다.

## 4. 자음 체계

국어의 자음을 조음 위치와 조음 방식이라는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은 자음 체계를 설정할 수 있다.

6) 파열음과 파찰음의 가장 큰 차이는 막아 놓은 공기를 개방하는 방식에 있다. 파열음은 한꺼번에 터뜨리듯 개방하지만 파찰음은 좁은 틈 사이로 서서히 개방한다.

7) 순수하게 음성적인 과정만 고려한다면 폐쇄 후 마찰이 되므로 ‘파찰음’보다는 ‘폐찰음’이 더 정확하다.

(4) 국어의 자음 체계

조음 위치 조음 방법			양순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후음
장애음	파열음	평음	ㅂ	ㄷ		ㄱ	
		유기음	ㅍ	ㅌ		ㅋ	
		경음	ㅃ	ㄸ		ㄲ	
	마찰음	평음		ㅅ			
		유기음					ㅎ
		경음		ㅆ			
	파찰음	평음			ㅈ		
		유기음			ㅊ		
		경음			ㅉ		
공명음	비음	-	ㅁ	ㄴ		ㅇ	
	유음	-		ㄹ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은 자음 중에서도 공기의 흐름이 방해 받는 정도가 큰 편이다. 이런 자음들을 묶어서 흔히 장애음(obstruent)이라고 부른다. 국어 장애음의 특징은 삼지적 상관속이 존재한다는 점이다.<sup>8)</sup> 국어의 장애음 중 마찰음을 제외하면 ‘ㅂ, ㅍ, ㅃ’, ‘ㄷ, ㅌ, ㄸ’, ‘ㄱ, ㅋ, ㄲ’, ‘ㅅ, ㅆ, ㅉ’과 같이 조음 위치가 같은데도 다른 음성적 차이 때문에 구별되는 자음들이 있다. 일반적으로 ‘ㅂ, ㄷ, ㄱ, ㅅ’을 평음(또는 예사소리), ‘ㅍ, ㅌ, ㅋ, ㅆ’을 유기음(또는 거센소리), ‘ㅃ, ㄸ, ㄲ, ㅉ’을 경음(또는 된소리)라고 부르며 이것들을 묶어서 ‘삼지적 상관속’이라고 부른다. 마찰음은 삼지적 상관속을 이루지는 않지만 평음, 유기음, 경음이 모두 나타나기는 한다.<sup>8)</sup>

삼지적 상관속을 이루는 평음, 유기음, 경음은 성문의 크기, 기류의 양, 폐쇄 지속 시간, 후두의 긴장 등 여러 가지 특성에서 차이를 보인다. 평음은 발음할 때 성문의 크기가 크지 않아서 기류의 양도 유기음과 경음의 중간 정도가 된다. 폐쇄 지속 시간은 가장 짧으며 후두의 긴장도 낮은 편이다. 경음은 성문의 크기는 가장 작아서 기류의 양도 매우 적다. 반면 폐쇄 지속 시간이 길고 후두의 긴장이 커서 ‘된’ 느낌을 준다. 유기음은 성문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많은 기류가 흐른다. 또한 폐쇄 지속 시간도 길고 후두의 긴장도 높은 편이다.

한편 비음과 유음은 공기가 방해를 받는 정도가 장애음에 비해 약하며 입 안이나 코 안에서의 울림이 크다. 또한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항상 성대의 울림을 동반하는 편이다. 이런 특징을 반영하여 비음과 유음은 장애음에 대립되는 공명음(sonorant)으

8) ‘ㅎ’은 유기음이 아닌 평음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많다. 이것은 ‘ㅎ’의 유기음적 특징이 ‘ㅍ, ㅌ, ㅋ, ㅆ’과 같은 다른 유기음에 비해 상당히 낮은 데서 비롯된다. 그러나 ‘ㅎ’은 ‘농고[노코], 국화[구과]’와 같이 다른 평음과 결합할 때 축약되어 유기음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러한 음운론적 기능을 중시하여 유기음으로 분류하게 된다.

로 묶는다.

국어의 장애음과 공명음을 비교하면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다. 장애음에는 삼지적 상관속이 있지만 공명음에는 그런 구별이 없다. 그래서 장애음의 수가 공명음보다 훨씬 많다. 그러나 장애음 중에는 음절 종성에서 발음될 수 없는 것들이 많다. 장애음 중 음절 종성에서 발음될 수 있는 것은 ‘ㄴ, ㄷ, ㄱ’의 세 개에 불과하다. 반면 공명음은 네 개의 자음 모두가 음절 종성에서 발음될 수 있다. 또한 장애음이 공명음보다 앞에 놓이면 반드시 장애음이 다른 공명음으로 바뀌어야 한다. ‘국민[궁민], 섭리[섬니]’ 등에서 공명음 앞에 장애음이 올 때 장애음이 비음으로 바뀌는 것은 모두 그러한 예이다. 반면 공명음이 장애음보다 앞에 놓이면 꼭 그럴 필요가 없다. ‘상담, 발견’ 등에서 공명음인 ‘ㅇ, ㄹ’이 장애음 앞에서 그대로 발음되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잘 말해 준다.

## 참고 문헌

- 권경근(2005), 「국어의 음운론적 세기에 대하여」, 『한글』 270, 한글학회, 65~86.
- 김선철(2012), 「/ㅎ/에 대한 음운론적 연구 : /ㅎ/의 성격과 ㅎ-말음 용언을 중심으로 -」, 『언어학』 64, 한국언어학회, 31~47쪽.
- 김성규·정승철(2005), 『소리와 발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김성근(1995), 『조선어어음론연구』, 사회과학출판사.
- 민현식(1999), 『국어정서법 연구』, 태학사.
- 배재연 외(1999), 「음성 환경에 따른 한국어 폐쇄음의 음향적 특성 : 시간적 특성을 중심으로」, 『음성과학』 5-2, 한국음성학회, 139~159.
- 배주채(1989), 「음절말자음과 어간말자음의 음운론」, 『국어연구』 91, 서울대 국어연구회.
- 배주채(1996), 『국어음운론 개설』, 신구문화사.
- 배주채(2003), 『한국어의 발음』, 삼경문화사.
- 송철의(1982), 「국어의 음절문제와 자음의 분포제약에 대하여」, 『관악어문연구』 7, 서울대 국문과, 175~194.
- 송철의(1993), 「자음의 발음」, 『새국어생활』 3권 1호, 국립국어연구원, 3~22.
- 신지영(2000ㄱ), 『말소리의 이해』, 한국문화사.
- 신지영(2000ㄴ), 「국어 평음의 음성적 실현에 대한 음운론적 해석-평폐쇄음을 중심으로-」, 『한글』 250, 한글학회, 5~41.
- 양순임(2001), 「유기음과 성문 열림도」, 『우리말 연구』 11, 우리말학회, 101~121.
- 이경희(2000), 「국어의 /ㅅ/는 평음인가 격음인가」, 『국어학』 36, 국어학회, 65~95.
- 이관규(2002), 『학교 문법론』(개정판), 월인.
- 이문규(2004), 『국어 교육을 위한 현대 국어 음운론』, 한국문화사.
- 이병근(1980), 「동시조음 규칙과 자음 체계-Prestopped Nasals를 중심으로-」, 『말소

리』 1, 대한음성학회, 40~55.

이병근·최명옥(1997), 『국어음운론』,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이승재(1980), 「구례지역어의 음운체계」, 『국어연구』 45, 서울대 국어연구회.

이승재(1990), 「자음체계 및 중화」,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9~19.

이진호(2009), 『국어 음운 교육 변천사』, 박이정.

이진호(2012), 『한국어의 표준 발음과 현실 발음』, 아카넷.

이진호(2014), 『(개정판)국어 음운론 강의』, 삼경문화사.

이현복(1974), 「국어 말토막과 자음의 음가」, 『한글』 154, 한글학회, 5~16.

이호영(1996), 『국어음성학』, 태학사.

이희승(1955), 『국어학개설』, 민중서관.

정승철(1997), 「자음의 변화」, 『국어사연구』, 태학사, 423~455.

정연찬(1997), 『한국어음운론』(개정판), 한국문화사.

주시경(1914), 『말의 소리』, 신문관.

최명옥(1982), 『월성지역어의 음운론』, 영남대 출판부.

최명옥(2004), 『국어 음운론』, 태학사.

최현배(1929), 『우리말본 첫재매』, 연희전문학교 출판부.

최현배(1937), 『우리말본』, 연희전문학교 출판부.

표진이(1975), 「한국어 폐색자음의 음향음성학적 양상」, 『한글』 155, 한글학회, 97~127.

허 웅(1985), 『국어 음운학-우리말 소리의 오늘·어제-』, 샘문화사.

---

#1# #한교# <삼지적 상관속과 한국어 발음 교육> 국어의 삼지적 상관속은 성대 울림의 유무와 관련을 맺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많은 언어들은 성대 울림의 유무를 이용하여 무성음과 유성음을 구분하지만 국어는 그렇지 않고 모두가 무성음이면서 다른 음성적 특징에 따라 평음, 유기음, 경음을 구분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어의 특성은 한국어 교육 또는 한국어 습득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 유성음과 무성음의 두 부류를 구분하는 데에만 익숙해 있던 외국인 화자들은 평음, 경음, 유기음을 정확히 구별하여 발음하기가 매우 힘들다.

### iii. 모음

- ▶ 핵심어(keywords): 모음(vowel), 단모음(simple vowel), 중모음(compound vowel), 이중 모음(diphthong), 반모음(semi-vowel)
- ▶ 관련 항목: 음소, 음절, 반모음화
- ▶ 표준화 대상 문법 용어: 중모음, 반모음, 상향 이중 모음, 하향 이중 모음

#### 1. 모음의 개념

모음은 조음 과정에서 공기의 흐름이 별다른 방해를 받지 않고 발음된다. 그래서 울림이 크며 규칙적인 파동이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홀로 음절의 중성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모음의 중요한 특징이다.

모음은 발음되는 방식이나 구성 음소의 수에 따라 단모음(單母音, simple vowel)과 중모음(重母音, compound vowel)을 구분한다.<sup>1)</sup> 단모음은 단일한 조음 동작으로 발음되며 하나의 음소로 이루어져 있다. 단모음을 발음할 때에는 조음 기관들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입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

중모음은 복수의 조음 동작으로 발음되며 둘 이상의 음소로 이루어져 있다. 중모음을 발음할 때에는 둘 이상의 음소를 발음해야 하기 때문에 입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중간에 바뀌게 된다. 중모음은 다시 이중 모음과 삼중 모음을 나눌 수 있다.<sup>2)</sup> 이중 모음은 두 개의 음소로 이루어지고 삼중 모음은 세 개의 음소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중 모음은 발음 도중에 입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한 번 바뀌고 삼중 모음은 두 번 바뀐다. 삼중 모음은 중세 국어에는 존재했지만 그 이후 변화를 통해 모두 사라져서 현대 국어의 중모음에는 이중 모음만 남아 있다.<sup>#1#</sup>

- (1) 가. ㅏ, ㅑ, ㅓ, ㅕ, ㅣ  
나. ㅗ, ㅛ, ㅜ, ㅠ, ㅡ

(1가)는 단모음의 예이다. 이 모음들을 발음하는 동안에는 입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반면 (1나)는 중모음의 예이다. 중모음 중에서도 이중 모음에 속하기 때문에 중간에 입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한 번 바뀐다.

#### 2. 단모음

- 
- 1) 단모음의 영어 표현은 ‘monothong’이 일반적이지만 이것은 주로 이중 모음인 ‘diphthong’이나 삼중 모음인 ‘triphthong’과 대비할 때 쓰인다. 중모음을 나타내는 ‘compound vowel’과 대립되면서도 대등한 용어로는 오히려 ‘simple vowel’이 더 낫다.
- 2) 이론적으로는 사중 모음이나 오중 모음도 있을 수 있으나 거의 보고된 적이 없다. 특히 국어의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삼중 모음까지만 존재했다.

## 2.1. 단모음의 목록

현대 국어의 단모음 목록은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규범 발음과 현실 발음이 다를 뿐만 아니라 지역이나 연령에 따라서도 다른 모습이다. 단모음의 수는 최대 10개에서 최소 6개까지 다양한 변이를 나타내고 있다.

(2) 가. 표준 발음(원칙) :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ㅡ ㅣ (10개)

나. 표준 발음(허용) :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ㅣ (8개)

다. 현실 발음 : ㅏ ㅑ(E) ㅓ ㅕ ㅗ ㅛ ㅣ (7개)

(2가)는 「표준 발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0개의 단모음이다. 이러한 10개의 단모음을 발음하는 화자는 경기, 강원, 충청 등 중부 지역의 노년층에 국한된다.<sup>3)</sup> (2나)는 「표준 발음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8개의 단모음이다. (2가)와 비교하면 ‘ㅛ, ㅜ’가 단모음 목록에서 제외되어 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ㅛ, ㅜ’를 단모음이 아닌 이중모음으로 발음하고 있다.<sup>4)</sup> (2다)는 현실 생활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발음하고 있는 7개의 단모음이다. (2나)에서 ‘ㅑ’와 ‘ㅕ’의 구분이 사라진 것이 (2다)이다. 중년층 이하의 사람들은 지역이나 성별 등 여러 변수와 상관없이 (2다)와 같은 단모음 목록을 지닌다.<sup>#2#</sup> ‘ㅑ(E)’는 ‘ㅑ’와 ‘ㅕ’가 하나로 합류된 모음을 가리킨다. 경상도의 하위 방언 중에는 (2다)에서 더 줄어든 6개의 단모음만 나타나기도 한다. 이것은 ‘ㅓ’와 ‘ㅡ’가 구별되지 않기 때문이다.

## 2.2. 단모음의 분류 기준

자음과 달리 단모음은 발음될 때 공기의 흐름이 방해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단모음의 분류 기준으로는 공기의 방해가 일어나는 조음 위치나 조음 방법을 선택할 수가 없다. 모음의 분류 기준이 자음과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모음을 분류할 때에는 혀의 위치와 입술 모양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sup>5)</sup> 혀의 위치는 정확히 말하면 혀의 가장 높은 부분, 즉 최고점이 놓이는 자리를 말한다. 대부분의 경우 최고점의 전후 위치와 상하 높이를 구분하여 두 개의 하위 기준으로 나누고 있다. 입술 모양은 입술을 동그랗게 오므리는지의 여부를 중시한다. 이상의 세 가지 분류 기준을 가지고 단모음들을 분류하게 된다.

우선 혀의 전후 위치에 따라서는 크게 전설 모음과 후설 모음의 두 가지를 구분한

3) 이것도 약 30년 전의 방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현재는 10개의 단모음을 발음하는 화자의 수나 범위가 훨씬 더 줄어들었다.

4) ‘ㅛ, ㅜ’를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면 각각 ‘[we], [wi]’가 된다. 이 중 ‘[we]’는 ‘ㅑ’로 표기되는 이중모음에 해당한다.

5) 『훈민정음』에서 15세기 국어의 모음을 분류할 때에도 혀의 위치와 입술 모양을 고려하고 있다.

다. 전설 모음은 혀의 최고점이 경구개 부근의 앞쪽에 놓이며 후설 모음은 혀의 최고점이 연구개 부근의 뒤쪽에 놓인다.

(3)

구분	특징	예
전설 모음	혀의 최고점이 앞쪽(경구개 부근)에 놓임.	ㅣ, ㅅ, ㅈ, ㅊ, ㅊ
후설 모음	혀의 최고점이 뒤쪽(연구개 부근)에 놓임.	ㅡ, ㅗ, ㅛ, ㅜ, ㅠ

논의에 따라서는 후설 모음을 중설 모음과 후설 모음의 두 부류로 세분하기도 한다. 이때 중설 모음에는 대체로 ‘ㅡ, ㅗ, ㅛ’가, 후설 모음에는 ‘ㅜ, ㅠ’가 속하게 된다. 그러나 중설 모음과 후설 모음의 전후 위치 차이는 크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중설 모음을 따로 설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sup>6)</sup>

혀의 높이를 기준으로 할 때에는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의 세 부류로 나뉜다. 혀의 높이는 입의 벌어짐, 즉 개구도(開口度)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sup>7)</sup> 혀의 높이가 높으면 입이 적게 벌어지고 혀의 높이가 낮으면 입이 많이 벌어진다. 그래서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을 발음해 보면 혀의 높이에서도 차이가 나지만 개구도에서도 차이가 난다.<sup>#3#</sup>

(4)

구분	특징	예
고모음	혀의 최고점 위치가 가장 높음. 입은 가장 적게 벌어짐.	ㅣ, ㅊ, ㅡ, ㅜ
중모음	혀의 최고점 위치가 중간임. 입은 중간 정도 벌어짐.	ㅅ, ㅈ, ㅗ, ㅛ
저모음	혀의 최고점 위치가 가장 낮음. 입은 가장 많이 벌어짐.	ㅈ, ㅑ

혀의 높낮이에 따른 모음의 부류를 셋이 아닌 넷으로 나누는 태도도 존재한다. 이러한 방식은 혀의 높낮이 대신 개구도를 중시하던 이전 시기에 많이 채택되었다. 그리하여 ‘폐모음, 반폐모음, 반개모음, 개모음’의 네 가지를 구분하게 된다. 그런데 혀의 높낮이는 모든 단모음이 차이를 보인다. 같은 고모음이라고 하더라도 ‘ㅣ’가 다른

6) 엄밀히 말하면 모든 단모음은 혀의 전후 위치에서 차이를 보인다. 전설 모음만 하더라도 ‘ㅣ’가 가장 앞에서 나고 ‘ㅊ’는 상당히 뒤쪽에서 난다. 그러나 음소들의 분류에서 중요성이 떨어지는 차이는 무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7) 개구도를 기준으로 하면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대신 ‘폐모음(閉母音), 반폐모음(半閉母音), 반개모음(半開母音), 개모음(開母音)’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한다.

고모음보다 높이가 더 높으며 중모음이나 저모음 역시 모음마다 혀의 높이가 다르다. 이런 모음들 사이의 미세한 차이를 모음 체계에 모두 반영할 필요는 없다. 혀의 높이에 따라 세 부류만 나누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감안할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입술 모양에 따라 원순 모음과 평순 모음의 두 부류를 나누게 된다. 원순 모음은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는 모음이고 평순 모음은 그러지 않는 모음이다.

(5)

구분	특징	예
원순 모음	입술이 둥그랴게 오므라들.	ㅜ, ㅗ, ㅠ, ㅛ
평순 모음	입술이 오므라들지 않음.	ㅡ, ㅣ, ㅑ, ㅓ, ㅕ, ㅖ

입술의 오므림은 두 입술을 근접시켜 앞으로 내미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조음적으로 볼 때 입술을 오므리는 데에는 입이 적게 벌어질수록 유리하다. 즉 저모음보다는 고모음에 가까울수록 원순 모음이 되기에 더 적합한 것이다. 국어를 비롯한 많은 언어에서 저모음 계열에 원순 모음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이와 관련된다.

### 2.3. 단모음 체계

국어의 단모음을 혀의 전후 위치, 혀의 높이, 입술 모양이라는 세 가지 기준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은 단모음 체계를 설정할 수 있다.

(6)

	전설모음		후설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평순 모음	원순모음
고모음	ㅣ (i)	ㅟ(ü)	ㅡ(i)	ㅜ(u)
중모음	ㅕ(e)	ㅛ(ö)	ㅣ(Λ)	ㅗ(o)
저모음	ㅖ(ε)		ㅑ(a)	

각각의 단모음들은 세 가지 분류 기준 중 하나 이상에서 차이를 지니게 된다. 이때 차이 나는 분류 기준의 수에 따라 두 단모음 사이의 관계는 가까우면서 밀접할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다. 가령 ‘ㅑ’와 ‘ㅖ’는 혀의 전후 위치에서만 다를 뿐 나머지 두 가지 기준은 동일하여 상당히 가까운 관계가 된다. 반면 ‘ㅕ’와 ‘ㅖ’는 세 가지 분류 기준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매우 먼 관계가 된다. 이러한 단모음 사이의 친소 관계는 음운 변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 현상에서 중요하게 작용한다.<sup>8)</sup> 가까운 사이에 있는 모음들은 서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며, 하나의 음운 현상에서 동일한 역

8) 음소들 사이의 친소 관계를 흔히 ‘대립 관계’라고 한다.

할을 하는 경우도 많다.

### 3. 반모음

#### 3.1. 반모음의 개념

반모음(半母音, semi-vowel)은 일반인들이 쉽게 인식하기는 어려운 음소 부류이다.<sup>#4#</sup> 반모음은 이중 모음의 한 구성 요소로 쓰이기 때문에 이중 모음의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7) 가. 과 : ㄱ + w + ㅏ

나. 벼 : ㅂ + j + ㅓ

(7가)에서 자음인 ‘ㄱ’과 단모음인 ‘ㅏ’를 제외한 나머지 ‘w’가 반모음에 해당한다. 이때의 ‘w’는 ‘ㅏ’와 결합하여 이중 모음 ‘ㅏ’를 이룬다. (7나)에서는 ‘j’가 반모음에 해당한다. (7나)의 ‘j’는 ‘ㅓ’와 결합하여 이중 모음 ‘ㅓ’를 구성한다.

반모음은 음성적 특징이나 음운론적 기능을 볼 때 자음과 모음의 중간적인 성격을 가진다.<sup>9)</sup> 음성적 특징을 보면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별다른 방해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단모음과 비슷하다. 다만 단모음보다 혀의 최고점 위치가 더 높다는 차이가 있다. 반면 음운론적으로는 반모음이 음절의 중성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음과 공통적인 모습을 보인다.

예전에는 반모음과 자음의 공통점에 초점을 두어 반모음을 자음 중 마찰음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반모음은 자음보다는 모음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8) 가.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뀌는 현상이 존재한다. (예) 오 + 아서 → [와서], 이기 + 어도 → [이겨도]<sup>10)</sup>

나. 반모음은 단모음과 결합하여 이중 모음을 이룬다.

다. 음절 구조에서 반모음은 중성에 놓인다.

(8가)는 반모음화라고 불리는 음운 현상이다. 단모음과 반모음 사이의 공통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 (8나) 역시 반모음이 모음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중 모음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다.<sup>11)</sup> (8다)에서 반모음이 자음에 가깝다면 초성에 자음군(consonant cluster)이 발음되지 못하는 국어에서는 ‘자음 + 반모음’으

9) 이러한 특징 때문에 ‘반모음’ 대신 ‘반자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반모음은 자음보다는 모음에 더 가깝기 때문에 ‘반모음’이 더 일반적으로 쓰인다.

10) ‘오 + 아서 → [와서]’에서는 단모음 ‘ㅏ’가 ‘w’로, ‘이기 + 어도 → [이겨도]’에서는 단모음 ‘ㅣ’가 ‘j’로 바뀌었다.

11) 이중 모음의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 않다. 자세한 것은 4.2.를 참고할 수 있다.

로 시작하는 음절이 존재할 수 없지만 실제로는 ‘과, 벼’ 등과 같은 음절이 많이 존재한다. 이것은 반모음이 음절 중성에 놓임을 의미하며 반모음이 자음보다는 모음에 더 가까움을 말해 준다.

반모음을 나타내는 용어는 매우 다양하다.<sup>12)</sup> 그중 ‘반모음’과 더불어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은 ‘활음’이다. ‘반모음’은 학교 문법에서 많이 쓰이고 ‘활음’은 이론 문법에서 많이 쓰인다. 그런데 활음보다는 반모음이 좀 더 적절한 용어로 판단된다. 우선, 자음, 모음이 음성적 속성과 무관한 용어이므로 여기에 대응하는 용어도 활음보다는 반모음이 더 낫다. 활음은 미끄러지듯 발음한다는 음성적 속성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자음이나 모음과 대등하지 않다. 다음으로 활음에는 반모음 ‘j, w’ 이외에 ‘h’를 비롯한 후음도 포함될 수 있다. 활음의 범위가 반모음보다 좀 더 넓은 것이다. 게다가 한 음에서 다른 음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음도 활음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러한 음들은 독립된 음소로 처리하지 않고 두 음소 사이의 전이 과정 중 일부로 볼 뿐이다. 이상의 여러 사실들을 감안할 때 ‘j, w’만을 명시적으로 지시하기에는 활음보다 반모음이 더 적절하다.

### 3.2. 반모음 목록

언어 보편적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반모음은 ‘j’와 ‘w’이다. 국어의 반모음으로 확실하게 인정되는 것도 이 두 가지이다. ‘j’와 ‘w’의 음성적 특성을 모음의 분류 기준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9) 가. j : 전설이면서 평순이되 혀의 높이는 고모음보다 높음
- 나. w : 후설이면서 원순이되 혀의 높이는 고모음보다 높음

여기서 알 수 있듯이 ‘j’와 ‘w’는 고모음보다 혀의 높이가 높다는 공통점을 지니지만 혀의 전후 위치나 입술 모양에서는 상반된다. ‘j’의 특성은 대체로 단모음 ‘i’와 비슷한 모습이다. 실제로 ‘j’는 구개음화, ‘이’ 모음 역행 동화, 두음 법칙, 반모음화 등 여러 가지 음운 현상에서 단모음 ‘i’와 짝을 이룬다. ‘w’의 특성은 대체로 단모음 ‘u’ 또는 ‘o’와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u, o’가 반모음화의 적용을 받으면 ‘w’가 된다는지, ‘u, o’와 ‘w’가 결합하는 이중 모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지 하는 것은 이들 사이의 공통점을 잘 말해 준다.

국어의 반모음 목록과 관련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구체적으로는 국어의 반모음 목록에 ‘ɰ’와 ‘ɯ’를 추가해야 하는지가 관건이다. 우선 ‘ɰ’와 ‘ɯ’의 음성적 특징을 간

12) 반모음을 나타내는 다양한 용어들은 그 성격에 따라 몇 부류로 나눌 수 있다. (1) 자음과 모음의 중간적인 성격을 드러내는 것: 반자음, 반모음, 반홀소리, 반음(半音), 반닿소리 등, (2) 음절의 중성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 부모음(副母音), 버금홀소리, 비성절(非成節) 모음 등, (3) 조음체가 미끄러지듯 발음된다는 특성을 드러내는 것: 과도음(過渡音), 추이음(推移音), 미끄럼소리, 경과음(經過音), 활음(滑音), 전이음(轉移音), 이동음(移動音), 짧은 모음, 순간 모음 등

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0) 가. ㅜ : 후설이면서 평순이되 혀의 높이는 고모음보다 높음  
나. ㅛ : 전설이면서 원순이되 혀의 높이는 고모음보다 높음

(10가, 나)의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ㅜ’는 단모음 ‘ㅡ’와 성질이 유사하고, ‘ㅛ’는 단모음 ‘ㄱ’과 성질이 유사하다. (10가)에 제시된 ‘ㅜ’의 음소 설정 여부는 이중 모음 ‘ㄱ’의 분석 태도와 관련된다. 대체로 ‘ㄱ’는 단모음 ‘ㅡ’ 뒤에 반모음 ‘j’가 결합된 이중 모음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반대로 반모음 ‘ㅜ’와 단모음 ‘ㅣ’가 순서대로 결합된 이중 모음이라고 보는 견해도 상당하다.<sup>13)</sup> 특히 실험 음성학적인 분석 결과에서는 후자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흔히 보고되고 있다. 만약 이러한 분석을 받아들이면 반모음 목록에 ‘ㅜ’를 추가해야 한다.

(10나)의 반모음 ‘ㅛ’는 원래 ‘w’와 ‘j’의 변이음으로 실현된다.

- (11) 가. 위[ɰi], 좌[ɰa]  
나. 유[ɰu], 교[kɰo]

(11가)의 ‘ㅛ’는 ‘w’ 뒤에 ‘ㅣ’가 오거나 ‘w’ 앞에 경구개음이 오면 ‘w’의 변이음으로 나타난다. 연구개 부근에서 발음되는 ‘w’가 ‘ㅣ’나 경구개음의 조음 위치에 동화되어 경구개 부근에서 발음되는 ‘ㅛ’로 실현된다. (11나)의 ‘ㅛ’는 ‘j’ 뒤에 ‘ㄴ, ㄷ’가 올 때 ‘j’가 ‘ㄴ, ㄷ’의 원순성에 영향을 받아 나타난 것이다. 이처럼 (11)의 ‘ㅛ’는 별개의 음소가 아니고 반모음 ‘w, j’의 변이음 자격을 지닐 뿐이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w, j, ㅛ’의 차이로 단어의 뜻이 구별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

- (12) 끼 + 어→껴[kʰjæ:], 꾸 + 어→꿔[kʰwæ:], 꺾 + 어→꺾[kʰɰæ:]

(12)에서 세 용언 어간의 활용형을 구별해 주는 것은 반모음의 종류이다. 음소의 어휘 변별성을 중시하면 ‘ㅛ’는 ‘w’나 ‘j’와 구별되는 음소로 분석하게 된다.

만약 반모음 ‘ㅜ’와 ‘ㅛ’를 음소로 인정한다면 국어의 반모음 수는 4개로 늘어난다. 그러나 추가된 반모음들은 나타나는 분포가 극도로 제한된다. ‘ㅜ’는 오로지 ‘ㅣ’에만 선행할 수 있을 뿐이다. ‘ㅛ’는 주로 ‘ㅣ’ 앞에서만 나타나며 형태소 내부에는 결코 나타나지 않는다는 제약을 더 가진다.<sup>14)</sup> 또한 ‘ㅜ’는 이중 모음 ‘ㄱ’을 ‘ㅡ+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분석할 수도 있다는 점, ‘ㅛ’는 (12)와 같은 예가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존재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13) ‘ㄱ’을 분석하는 방안에는 다른 제삼의 견해도 있다. 자세한 것은 4.1.을 참고할 수 있다.

14) 이것은 ‘ㅛ’가 ‘ㄱ, ㄱ’로 끝나는 용언 어간 뒤에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 반모음화가 적용되어 나오기 때문이다.

국어의 반모음으로 ‘j, w’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 4. 이중 모음

### 4.1. 이중 모음의 개념

이중 모음(diphthong)은 두 가지 측면에서 단모음과 차이를 보인다. 우선 이중 모음은 단모음과 달리 두 개의 음소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발음할 때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한 번 바뀐다는 점도 단모음과 다른 점이다. 이 두 가지 차이점은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이중 모음이 두 음소로 이루어져 있는 이상 한 음소에서 다른 음소로 옮겨갈 때 조음 기관의 움직임이 바뀌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중 모음이 두 개의 음소로 이루어졌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그 두 개의 음소가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는 이견이 있다.

(13) 가. 이중 모음은 두 개의 단모음으로 이루어진다.

나. 이중 모음은 단모음과 반모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다. 이중 모음은 두 개의 단모음 또는 단모음과 반모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13가)는 이중 모음의 원래 개념에 충실한 입장이다. (13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국어 음운론에서 이중 모음으로 처리되어 오던 ‘ㅑ, ㅕ, ㅠ, ㅛ, ㅜ, ㅠ’ 등을 모두 이중 모음 목록에서 제외해야 한다. 이 모음들은 반모음 ‘j’나 ‘w’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13가)에는 속하지 않는 것이다. (13가)의 관점에서 현대 국어의 이중 모음 후보로 볼 수 있는 것은 ‘-ㅓ’밖에 없다.<sup>15)</sup> ‘-ㅓ’의 분석 방법에는 ‘-(단모음)+j(반모음)’, ‘ㅓ(반모음)+ㅓ(단모음)’, ‘-(단모음)+ㅓ(단모음)’의 세 가지가 있는데 세 번째 방식을 택할 경우 (13가)에서 말하는 이중 모음에 속하게 된다.<sup>16)</sup>

(13나)는 국어 음운론에서 전통적으로 취하던 입장이다. 어문 규범이나 교육 문법에서도 (13나)와 같은 방식을 택하고 있다. (13나)가 이중 모음의 원래 개념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어 음운론에서 (13나)를 유지해 온 데에는 이유가 있다. 우선 현대 국어는 (13가)에 해당하는 이중 모음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다. ‘-ㅓ’를 제외하면 전혀 없으며 ‘-ㅓ’도 ‘-+j’로 분석하는 일반적인 방법에서 보면 이중 모음이 될 수 없다. 국어의 이중 모음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어색한 상황이었을 것이

15) 예전에는 ‘-ㅓ’도 두 개의 단모음 연쇄로 이루어졌다고 본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16) ‘-ㅓ’를 어떻게 분석하든 ‘-ㅓ’는 현대 국어의 다른 이중 모음과는 구분되는 성격을 지닌 유일한 존재가 된다. ‘-(단모음)+j(반모음)’로 보면 반모음으로 끝나는 유일한 이중 모음이 되고, ‘ㅓ(반모음)+ㅓ(단모음)’로 보면 반모음 ‘ㅓ’를 가진 유일한 이중 모음이 되며, ‘-(단모음)+ㅓ(단모음)’로 보면 단모음의 연쇄로 이루어진 유일한 이중 모음이 된다. 이 중 반모음의 목록을 추가하는 번거로움을 없애면서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방안은 ‘-(단모음)+j(반모음)’로 분석하는 방안이다. 여기서도 이 방식을 채택하기로 한다. 자세한 것은 미주 #5#를 참조할 수 있다.

다. 다음으로 ‘ㅈ, ㅉ, ㅊ, ㅌ, ㄱ, ㄴ, ㄷ’ 등과 같은 중성자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문자에 큰 영향을 받았던 초창기 연구 이래로 ‘반모음+단모음’이 ‘ㅈ, ㅉ, ㅊ, ㅌ, ㄱ, ㄴ, ㄷ’와 같은 모음자로 나타난다는 점은 이들을 자연스럽게 이중 모음으로 수용하게끔 만들었다.

(13다)는 (13가)와 (13나)의 절충안이다. 이중 모음의 원 개념을 고려하면 (13가)가 타당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3나)를 이중 모음의 목록에서 제외한다면 국어 음운론의 기술에 그다지 이로울 것이 없다. 이것을 감안하여 (13다)와 같은 입장이 나오게 되었다. (13다)와 같은 입장을 취하면 기존의 ‘반모음+단모음’의 구조로 된 것들은 모두 이중 모음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며 ‘ㄴ’도 분석 방법과 상관없이 이중 모음의 자격을 지니게 된다. 현실적으로는 (13다)나 (13나)처럼 어느 한 쪽을 이중 모음으로 택할 경우 다른 한 쪽이 이중 모음에서 제외되는 관점보다는 (13다)처럼 양쪽을 모두 포괄하는 관점이 타당해 보인다.<sup>17)</sup>

## 4.2. 이중 모음 목록

현대 국어의 이중 모음은 단모음과 반모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현대 국어의 단모음 수는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단모음의 목록이 달라지면 이중 모음의 목록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14) 가. 표준 발음(원칙, 10개 단모음) : ㅈ, ㅉ, ㅊ, ㅌ,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ㅆ, ㅇ, ㅡ  
(11개)

나. 표준 발음(허용, 8개 단모음) : ㅈ, ㅉ, ㅊ, ㅌ,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ㅆ, ㅇ, ㅡ  
(12개)

다. 현실 발음(7개 단모음) : ㅈ, ㅉ(jE), ㅊ, ㅌ, ㄱ, ㄴ(wE), ㄷ, ㄹ, ㅁ, ㅂ, ㅅ, ㅆ, ㅇ, ㅡ  
(10개)<sup>18)</sup>

(14가)는 10개의 단모음을 인정할 때의 이중 모음 목록이다. (14나)는 ‘ㄴ, ㄷ’를 이중 모음으로 발음할 때의 이중 모음 목록이다. ‘ㄴ’은 (14가)의 이중 모음 중 ‘ㄴ’로 발음되기 때문에 (14나)에서 새로 추가되는 이중 모음은 ‘ㄴ’밖에 없다. (14다)는 ‘ㅈ’와 ‘ㅉ’가 구분되지 않는 현실 발음에서의 이중 모음 목록이다. ‘ㅈ’와 ‘ㅉ’의 차이로 구분되던 ‘ㅈ : ㅉ’, ‘ㄴ : ㄴ’은 각각 하나의 이중 모음으로 바뀌므로 (14나)와 비교할 때 이중 모음의 수가 2개 줄어든다.

한편 표기상으로는 이중 모음이지만 실제 발음상으로는 이중 모음이 아니라 단모음

17) 현대 국어의 이중 모음을 다룰 때에는 (13나)와 (13다)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ㄴ’은 ‘-(단모음)+j(반모음)’로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13가)에 해당하는 이중 모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13다)와 같은 입장을 택해도 실제로는 (13나)와 동일한 결과가 된다.

18) ‘ㅉ(jE)’는 ‘ㅈ’와 ‘ㅉ’의 구별이 없어진 이중 모음을, ‘ㄴ(wE)’는 ‘ㄴ’과 ‘ㄴ’의 구별이 없어진 이중 모음을 가리킨다.

인 경우가 있다.

- (15) 가. ‘경구개음 + ㄷ’의 ‘ㄷ’는 ‘ㄷ’로 발음한다. (예) 다쳐[다쳐], 저서[저서]  
 나. ‘예, 레’ 이외의 ‘ㄷ’는 ‘ㄷ’로 발음할 수도 있다. (예) 계[계~계], 해[해~해]  
 다. ‘자음 + ㄴ’의 ‘ㄴ’는 ‘ㄴ’로 발음한다. (예) 희[히], 닥[닉]  
 라. 둘째 음절 이하의 ‘ㄴ’는 격조사가 아니면 ‘ㄴ’로, 격조사는 ‘ㄷ’로 발음할 수도 있다. (예) 협의[허빅~허비], 나라의[나라의~나라에]

(15가)는 ‘ㄷ, ㅌ, ㅍ’과 같은 경구개음과 반모음 ‘j’의 조음 위치가 비슷하여 경구개음 뒤에서 ‘j’가 발음되지 못한다는 음운론적 제약과 관련을 맺는다. 한 형태소 내부에서는 경구개음 뒤에 ‘j’로 시작하는 이중 모음 ‘ㅈ, ㅊ, ㅊ, ㅊ’ 등이 오는 경우가 전혀 없다. 또한 형태소 경계 사이에서 반모음화가 일어나서 ‘ㄷ’로 표기하는 경우들도 ‘ㄷ’ 대신 ‘ㄷ’로 발음하게 된다. (15나)는 자음 뒤에서 이중 모음 ‘ㄷ’를 단모음 ‘ㄷ’로 발음하는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표준 발음법에서는 ‘자음 + ㄷ’의 경우 ‘레’에 국한해서 이중 모음을 온전히 발음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 발음에서는 ‘레’의 ‘ㄷ’도 ‘ㄷ’로 발음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15다, 라)는 모두 이중 모음 ‘ㄴ’와 관련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중 모음 ‘ㄴ’는 현대 국어의 다른 이중 모음들과는 성격이 구분되는 유일한 존재이다. 이로 인해 ‘ㄴ’는 이중 모음으로서의 지위가 불안정하게 되어 제대로 발음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15다)와 같이 자음 뒤에서는 반드시 ‘ㄴ’로 발음해야 하며 (15라)와 같이 비어두에 놓이면 다른 단모음으로 발음되고 있다.

#### 4.3. 이중 모음의 분류

이중 모음을 분류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일반화된 것은 이중 모음 속에 포함된 반모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반모음의 종류, 반모음과 단모음의 배열 순서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이중 모음을 분류한다.

반모음의 종류에 따라서는 j-계 이중 모음과 w-계 이중 모음으로 나눌 수 있다.

(16)

j-계 이중 모음	ㅈ(ja), ㅊ(jʌ), ㅊ(jo), ㅊ(ju), ㅊ(jɛ), ㅊ(je), ㅊ(ii)
w-계 이중 모음	ㅌ(wa), ㅌ(wʌ), ㅌ(wɛ), ㅌ(we)

(16)은 10개의 단모음 목록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만약 ‘ㅌ’를 이중 모음으로 발음한다면 w-계 이중 모음 목록에 ‘ㅌ’가 추가된다.

반모음과 단모음의 결합 순서에 따라서는 상향 이중 모음(rising diphthong)과 하향 이중 모음(falling diphthong)을 나눈다.<sup>19)</sup>

(17)

상향 이중 모음	ㅏ(ja), ㅑ(jΛ), ㅓ(jo), ㅕ(ju), ㅗ(jε), ㅛ(je) ㅘ(wa), ㅙ(wΛ), ㅞ(wε), ㅟ(we)
하향 이중 모음	ㅚ(ij)

상향 이중 모음은 반모음이 단모음보다 앞서는 것이고 하향 이중 모음은 반대로 단모음이 반모음에 앞서는 것이다.<sup>20)</sup> 반모음과 단모음의 공명도(sonority)를 비교하면 반모음보다 단모음이 더 크다. 그래서 반모음이 단모음보다 앞에 오는 이중 모음은 공명도가 더 커지므로 ‘상향 이중 모음’이라고 하고, 단모음이 반모음보다 앞에 오는 이중 모음은 공명도가 더 작아지므로 ‘하향 이중 모음’이라고 한다. 국어의 하향 이중 모음으로는 ‘ㅚ’ 하나밖에 없다.<sup>#5#</sup>

#### 4.4. 이중 모음 체계

이중 모음들은 그 분류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체계화할 수 있다.

(18)

상향 이중 모음	j-계	ㅏ(ja), ㅑ(jΛ), ㅓ(jo), ㅕ(ju), ㅗ(jε), ㅛ(je)
	w-계	ㅘ(wa), ㅙ(wΛ), ㅞ(wε), ㅟ(we)
하향 이중 모음	j-계	ㅚ(ij)
	w-계	

이론상으로 보면 현대 국어의 이중 모음은 반모음과 단모음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므로 최대 40개까지 가능하다.

(19) 가. 반모음 2개(j, w)×단모음 10개

나. 단모음 10개×반모음 2개(j, w)

(19가)는 반모음이 단모음보다 앞서는 상향 이중 모음이고 (19나)는 반모음이 단모음보다 뒤에 오는 하향 이중 모음이다. 이처럼 이론적으로는 40개가 가능하지만 실제 현대 국어의 이중 모음 수는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1/4 남짓에 그치고 있다. 이것은 이중 모음 목록에 빈칸(gap)이 많음을 말해 준다. 가령 (19나)와 같은 하향 이중

19) ‘상향 이중 모음’ 대신 ‘상승 이중 모음’을, ‘하향 이중 모음’ 대신 ‘하강 이중 모음’을 사용하기도 한다. 고유어 용어로는 ‘오름 겹홀소리’와 ‘내림 겹홀소리’ 등이 있다.

20) 두 개의 단모음으로 이루어진 이중 모음의 경우에는, 앞선 모음의 혀의 높이가 더 높은 것이 상향 이중 모음이고 앞선 모음의 혀의 높이가 더 낮은 것이 하향 이중 모음이다.

모음으로는 ‘ㄴ’ 하나만 존재하다든지, ‘w+원순 모음’이나 ‘j+ㅣ, ㅣ+j’와 같이 성질이 중복되는 단모음과 반모음의 결합은 이중 모음을 이루지 못한다든지 하는 상황으로 인해 실제 가능한 이중 모음의 수가 매우 적은 상황이다.

## 참고 문헌

- 김순경(1996), 남북한의 모음분석, 『어학연구』 32-1, 서울대 어학연구소, 1~18.
- 권경근(2001), 현대국어에서의 모음 체계 변화의 움직임에 대하여, 『언어학』 30, 한국언어학회, 29~48.
- 곽충구(2003), 현대국어의 모음체계와 그 변화의 방향, 『국어학』 41, 국어학회, 237~268.
- 김경현(2003), 二重母音 ‘ㄴ’의 통시적 변화, 『어문연구』 31-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51~70.
- 김성규·정승철(2005), 『소리와 발음』, 한국방송통신대 출판부.
- 김성근(1995), 『조선어어음론연구』, 사회과학출판사.
- 김소영(2009), 이중모음 /의/의 통시적 변화 연구, 『국어연구』 213, 서울대 국어연구회.
- 김영선(1997), 『우리말 음절 구조의 선호성에 따른 음운 현상에 대한 역사적 연구』, 세종출판사.
- 김완진(1964), 중세국어 이중모음의 음운론적 해석, 『학술원 논문집(인문사회과학편)』 4, 대한민국학술원, 49~66.
- 김정태(1996), 『국어 과도음 연구』, 박이정.
- 김종규(2010), 이중모음의 운율구조와 음장, 『어문학』 110, 한국어문학회, 61~89.
- 김종규(2010), 이중모음의 음운론적 성격에 대하여, 『어문연구』 38-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35~66.
- 김 현(2008), /ㅣ/의 음성 실현과 그 실현 조건, 『국어학』 52, 국어학회, 3~25.
- 도수희(1983), 한국어 음운사에 있어서 부음 y에 대하여, 『한글』 179, 한글학회, 85~132.
- 박선우(2008), 현대국어의 /의/는 이중모음인가?-/의/의 음향적·지각적 특성에 대한 검토-, 『우리말연구』 23, 우리말학회, 59~86.
- 배주채(1996), 『국어음운론 개설』, 신구문화사.
- 배주채(2003), 『한국어의 발음』, 삼경문화사.
- 서강대 국문과 엮음(2005), 『국어국문학, 미래의 길을 묻다-향후 10년의 지형도-』, 태학사.
- 서울대 대학원 국어연구회 편(1990),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 송철의(1992), 국어 음운론연구 1세기, 『국어국문학 40년』, 집문당, 399~425.
- 송철의(1995), 국어의 활음화와 관련된 몇 문제, 『단국어문논집』 1, 단국대 국문과,

269~292.

- 신승용(2010), 이중모음의 정의와 이중모음에서의 분절음 탈락-‘wi→i~u’, ‘iy→i~i’를 중심으로-, 『배달말』 50, 배달말학회, 37~59.
- 신지영(2000), 『말소리의 이해』, 한국문화사.
- 신지영(2006), 표준 발음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어학』 30, 한국어학회, 133~158.
- 윤흥섭(2007), 영어 활음, 반모음, 이중모음에 대한 음성 및 음운적 재고, 『영어영문학 연구』 49-3, 한국중앙영어영문학회, 211~234.
- 이극로(1932), 조선말의 홑소리, 『한글』 4, 한글학회, 156~160.
- 이기문(2000), 현대 한국어의 변화들에 대한 단상, 『서울말 연구』 1, 박이정, 1~14.
- 이문규(2004), 『국어 교육을 위한 현대 국어 음운론』, 한국문화사.
- 이병근(1973), 동해안방언의 이중모음에 대하여, 『진단학보』 36, 진단학회, 133~147.
- 이상신(2002), 반모음 y의 음절 구조적 지위와 음절화에 의한 방언분화, 『관악어문연구』 27, 서울대 국문과, 385~407.
- 이승녕(1954), 『국어음운론연구 제1집 ‘·’음고(수정보수판)』, 을유문화사.
- 이승재(1993), 모음의 발음, 『국어생활』 3-1, 국립국어연구원, 23~38.
- 이응백(1968), 국어 모음의 음가에 대하여, 『국어교육』 14,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61~175.
- 이진호(2009), 『국어 음운 교육 변천사』, 박이정.
- 이진호(2010), 국어 이중모음의 구성에 대한 연구사적 고찰, 『이중모음』, 태학사, 13~32.
- 이진호(2012), 『한국어의 표준 발음과 현실 발음』, 아카넷.
- 이진호(2014), 『개정 국어 음운론 강의』, 삼경문화사.
- 이혁화(2002), 국어 반모음 ‘ㄸ’의 음성학과 음운론, 『어학연구』 38-1, 서울대 언어교육원, 339~364.
- 이혁화(2012), 국어 음운론의 용어 ‘반모음, 이중모음, 중성’에 대한 검토, 『한글』 296, 한글학회, 5~39.
- 이현복(1970), 현대 서울 말의 모음 음가, 『어학연구』 7-1, 서울대 언어교육원, 37~52.
- 이호영(1996), 『국어음성학』, 태학사.
- 이희승(1955), 『국어학개설』, 민중서관.
- 정승철·정인호 편(2010), 『이중모음』, 태학사.
- 정인호(2004), 하강 이중모음과 부동 이중모음의 음변화, 『어문연구』 32-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19~143.
- 조규태(2000), 우리말 ‘ㄱ+ㅣ’의 준말에 대하여, 『한글』 249, 한글학회, 197~207.
- 최명옥(2004), 『국어 음운론』, 태학사.
- 최현배(1937), 『우리말본』, 연희전문학교 출판부.

허 웅(1965), 『(개고신판) 국어 음운학』, 정음사.

- #1# #국교# #한교# #생활# <중모음과 이중 모음> 이처럼 국어의 중모음에는 이중 모음만 있기 때문에 규범 문법을 비롯한 실용 문법에서는 단모음의 반대 개념을 ‘중모음’이 아닌 ‘이중 모음’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중모음’은 이중 모음을 포괄한 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그 둘을 구분해야 한다.
- #2# #한교# <한국어 교육과 단모음의 수> 한국어 교육에서 외국인들에게 어떤 단모음 목록을 가르칠 것인지를 결정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3가)는 원칙에 충실할 뿐 실제로 그런 발음을 듣기도 어렵고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도 (3가)의 단모음들을 구사할 수 없어서 비실용적이라는 문제점을 지닌다. (3나)는 (3가)에 비해서는 낫지만 여전히 ‘ㅐ’와 ‘ㅔ’를 구분해서 발음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3다)를 교육의 기준으로 삼기도 쉽지 않다. ‘ㅐ’와 ‘ㅔ’의 구분 문제는 발음뿐만 아니라 표기와도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ㅐ’와 ‘ㅔ’의 차이를 무시하고 가르치기도 어렵다.
- #3# #국교# #한교# <‘ㅐ’와 ‘ㅔ’의 발음 교육> 단모음의 표준 발음 교육에서 문제되는 것은 ‘ㅐ’와 ‘ㅔ’의 구분 문제이다. 이 두 모음을 구분해서 발음하도록 가르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혀의 높이이다. 이론적으로는 ‘ㅔ’와 ‘ㅐ’를 연속으로 발음하면서 혀의 높이와 입의 벌림을 다르게 하도록 하면 두 모음의 차이를 인식하는 데 효과적이다.
- #4# #국교# #한교# #생활# <반모음을 쉽게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글 중에 반모음을 표시하기 위한 별도의 자모(字母)가 없다는 점, 실제 중등 교육에서 반모음을 따로 가르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 어문 규범에서 반모음만을 독립된 단위로 언급하는 경우가 없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교육적이나 실용적 목적으로는 반모음을 따로 분석하지 않는 것이 편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반모음을 별개의 음소 부류로 이해하고 나면 음운 현상이나 어문 규범의 내용을 습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 #5# #이론# <‘ㄴ’의 분석 방법> 앞에서 본 것처럼 이중 모음 ‘ㄴ’은 하향 이중 모음으로 분석하는 방법(이하 ㉠), 반모음 ‘ㅍ’과 단모음 ‘ㄴ’의 결합으로 된 상향 이중 모음으로 분석하는 방법(이하 ㉡), 반모음이 없이 단모음 ‘ㄴ’과 단모음 ‘ㄴ’로 구성된 이중 모음으로 분석하는 방법(이하 ㉢)의 세 가지가 있다. ‘ㄴ’의 분석 방법은 ‘ㄴ’과 관련된 음운 변화의 해석에도 영향을 준다. 가령 ‘뜨이다’가 ‘띄다’로 바뀐 것과 같이 단모음 ‘ㄴ’과 ‘ㄴ’의 연쇄가 이중 모음 ‘ㄴ’로 줄어드는 변화의 경우, ㉠에서는 후행 모음의 반모음화로, ㉡에서는 선행 모음의 반모음화로, ㉢에서는 분절음 층위의 변화가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 또한 ‘회’를 ‘히’로 발음하는 것과 같이 자음 뒤에서 ‘ㄴ’이 ‘ㄴ’로 바뀌는 변화의 경우, ㉠에서는 음운의 축약, ㉡에서는 반모음 ‘ㅍ’의 탈락, ㉢에서는 단모음 ‘ㄴ’의 탈락으로 해석된다. 아무튼 ‘ㄴ’이 다른 이중 모음과 구별되는 독특한 존재인 이상 그 분석 방식은 음운 체계에 부담을 덜 주면서 역사적 변화를 설명하는 데에도 유리한 쪽을 택하는 것이 낫다. ㉢을 채택하면 새로 설정된 반모음 ‘ㅍ’가 오로지 ‘ㄴ’와만 결합한다는 극도의 분포상 제약을 지닐 뿐만 아니라 언어 보편적으로도 흔치 않다는 문제점이 생긴다. 더욱이 ㉢의 경우 중세 국어 ‘-ni(이 또는 ii)’로부터 현대 국어 ‘-ni(wi)’로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기도 쉽지 않다. ㉠, ㉡의 경우 그러한 문제점은 생기지 않는다. ㉠, ㉡ 중 여기서 ㉠을 택한 이유는 국어의 모든 이중 모음에는 반모음이 포함된다고 단일하게 기술할 수 있는 편리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이중 모음에 반드시 반모음이 포함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여기서의 설명은 어디까지나 편의적이고 잠정적인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 iv. 음장

- ▶ 핵심어(keywords): 음장(vowel length), 운소(prosodeme), 강세(stress), 억양(intonation), 음소(phoneme)
- ▶ 관련 항목: 불규칙 활용
- ▶ 표준화 대상 문법 용어: 강세, 억양, 기식군

### 1. 음장의 정의

하나의 음성이나 음성군의 발음에 소요되는 시간을 음장이라고 한다. 현대 한국어에서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장단의 차이 즉 장음(長音, 긴소리)과 단음(短音, 짧은소리)의 차이가 의미를 구별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1#

### 2. 음장의 변별력

언어의 의미를 구분할 수 있게 해 주는 음운론적인 단위에는 음소와 운소가 있다.#2# 음소에는 자음과 모음 등이 포함되며 운소에는 음장, 고저, 강세, 억양 등이 포함되는데, 이들 중 음장은 현대 한국어의 표준발음에서 단어의 뜻을 구분해 주는 변별적인 역할을 한다.#3# 예를 들어 ‘말(言)[말:]~말(馬)[말], 눈(雪)[눈:]~눈(眼)[눈], 밤(栗)[밤:]~밤(夜)[밤]’(‘:’ 기호는 장음을 나타냄.)과 같은 단어의 쌍에서 보듯이 장단의 차이가 의미를 구별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4# 현대 한국어에서 음장은 낭림산맥과 태백산맥, 소백산맥을 잇는 선을 경계로 한반도의 서부인 평안도, 황해도, 경기도, 강원도 영서지방, 충청도, 전라도에서 변별적인 기능을 해 왔다.#5##6#

### 3. 장음의 실현 위치

음장은 단어의 차원에서 의미를 구분해 주는 변별적인 기능을 한다. 그런데 원래 긴소리로 실현되어야 하는 음절도 제2음절 이하에서는 짧은소리로 실현된다.<sup>1)</sup> 현대 한국어에서 장음은 어두에서만 실현되기 때문이다.#7#

(1)의 합성어에서 보듯이 ‘눈’, ‘맑은’의 제1음절은 긴소리로 실현되어야 하는데, 그것들이 ‘첫, 수’와 결합하면서 두 번째 음절에서 실현되면서 짧은소리로 발음된다.

1) 장음과 단음이 서로 변별될 때에, 이를 음운론적으로 해석하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음운론적으로 장모음(長母音)과 단모음(短母音)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 다른 하나는 기본적으로 단모음만이 있고 여기에 ‘장음성’과 같은 초분절적 요소가 결합되어 장모음으로 실현된다고 보는 것이다. 전자의 관점은 단모음과 장모음을 모음의 종류로 모두 설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경제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게 된다. 후자의 관점을 자질론적인 입장에서 해석한다면 [+장음성]과 같은 자질을 모음 분석에 적용하여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 음장이 없이는 단위가 모음이 아니라 음절이라는 견해도 있다.

- (1) 가. 첫[천]+눈[눈]→첫눈[천눈]  
나. 수[수]+많은[마:는]→수많은[수:마는]

일상 발화에서 단어 이상의 단위를 발화할 때도 (2)에서 보듯이 장음은 그 발화의 첫 번째 음절에서만 실현된다.<sup>#8</sup>

- (2) 가. 말[말]+없이[업:씨]→말 없이[마:럽씨]  
나. 그[그]+사람[사:람]→그 사람[그사람]

(2)에서 ‘없이’와 ‘사람’을 강조하는 경우라면 ‘말’과 ‘없이’ 사이, ‘그’와 ‘사람’ 사이에 휴지(침)를 두어 [말#업:씨][그#사:람](‘#’ 기호는 휴지를 나타냄.)처럼 발음하겠지만, 일상적인 발화에서는 ‘말 없이’와 ‘그 사람’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말업씨]와 [그사람]으로 발음한다. 이때 단어 차원에서 긴소리로 실현되어야 하는 ‘업’과 ‘사’는 해당 기식군의 어두에 위치하지 않기 때문에 짧은소리로 바뀌어 실현되는 것이다.<sup>2)</sup>

#### 4. 용언 어간의 음장 변동

1음절 용언 어간 중 일부는 뒤에 오는 어미에 따라 음장이 바뀐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일부 용언의 활용에서만 발견된다. (3)과 (4)에서 보듯이 일반적으로는 단어의 첫음절이 장음일 경우에 그 장음이 환경에 따라 단음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 (3) 가. 말(言)[말]+이→말이[마:리], 말(言)[말]+도→말이[말:도]  
나. 눈(雪)[눈]+이→눈이[누:니], 눈(雪)[눈]+도→눈이[눈:도]  
다. 밤(夜)[밤]+이→밤이[바:미], 밤(夜)[밤]+도→밤이[밤:도]  
(4) 가. 더럽다[더:럽따]~더러워[더:러워],  
나. 거룩하다[거:루카다]~거룩해[거:루캐]

(3)에서 보듯이 명사의 첫음절이 장음일 경우 그 장음은 환경에 따라 단음으로 바뀌지는 않으며, (4)에서 보듯이 제1음절에 장음을 가지고 있는 2음절 이상의 용언 어간도 활용형에 따라 음장이 변하지 않는다.

이러한 일반적인 상황과는 달리 1음절로 된 용언 어간은 장음의 실현 방식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뉜다. 그중 하나는 ‘작다[작:따], 작고[작:꼬], 작으니[자:그니], 작아[자:가]’처럼 항상 긴소리로 발음되는 어간 유형이고 다른 하나는 ‘안다[안:따], 안고[안:꼬], 안으니[아:느니], 안아[아:나]’처럼 자음 앞에서는 긴소리로 발음되고 모음 앞에서는 짧은

2) 현대 한국어에서 음장이 변별력을 잃은 원인은 일상적인 발화에서는 어두에서만 긴소리가 실현될 수 있어서 단어 차원에서 원래 긴소리로 실현되는 음절도 발화의 제2음절에서는 짧은소리로 실현된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산업화 등으로 인해 표준어권역에 음장을 변별적인 언어 요소로 사용하지 않는 화자들이 많이 섞이면서 음장의 변별력이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소리로 발음되는 어간유형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잡다[잡따], 잡고[잡꼬], 잡으니[자브니], 잡아[자바]’처럼 항상 짧은소리로 발음되는 어간 유형이다.

- (5) 항상 장음으로 실현되는 어간: 굶다(손목이), 땀다(맛이), 옅다(빛깔이), 엷다(시간이), 많다(양이), 작다(크기가), 적다(양이), 얻다(식량을), 끌다(수레를), 썰다(떡을)- [활용 예시: 굶:다 굶:고 굶:으니 굶:어]
- (6)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장음으로 실현되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단음으로 실현되는 어간: 갈다(칼을), 곱다(얼굴이), 덥다(날씨가), 안다(아기를), 담다(물건을), 붓다(물을), 건다(걸음을). - [활용 예시] 갈:다 갈:고 가:니/가라, 곱:다 곱:고/고와, 고우니
- (7) 항상 단음으로 실현되는 어간: 가다, 먹다, 잡다 등 다수

현대 한국어에서 1음절 용언 어간 중 어떤 어간들이 각각 (5)와 (6) 또는 (7)에 속할지를 완전하게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 어간의 음장 변화는 별도로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9#

## 5. 보상적 장음화

1음절 용언 어간이 뒤에 오는 어미의 첫 모음과 합해지면서 어간의 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뀌면 그 활용형은 하나의 음절로 실현된다. 이렇게 음절이 줄어들 때는 ‘보아→봐[봐:] 기어→겨[겨:]’에서 보듯이 두 음절이 합해지면서 긴소리로 실현되기도 한다. 이 현상은 어간의 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뀌어 두 개의 음절이 하나의 음절로 줄어들면서 두 음절이 가지고 있던 길이를 보상하기 위해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하여 보상적 장음화라고 한다.#10#

### (8) 보상적 장음화

보다(눈으로) 보-아→보아→봐[봐:]	두다(장기를) 두-어→두어→뉘[뉘:]
놓다(손을) 놓-아→노아→놔[놔:]	쏘다(총을) 쏘-아→쏘아→쑈[쑈:]
빼다(발목을) 빼-어→빼어→뻘[뻘:]	기다(아기가) 기-어→기어→겨[겨:]

그러나 (8)과 같은 환경이면서도 보상적 장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예들이 있다.

### (9) 보상적 장음화의 예외

오다(버스가) 오-아→오아→와[와]	지다(짐을) 지-어→지어→저[저]
찌다(찜을) 찌-어→찌어→찌[찌]	치다(주먹으로) 치-어→치어→쳐[쳐]

(9)에서 보듯이 ‘오다, 지다, 찌다, 치다’는 어간이 어미 ‘-아/어’와 결합하여 ‘와, 저,

ㅈ, ㅊ, ㅍ'로 줄어도 긴소리로 실현되지 않는 예외적인 단어들이다. 이중 '지-, 치-, ㅈ-'는 뒤에 오는 어미의 모음 '-어'와 합해져서 하나의 음절로 줄어들면서 'ㅈ, ㅊ, ㅍ'의 영향으로 반모음이 탈락하여 '저[저], ㅈ[ㅈ], ㅊ[ㅊ]'처럼 단모음으로 발음된다. (8)의 경우는 음절이 줄어들면서 반모음화가 일어나지만 (9)의 '저[저], ㅈ[ㅈ], ㅊ[ㅊ]'는 어간의 모음 'ㅣ'가 탈락한다는 차이가 있다.

## 6. 파생어와 합성어의 음장 변화

1음절 용언 어간에 피동접미사나 사동접미사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용언 어간은 항상 단음으로 실현된다.

### (10) 피사동 파생어의 음장

감다[감:ㅌ다]→감기다[감기다], 남다[남:ㅌ다]→남기다[남기다]  
 밟다[밟:ㅌ다]→밟히다[밟피다], 신다[신:ㅌ다]→신기다[신기다]  
 쓰다[쓰:ㅌ다]→쓰이다[쓰이다], 알다[알:ㅌ다]→알리다[알리다]  
 열다[열:ㅌ다]→열리다[열리다], 웃다[웃:ㅌ다]→웃기다[웃끼다]  
 피다[피:ㅌ다]→피우다[피우다]

그리고 합성어가 만들어질 때 용언 어간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장음이 단음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다.

### (11) 합성어의 음장

쓰다([쓰:다], [쓰:고], [쓰:니], [쓰:]) → 쓴살[쓴살]  
 작다([작:다], [작:꼬], [자:그니], [자:근]) → 작은아버지[자근아버지]

## 7. 표현적 장음

표현적 장음은 발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표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어휘 내의 일부 음절을 길게 발음하는 것을 이른다. 이러한 음장은 단어의 뜻을 구별하는 요소로 사용되는 경우와는 달리, 감정적인 표현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다.

### (12) 표현적 장음의 예

저기 키가 큰: 나무 보이지?  
 사전을 꺼내니 가방이 훨:씬 가벼워졌어.  
 방이 쥐 죽은 듯이 조용:하군.

(12)의 '큰'이나 '훨씬'의 '훨'은 단어 차원에서는 단음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그러나

화자가 키가 크다는 사실을 더욱 강조하고 싶거나, 가벼운 정도를 더욱 강조하고 싶을 때는 ‘큰:, 훨:씬’과 같이 장음을 실현시키기도 한다. ‘조용:하군’의 경우도 화자가 두 조용하다는 사실을 더욱 강조하기 위하여 두 번째 음절을 길게 발음한 것이다.

## 참고 문헌

- 고광모(1991), 「국어의 보상적 장음화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김선철(2003), 『표준 발음 실태 조사 II』, 국립국어원.
- 김선철(2006), 『중앙어의 음운론적 변이 양상』, 경진문화사.
- 김성규(2006), 「음장의 변화 방향-1음절 용언 어간을 중심으로-」, 『이병근선생퇴임기념 국어학논총』, 태학사, 267-289.
- 김성규·정승철(2013), 『(개정판) 소리와 발음』,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김완진(1972), 「형태론적 현안의 음운론적 극복을 위하여-이른바 장모음의 경우-」, 『동아문화』 11, 서울대 동아문화연구소, 273-299.
- 김종규(2006), 「음운현상의 수의성과 음장」, 『어문학』 92, 한국어문학회, 19-48.
- 김진우(1976) 「국어음운론에 있어서의 모음 음장의 기능」, 『어문연구』 9, 어문연구학회, 47-56.
- 배주채(2011), 『(개정판) 국어음운론 개설』, 신구문화사.
- 신지영(2011), 『한국어의 말소리』, 지식과 교양.
- 이병근(1978), 「국어의 장모음화와 보상성」, 『국어학』 6, 국어학회, 1-28.
- 이병근(1981), 『음운현상에 있어서의 제약』, 탑출판사.
- 이상억(2000), 「음장 및 성조」, 『새국어생활』 10-1, 국립국어연구원.
- 이진호(2011), 「국어 반모음화에 따른 운소 변동의 통시적 고찰」, 『국어학』, 국어학회, 99-122.
- 지민제(1993), 「소리의 길이」, 『새국어생활』 3-1, 국립국어연구원.
- 전광현(1990), 「음장·억양·악센트」,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연구회 편, 118-127.
- 최명옥(2008), 『국어 음운론』, 태학사.
- 한영균(1988), 「비음절화 규칙의 통시적 변화와 그 의미」, 『울산어문논집』 4, 울산대 국문과, 1-26.

---

#1# **#생활#** <현대 한국어에서 음장의 지위> 현대 한국어에서 음장이 변별력을 상실해 가고 있지만 표준 문법의 표준발음법에서는 제6항과 제7항에 걸쳐 표준발음의 장단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규정을 했다는 자체로 볼 때 음장은 현대 한국어에서 변별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음장의 구분은 단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들을 때와 말할 때도 차이가 날 수 있다.

#2# **#이론# #생활#** <운소> 음장은 운소의 한 유형이다. 운소에는 음장 이외에도 고저, 강세, 억양 등이 있을 수 있다. 표준발음법에서는 장단을 변별적인 요소로 다루고 있다. 중세 한국어에서는 음의 높낮이가 단어의 뜻을 변별해 주었다. 이러한 변별력은 방점을 통해 확인된다. 음절 왼쪽에 점이 없으면 평성(낮은 소리), 점이 하나 있으면 거성(높은 소리), 점이 두 개 있으면 상성(처음은 낮고 끝은 높은 소리)이었다. 현대 한국어에서는 동남방언, 영동방언, 동북방언에서 고저가 단어의 뜻을 구분하는 데 역할을 한다. 억양은 단어 차원의 운소가 아니라 문장 차원의 높낮이 변화이다. 의문문의 끝이 올라가는 등의 유형이 있다. 운소는 비분절음, 또는 초분절

- 음이라고도 한다. 발화 안에 실현된 음소는 개별적인 단위(자음과 모음)로 잘라낼 수 있지만(분절되지만) 운소의 경우는 음소처럼 명확하게 잘라낼 수 없기 때문에 분절이 되지 않는 소리 정보라고 하여 비분절음이라고 하는 것이다. 초분절음이라고 할 때는 운소가 음소 위에 얹힌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 #3# **#이론# <음장의 변별력에 대한 기술>** 대부분의 음운론 개론서에서는 음장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으며, 음장이 현대 국어에서 변별적인 요소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 발음에서는 음장이 상당히 변별력을 잃은 상태이기에, 문법서마다 이러한 현 상태를 기술하는 정도가 다르다. 표준 발음법에서와 달리 단어의 뜻을 구분하는데 기여하지 못한다고 언급하거나(신지영 2011), 40대 이하의 말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세대를 명시하거나(최명옥 2008), 대체로 전라방언을 제외하고는 음장이 소멸 직전에 있다는 식으로 방언권을 언급하는 등(배주채 2011) 그 기술 방식 및 내용은 문법서마다 차이가 있다. 음장이 현실 발음에서는 변별력을 잃은 상태이지만 현대 국어라는 큰 틀 안에서는 문법 기술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4# **#한교# <음장의 교육>**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에게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음장이 표준발음에서는 변별적 기능을 하지만 일상 발화에서는 음장을 거의 구분하지 않고 발화한다’는 정도의 지식만 전달하면 된다.
- #5# **#이론# <음장의 형성>** 현대 한국어에서 음장이 변별적인 지역은 한반도의 서부 지역이다. 한편 중세 한국어는 말의 높낮이가 단어의 뜻을 변별해 주는 성조 언어였다. 그렇다면 중세 한국어에서부터 현대 한국어의 중부 지역으로 이어지면서 성조 언어가 음장 언어로 변화한 과정을 살필 필요가 있다. 중세국어의 시기에 상성을 지니던 음절은 대부분 현대 국어에서 장음으로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 둘이 서로 관련이 있을 것임을 추측하게 하며, 덧붙여 현대 국어의 음장은 비어두에서 실현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중세국어의 상성 역시 비어두에서 잘 나타나지 않음도 이와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상성이 장음으로 바뀌었다는 견해와 상성은 원래 장음으로 실현되었는데, 상성이 가지고 있던 높낮이의 변별성이 사라지고 비변별적인 요소였던 장음이 변별적인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견해가 있다.
- #6# **#국교# <현대 한국어에서의 음장의 변별력>** 최근에는 음장이 변별적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어서 젊은 세대 일수록 단어의 길이에 따른 차이를 구별을 하지 못하는 경향이 강하다. 본인 및 부모가 서울, 인천, 경기 출신인 20대에서 60대 350명을 대상으로 단어의 음장을 조사한 김선철(2003)에 의하면 장음으로 실현되어야 할 첫 음절을 장음으로 발음하는 비율은 30% 이하로 나타난다. 현대 한국어에서 음장의 구별이 거의 사라져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거의 사라져 가고 있는 음장을 학교 현장에서 교육하는 것이 의미를 갖기 어려운 것이다.
- #7# **#국교# <단어의 음장 교육>** 음장이 거의 변별력을 잃은 현 상황에서 국어 교육을 할 때 모든 단어의 장단을 교육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교과서에서 몇 단어의 음장 비교를 제시한다고 하여 음장 교육이 완성될 수는 없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표준발음법에 따르면 음의 장단이 변별적인 기능을 하며, 그러한 변별력은 휴지 바로 뒤에서만 유지된다’는 수준으로만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8# **#생활# <제2음절 이하의 장음 실현>** 표준발음법 제6항을 보면 “모음의 장단을 구별하여 발음하되, 단어의 첫음절에서만 긴소리가 나타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와 같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면서도 다음과 같이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합성의 경우에는 둘째 음절 이하에서도 분명한 긴소리를 인정한다.  
반신반의[반 : 신 바 : ㄴ/반 : 신 바 : 니] 재삼재사[재 : 삼 재 : 사]

- 이 경우 ‘반신반의, 재삼재사’를 각각 하나의 기식군으로 발음한다면 그 발음은 각각 [반 : 신바니/반 : 신바니][재 : 삼재사]로 실현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들 어휘는 ‘반신-반의, 재삼-재사’처럼 두 단어와 같이 어느 정도로는 끊어서 발음할 수 있는 첨어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아서 휴지가 들어갈 경우 두 번째 음절 이하에서도 장음이 실현되는 발음을 인정한 것이다.
- #9# **#이론# <음장의 변동을 보이는 1음절 용언 어간에 대한 해석>** (6)처럼 자음 앞에서 긴소리로 실현되고 모음 앞에서 짧은소리로 실현되는 1음절 용언 어간에 대해 ‘단모음화(短母音化)’로 설명하기도 한다. 해당 어간의 기저형은 원래 긴소리인데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는 짧은소리로 바뀌는 운소의 변동현상으로 설명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관점을 따르면 위 (5)의 어간들은 해당 현상에 대한 예외가 된다. 그런데 예외의 수가 많고, 그러한 예외를 분별해 내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5)와 (6)을 별도 유형의 어간 부류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5)의 어간은 기저형에 긴소리의 정보가 주어지지만 (6) 유형의 어간은 기저형에 자음 앞에서는 긴소리가 되고 모음 앞에서는 짧은소리가 된다는 정보가 주어져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는 불규칙 활용을 다중 기저형으로 다루는 방식과 동일하다. 불규칙 활용
- #10# **#이론# <‘보상적 장음화’에 대한 해석>** ‘보상적 장음화’는 두 개의 음절이 하나의 음절로 줄어들면서 원래의 두 음절이 가지고 있던 길이를 보상하기 위해 일어나는 현상을 가리킨다. 그러나 비음절화가 반드시 장음화를 동반하는 것은 아님이 지적된 바 있다(이병근 1978, 한영균 1988). 모음끼리 연결될 때 발생하는 비음절화 환경 중 필수적인 비음절화는 보상적 장음화를 수반하지 않지만, 수의적인 비음절화는 보상적 장음화를 수반한다. 만약 보상적 장음화가 정말로 음절이 줄어드는 시간 길이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일어나는 것이라면 모든 비음절화 환경에서 보상적 장음화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하여 김종규(2006)에서는 보상적 장음화의 동기가 음절적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음보의 구조를 유지하고자 하는 운율적인 현상이라고 보기도 하였다.

## v. 휴지

- ▶ 핵심어(keywords): 휴지, 끊어 읽기, 중의성
- ▶ 관련 항목: 운소, 변이음
- ▶ 표준화 대상 문법 용어: 운울구, 말마디 경계

### 1. 휴지의 정의

문자연어와 달리 음성언어에서는 발화의 높낮이가 변한다든지, 강세가 여기저기 나타나다든지, 길이가 달라진다든지, 아니면 말이 중간에 끊기는 현상이 발견된다. 이 중 발화의 연쇄 안에서 말소리를 중지하여 음성적으로 소리가 나지 않는 묵음 구간을 휴지(休止, pause)라고 한다. 휴지는 말소리가 존재하지 않는 구간이므로 형태가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주변의 소리에 영향을 주거나 의미 또는 통사 정보를 알려 주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1##2#

### 2. 휴지의 생리적 기능

휴지의 기능에 대해서는 언어 외적인 접근과 언어 내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우선 언어 외적인 접근은 생리적인 면이나 발화 속도에서 찾을 수 있다.

생리적으로 볼 때 휴지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화자로 하여금 숨을 쉬게 하는 것이다. 긴 문장을 읽거나 말하려면 중간에 숨을 쉬어야 하기 때문이다. 발성기관이나 조음기관이 기원적으로는 말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존재했던 것이 아니듯이, 휴지도 기원적으로는 문장의 의미를 분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는 할 수 없고, 생리적인 이유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하겠다. 예를 들어 다음의 (1)에서 보듯이 긴 문장을 읽기 위해서는 한 번 이상의 휴지가 실현되어야 자연스럽다.

(1) 1936년베를린올림픽마라톤경기에서 # 손기정선수는금메달을획득했다.<sup>1)</sup>

또한 말의 속도도 휴지와 관련을 맺고 있어서 빠르고 친근한 말씨에서보다 느리고 공식적인 말씨에서 휴지가 더 많이 실현된다.<sup>2)</sup> 빠른 속도로 발화할 경우에는 다음의 문장 (2)에 휴지를 넣지 않을 수 있으나, 느린 속도로 발화할 경우에는 (#)의 위치에 휴지가 실현된다.

(2) 나는 산도 좋아하고 (#) 바다도 좋아한다.

1) #는 휴지의 위치를 표시한 것인데, 이호영(1996)에서는 휴지를 ‘말마디 경계’라고 하였다.

2) 이호영(1996:216, 1997) 참조.

이러한 말의 속도 역시 생리적인 숨과 관련이 있다. 음절수가 늘어나는 경우나 문장을 천천히 발화하는 경우 모두 시간이라는 인자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이다.#3#

### 3. 휴지의 음성학적·음운론적 역할

휴지는 음성 실현이나 음운론적인 변동에 영향을 준다. 음성 차원에서 볼 때 휴지는 변이음의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데, 한국어에서 파열음 ‘ㄱ, ㄷ, ㅂ’가 휴지 앞에서 파열 없이 폐쇄음으로 실현되는 현상이 이에 해당한다.#4# 예를 들어 조사가 결합되지 않은 단독형 ‘집’을 발음할 때 음절말의 ‘ㅂ’ 폐쇄음으로 실현된다. 그런데 이 점에서 휴지는 자음과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집도’를 발음할 때 자음 ‘ㄷ’ 앞에서 ‘집’의 ‘ㅂ’가 폐쇄음으로 실현되기 때문이다.

휴지는 음운 변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동일한 단어의 연쇄라고 해도 일반적인 속도로 발음할 때와 의도적으로 아주 천천히 발음할 때는 서로 다른 발음으로 실현되는 경우가 있는데, 국어의 관형형 어미 ‘ㄹ’ 뒤에서 일어나는 경음화를 예로 들 수 있다. ‘살 집’이 [살집]으로 실현되는 것처럼 한국어에서는 관형형 어미 ‘ㄹ’ 뒤에서는 ‘ㄱ, ㄷ, ㅂ, ㅅ, ㅈ’가 경음 ‘ㄱ, ㄷ, ㅂ, ㅅ, ㅈ’로 발음된다. 그러나 관형형 ‘ㄹ’ 뒤의 명사를 강조할 경우에는 해당 명사 앞에 휴지를 두어서 [갈#사:람]으로 발음하는데, 이는 발화자의 의도와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또한 ‘어학’과 ‘연구소’가 결합한 합성어 ‘어학연구소’는 일반적으로 ‘어학연구소[어:학년:구소]’로 발화하지만, ‘연구소’를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로 ‘어학’과 ‘연구소’ 사이에 휴지를 실현시키면 ‘어학#연구소 [어:학#연:구소]’로 발음된다.#5#

### 4. 휴지와 의미·통사 정보

휴지는 의미나 통사 정보와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다음의 (3)에서 보듯이 휴지가 없다면 의미 전달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6#

#### (3) 호랑이가며늘조아한다

위의 음절 연쇄는 ‘#호랑이가며늘#조아한다#(호랑이의 가면을 좋아한다), #호랑이가#며늘#조아한다#(호랑이가 면을 좋아한다.), #호랑이#가며늘조아한다#(호랑이가 가면을 좋아한다.)’ 등 휴지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된다. 이렇게 휴지는 그 실현 여부에 따라 문장의 의미 전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3)

휴지는 정보 전달에서 중의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선 어휘적 중의성과 휴지의 관련을 보기로 한다.

3) 이때 호랑이가 라면을 먹으며 좋아하는 상황에서는 ‘면’이 장음으로 실현되고, 호랑이가 가면을 쓰고 좋아하는 상황에서는 ‘가면’의 첫 음절이 장음으로 실현된다는 차이도 있다.

(4) 누가 왔어? (① 온 사람은 누구인가. ②누군가 왔는가.)

(4)는 ‘누가’에는 ‘누군가’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중의적이다. 그런데 이 문장의 경우 휴지에 의해 중의성이 해소된다. 온 사람이 누구인지 묻는 경우에는 ‘#누가왔어?#’처럼 ‘누가’ 다음에 휴지가 없지만, 누군가 왔는지 묻는 경우에는 “#누가#왔어?#”처럼 휴지가 실현되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는 억양의 변화도 함께 발견된다.

다음으로는 휴지와 통사적 중의성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5) 키가 큰 여자하고 남자가 같이 걸어간다.

(① 여자만 키가 크다. ② 여자와 남자 모두 키가 크다.)

이 문장에서 ‘여자하고’와 ‘남자가’ 사이에 휴지가 오면 ‘큰’은 ‘여자’만 꾸미는 것이며, 그 자리에 휴지가 오지 않고 ‘여자하고남자가’가 하나의 운율구를 이룬다면 ‘큰’은 이들 둘을 모두 꾸미게 된다.#7#

다음의 (6)은 부정문의 영향권에 의한 중의성을 보이는 문장들인데, 휴지에 의해 그 중의성은 쉽게 해소된다.

(6) 공부하려고#학교에가지않았어요

공부하려고학교에가지#않았어요

끝으로 지적할 것은 휴지가 문장의 단위를 알려 준다는 점이다. 문어에서는 구두점에 의해 문장의 한계가 잘 드러나지만 음성언어에서는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는 발화라고 하더라도 끊기에 따라 서로 다른 유형으로 해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7)은 ‘길게 끊기’가 있으므로 두 개의 문장으로 처리되지만 (8)은 ‘길게 끊기’가 없으므로 어순이 바뀐 하나의 문장으로 처리될 수 있다.#8#

(7) // 비가오는구나 // 아침부터바람이불더니 //

(8) // 비가오는구나 / 아침부터바람이불더니 //

## 참고 문헌

강상호(1989), 『조선어 입말체 연구』, 사회과학출판사.

권재일·김윤한·문양수·남승호·전종호(1997), 「통사구조와 운율 구조의 상관성 연구-중의성 해소 양상을 중심으로-」, 『언어학』 제20호, 한국언어학회.

김상훈·성철재·이정철(1997), 「운율구 경계현상 분석 및 텍스트에서의 운율구 추출」, 『한국음향학회지』 제16권 제1호, 한국음향학회.

- 김선미(1997), 「한국어의 리듬 단위와 문법 구조-음성 합성에서 리듬 구현의 자연성 향상을 위한 음성·언어학적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성규(1999), 「잠재적 휴지의 실현」, 『선청어문』 27, 서울대 국어교육과, 831-859.
- 김수진·차재은·오재혁(2011), 「발화 요소와 발화 유형」, 『한국어 의미학』 36, 91-118.
- 김정우(2004), 「합성어 내부 경계의 음운론적 의의-가휴지와 잠재 휴지」, 『배달말』 35, 343-367.
- 성철재(1995), 「한국어 리듬의 실험음성학적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지영(2013), 「소통과 공감을 위한 전달력 높은 말하기의 조건」, 『어문논집』 69, 민족어문학회, 113-133.
- 안병섭(2007), 「휴지(pause)의 역할에 대한 반성적 검토」, 『우리어문연구』 28, 67-87.
- 이창호(2010), 「발화 중 휴지시간이 갖는 의미」, 『한국어학』 46, 한국어학회, 353-386.
- 이호영(1996), 『국어음성학』, 태학사.
- 이호영(1997), 『국어운율론』, 한국연구원.
- 최명식(1988), 『조선말구두어문법』, 료녕출판사, 심양.
- Lyons J.(1968), *Introduction to Theoretical Linguis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ohanan K.P.(1986), *The Theory of Lexical Phonology*, Dordrecht: D. Reidel Publishing Company.
- Nida E.A.(1949), *Morphology, The descriptive analysis of word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Pike K.L.(1945), *The Intonation of American English*,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Pike K.L.(1947), *Phonemics: A technique for Reducing Languages to Writing*,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 #1# **#이론# <임시 휴지>** Pike(1945)에 의하면 하나의 운율 단위 뒤에는 휴지가 오는데, 여기에는 앞의 억양의 높이를 내려주는 어말 휴지와 억양의 높이를 지속시켜주는 임시 휴지가 있다.
- #2# **#이론# <휴지와 운율구>** 휴지에 대한 논의는 운율구에 대한 논의와 관련을 맺고 있다. 김상훈 외(1997)에 의하면, 휴지는 운율의 흐름을 단위별로 구분하여 운율구를 무리지어 준다. 운율구의 경계가 휴지이므로, 휴지는 운율구를 나누는 역할을 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휴지는 목음 구간이면서 억양의 변화, 마지막 음절의 장음화, 음절의 변화 등을 수반한다. 성철재(1995)의 지적처럼 화자와 청자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끊기가 이루어진 단위가 운율구인데, 이러한 끊기가 이루어진 휴지의 위치에서는 음향적으로 지속시간이 일정 수치 이상 증가하거나 고저의 변동이 일어난다.
- #3# **#이론# #생활# <운율구의 길이>** 문장이 어느 정도의 길이일 때, 휴지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은지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김상훈 외(1997)에 의하면 휴지와 휴지 사이에서 하나의 운율구가 가지는 음절수와 빈도수는 다음의 <표>와 같은데, 주로 2음절 이상 13~14음절 이하의 범위에서 하나의 운율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물론 15음절이 넘더라도 하나의 음절이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문장 내부에 휴지를 둘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한편 이호영(1996:217)에서는 문장이 네 개 이상의 어절로 이루어져 있을 때에는 종종 두 번째 어절 다음에 말마디 경계가 부과된다는 규칙을 세워 놓고 있는데, 여기서 어절의 수가 넷이라고 제시된 것도 이러한 음절수와 유사할 가능성이 높다.

<표> 운율구당 음절수와 그 빈도

음절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빈도	19	66	71	45	50	62	82	59	70	63	52	42
음절수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빈도	23	37	13	15	10	10	8	7	4	4	2	4

- #4# **#이론# <휴지와 변이음>** Pike(1947)에서도 휴지의 바로 뒤나 그 앞에서 음소의 하위분류인 변이음이 특이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5# **#이론# #생활# <합성어 내부의 휴지>** 일반적으로 하나의 단어는 형태론적으로, 음운론적으로 결속력이 강하기 때문에 단어 내부에서는 휴지가 발생할 수 없다(Nida, 1949 및 Lyons, 1968 참조.) 그러나 ‘연구소’를 굳이 강조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어학’과 ‘연구소’라는 별도의 단어로 분리하면서 잠재되어 있던 휴지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 #6# **#국교# #한교# <휴지와 ‘끊어 읽기’ 교육>** 휴지의 실현은 문법 구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의미 전달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초등학교 읽기의 저학년 과정 정도라면 실제 각 단원의 교육 목표와는 상관없이 ‘끊어 읽기’ 표시를 넣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한다면 끊어 읽기 교육, 또는 발화에 있어서 휴지에 대한 교육은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다. ‘끊어 읽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학생은 그만큼 의미 전달을 하는 방법을 익히기 쉬울 것이며 다른 사람이 말한 내용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휴지의 교육은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경우도 유효하다. 정확한 발음과 억양, 휴지의 교육이야말로 음성언어에서 빼 놓을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 #7# **#국교# <휴지와 구두점>** 중의성이 휴지로 해결되는 경우 문자 언어에서는 쉼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교육도 가능할 것이다.
- #8# **#이론# <휴지의 길이>** 휴지의 길이에는 몇 단계가 있다. 최명식(1988)에서는 문장을 다 발음한 다음에 와서 문장이 끝났음을 나타내는 휴지를 ‘완전 끊기’로, 발음 행위만을 중단하는 끊기로서 ‘완전 끊기’보다 시간상으로 짧은 휴지를 ‘불완전 끊기’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이호영(1996)에서는 문장을 천천히 발화할 때 일어나는 끊기는 말토막 경계로 보고, 억양이 없이는 숨쉬기 단위의 끊기를 말마디 경계로 보았다. 말마디 경계의 휴지는 말토막 경계의 휴지보다 더 길게 실현된다. 그리고 김선미(1997:51)에서는 리듬 단위 경계를, 청취 판단에 근거하여, ‘분명한 경계, 약한 경계, 경계가 없는 곳’으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서 경계 요소는 휴지이다. 김상훈 외(1997)에서도 경계 유형을 ‘경계가 없는 강도, 약한 경계 강도, 강한 경계 강도’로 나누고 있다. 한편 강상호(1989)에서는 다음의 (1)은 ‘길게 끊기’에 의해 세 개의 문장으로 처리되지만 (2)는 그러한 끊기가 없기 때문에 하나의 문장으로 처리된다고 보았다.

- (1) // 순찬이두오구 // 이뿐이두오구 // 모두가다왔어요 //
- (2) // 순찬이두오구 / 이뿐이두오구 / 모두가다왔어요 //

## vi. 억양

- ▶ 핵심어(keywords): 억양구, 문말 억양
- ▶ 관련 항목: 명령문, 문장 종결법, 문장의 정의, 운소, 의문문, 평서문, 휴지
- ▶ 표준화 대상 문법용어: 말마디/억양구, 수평조, 하강조, 내림조, 상승조, 오름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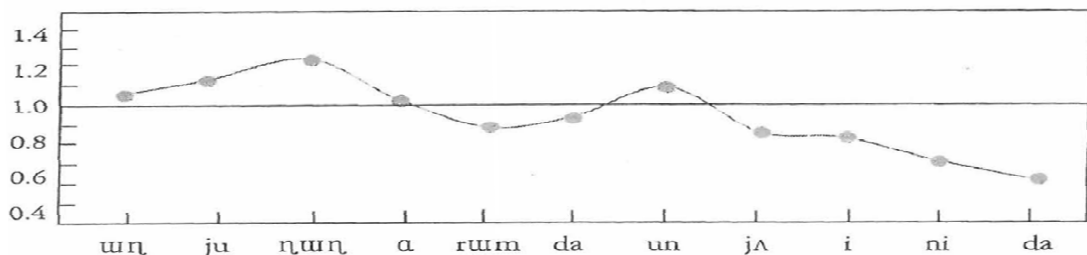
### 1. 억양의 정의

문장이나 구에 얹히는 말소리 높낮이의 변화 유형을 억양이라고 한다. 억양은 단어의 의미를 구분하는 데 사용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억양은 단어보다 더 큰 단위에서 문장의 종류를 결정하는 문법적인 기능을 수행하거나, 화자의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1# 예를 들어 ‘와’를 발화할 때 뒷부분을 올리면 의문문이 되고, 내리면 평서문이나 명령문, 청유문이 된다. 또한 부드러운 명령을 표현할 때는 발화의 뒷부분을 완만하게 하강시키지만 강한 명령을 표현할 때는 급하게 하강시키면서 화자의 태도를 표현한다.#2#

### 2. 억양의 일반적 유형

억양은 말소리 높낮이의 변화가 기본 속성이므로, 모든 발화는 억양의 곡선이 실현된다. 다음의 (1)은 “은주는 아름다운 여인이다.”라는 발화에 대한 일반 화자의 억양 곡선의 흐름을 보여 주고 있다.

(1) 억양 곡선(지민제, 1993: 8)



억양이 걸리는 단위를 억양구라고 하는데, 억양구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어서 위의 문장의 경우 전체 문장을 하나의 억양구로 발화할 수도 있지만 “은주는#아름다운여인이 다”처럼 두 개의 억양구로 나누어서 발화할 수도 있다. (1)은 “은주는#아름다운#여인이다”처럼 세 개의 억양구로 나뉘었을 때의 억양 곡선을 보여 주는데, 앞의 두 억양

구에서는 뒤로 갈수록 높아졌다가<sup>1)</sup> 다음 단위가 시작할 때 낮아지고, 문장을 끝맺는 마지막 단위에서는 전반적으로 낮아짐을 알 수 있다. 문장의 끝에서 낮아진 것은 이 문장이 평서문이기 때문인데, 문장의 마지막 억양구의 끝 음절에서 실현되는 억양은 문장의 유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3. 문말 억양

억양구의 음높이 유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발화 마지막 억양구의 끝 음절에서 실현되는 음높이의 유형이다. 이 자리의 억양이 어떻게 실현되는가에 따라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과 같은 문장의 종결 유형이 달라지며, 화자의 다양한 태도와 감정을 청자에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위치가 문장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억양을 문말 억양이라고 부른다. 문말 억양의 유형은 매우 다양한데, 이 중 평서문, 명령문, 청유문의 문말 억양은 대개 뒤가 낮아지는 하강조를 이루고 있다.<sup>#3#</sup>

(2) 평서문: 집에 아무도 없어.(—↘)

명령문: 이제 그만 해라.(—↘)

청유문: 자, 출발합시다.(—↘)

(2)의 하강조는 화자의 태도에 따라 급격한 하강조가 되기도 하고 완만한 하강조가 되기도 하는데, 부드러운 명령의 경우 완만한 하강조로 실현되며, 단호한 태도를 전달하는 평서문이나 청유문은 급한 하강조로 실현된다.

일반적으로 의문문의 문말 억양은 억양 곡선의 흐름은 전체적으로 낮아지다가 마지막 음절에서 높아진다.

(3) 의문문: 영희는 학교에 갔어?(—↗)

의문문 중 설명의문문과 판정의문문은 문말 억양에서 차이를 보인다.

(4) 뭐 먹었니?(—↗) - 아직 아무것도 못 먹었어.

(5) 뭐 먹었니?(—↘) - 볶음밥.

(4)는 무언가 먹었는지를 묻는 판정의문문이고 (5)는 무엇을 먹었는지를 묻는 설명의문문인데, (4)에서는 ‘먹’에 강세가 오면서 문말 억양이 상승조로 실현되고, (5)에서는 ‘뭐’에 강세가 오면서 문말 억양은 전반적으로 하강조로 실현된다.

한편 문말 억양은 아니지만 (6)처럼 발화가 완결되지 않았을 때에도 억양구의 끝이 상승조로 올라간다.

1) ‘은주는’에서는 ‘는’이 가장 높고, ‘아름다운’에서는 ‘운’이 가장 높게 실현되어 있다.

(6) 내가 지금 먹고 싶은 건(—↗) 떡볶이(—↗), 순대(—↗), 튀김(—↗),  
김밥(—↗), 라면(—↗) 그런 음식들이야.

## 참고 문헌

- 김선철(1994), 국어 악센트의 연구의 방향, 『언어학』 16, 한국언어학회, 3-21.  
김선철(2005), 『국어 억양의 음운론』, 경진문화사.  
배주채(2011), 『(개정판) 국어음운론 개설』, 신구문화사.  
신지영·차재은(2003), 『우리말 소리의 체계』, 한국문화사.  
신지영(2011), 『한국어의 말소리』, 지식과 교양.  
이진호(2014), 『(개정판) 국어 음운론 강의』, 삼경문화사.  
이호영(1991), 한국어의 억양 체계, 『언어학』 13, 한국언어학회 129-131.  
임흥빈(1984), 문종결의 논리와 수행억양, 『말』 9,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147-182.  
임흥빈(1993), 국어 억양의 기본 성격과 특징, 『새국어생활』 3-1, 국립국어원, 58-90.  
지민제(1993), 방송언어의 억양에 관한 실험음성학적 연구, 한국어 연구논문, KBS 아  
나운서실 한국어연구회.  
Jun, S.-A.(1993), The Phonetics and Phonology of Korean Prosody, PhD  
dissertation: Ohio State Univesity.  
Kang, Ongmi(1993), *Korean Prosodic Phonology*, Seoul: Taehaksa.  
Lee, H. Y.(1990), The structure of Korean prosody, PhD dissertation:  
London University.

- 
- #1# **#이론# <억양에 의한 감정과 태도 표현>** 실제 발화에서는 문말 억양 이외에도 억양구 안에서 실현되는 다양한 형태의 억양 곡선이 발견된다. 그러나 이러한 억양들을 유형화하는 일은 쉽지 않다. 화자가 가지고 있는 미세한 감정과 태도의 차이까지 형식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2# **#한교# <억양의 교육>** 문자 언어에서는 문장 부호에 의해 해당 문장의 종류가 전달된다. 그러나 음성 언어에서는 억양이 문장의 종류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한국어 교육 분야의 음성 언어 교육에서는 억양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문자 언어와 음성 언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음성 언어에서는 문자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다양한 감정과 태도까지 억양을 이용해 전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간의 태도나 감정을 모두 유형화하여 교육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동일한 억양이 상황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억양 교육의 우선적인 목표는 문장 유형과 관련된 억양을 학습시키는 데 놓여야 할 것이다.  
#3# **#이론# <평서문과 명령문의 억양>** 임흥빈(1993)에 의하면 평서의 전형적인 억양은 하강인데, 이러한 하강 억양은 완결이라는 태도적 의미를 지니며, 명령이나 감탄이 하강의 억양이 되는 것 역시 화자가 자신의 말에 대해 완결의 태도를 지니기 때문이다.

## vii. 음절

- ▶ 핵심어(keywords): 음절(音節 syllable), 음절 구조, 초성, 중성, 종성
- ▶ 관련항목: 평파열음화, 이중 모음, 자음군 단순화
- ▶ 표준화 대상 문법 용어: 활음, 반모음, 평파열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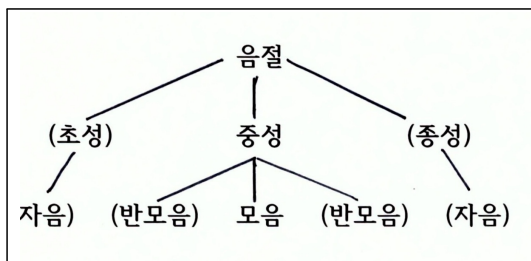
### 1. 음절의 정의

음절은 홀로 발화될 수 있는 최소 단위이다.#1# 한국어에서 모음은 모두 홀로 발화될 수 있지만,<sup>1)</sup> 자음은 항상 그 앞이나 뒤에 모음이 있어야 발화될 수 있다.#2# ‘아, 어, 오, 우’는<sup>2)</sup> 그 자체가 발음 가능한 단위이지만 ‘ㄱ, ㄴ, ㄷ, ㄹ’와 같은 자음은 ‘악, 가, 안, 나, 알, 다, 알, 라’처럼 그 앞이나 뒤에 모음이 있어야만 발음이 가능하며, ‘j, w’와 같은 반모음은 ‘야, 와’처럼 모음과 결합되어 있어야 발음이 가능하다.#3#

### 2. 음절의 구조와 유형

한국어에서 음절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음절의 핵을 이루는 중성이다. 중성을 이룰 수 있는 성분에는 단모음, 이중모음이 있으며, 중성의 앞인 음절 초에서 실현되는 자음을 초성이라고 하고, 중성의 뒤인 음절 말에서 실현되는 자음을 종성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아’는 중성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음절이고, ‘가’는 초성과 중성이 있는 음절이며 ‘악’은 중성과 종성이 있는 음절이다. 그리고 ‘각’은 초성과 중성, 종성이 갖추어진 음절이다. 이러한 음절의 구조를 도식화해서 보면 다음과 같다.#4#

#### (1) 음절의 구조



- 1) 한국어에서는 모음이 있어야 음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모음을 성절음(成節音)이라고 한다.
- 2) 한국어의 문자 언어에서는 /a/나 /ak/ 같은 발음을 ‘ㅏ’와 ‘ㅑ’로 쓰지 않고 ‘아’와 ‘악’으로 쓰는 것처럼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절도 ‘ㅇ’을 그 앞에 쓰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문자 언어의 차원의 표기 약속이지 ‘ㅇ’이 자음으로서 음가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음소를 토대로 음절을 기술한다면 /a/나 /ak/을 ‘ㅏ’와 ‘ㅑ’로 표기해야 하나 여기서는 편의상 ‘아, 악’으로 표기하였다. 물론 ‘강’과 같은 음절에서 실현되는 중성의 ‘ㅇ’은 자음으로서 음가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괄호 안에 들어 있는 요소는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어의 음절 유형은 ‘자음, 모음, 반모음’이 결합하는 방식에 따라 다음의 아홉 가지로 구분된다.

- ① 모음: 아, 어, 오, 우 ……
- ② 반모음+모음: 야, 여, 요, 유, 와, 워, 웨 ……
- ③ 자음+모음: 가, 너, 모, 부 ……
- ④ 자음+반모음+모음: 가, 며, 쇼, 휴, 과, 뭐 ……
- ⑤ 모음+자음: 악, 언, 올, 옥 ……
- ⑥ 반모음+모음+자음: 약, 연, 율, 육, 왕, 원 ……
- ⑦ 자음+모음+자음: 간, 먹, 송, 분 ……
- ⑧ 자음+반모음+모음+자음: 향, 별, 뽕, 균, 콧, 권 ……
- ⑨ 모음+반모음<sup>3)</sup>: 의#5#

음절은 종성 자리에 자음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개음절과 폐음절로 나뉘는데, ‘마’는 종성 자리에 자음이 없으므로 개음절이라고 하고 ‘막’은 종성 자리에 자음이 있으므로 폐음절이라고 한다. 위의 아홉 가지 유형 가운데 종성이 없는 ①, ②, ③, ④, ⑨는 개음절이고, 종성이 있는 ⑤, ⑥, ⑦, ⑧은 폐음절이다.

### 3. 음절의 성립

음절은 문자 언어나 형태소를 인식하는 차원과는 달리 실제의 발음을 토대로 성립된다. ‘먹어’를 예로 든다면 문자 언어나 형태소를 인식하는 차원에서는 [먹][어]의 두 단위로 나뉘지만 실제 발음에서는 ‘머’라는 음절과 ‘거’라는 음절의 결합인 [머][거]로 실현된다.

음절은 종성을 중심으로 그 앞과 뒤에 초성과 종성이 결합하여 이루어지는데, 한국어의 자음은 바로 다음에 오는 모음과 동일한 음절에 속하여 그 자음 앞에 음절의 경계가 생긴다. 예를 들어 ‘읽어’의 경우 ‘ㄱ’은 뒤의 모음 ‘어’의 초성이 되지만 ‘ㄹ’은 바로 뒤에 자음 ‘ㄱ’이 있기 때문에 다음 음절로 묶이지 않고, 그 앞의 모음과 하나의 음절로 묶인다. 그 결과 [일][거]와 같은 음절로 실현되는 것이다.

한국어에서는 세 개의 자음이 연속해서 실현될 수 없다. 종성 자리에도 한 개의 자음만 실현될 수 있고, 초성 자리에도 한 개의 자음만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음절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 자음 중 하나는 탈락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없다’와 ‘뵈다’의 표준발음은 각각 [업따]와 [뵈따]인데,<sup>4)</sup> ‘ㅂ, ㅅ, ㄷ(‘없다’의 경우)’와 ‘ㄹ, ㅂ, ㄷ(‘뵈

3) ‘모음+반모음 j’는 이중모음 ‘의’에 해당한다. 이 경우 표기에서는 ‘기, 각’처럼 ‘의’의 앞과 뒤에 초성과 종성이 올 수 있지만, 이러한 자음을 넣어서 실제로 발음을 할 때는 ‘의’가 ‘이’로 실현된다. 예를 들어 ‘희망’은 ‘히망’으로 발음되고, ‘흰색’은 ‘히색’으로 발음되므로 VG의 앞이나 뒤에 초성이나 종성이 실현될 수 없다.

다’의 경우)’ 중 마지막 ‘ㄷ’는 바로 다음에 모음이 오므로 자음군 뒤에 오는 음절의 초성으로 실현되며 그 앞에 음절 경계가 생겨난다. 그 결과 ‘ㄴㅅ(없다)’와 ‘ㄹㅂ(뺄다)’는 다음 음절로 넘어갈 수가 없고 자음군의 앞에 있는 모음의 종성 자리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종성 자리에 하나의 자음만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두 자음 중 하나는 탈락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자음군 단순화 규칙에 의해 ‘없’과 ‘뺄’은 둘 다 ‘ㅂ’만 남게 되는 것이다.

‘방아’는 한글 표기에서 ‘ㅇ’이 두 번 실현되어 있지만 두 모음 사이에는 하나의 자음만 있다. ‘아’의 첫 ‘ㅇ’은 음가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경우의 음소 연쇄는 CVCV([paŋa])이고 자음이 바로 뒤의 모음과 동일한 음절을 이룬다면 ‘방아’는 [pa][ŋa]와 같이 음절 경계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한국어에서 ‘ŋ’은 종성에서만 실현되기 때문에 ‘방아’는 [paŋ][a]와 같이 음절 경계를 갖게 된다.

#### 4. 음절 실현에 대한 제약

한국어에서는 음소 연쇄가 한국어의 음절 구조를 만족시킨다고 해도 모든 자음이나 모음이 초성과 중성 또는 종성 자리에서 실현되지는 않는다. 각각의 음소들이 음절을 이루거나 음절끼리 연결될 때 음소 실현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는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어의 초성에는 자음이 한 개만 실현될 수 있는데, ‘ㅇ[ŋ]’ 이외의 모든 자음이 이 자리에 올 수 있다. 종성의 자리 역시 하나의 자음만 실현될 수 있는데, 종성 자리에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ŋ]’의 일곱 자음만 실현될 수 있다. 종성 자리에 이들 일곱 개의 자음 이외의 자음이 온다면 그러한 자음들은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어서 ‘ㅋ, ㆁ’는 ‘ㄱ’로 실현되고(예: ‘악, 앵’은 ‘악’으로 발음됨), ‘ㅌ, ㅆ, ㅈ, ㅊ, ㅍ’는 ‘ㄷ’로 실현되며(예: ‘알, 앓, 았, 았, 앓’은 ‘안’으로 발음됨), ‘ㅍ’는 ‘ㅂ’로 실현된다(예: ‘앞’은 ‘압’으로 발음됨). 그리고 ‘ㅎ’는 종성 자리에서 실현되는 일이 없는데, ‘놓쑈(← 놓소)’에서 보듯이 ‘ㅎ’가 ‘ㄷ’로 실현되기도 한다.#6# 이처럼 초성의 자리에서 실현되는 자음과 종성의 자리에서 실현되는 자음에 대한 제약을 각각 초성 제약과 종성 제약이라고 한다. 초성에 하나의 자음만 실현되는 제약은 ‘spin’이나 ‘strong’처럼 초성 자리에 두 개 또는 세 개의 자음이 올 수 있는 영어와 비교하면 그 차이가 확실하게 드러난다.

음절 안에서 음소가 연결될 때도 제약이 있다. 한국어에서는 ‘ㅈ, ㅉ, ㅊ’ 등의 경구개음 뒤에 반모음 ‘j’로 시작하는 ‘야, 여, 요, 유, 예, 애’ 등의 이중모음이 올 때 반모음 ‘j’가 발음되지 않는다. 한국어의 경구개음이 발음되는 위치가 반모음 ‘j’와 가까워서 반모음 ‘j’의 발음이 실현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한국어에서는 ‘자’와 ‘쟈’가 동일하게 발음된다.#7#

4) 여기서 일단 음장은 논외로 하였다.

## 참고 문헌

- 강창석(1984), 「국어의 음절 구조와 음운 현상」, 『국어학』 13, 국어학회.
- 강창석(1990), 「음절」,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 김무식(2001), 「음형대분석을 이용한 이중모음 'ㄴ'의 특징 연구」, 『어문학』 72, 한국어문학회.
- 김성규·정승철(2013), 『개정판 소리와 발음』,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김소영(2009), 「이중모음 /의/의 통시적 변화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종규(1989), 「중세국어 모음의 연결 제약과 음운 현상」,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주필(1999), 「국어의 음절 내부 구조와 음운 현상」, 『애산학보』 23, 애산학회.
- 김차균(1981), 「음절이론과 국어의 음운규칙」, 『논문집』 8-1, 충남대학교.
- 박선우(2008), 「현대국어의 /의/는 이중모음인가?: /의/의 음향적·지각적 특성에 대한 검토」, 『우리말연구』 23, 우리말학회.
- 박창원(1987), 「표면음성제약과 음운현상-고성지역어의 음절구조를 중심으로」, 『국어학』 16, 국어학회.
- 박창원(1988), 「15세기 국어의 이중모음」, 『경남어문논집』 창간호, 경남대학교.
- 배주채(1989), 「음절말자음과 어간말자음의 음운론」,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주채(1996), 『국어음운론 개설』, 신구문화사.
- 송철의(1982), 「국어의 음절문제와 자음의 분포제약에 대하여」, 『관악어문연구』 7,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신지영(1999), 「이중모음 /ㄴ/의 통시적 연구」, 『민족문화연구』 32,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이진호(2005), 『국어음운론 강의』, 삼경문화사.
- 이진호(2012), 『한국어의 표준 발음과 현실 발음』, 아카넷.
- 이호영(1996), 『국어 음성학』, 태학사.
- 정인호(2004), 「하강이중모음과 부동이중모음의 음변화」, 『어문연구』 32-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 최명옥(2004), 『국어음운론』, 태학사.
- 허 웅(1985), 『국어 음운학』, 샘문화사.

#1# **#생활# <음절에 대한 인식>** 음절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도 가장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음운론의 단위가 다. 어떤 발화가 있을 때 자음이나 모음의 수를 세는 것보다 음절을 세는 일이 훨씬 쉽다. 음절이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은 말실수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예를 들어 ‘간 콩깍지 안 간 콩깍지’를 빨리 발음하다 보면 ‘간 콩깍지 안 간 콩깍지’처럼 잘못 발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실수는 ‘콩’이라는 음절의 첫소리가 ‘간’의 첫소리로 옮겨 가고, ‘간’의 첫소리가 ‘콩’의 첫소리로 옮겨 간 현상이다. 음절에서 동일한 위치인 초성끼리 영향을 주고받은 것이다. 또한 한글은 음절 단위로 모아서 쓰도록 고안되어 있다. 음절에 대한 인식이 15세기에도 자연스러웠음을 알려 주는 증거이다.

#2# **#이론# #생활# <음절을 이루는 자음>** 언어에 따라서는 자음이 성절음의 역할을 하여 모음 없이 자음 자체로 음절이 성립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영어의 ‘apple, sudden’의 발음은 [æpl]과 [sʌdn]인데, 이 단어들에서는 자음 [l]과 [n]이 음절을 이루는 성절음의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어에서는 자음이 성절음의 역할

- 을 못하므로, 이 단어들을 한국어에서 받아들이는 때는 ‘애플, 서든’처럼 ‘으’라는 모음을 넣는다.
- #3# **#국교# #생활# <음절과 글자>** 일상생활에서는 “‘집’은 한 글자의 단어이고 ‘학교’는 두 글자이다.”라는 표현처럼 ‘글자’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그런데 ‘집’도 한 글자이지만 ‘ㅈ’도 한 글자이므로 ‘글자’가 지칭하는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글자’는 문자 언어의 단위이므로 말소리를 다루는 경우에 적절하지 않은 용어이다. 음성 언어를 다루는 경우에는 ‘글자’를 대신하여 ‘ㄱ, ㄴ’와 같은 단위에 대해서는 ‘음소’라는 단위를 설정하고, ‘집’과 같은 단위에 대해서는 ‘음절’이라는 단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국어 교육에서도 음성언어와 문자언어를 지칭하는 ‘말’과 ‘글’의 차이를 교육할 때 이러한 구분을 명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 #4# **#이론# <음절 구성 성분의 위계>** 음절의 구조에는 그 구성 성분인 초성과 중성, 종성의 관계에 따라 ‘좌분지 구조, 우분지 구조, 평면 구조’가 있을 수 있다. 초성과 중성의 관계가 밀접하여서 이들이 먼저 하나로 묶이고 거기에 중성이 결합하여 음절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좌분지 구조라고 하고, 중성과 종성의 관계가 밀접하여서 이들이 먼저 묶이고 거기에 초성이 결합하여 음절이 이루어지면 우분지 구조라고 한다. 반면에 초성과 중성, 종성 사이에 친소 관계가 없어서 초성, 중성, 종성이 대등하게 음절을 직접 이루는 경우에는 평면 구조라고 한다. 국어의 음절 구조가 이들 중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있다. 국어의 음절 구조에 대해서는 성운학(聲韻學)에서 성모(聲母)로 다루고 중성과 종성을 합하여 운모(韻母)로 나누어 온 태도를 따라 좌분지 구조로 보려는 견해가 있다. 그리고 말놀이 등의 자료를 증거로 우분지 구조로 보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말놀이나 발화 실수는 좌분지 구조나 우분지 구조 어느 하나만을 지지해 주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러한 이유로 여기서는 국어의 음절 구조를 평면 구조로 제시하였다.
- #5# **#이론# <‘ㄴ’의 음운 체계상의 지위>** ‘이중 모음’에 대한 기술에서 다루었듯이 ‘ㄴ’은 하향 이중 모음으로 분석할 수도 있고, 상향 이중 모음으로 분석할 수도 있으며, 단모음 ‘ㅡ’와 단모음 ‘ㅣ’로 구성된 이중 모음으로 분석할 수도 있다. 여기서는 하향 이중 모음으로 기술하였다.
- #6# **#이론# #생활# #국교# <7종성>** 한국어에서는 음절의 종성 위치에서 일곱 개의 자음만 실현될 수 있는데 표준발음법의 제4장 ‘받침의 발음’에서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 8 항 받침소리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 개 자음만 발음한다.  
 제 9 항 받침 ‘ㄱ, ㅋ, ㆁ, ㆁ, ㅈ, ㅊ, ㅌ, 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대표음 [ㄱ, ㄷ, ㅂ]으로 발음한다.

- 이 현상은 학교 문법에서 ‘말음법칙’ 등의 범주에서 다루어졌는데, 이는 음운의 변동의 일종으로 ‘평파열음화’에 해당한다. 평파열음화는 평파열음이 아닌 소리가 평파열음인 ‘ㄱ, ㅂ, ㄷ’의 세 소리로 대체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여기서 평파열음이라는 것은 평음이면서 파열음인 것을 가리킨다.
- 외래어 표기법 제1장의 ‘표기의 기본 원칙’ 제3항을 보면 “받침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ㆁ, ㅇ’만을 쓴다”고 되어 있다. 이것은 외래어도 한국어에 들어온 이상 한국어의 발음법에 맞게 되는 현상을 보여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어의 ‘book’은 ‘북’으로도 표기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조사를 붙일 때 ‘부키, 부쿨’로 발음하지 않고 ‘부기, 부글’이라고 발음하는 사정을 감안하여 외래어의 경우도 ‘ㄱ’ 등의 자음을 종성 자리에 적지 않고 일곱 개의 자음으로만 표기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 받침들을 표준발음법의 7종성과 비교해 보면 차이가 있다.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ㅅ’를 제시하고 있는 데 반해 7종성에 대한 규정에서는 ‘ㄷ’가 제시되어 있다. 이것은 ‘ㄷ’와 유사하게 발음되는 외래어라도 한국어에서 발음될 때는 모음 앞에서 ‘ㅅ’로 발음되는 현상을 토대로 이루어진 표기법에 대한 규정이다. 예를 들어 ‘racket’ 자체는 ‘라켓’으로 발음되지만, 여기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를 붙이면 ‘라케시’, ‘라케슬’로 실현되기 때문에 ‘ㄷ’이 아닌 ‘ㅅ’을 받침으로 쓰게 한 것이다.
- #7# **#생활# #국교# <외래어 표기의 ‘자, 차’>** 한국어에서 ‘ㅈ, ㅊ, ㅌ’ 등의 경구개음 뒤에 반모음 ‘j’로 시작하는 ‘야, 여, 요, 유, 예, 애’ 등의 이중모음이 올 때 반모음 ‘j’가 발음되지 않기 때문에 외래어 표기법에서 영어의 ‘juice, charming’ 등을 ‘쥬스’나 ‘차밍’으로 적지 않고 ‘주스’와 ‘차밍’으로 적도록 규정하였다. ‘쥬스, 차밍’으로 적으나 ‘주스, 차밍’으로 적으나 동일한 발음이므로, 외래어를 표기하면서 굳이 ‘쥬’나 ‘차’라는 표기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 국어교육에서는 외래어 표기법의 해당 규정이 만들어진 이러한 이유를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 4.3.2. 형태론

### i. 형태소

- ▶ 핵심어(keywords): 형태소, 이형태, 기본형, 교체, 자립 형태소, 의존 형태소,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 특이 형태소, 계열 관계, 통합 관계, 형태소 분석
- ▶ 관련 항목: 불규칙 활용, 한자어, 음운 변동, 단어 형성, 파생어, 합성어, 어휘부
- ▶ 표준화 대상 문법 용어: 이형태, 변이음, 교체, 불규칙, 불규칙 용언, 불규칙 활용, 기본형, 의존 명사, 계열 관계, 통합 관계, 대치, 특이 형태소, 음운적 조건에 의한 교체, 형태적 조건에 의한 교체

#### 1. 형태소의 정의

형태소(morpheme)는 ‘뜻을 가진 소리의 연쇄 중에서 최소의 단위’이다. 예를 들어 ‘바-다-다-다’라는 소리의 연쇄는 ‘海’라는 뜻을 가지므로 형태소이지만, ‘바’나 ‘다’는 고유한 뜻을 가지지 못하므로 형태소가 아니다. 또한 ‘바닷새’가 형태소가 아닌 것은 뜻을 가진 소리의 연쇄이지만<sup>#1#</sup> 최소의 단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형태소가 뜻을 가진 소리의 연쇄로서 최소의 단위라는 말은 형태소가 고유한 의미와<sup>#2#</sup> 고유한 음성 형식을<sup>#3#</sup>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단어를 비롯한 다른 언어 단위가 그러하듯 형태소도 ‘고유한 의미’가 ‘고유한 음성 형식’과 이어져 있다. 이때 ‘의미’와 ‘음성 형식’이 반드시 일대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다.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여러 개의 음성 형식들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쓰이는 분포상의 특성을<sup>#4#</sup> 보이기도 한다. 그리하여 어떤 소리의 연쇄들이 있을 때, 이들이 의미가 같고 서로 상보적인 분포를 보이면 하나의 형태소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뒤에서 설명할 것인바, 서로 의미가 같은 소리의 연쇄들인 ‘웃-’, ‘웁-’, ‘운-’은 하나의 형태소가 된다.

형태소라는 개념은 단어를 비롯한 구나 문장 등의 통사 구성에 참여하는 요소가 의미를 가진 더 작은 단위로 쪼개어질 수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sup>#5##6#</sup> 따라서 형태소는 본질적으로 언어를 분석하려는 생각에서 나온 단위이다.<sup>#7#</sup> 그렇지만 분석에 의해 나온 단위는<sup>#8#</sup>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합 내지 형성을 위한 단위가 되기도 한다.<sup>#9#</sup> 형태소 분석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뒤에서 이루어진다.

#### 2. 이형태와 기본형

##### 2.1. 이형태와 교체

이미 언급했듯이 형태소는 고유한 의미와 고유한 음성 형식을 가지고 있다. 형태소는 엄밀하게 말하면 고유한 의미에 초점을 둘 때 사용하는 용어이고, 고유한 음성 형식에 초점을 맞춘 용어는 형태(形態, morph)이다. 형태소가 하나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을 때는 굳이 형태소와 형태를 구분할 필요가 없지만 하나의 형태소가 여러 개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 둘을 구분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1) 가. 감아서[가마서], 감고[감꼬], 감는다[감는다]

나. 웃어[우서], 웃고[웁꼬], 웃는다[웁는다]

(1가)에서 볼 수 있듯이 형태소 ‘감-’은 소리가 변하지 않지만, (1나)의 ‘웃-’은 모음 앞에서는 ‘[웃]’이라는 형태로, 비음을 제외한 자음 앞에서는 ‘[웁]’이라는 형태로, 비음 앞에서는 ‘[웁]’이라는 형태로 소리 난다. 이처럼 하나의 형태소가 환경에 따라 다양한 다른 모습으로 실현되는 현상을 교체(交替, alternation)라고 한다.<sup>#10#</sup> 하나의 형태소가 하나의 형태가 아닌 여러 개의 형태로 나타날 때 형태들 간의 관계에 주목하여 사용하는 용어가 이형태(異形態, allomorph)이다. 이미 언급했듯이 형태소의 이형태들은 대체로 상보적인 분포를 보인다.

## 2.2. 이형태 교체의 양상

### 2.2.1. 음운적 조건에 의한 교체와 형태적 조건에 의한 교체

이형태의 교체의 양상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교체의 조건이 음운의 차이에 따라 결정되는 ‘음운적 조건에 의한 교체’(phonemically conditioned alternation)와 특정 형태를 조건으로 하는 ‘형태적 조건에 의한 교체’(morphemically conditioned alternation)로 나눌 수 있다.<sup>#11#</sup>

(2) 가. 웃- ~ 웁- ~ 웁-

나. 이 ~ 가

(3) -었- ~ -았- ∞ -였-<sup>1)</sup>

(2가)는 후행 요소, (2나)는 선행 요소의 음운론적인 조건에 따라 이형태가 교체되는 양상을 보인다. (2가)는 이미 설명했듯이 ‘웃-’이 모음 앞에서는 ‘[웃]’, 비음을 제외한 자음 앞에서는 ‘[웁]’, 비음 앞에서는 ‘[웁]’으로 나타나므로 각각의 이형태가 음운적인 조건에 따라 나타난다. (2나)는 국어의 주격 조사가 자음 뒤에서는 ‘이’, 모음 뒤에서

1) 과거 시제를 표시하는 형태소의 이형태는 ‘-었- ~ -았- ∞ -였-’ 이외에도 ‘-었-, -었-, -았-, -았-, -었-, -었-’ 등이 더 있지만 이들은 형태론적 이형태를 설명하기에 필요하지 않으므로 설명을 간략하게 하기 위해 제시하지 않았다.

는 ‘가’로 나타나므로 역시 이형태가 음운적인 조건에 의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 준다.

(3)은 음운적인 조건에 의한 이형태 교체뿐 아니라 형태적인 조건에 의한 이형태 교체도 보여 준다. ‘-였-’과 ‘-았-’의 선택은 선행 요소가 양성 모음인지 음성 모음인지에 따른 교체이므로 음운적인 조건에 의한 교체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였-’은 ‘하다’나 ‘00하다’ 용언 어간 뒤에서만 나타나므로 형태적인 조건의 이형태로 볼 수 있다.<sup>#12#</sup> 음운적인 조건에 의한 이형태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부호 ‘~’를 사용하고 형태적인 조건에 의한 이형태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 $\alpha$ ’나 ‘ $\infty$ ’를 사용한다.

한 형태소의 이형태들은 의미 차이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리하여 같은 주격 조사의 기능을 한다 하더라도 ‘이 ~가’와 달리 ‘께서’의 경우는 높임의 의미가 더 해지므로 이형태로 다루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sup>#13#</sup>

## 2.2.2. 자동적 교체와 비자동적 교체

교체는 자동적 교체(自動的 交替, automatic alternation)와 비자동적 교체(非自動的 交替, nonautomatic alternation)로 구분하기도 한다. 자동적 교체란 그 교체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언어의 음운 패턴이 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교체를 말하고, 비자동적 교체는 그런 이유가 없는 교체이다. 즉, 자동적 교체란 교체의 동기가 음운 체계 내지 음소 배열 제약 때문에 일어나는 교체이다.

위에서 예시한 (2가)의 ‘웃- ~ 운-’의 교체는 국어의 종성으로 ‘ㅅ’이 올 수 없다는 필수적인 제약에 따른 것이고, ‘운-’으로의 교체는 비음 앞에 비음이 와야 한다는 필수적인 제약에 따른 것이므로 자동적 교체이다. 이에 비해 (2나)의 ‘이 ~ 가’의 교체는 비록 주격 조사가 자음 뒤에서는 ‘이’, 모음 뒤에서는 ‘가’로 예외 없이 나타나지만, 국어에서 자음 뒤에는 ‘가’가 올 수 없다든지 모음 뒤에서는 ‘이’가 올 수 없다든지 하는 음운 체계 내지 음소 배열 제약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자동적 교체에 속한다.

(3)의 ‘-였-’과 같은 형태적 조건에 의한 교체는 음운 체계 내지 음소 배열 제약과 무관하므로 모두 비자동적 교체이다. 그러나 음운적 조건에 의한 교체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자동적 교체도 있고 비자동적 교체도 있다.

## 2.2.3. 규칙적 교체와 불규칙적 교체

교체를 규칙적 교체(規則的 交替, regular alternation)와 불규칙적 교체(不規則的 交替, irregular alternation)로 나눌 수도 있다. 한국어에서는 규칙적 교체와 불규칙적 교체는 주로 용언의 활용에서 다루어져 왔다.

(4) 가. 묻(問)- ~ 물- cf. 묻(埋)-

나. 담그- 담ㄱ  
 나'. 따르- 따르- cf. 흐르-, 푸르-  
 다. 알- ~ 아-  
 라. 이 ~ 가

(4가)는 자음 어미 앞에서는 ‘묻-’이, 모음 어미 앞에서는 ‘물-’이 나타나므로 흔히 불규칙적 교체로 본다.<sup>#14#</sup> 이를 불규칙적 교체로 보는 것은 똑같이 ‘ㄷ’을 받침으로 가지는 ‘묻(埋)-’이 예외 없이 ‘묻-’으로만 나타난다는 것에 의해 더 잘 드러난다. 그리하여 ‘묻-’으로만 나타나는 것과 ‘묻- ~ 물-’로 나타나는 것의 대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환경이 같은데도 두 가지 교체 방식이 존재할 때, 이 중 상대적으로 규칙으로 설명하기 쉬운 것은 규칙적 교체로 보고 그렇지 못한 것은 불규칙적 교체로 본다.

(4나)의 경우 ‘담그다, 담가, …’에서 볼 수 있듯이, 모음 ‘ㅡ’로 끝나는 어간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ㅡ’가 탈락한다. 국어에서 이런 환경에서 ‘ㅡ’가 탈락하지 않은 예가 없다는 점에서 불규칙 활용에서 제외하기도 하였다. ‘ㅡ’로 끝나는 어간 중에서 (4나)의 ‘따르다’, ‘흐르다’, ‘푸르다’처럼 ‘르’를 가지는 어간은 좀 특별한 점이 있다. ‘따르다, 따라서, …’의 경우는 ‘담그다’와 마찬가지로 ‘ㅡ’가 탈락하며, ‘흐르다’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흘리’처럼 나타나 ‘흐르- ~ 흘르’의 교체를 보이고, ‘푸르다’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푸르러서’처럼 나타나 ‘푸르- ~ 푸를-’의 교체를 보인다. 이러한 유형 중에서 상대적으로 규칙으로 설명하기 쉬운 ‘따르다’류는 규칙 활용, 그렇지 않은 유형 중 ‘흐르다’류는 ‘르’ 불규칙 활용, ‘푸르다’류는 ‘러’ 불규칙 활용으로 다룬다.<sup>#15#</sup>

한편, (4다)의 경우 ‘알고, 알지, 아니…’처럼 ‘ㄹ’이 탈락하기도 하는데, 이런 탈락을 불규칙적인 교체로 설명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현대 국어에서 ‘ㄹ’ 종성을 가지는 용언 어간은 ‘-(으)니’와의 결합에서 ‘아니’에서 볼 수 있듯이 ‘ㄹ’이 탈락하는 한 가지 방식의 교체만 존재하므로 불규칙적인 교체가 아니라 규칙적인 교체로 볼 수 있다.<sup>#16#</sup> 이를 고려하여 불규칙적 교체란 반드시 두 가지 이상의 교체 방식이 있을 때 성립한다고 설명해 왔다.<sup>2)</sup>

(4라)는 (4가~4다)와 달리 용언의 활용이 아니며, 음운 변동과 관련이 있는 교체도 아니다. 용언의 활용과 관련이 없으므로 불규칙 활용 논의에서는 잘 다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규칙적 교체와 불규칙적 교체를 다루는 데에는 용언의 활용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여기에서 간략하게 언급해 두고자 한다. (4라)는 이형태 중 어느 하나에서 다른 이형태로의 교체를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불규칙적 교체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 2.3. 교체와 기본형

2) 규칙적 교체와 불규칙적 교체에 대한 논의는 용언의 활용에서 자세하게 다루기로 한다.

형태소가 교체에 의해 이형태들을 가질 때 그 중 하나의 형태를 대표로 하여 기본형(基本形, basic form)을 정하기도 한다.<sup>#17#</sup> 기본형은 대체로 다음 몇 가지 기준에 의해 정한다.

먼저 어떤 이형태를 기본형으로 잡았을 때 나머지 이형태의 도출을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다면 그 이형태를 기본형으로 잡는다. 위에서 예로 제시한 ‘웃- ~ 운- ~ 운-’의 경우 ‘웃-’을 기본형으로 잡으면 자음 앞에서 받침이 ‘ㄷ’으로 바뀌어 ‘운-’으로 나타나는 것과 비음 앞에서 ‘운-’으로 나타나는 것을 국어의 규칙들에 의해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다.<sup>3)</sup> 하지만 ‘운-’이나 ‘운-’을 기본형으로 잡으면 한국어에서 흔히 나타나는 규칙으로 다른 이형태들의 교체를 설명하기가 어렵다.

위에서 예를 든 ‘이 ~ 가’와 같이 어느 하나의 이형태를 기본형으로 잡더라도 자연스럽게 다른 이형태를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둘 다를 기본형으로 잡거나 임의적으로 어느 하나의 이형태를 기본형으로 정하기도 한다. 물론 이럴 경우에도 통계적으로 보아 빈도가 더 높은 것을 기본형으로 삼거나 역사적으로 먼저 쓰인 형태를 기본형으로 삼기도 한다.<sup>4)</sup>

기본형은 사전에 표제어로 올릴 때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현행 국어사전들은 ‘웃- ~ 운- ~ 운-’ 중에서 기본형인 ‘웃-’만을 표제어로 실는다.<sup>#18#</sup> 또한 ‘이 ~ 가’의 경우 두 이형태를 모두 사전의 표제어로 삼기는 하지만 자세한 뜻풀이는 둘 중 하나의 이형태에서 제시하고 나머지 이형태의 뜻풀이는 이를 참조하게 하는 것이 보통이다.<sup>5)6)</sup>

### 3. 형태소의 하위 유형

#### 3.1.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

문장에서 홀로 쓰일 수 있는지의 기준에 따라 형태소를 자립 형태소(free morpheme)와 의존 형태소(bound morpheme)로 나누기도 한다. 문장에서 홀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은 형태론적 기준에서<sup>#19#</sup> 자립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5) 오늘은 꽃잎이 휘날렸다.

- 
- 3) ‘웃-’이 ‘운-’으로 나타나는 교체는 평파열음화, ‘운-’이 ‘운-’으로 나타나는 것은 비음동화로 설명할 수 있다.  
 4) 주지하듯이 ‘이 ~ 가’ 중에서 ‘이’가 역사적으로 먼저 나타났으므로 ‘이’를 기본형으로 잡자고 주장하기도 하고, 유아의 언어습득에서 ‘가’를 먼저 배우기 때문에 ‘가’를 기본형으로 잡는 것이 옳다는 논의를 펼치기도 한다. ‘이’나 ‘가’ 중 어느 것을 기본형으로 잡는지는 사전에 따라 다르고 문법서에 따라 다르다.  
 5) 국어의 주격 조사 ‘이 ~ 가’의 경우 사전에 모두 올라 있어 둘 다 기본형으로 잡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사전의 뜻풀이는 어느 한 쪽에서 하고 있으므로 소극적으로나마 뜻풀이를 하고 있는 쪽을 기본형으로 잡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6) ‘웃- ~ 운- ~ 운-’ 중에서 ‘웃-’만을 표제어로 실고, ‘이 ~ 가’는 둘 다 표제어로 삼는 것은 한글맞춤법이 소리 나는 대로만 적는 것이 아니라 원형을 밝혀 적는 형태음소적인 표기를 채택하기도 한다는 점과도 관련이 있다.

(5)에서 자립 형태소는 ‘오늘’, ‘꽃’, ‘잎’이고, 의존 형태소는 ‘은’, ‘이’, ‘휘-’, ‘날-’, ‘-리-’, ‘-었-’, ‘-다’이다.

자립 형태소인지 여부는 어디까지나 잠재적인 자립 가능성을 기준으로 한다. (5)에서 ‘꽃’과 ‘잎’이 하나의 합성어로 결합되어 있지만 ‘꽃’과 ‘잎’은 다른 경우에 자립적으로 쓰일 수 있으므로 자립 형태소이다. 이에 비해 ‘휘-’, ‘-리-’와 같은 파생 접사나 ‘-었-’과 같은 선어말 어미, ‘-다’와 같은 어말 어미는 어떤 경우든 자립적으로 쓰일 수 없으므로 의존 형태소이다.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도 의존 형태소임은 물론이다. 어미와 달리 조사는 학교 문법 등에서 흔히 단어의 하나로 취급하고 있지만 문장에서 홀로 쓰이지 않으므로 조사 역시 어미와 마찬가지로 의존 형태소로 분류하는 것이 보통이다.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를 구분하는 판단 기준으로 흔히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나타날 수 있느냐의 여부나 띄어쓰기 단위가 되는지 여부를 들기도 한다.#20#

(6) 철수: 너 어디 가니?

영희: 집.

(7) 살다보면 그럴 수 있다.

(6)에서 볼 수 있듯이 자립 형태소인 ‘집’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쓰이며 띄어쓰기 단위로 명확하게 드러나므로 자립 형태소이다. 하지만 파생 접사나 어미, 조사 등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쓰일 수 없고 문장에서 띄어쓰기 단위로 나타나지도 않으므로 의존 형태소이다. (7)에 쓰인 ‘수’와 같은 의존 명사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쓰일 수는 없고 흔히 음운론적으로 선행 요소와 한 단위를 이루기도 하지만, 어미나 접사처럼 선행 요소를 반드시 요구하여 선행 요소와 의존 명사가 결합한 전체가 형태론적인 단위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형태론적으로는 자립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의존 형태소가 아니라 자립 형태소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다.#21# 대체로 의존 명사를 포함하여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등이 단일 형태소로 이루어졌을 때는 자립 형태소로 분류되고, 동사 어간, 어미, 조사, 접사 등은 의존 형태소로 분류된다.#22#

의존 형태소의 의존성을 표시하기 위해 특별히 붙임표(hyphen)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위에서 예를 든 ‘휘-’, ‘-리-’, ‘-었-’, ‘-다’처럼 앞이나 뒤 혹은 양쪽에 붙임표를 사용한다. 조사의 경우 의존성을 고려하면 ‘-이’, ‘-을’ 등으로 붙임표를 붙이는 것이 마땅하지만 어미와 달리 관습적으로 붙임표를 사용하지 않는다.7)

형태소는 의존성을 가진다 하더라도 여러 어휘에 반복적으로 나타나 비교적 안정된 의미를 가지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뒤에서 언급하게 될 ‘오솔길’, ‘박쥐’의 ‘오솔’이나 ‘박’처럼 특정한 어휘에만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형태소도 있다.#23# 이를 흔히 특

7) 조사에 붙임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학교 문법 등에서 어미와 달리 조사를 단어로 분류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어미에 선행하는 어간과 달리 조사에 선행하는 체언은 자립성을 가지므로 조사 역시 자립성을 어느 정도 가지는 것으로 보아 붙임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 형태소(unique morpheme)라고 불러 다른 형태소와 구분하기도 한다.<sup>8)</sup> 특히 형태소는 파생 접사나 어미처럼 어근을 필요로 하거나, 어간이나 어미처럼 서로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형태소와만 결합한다는 점에서 극단적인 의존성을 가진 형태소로 볼 수 있다.

### 3.2.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

형태소가 가진 의미가 실질적인 개념을 나타내는지 형식적인 관계를 나타내는지에 따라 실질 형태소(full morpheme)와 형식 형태소(empty morpheme)로 나누기도 한다.

(8) 가을에는 하늘이 매우 푸르다.

(8)에서 ‘가을’, ‘하늘’, ‘매우’, ‘푸르-’ 등은 실질 형태소이고, ‘에’, ‘는’, ‘이’, ‘-다’ 등은 형식 형태소이다. 자립 형태소들은 대체로 실질 형태소인 경우가 많고, 의존 형태소들은 형식 형태소인 경우가 많다. 다만,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은 의존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이다.<sup>#24#</sup>

흔히 실질적인 개념은 어휘적인 의미, 형식적인 관계는 문법적인 의미와 관계되므로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 대신 어휘 형태소(lexical morpheme)와 문법 형태소(grammatical morpheme)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sup>#25#</sup> 그 의미가 실질적인지 형식적인지 어휘적인지 문법적인지는 양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의 분류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특히 파생 접두사나 보조 용언의 경우 실질 형태소나 형식 형태소 어느 한쪽에 포함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한국어의 ‘꽃-’, ‘만-’, ‘참-’ 등과 같은 파생 접두사는 어느 정도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실질 형태소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형식적인 기능에 주목하여 형식 형태소로 분류한다.<sup>#26#</sup>

## 4. 형태소 분석

### 4.1. 형태소 분석의 개념

형태소만으로도 의미를 가지지만 둘 이상의 형태소가 결합하여 의미를 가진 더 큰 단위를 이루기도 한다.<sup>9)</sup> 이렇게 하나 이상의 형태소로 구성된 언어 단위는 다시 이를

8) ‘오솔길’, ‘박쥐’에 나타나는 ‘오솔’이나 ‘박’과 같은 제한적으로만 나타나는 형태소를 특이 형태소(unique morpheme)라는 이름 대신 불구 형태소나 유일 형태소라고 부르기도 한다.

9) 형태소가 결합하여 만들어지는 단위는 전형적으로는 단어이다. 단어 중에는 둘 이상의 형태소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복합어)가 다시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요소로 쓰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햇웃음’은 ‘햇’과 ‘웃음’

구성하는 형태소들로 나눌 수 있다. 이와 같은 일을 형태소 분석이라고 한다.

#### (9) 형태소 분석

둘 이상의 형태소가 결합하여 구성된 언어 단위를 그것을 구성하는 형태소들로 나누는 일

형태소 분석은 아래에서 설명되는 것처럼 몇 가지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다.

### 4.2. 형태소 분석의 기준

형태소보다 더 큰 단위인 단어나 구, 문장 등이 복합 형태소를 이루고 있을 때, 이들 각각은 단일 형태소로 분석될 수 있다. 물론 실제로 단위를 분석할 때에는 분석을 시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분석에 적용한 기준이 무엇인지에 따라 분석의 양상은 크게 달라지기도 한다. 흔히 형태소 분석은 분석자의 직관에 의존하지만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 기준이 제시되기도 한다.<sup>#27#</sup> 이때 몇 가지 분석 기준 중에서 계열 관계(系列關係, paradigmatic relation)와 통합 관계(統合關係, syntagmatic relation)가 가장 널리 활용된다.<sup>#28#</sup> 우리는 분석 기준으로 계열 관계와 통합 관계를 주로 활용할 것이다.<sup>10)</sup>

단어나 구, 문장 등을 형태소로 나눌 수 있는 것은 그 단위들이 본래부터 형태론적으로 단일한 단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들이 본래부터 형태론적으로 단일하지 않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를 들어 ‘앓고’를 두 개의 형태소 ‘앓-’과 ‘-고’로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먼저 (10)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앓고’에서 ‘앓-’의 자리에는 ‘먹-, 잡-, 달-’ 등이 대치될 수 있고, ‘-고’의 자리에는 ‘-지, -는, -으니’ 등이 대치될 수 있다.

(10) 앓 - 고  
      먹   지  
      잡   는  
      달   으니  
      :

이렇게 일부는 그대로 있고 나머지가 다른 것으로 대치되는 것은 ‘앓고’가 본래부터 단일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때 ‘앓-’과 ‘먹-, 잡-, 달-’, ‘-고’와 ‘-지, -는, -으니’처럼 서로 대치되어 쓰일 수 있는 것들 사이의 관계를 계열 관계라고 한다.

---

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인데, 이때 ‘웃음’은 두 개의 형태소 ‘웃’과 ‘음’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복합어이다. 이에 대해서는 ‘단어의 형성’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10) 주지하듯이 계열 관계와 통합 관계는 형태소 분석에만 쓰이는 것은 아니다. 문장을 단어나 구, 어절 등으로 분석할 때도 사용되며, 음절을 음소로 분석할 때도 사용된다. 즉 계열 관계나 통합 관계는 언어학에서 분석을 위한 일반 원리로 사용된다.

계열 관계에 있는 형태소들은 같은 성질을 갖는다. ‘앉-, 먹-, 잡-, 닫-’은 동사 어간이라는 같은 성질을, ‘-고, -지, -는, -으니’는 어미라는 같은 성질을 갖는다. 같은 성질을 가지므로 계열 관계에 있는 형태소들은 서로 대치되어 쓰일 수 있다.

다음으로 (11)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앉-’과 ‘-고’ 사이에는 ‘-앉-, -겠-, -으시-’ 등이 끼어들 수 있다.

(11) 앉 - 고

앉 - 앉 - 고

앉 - 겠 - 고

앉 - 으시 - 고

이렇게 ‘앉-’과 ‘-고’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들 수 있는 것도 ‘앉고’가 본래부터 형태론적으로 단일한 단위였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이때 ‘앉-’과 ‘-고’처럼 서로 결합하여 더 큰 단위를 만들 수 있는 것들 사이의 관계를 통합 관계라고 한다. ‘앉고’는 본래부터 통합 관계에 있는 두 개의 형태소 ‘앉-’과 ‘-고’로 구성된 것이므로 그 사이에 ‘-앉-, -겠-, -으시-’와 같은 다른 형태소가 끼어들 수 있는 것이다.

형태소 분석의 기준인 계열 관계와 통합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12) 형태소 분석의 기준

가. 계열 관계: 언어 요소들이 구성체를 이루고 있을 때, 어떤 위치에서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서로 대치될 수 있는 요소들의 관계. 형태소 분석에서 계열 관계를 가지고 대치될 수 있는 요소는 분석할 수 있다.

나. 통합 관계: 언어 요소들이 구성체를 이루고 있을 때, 서로 관련을 맺고 연결되어 구성체를 이루고 있는 각각의 구성 요소들 간의 관계. 형태소 분석에서 통합 관계를 이루는 요소들 사이에 다른 요소를 넣어 또 다른 통합 관계가 성립하면 분석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런 기준에 따라 실제로 형태소보다 큰 언어 단위를 형태소로 분석할 것이다.

### 4.3. 형태소 분석의 실제

형태소보다 큰 언어 단위를 형태소로 분석할 때,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 언어 단위를 통합 관계가 성립하는 부분들로 나눌 수 있는지, 이렇게 나누어진 각 부분들을 그것과 계열 관계를 이루는 다른 것들로 대치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그런데 통합 관계와 계열 관계를 따져서 형태소를 분석하는 일이 생각만큼 간단하지는 않다. 예를 들어 (13)에서 ‘먹을게’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지 살펴보자.

(13) 그 사과는 내가 먹을게.

‘먹을게’에서 ‘먹’의 자리에는 대부분의 동사 어간이 대치될 수 있다. 따라서 ‘먹을게’에서는 일차적으로 동사 어간 ‘먹-’을 분석해 낼 수 있다.

한편 (14)를 고려하면 ‘-을게’의 ‘게’는 ‘까, 래, 지’ 등으로 대치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14) 가. 그 사과는 내가 먹을까?

나. 그 사과를 내가 먹을래.

다. 그 사과를 누가 먹을지?

그러면 이러한 관찰을 바탕으로 ‘-을게’도 다시 두 개의 형태소 ‘을’과 ‘게’로 분석할 수 있을까? 아울러 ‘-을까, -을래, -을지’도 각각 두 개의 형태소 ‘을’과 ‘까’, ‘을’과 ‘래’, ‘을’과 ‘지’로 분석할 수 있을까? 당연한 것이지만 형태소 분석은 ‘형태소’를 분석하는 일이다. 곧 형태소 분석의 결과는 우리가 형태소의 정의에서 언급한바, ‘뜻을 가진 소리의 연쇄’인 형태소여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을게’를 공식적으로 두 개의 형태소 ‘을’과 ‘게’로 분석하기는 어렵다.<sup>11)</sup> 현대 국어에서 ‘-을게’의 ‘을’과 ‘게’가 ‘을게’의 의미와 관련되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sup>12)</sup>

한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형태소 가운데에는 다른 형태소와 결합할 때 이형태를 가져서 그 모습이 바뀌는 것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둘 이상의 형태소(혹은 형태소의 일부분)가 하나의 음절로 융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15)에서 밑줄 친 단어들을 살펴보자.

(15) 가. 아무 말 없이 한 시간을 걸었다.

나. 오늘 따라 하늘이 더 파랗 보인다.

(15가)에서는 ‘ㄷ’ 불규칙 용언의 어간인 ‘걸-’이 어미 ‘-었-’과 결합하면서 받침 ‘ㄷ’이 ‘ㄹ’로 교체되었고, (15나)에서는 ‘ㅎ’ 불규칙 용언의 어간인 ‘파랗-’이 어미 ‘-아’와 결합하면서 끝 음절의 받침 ‘ㅎ’이 탈락하고 어미와 융합되었다.<sup>#29#</sup> 이와 같이 용언은 활용하면서 모습이 바뀌거나 어미와 융합되는 일이 흔하다. 따라서 용언을 형태소로 분석할 때에는 (15')에서처럼 기본형으로 바꿔 본 후 먼저 어간 형태소를 확인하여 분석한다. 그런 다음, 어미의 경우에는 (15'나)에서처럼 어간을 그것과 계열 관계

11) 물론 ‘-을게’는 어원적으로는 더 분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반적인 형태소 분석에서는 어원적인 분석까지를 고려하지는 않는다.

12) ‘을’과 ‘게’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진술은 ‘을’과 ‘게’가 ‘-을게’의 의미와 관련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즉, ‘어떤 행동을 할 것을 약속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표준국어대사전)라는 ‘-을게’의 의미 구성에 ‘을’과 ‘게’가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참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말이다.

를 이루는 다른 어간으로 바뀌 본 후 어미를 확인하여 분석한다.

(15') 가. 걸었다 → 걷+었+다 cf. 한 시간을 걸다.

나. 파래 → 파랑+아 cf1. 하늘이 파랴다. cf2. 하늘이 더 맑아 보인다.

(15)과 (15')를 비교해 보면 형태소가 결합할 때 나타나는 이형태나 융합의 모습을 잘 알 수 있다.

또한 형태소 가운데는 특정한 음운론적 환경에서 탈락되는 것들도 있다. 예를 들어 (16가)에서는 용언 어간 '가-' 뒤에서 종결 어미 '-아'가 결합할 때 하나가 탈락되고,<sup>#30#</sup> (16나)에서는 표기상으로는 '개어서'로 적지만 발음상으로는 '[개:서]'가 되어 '어'가 수의적으로 탈락된다.<sup>#31#</sup> 그리고 (16다)에서처럼 서술격 조사 '이-'가 받침이 없는 체언 뒤에서 탈락되기도 한다.<sup>#32#</sup> 이때에도 선행 형태소를 그것과 계열 관계를 이루는 다른 것으로 바뀌 본 후 탈락된 형태소를 확인하여 분석한다.

(16) 가. 빨리 가. (→가+아) cf. 빨리 잡아.

나. 날이 개어서/개서 기분이 좋다. cf. 과일을 씻어서/\*씻서 먹었다.

다. 이것은 우리 집 소이다/소다.(→소+이+다) cf. 이것은 우리 집 닭이다.

이와 같이 형태소는 통합 관계와 계열 관계를 따져서 분석하되 그 결과로서 분석되는 각각의 요소가 어떤 의미 혹은 기능을 갖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형태소를 분석할 때에는 다른 형태소와 결합하면서 모습이 바뀌거나 다른 형태소와 융합된 것은 없는지, 음운론적 조건에 따라 생략된 것은 없는지 등을 살펴서 원래의 모습을 고려하여 분석해야 한다.

#### 4.4. 형태소 분석에서 나타나는 어려운 문제들

이미 언급했듯이 더 큰 언어 단위를 형태소로 분석할 때는 화자의 직관에 의존하며 공시적인 사용 양상을 고려한다. 그런데 형태소로의 분석 여부에 대해서는 화자의 직관이 다를 수 있다.

다음 예들은 다른 언어 단위에서는 잘 발견되지 않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17) 가. 오솔길, 박쥐, 착하다, 아름답다

나. 무덤, 지붕

(17가)는 앞에서 특이 형태소로 언급한 예들이다. '오솔길'을 '오솔 + 길'로 분석한다고 할 때, '길'은 단독형으로도 쓰이고 다른 합성어에도 많이 나타나므로 분석에 문제가 없으나 '오솔'의 경우 다른 예에서 나타나지 않아 분석을 주저하게 한다. '박쥐',

‘착하다’, ‘아름답다’의 ‘박’, ‘착’, ‘아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른 단어에서는 나타나지 않아 분석을 주저하게 한다. (17나)의 ‘무덤’을 ‘문- + -엄’으로 분석하는 경우나 ‘지붕’을 ‘집 + -웅’으로 분석하는 경우도 ‘-엄’이나 ‘-웅’이 다른 예에서 잘 나타나지 않아 분석이 쉽지 않다.<sup>#33#</sup> 이처럼 하나 혹은 소수의 예에서만 나타나는 요소를 형태소로 분석하느냐에 대해서는 분석하는 사람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다.

형태소 분석은 구성 요소의 공시적인 사용 양상을 고려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합 구성이 통시적인 변화를 입게 되면 구성 요소의 사용 양상이 달라져 형태소 분석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다.

(18) 가. 주무시다, 계시다  
나. 새롭다, 외롭다

(18가)의 ‘주무시-’나 ‘계시-’는 높임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주무- + -시-’, ‘계- + -시-’로 분석할 수 있을 듯하지만, ‘\*주무-’나 ‘\*계-’가 공시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분석을 주저하게 한다.<sup>13)</sup> (18나)의 ‘새롭-’이나 ‘외롭-’의 경우 ‘-롭-’이 현대 국어에서 파생 접미사로 어느 정도 생산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새 + -롭-’, ‘외 + -롭-’으로 분석할 수 있을 듯하다. 하지만 공시적으로 ‘-롭-’이 주로 명사와 결합하여 형용사를 파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관형사로만 쓰이는 ‘새’나 파생 접두사로만 쓰이는 ‘외’를 ‘-롭-’과 분리하여 분석하는 것이 쉽지 않다.<sup>14)</sup>

‘오솔길’의 ‘오솔’처럼 극단적으로 분포가 좁은 경우는 아니지만, 분포를 고려할 때 분석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예들도 있다. 예를 들어 (19)의 ‘-는-’은 ‘-었-’이나 ‘-겠-’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나의 형태소로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예 (19)에서 볼 수 있듯이 ‘-는-’은 ‘-었-’, ‘-겠-’에 비해 분포가 상당히 좁다. 이를 고려하여 ‘-는-’을 따로 분석하지 않고 ‘-는다’ 전체를 하나의 형태소로 분석하기도 한다.

(19) 먹는다/먹었다/먹겠다

cf. \*먹는어/먹었어/먹겠어, \*먹는습니다/먹었습니다/먹겠습니다

‘-는-’을 ‘-었-’, ‘-겠-’과 계열 관계를 이루고 대립하는 별개의 형태소로 분석할 때에는 ‘먹었는다, 먹겠는다’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동시에 ‘먹는어, 먹는습니다’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문법적 부담도 생긴다.

형태소 분석에서 어려움을 주는 문제 중의 하나는 한자어이다.

13) ‘계시다’의 중세 국어 형태는 ‘겨시다’인데, 구결 자료에 따르면 현대 국어 이전에는 “겨다”가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14) 주지하듯이 중세 국어에서 ‘새’는 명사, 관형사, 부사 등의 품사로 사용되었다. ‘외’의 경우 ‘표준국어대사전’을 참조하면 현대 국어에서는 접두사, 중세 국어에서는 관형사로 쓰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 창문(窓門), 강산(江山)

(21) 부모(父母), 남녀(男女)

(22) 동화(童話), 안경(眼鏡), 독서(讀書), 평화(平和)

(20)의 경우 ‘창(窓)’과 ‘문(門)’, ‘강(江)’과 ‘산(山)’이 모두 우리말에서 단어로 쓰이므로 분석에 아무 문제가 없다. (21)은 ‘부’와 ‘모’, ‘남’과 ‘녀(여)’가 단독적으로 우리말 단어로 쓰이지는 않지만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서류 등에서는 부분적으로 쓰이므로 어느 정도는 분석이 가능할 듯하다. 이와는 달리 (22)의 예들은 구성 요소인 ‘동(童), 화(話), 안(眼), 경(鏡), 독(讀), 서(書), 평(平), 화(和)’ 등이 우리말에서 단어로 쓰이지 않고 어근으로만 사용되므로 분석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동화(童話)’를 예로 들어 보면 ‘동(童)’이 ‘동시(童詩), 동요(童謠)’ 등 여러 단어에서 나타나고, ‘화(話)’도 ‘우화(寓話), 신화(神話)’ 등 여러 단어에서 나타나므로 형태소 분석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여러 음절을 가진 한자어 중에는 아래와 같이 더 이상 분석하지 않은 것들도 있다.

(23) 가. 보살(菩薩), 불타(佛陀), 아라한(阿羅漢)

나. 불란서(佛蘭西), 구라파(歐羅巴)

(23가)는 고대에 불교와 함께 범어(梵語)에서 차용한 인명이고 (23나)는 근대 이후 서양의 지명을 차용한 것인데, 각 구성 요소의 의미가 전체 구성의 의미와 관련되지 않으므로 형태소 분석을 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sup>#34#</sup>

사실 한자어는 각각의 음절이 하나의 의미 단위를 이루고 있어 (23)과 같은 예들을 제외하면 각각의 음절을 하나의 형태소로 분석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아래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각각의 음절이 어느 정도의 공통된 의미를 지니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분석을 주저하게 하며, 분석된 요소를 하나의 형태소로 보아야 할지를 결정하기도 어렵다.

(24) 가. 분석(分析), 분자(分子)

나. 교분(交分), 당분(糖分)

다. 1분(分)

라. 1인분(人分)

(24)에 쓰인 단어들은 모두 ‘분(分)’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분석(分析)’, ‘분자(分子)’의 ‘분(分)’과 ‘교분(交分)’, ‘당분(糖分)’의 ‘분(分)’이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1분(分)’이나 ‘1인분(人分)’의 ‘분(分)’이 이들과 어느 정도의 의미상의 공통점을 가지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형태소로 분석하는 것을 주저하게 한다. 또

한 (24)의 예들에 쓰인 ‘분(分)’을 분석한다 하더라도 다의적인 의미를 가진 하나의 형태소로 볼 것인지, 아니면 동음어적인 요소로 보아야 할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 참고 문헌

- 고영근(1978), 「형태소의 분석한계」, 『언어학』 3, 한국언어학회, 29-35.
- 고영근(1991), 「불연속형태에 대한 논의」,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연구회 편, 『국어학의 새로운 인식과 전개』, 민음사, 457-471.
- 고영근(1992), 「형태소란 도대체 무엇인가」, 간행위원회, 『남사이근수박사 환력기념논총』, 1-10.
- 고영근(1993), 『우리말의 총체서술과 문법 체계』, 일지사.
- 고영근·구본관(2008),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 구본관(1997), 「의미와 통사범주를 바꾸지 않는 접미사류에 대하여」, 『국어학』 29, 국어학회, 113-140.
- 구본관(2002), 「형태론의 연구사」, 『한국어학』 16, 한국어학회, 1-48.
- 김건희(2014), 「이형태 설정의 문제」, 『어문학』 123, 한국어문학회, 1-37.
- 김성규(1987), 「어휘소 설정과 음운 현상」,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성규(1988), 「비자동적 교체의 공시적 기술」, 『관악어문연구』 13,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5-44.
- 김민영(2002), 「한자어 형태소의 유형 분석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옥(1997), 「공형태소에 대하여」, 『전농어문연구』 9, 서울시립대학교, 181-198.
- 김유범(2008), 「이형태교체의 조건과 중세국어 이형태교체의 몇 문제」, 『국어국문학』 149, 국어국문학회, 201-222.
- 남기심(1968), 「구조 언어학의 형태소 분석 방법론에 대하여」, 행정 이상헌 선생 회갑 기념 논문집 간행 위원회, 『행정 이상헌 선생 회갑기념 논문집』, 127-142.
- 남기심(1982), 「국어의 공시적 기술과 형태소 분석」, 『배달말』 7, 배달말학회, 1-10.
- 남기심(1986), 「이형태의 상보적 구성과 통사적 구성」, 『한글』 193, 한글학회, 495-503.
- 노명희(1997), 「한자어 형태론」, 『국어학』 29, 국어학회, 309-339.
- 민현식(1994), 「형태론의 주요 개념과 문법 교육」, 『선청어문』 22, 서울대국어교육과, 111-132.
- 박재연(2010), 「이형태 교체와 관련한 몇 문제」, 『국어학』 58, 국어학회, 129-155.
- 배주채(1996), 『국어음운론개설』, 신구문화사.
- 서울 대학교 국어 교육 연구소(2002), 『고등 학교 문법』, 교육 인적 자원부.
- 서태룡(1985), 「정동사 어미의 형태론」, 『진단학보』 60, 진단학회, 159-192.
- 성광수(1988), 「국어 형태소의 유형과 의미」, 『한국어문교육』 3, 고려대학교 한국어문 교육연구소, 1-19.

- 성기철(1981), 「형태론」, 국어학신강, 개문사, 131-198.
- 송철의(2000), 「형태론과 음운론」, 『국어학』 35, 국어학회, 287-311.
- 시정곤(2010), 「공형태소와 형태 분석에 대하여」, 『국어학』 57, 국어학회, 3-31.
- 신창순(1969), 「한자어 소고」, 『국어국문학』 42·43, 국어국문학회, 249-267.
- 양정호(2004), 「형태소 개념과 국어사 기술」, 『한국문화』 34,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17.
- 유현경(2003), 「‘주다’ 구문에 나타나는 조사 ‘에게’와 ‘에」, 『한국어학』 20, 한국어학회, 155-174.
- 이상복(2012), 「국어의 형태소 분석에 대한 일고찰 (1)-고유명사를 중심으로-」, 『배달말』 50, 배달말학회, 1-35.
- 이선웅(2012), 『한국어 문법론의 개념어 연구』, 도서출판 월인.
- 이익섭(1969), 「한자어의 비일음절 단일어에 대하여」, 여당 김재원 박사 회갑기념사업회, 『김재원 박사 회갑기념논총』, 을유문화사, 837-844.
- 이익섭·채완(1999), 『국어문법론강의』, 학연사.
- 이정택(2010), 「형태소의 유형: 바람직한 용어법의 정립을 위하여」, 『인문논총』 19, 서울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31-54.
- 이진호(2007), 「국어의 기저형 설정 조건」, 『어문학』 96, 한국어문학회, 139-160.
- 이혁화(2002), 「교체에 대하여」, 『형태론』 4-1, 형태론 편집위원회, 59-80.
- 이흥식(2010), 「형태소와 문법 기술」, 『어문학』 109, 한국어문학회, 1-35.
- 임흥빈(1982), 「기술보다는 설명을 중시하는 형태론의 기능 정립을 위하여」, 『한국학보』 8-1, 일지사, 168-192.
- 장윤희(1999), 「공형태 분석의 타당성 검토」, 『형태론』 1-2, 형태론 편집위원회, 227-244.
- 최웅환(2008), 「형태소의 유형 분류」, 『문학과 언어』 30, 문학과언어연구회, 1-26.
- 한길(2006), 「우리말의 융합 형태소와 형태소 중복 현상」, 『인문과학연구』 15,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55-84.
- 황화상(2013), 『현대국어 형태론(개정판)』, 지식과 교양.
- Hockett, C. F.(1958), *A Course in Modern Linguistics*, Macmillan.
- Nida, E. A.(1949), *Morphology: the descriptive analysis of word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1# **#이론# <불연속 형태소>** ‘소리의 연쇄’는 일반적으로 연속된 소리를 말한다. 하지만 독일어의 과거분사형 ‘ge...t’나 중세 국어의 ‘니...가’, ‘거...늘’처럼 불연속적인 경우도 있는데, 이를 고영근(1991)에서처럼 흔히 불연속 형태소라고 한다. 국어의 불연속 형태소는 사슬 연쇄를 이루며 결합하는 어미류 중의 하나가 의미 기능을 상실한 채 다른 형태소와 결합한 통시적 변화의 결과로 하나의 형태소가 될 때 나타난다. 즉, ‘-거-’는 선어말 어미로 쓰이다가 ‘늘’과 결합하여 전체가 하나의 형태소로 변화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중세 국어의 단계에서 나타나는 ‘하거시늘’, ‘하시거늘’의 공존이 이런 변화의 과정을 잘 보여 준다.

#2# **#이론# <공 형태소>** 형태소가 의미를 가져야 하는 것은 일견 자명하다. 하지만 학자에 따라서는 의미가 없고 음성 형식만 존재하는 이른바 공 형태소(empty morpheme)를 인정하기도 한다. 중세 국어의 ‘-니라’의 ‘니’, ‘오티’나 ‘옴’의 ‘오’, ‘거릿-’과 의미나 통사 범주의 차이 없이 쓰이는 ‘거리치-’에서의 ‘이’ 등이 그것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모두 공 형태소로 보는 입장이 있고, 일부만 공 형태소로 인정하는 입장이 있고, 공식적

으로는 분석이 어려우므로 전체를 하나의 형태소로 보아 공 형태소의 설정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 있다. 공 형태소의 인정 여부에 대한 논의는 김영옥(1997), 장윤희(1999), 시정곤(2010) 등에서 자세하게 다루어졌다.

#3# **#이론# <영 형태소와 영 형태>** 공형태소가 의미가 없고 음성 형식만 존재한다면 영 형태소(zero morpheme)는 의미만 있고 음성 형식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흔히 중세 국어의 부정법 내지 과거 시제가 형태로 실현되지 않는 것이나 ‘품-품다’, ‘따-따다’ 등을 영 파생으로 설명하는 것 등은 영 형태소 개념과 관련되는 것이다. 한편 하나의 형태소가 여러 개의 이형태를 가질 수 있으므로 어떤 환경에서는 이형태가 영으로 실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를 영 형태(zero morph)라 하기도 한다.

#4# **#이론# <이형태의 상보적 분포와 배타적 분포의 차이>** 음소와 변이음의 관계가 그러하듯, 하나의 형태소를 이루는 이형태들은 상보적 분포(complementary distribution)를 보인다. 상보적 분포란 이형태들이 나타나는 환경의 합이 그 형태가 나타나는 전체 환경이 된다는 의미인데,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는 이형태들이 나타나는 환경이 서로 겹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는 배타적 분포(exclusive distribution)가 있다. 일반적으로 상보적 분포와 배타적 분포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실제 자료에서도 두 개념을 구별할 필요가 없지만 최근에는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는 양자를 구별하기도 한다. 즉, 전형적인 이형태들의 분포는 상보적이면서 배타적이지만 중세 국어와 근대 국어의 교체기의 주격 조사 ‘이/가’의 분포, 현대 국어의 피동이나 사동 접미사 ‘이/히/리/기’ 등은 이들 이형태가 나타나는 환경이 그 형태가 나타나는 전체 환경이 된다는 점에서 상보적 분포를 보이지만, 이형태들이 나타나는 환경이 부분적으로 겹치기 때문에 배타적 분포를 보인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하여 양정호(2004)에서처럼 형태소를 이루는 이형태들은 배타적 분포는 지키지 않더라도 상보적 분포는 지켜야 하는 것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5# **#국교# <형태소 분석과 단어 형성>** 현행 학교문법의 기준이 되는 2002년 <고등학교 문법>에서는 형태소 분석을 주로 단어의 형성 단위에서 다룬다. 학교 문법이 ‘음운 - 단어 - 문장 - 담화’로 이어지는 언어 단위를 기준으로 나누어 교육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과 교육 내용을 줄여야 한다는 부담에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영어를 비롯한 서양의 언어들은 통사 과정에 참여하는 단위가 대체로 단어이므로 형태소 분석은 곧 단어를 형태소로 나누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런 처리가 어느 정도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국어의 경우 형태소 분석은 단어의 내부 구조의 분석뿐만 아니라 ‘체언 + 조사’, ‘용언 어간 + 어미’ 등의 통사 구성을 분석하는 데에도 많이 쓰이므로 단어의 형성 단위 안에서 다루는 것은 문제가 된다.

#6# **#한교# <한국어 교육과 형태소 개념>** 한국어 교육에서는 가능하면 전문어를 노출할 필요가 없으므로 형태소의 개념을 학습자에게 학습시킬 필요는 없다. 다만, 한국어가 교착어로서 조사나 어미 등이 여러 결합한 어절이 흔히 발견되기 때문에 이들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형태소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어간, 어미, 조사 중에서 단일 형태소로 이루어진 것들은 단어가 아니므로 단어로 지칭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를 지칭하는 용어로서 형태소에 대해 인식시키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7# **#생활# <생활 문법과 형태소의 개념>** 형태소는 전문어로서 생활 문법에서 반드시 필요한 단위는 아니다. 다만 사전의 등재 단위가 되는 요소에는 단어가 아닌 더 작은 단위가 있다는 인식이라든지, 한글 맞춤법에서 형태음소적 표기법은 형태소를 전제로 한 개념이라는 인식을 위해서는 형태소의 개념이 필요하다.

#8# **#이론# <분석의 단위들>** 분석의 결과로 나온 단위를 지칭하는 다른 개념으로는 주시경의 ‘뜻씨’가 있는데, ‘뜻씨’란 ‘해~바라~기’의 분석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의미를 기준으로 극한까지 분석한 것이다. 또한 형태소를 공식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는 분석이 어렵지만 통시적으로 분석 가능한 요소들을 어원소라 부르기도 한다.

#9# **#이론# <형성소와 구성소>** 많은 경우 분석된 요소는 다시 결합을 위한 구성 성분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분석은 가능하지만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요소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기 위해 고영근(1993:40)에서는 결합이 가능한 요소를 형성소, 분석만 가능한 요소를 구성소로 구분하기도 한다.

#10# **#이론# #국교# <교체라는 용어의 사용>** 이혁화(2002)에서 언급한 것처럼 교체라는 용어는 형태소가 환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현상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음운론에서 탈락, 첨가, 축약, 도치 등과 구별되는 음운 과정의 하나로 교체를 사용하기도 한다. 형태론에서 사용되는 교체는 음운 규칙의 적용으로 달라지는 현상뿐 아니라 주격 조사 ‘이 ~ 가’의 경우까지 포함하므로 음운론에서 사용되는 교체와는 다르다. 따라서 배주채(1996:115)에서 언급한 것처럼 형태론에서는 교체를 사용하고, 음운론에서는 ‘대치(代置, replacement)’나 ‘치환(置換, substitution)’을 사용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 생각된다. 2002년 <고등학교> 문법에서는 음운의 변동을 ‘교체, 동화, 축약, 탈락, 첨가’로 나누어 음운 과정의 하나로 교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대치 등의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11# **#이론# <음운적 교체와 음운론적 교체, 형태적 교체와 형태론적 교체>** Hockett(1958)의 용어인 음운적 조건에 의한 교체(phonemically conditioned allomorphy)와 형태적 조건에 의한 교체(morphemically conditioned allomorphy)라는 용어 대신에 Nida(1949)의 용어인 음운론적 조건에 의한 교체(phonologically conditioned allomorphy)와 형태론적 조건에 의한 교체(morphologically conditioned allomorphy)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 이혁화(2002)에서는 교체에서 논의하는 조건이 엄격하게 음운론적 내지 형태론적이라고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음운적 조건에 의한 교체나 형태적 조건에 의한 교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우리도 이를 따라 이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아울러 ‘conditioned’를 우리말로 번역이 쉽지 않아 문법서에서는 ‘조건 지어진’, ‘조건 된’, ‘조건에 의한’ 등을 사용해 왔는데, 우리는 가장 자연스럽다고 생각되는 ‘조건에 의한’을 사용하기로 한다.

- #12# **#이론# <형태적 조건에 의한 교체와 어휘적 조건에 의한 교체>** 이혁화(2002)에서 언급했듯이 ‘-였-’이 ‘하-’라는 특정 어휘 뒤에서 사용된다는 점에서 어휘적인 조건에 의한 교체로 보고, 충청 방언의 ‘밭 ~ 밧’과 같은 교체(주격 조사 앞에서는 ‘밧’, 장소의 부사격 조사 앞에서는 ‘밭’)만을 형태론적 조건에 의한 교체로 구분하여 양자를 구분하기도 한다. 하지만 고영근·구본관(2008:30-37))에서는 주격 조사인지 부사격 조사인지를 진정한 의미에서의 형태적인 조건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두 교체를 합하여 ‘형태어휘적인 조건에 의한 교체’ (형태어휘적으로 조건 지어진 교체)로 명명하고 있다.
- #13# **#이론# <이형태와 의미 차이>** 음운적 조건에 의한 교체와 형태적 조건에 의한 교체 이외에도 이익섭·채완(1999:54)처럼 ‘행동이 미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조사 ‘에게’와 ‘에’를 이형태 관계로 보아 문법적 조건에 의한 교체로 잡기도 한다. 이는 ‘에게’가 유정물 뒤에 결합하고 ‘에’가 무정물 뒤에 결합하는데, 이들은 음운적 조건으로도 형태적 조건으로도 포착하기 어려우므로 문법적 조건의 교체로 본 것이다. 하지만 ‘에게’와 ‘에’는 유정성과 무정성이라는 의미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이형태라기보다는 ‘에게’와 ‘에’를 별개의 형태로 잡아야 한다(유현경 2003). ‘에게’와 ‘에’ 이외에도 김유범(2008)에서는 중세 한국어의 설명 의문문에서는 ‘-오’가 나타나고 판정 의문문에서는 ‘-아’가 나타나는 현상을 통사론적 이형태로 포착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해서 고영근(2005)에서는 형태의 차이가 의문문의 구조를 분화하므로 각각이 어떤 의미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 이형태 관계가 아니라 다른 형태소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박재연(2010)에서도 ‘-아’와 ‘-오’를 이형태로 설정한다면 평서문에 쓰이는 ‘-다’와 의문문에 쓰이는 ‘-니’도 이형태로 설정해야 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김건희(2014)에서는 ‘-아/오’는 의문문의 실현이라는 동일한 통사적 기능을 가지므로 김유범(2008)과 마찬가지로 각각을 이형태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 밖에도 배주채(1996:57-58)에서는 화용(론)적 조건에 의한 이형태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우리는 형태소가 의미나 기능에서 동일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이런 논의를 본문의 설명에서 반영하지 않았다.
- #14# **#이론# #국교# #한교# <‘ㄷ’ 불규칙에 대한 다른 견해>** 이른바 ‘ㄷ’ 불규칙 용언들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묻-, 모음이나 매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에 나타나는 ‘물-’로 기술한다. 하지만 종성 ‘ㄹ’을 가지는 어간이 ‘울다, 우니, ...’처럼 활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무니”가 아니라 ‘물으니’로 나타나는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김성규(1988)에서처럼 ‘ㄷ’ 불규칙을 인정하지 않고 ‘묻-’과 ‘무르-’라는 복수의 기저형을 가지는 것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 #15# **#생활# #국교# #한교# <‘ㄹ’ 탈락 및 ‘ㄱ’ 탈락과 불규칙 활용>** ‘ㄹ’ 탈락이나 ‘ㄱ’ 탈락은 한글 맞춤법 제16항에서 불규칙 활용들과 함께 다루고 있으므로 한글 맞춤법에서는 이들을 불규칙과 같은 유형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학교 문법에서도 ‘ㄱ’ 불규칙 활용, ‘ㄹ’ 불규칙 활용으로 다루다가 『표준국어문법론』 등에서 규칙으로 다루면서 1985년 이후에는 ‘ㄱ’ 탈락, ‘ㄹ’ 탈락으로 불려 불규칙이 아닌 규칙으로 다루고 있다. 한국어 교육의 경우 환경이 같은지의 여부나 같은 환경에서의 두 가지 교체 방식 등을 학습자에게 이해시키고 설명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ㄱ’ 탈락이나 ‘ㄹ’ 탈락 등도 불규칙 활용의 일종으로 다루기도 한다.
- #16# **#이론# <규칙적 교체와 규칙성>** ‘규칙적’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를 고려하면 (4나)와 같이 한 가지 방식의 교체만 존재한다고 해서 반드시 규칙적인 교체로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배주채(1996:59)에서는 ‘묻- ~ 물-’의 경우도 음운론적으로 정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규칙적 교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이혁화(2002)에서는 교체 방식이 하나인지 둘인지가 아니라 일반적인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에 따라 규칙적 교체와 불규칙적 교체를 나눌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 #17# **#이론# #국교# #한교# <기본형, 대표형, 기저형>** 기본형이라는 용어 대신 대표형을 사용하기도 한다. 기본형은 하나의 형태를 정하고 그 형태에서 다른 형태가 나타나는 것을 설명하기에 더 적합한 용어이고, 대표형은 여러 형태 중 하나를 정했다는 점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용어이다. 음운 현상 등을 통해 하나의 형태에서 다른 형태를 설명하는 경우 기본형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고, 주격 조사 ‘이 ~ 가’처럼 어느 하나를 기본형으로 잡기 어려울 때 하나를 대표로 잡는 것을 설명하기에는 대표형이 적합하다. 또 기본형과 관련되는 개념으로 형태소가 가진 음운론적인 정보인 기저형(underlying form)이 있다. 음운론에서는 흔히 형태소의 교체를 설명하기 위해 기저형을 설정한 뒤, 여기에 음운 규칙을 적용하여 이형태를 이끌어 낸다. 기본형은 구조주의 언어학에서 형태소를 통일성 있게 기술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고, 기저형은 변형생성문법에서 주로 논의된 개념으로 다양한 표현형을 하나의 기저 형태에서 온 것으로 설명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국어 교육이나 한국어 교육에서는 동사나 형용사와 같은 용언의 사전 등재와 관련하여 ‘먹다’, ‘푸르다’와 같이 ‘-다’가 결합하는 형태를 기본형으로 삼아 교육적으로 활용해 왔다.
- #18# **#국교# #한교# #생활# <기본형과 사전의 표제어 등재>** 기본형은 사전 찾기를 위해서 중요하므로 일상의 언어생활에서 반드시 알아야 한다. 국어교육에서는 초등학교 과정에서 사전 찾기와 관련하여 기본형의 개념이 다루어져 왔으며, 한국어 교육에서도 사전 이용을 돕기 위한 교육 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한국어는 용언의 어간이 반드시 어미와 결합하기 때문에 용언을 사전에 올리기 위해서는 어간의 기본형을 정하는 것은 물론 수많은 국어의 어미들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문법서나 개화기의 사전에서는 어간의 기본형 뒤에 ‘-아/어’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다’를 선택한다.
- #19# **#이론# <형태소의 자립성과 의존성>** 엄밀하게 말하면 발화에 쓰이는 모든 단위들은 상호 의존적이다. 주어와 서술어는 서로 의존적이며, 수식어들이나 부사어나 관형어 역시 피수식어와 의존적이다. 그뿐 아니라 모든 단어는 발화 전체와 어떤 식으로든 관련을 맺고 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의존 명사는 음운론적으로 보면 의존적이지만, 용언 어간과 어미나 어근과 접사처럼 형태론적으로 반드시 결합되어야 하는 관계가 아니므로

- 형태론적으로는 자립적이다. ‘새 책’의 ‘새’와 같은 관형사는 통사론적으로 보면 후행 요소에 의존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형태론적으로는 자립적이어서 자립 형태소가 된다. 이를 고려하면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를 나누는 기준은 주로 형태론적인 자립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0# **#이론# <띄어쓰기 단위와 자립성>**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를 나눌 때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나누는 것은 어디까지나 편의를 위한 것이다. 주지하듯이 의존 명사의 경우 남한의 경우 선행 요소와 띄어쓰기를 하므로 자립 형태소, 북한의 경우 띄어쓰기를 하지 않으므로 의존 형태소가 되는 셈이다.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자립 형태소를 나눌 수 있는 것은 띄어쓰기가 앞에서 언급한바 형태론적인 의존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 #21# **#이론# <의존 명사와 의존성>** 의존 명사는 통사론적으로 의존성을 가지는 것에 주목한 이름이다. 의존 명사를 자립 형태소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비록 통사론적으로 의존성을 가지고 있지만 형태론적으로 자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22# **#이론# #국교# <품사와 자립성>** 문법서에서는 형태소의 자립성에 대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국어 품사 중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등은 단일 형태소로 구성될 경우 자립 형태소를 이루며,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 조사 등은 의존 형태소를 이룬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홍식(2010)에 서처럼 품사 분류는 단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형태소 분류를 위해 품사를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
- #23# **#이론# <특이 형태소의 분석 여부>** ‘오솔길’의 ‘오솔-’과 같은 이른바, 특이 형태소를 분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다. 시정곤(2010)에서는 형태소란 공시적인 쓰임에 근거하여 분석해야 하는데, 이와 같이 하나의 단어에서만 발견되는 형태소는 공시적인 쓰임을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분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른 학자들은 하나의 단어에만 쓰인다 하더라도 ‘오솔길’의 ‘길’의 쓰임이 명확하고 ‘오솔’의 의미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분석하는 입장을 보인다. 특이 형태소의 분석과 관련된 좀 더 자세한 논의는 뒤에서 다루어진다.
- #24# **#이론# <품사와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 분류>** 자립 형태소인지 의존 형태소인지 분류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어의 품사 분류를 실질 형태소인지 형식 형태소인지 살펴보는 것도 단일 형태소로 된 품사에만 한정된다. 즉 동사나 형용사 어간이 단일 형태소로 된 경우에만 이들이 의존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라고 말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 #25# **#이론# #국교# <실질 형태소/형식 형태소 및 어휘 형태소/문법 형태소의 명칭>** 이선웅(2012)에서는 어휘 부나 사전을 다루는 장면이 아니라면 ‘lexical’을 ‘어휘’로 번역하는 것이 문제가 있으므로 ‘실질 형태소’라는 명칭을 쓰되 영어로는 ‘lexical morpheme’으로 하여 ‘실질 형태소(lexical morpheme)’를 사용하고 형식 형태소 대신 문법 형태소(grammatical morpheme)’를 사용하여 ‘실질 형태소/문법 형태소’의 짝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한 바 있으며, 이정택(2010)에서는 파생 접사가 어휘적인 의미가 강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질 형태소/형식 형태소’라는 용어가 적절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최웅환(2008)에서는 격조사와 보조사의 차이 등 의미상 구분이 어려운 바가 있어 ‘어휘 형태소/문법 형태소’나 ‘실질 형태소/형식 형태소’의 분류 자체를 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언급하고 있기도 하다. 2002년 고등학교 문법에서는 ‘실질 형태소/형식 형태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학습자들이 조사 등을 통해 형식적인 관계를 가진 의미를 이미 알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 형태소/형식 형태소’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어휘 형태소/문법 형태소’를 사용하려면 어휘적인 의미와 문법적인 의미의 개념을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는 일단 ‘실질 형태소/어휘 형태소’라는 용어를 내세우되, ‘어휘 형태소/문법 형태소’도 사용 가능한 것으로 두기로 한다.
- #26# **#이론# #국교# <파생 접사가 문법 형태소인지 여부>** 김영석(1998:64-66)에서 언급한 것처럼 영어의 경우 학자에 따라 파생 접사를 실질 형태소로 분류하기도 하고 형식 형태소로 분류하기도 한다. 한국어의 경우 대부분의 문법서들에서는 파생 접사를 형식 형태소로 다루었지만 특히 파생 접두사의 경우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아 형식 형태소로 분류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 실질 형태소로 볼 여지도 있다. 이런 점 때문에 국어 문법을 공부하는 대학생이나 문법 교과목을 배우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의 하나가 파생 접미사가 형식 형태소인 이유에 관한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민현식(1994)에서는 파생 접사류나 보조사류는 어휘 형태소(실질 형태소)나 문법 형태소(형식 형태소)가 아닌 어휘문법 형태소로 분류하기도 한다. 이는 의미가 가지는 모호성 내지 정도성의 문제를 둘로 양분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어려움으로 생각된다. 사실 파생 접두사와 보조사뿐만 아니라 보조 용언의 경우도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의 경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7# **#이론# <형태소 분석과 화자의 직관>** 일반적으로 어떤 요소를 더 작은 요소로 나눌지에 대해서는 화자의 직관에 의존한다. 하지만 그 직관은 사람마다 매우 다르다. Nida(1949:423)에서 영어의 ‘him’, ‘them’, ‘whom’에서 ‘m’을 분석하여 3인칭 목적격을 나타내는 형태소로 분석하는 것처럼 분석 가능한 극단까지 분석하여 형태소로 보기도 한다. 이와 같은 극단적인 입장은 아니더라도 국어에서도 화자의 직관에 따라 분석의 정도가 달라진다. 즉, 뒤에서 언급할 것인바 ‘오솔길’의 ‘오솔’과 같은 특이 형태소(unique morph)나 ‘무덤’, ‘주검’의 ‘엄’과 같이 소수의 단어에서만 나타나는 요소를 형태소로 인정하기도 하고 인정하지 않기도 한다.
- #28# **#이론# <형태소 분석의 기준들>** 형태소 분석의 기준으로 흔히 계열 관계(paradigmatic relation)와 통합 관계(syntagmatic relation)를 만족시키는지 여부를 든다. 그 밖의 형태소 분석 기준에는 고영근구분관(2008:35)에서 정리한 것처럼 ‘구조적 동형성’의 기준이나 음운론적 현현 방식의 공통성의 기준도 있다. 구조적 동형성은 ‘좌시-’의 ‘-시-’, 음운론적 현현방식의 공통성이란 ‘오디’나 ‘옴’의 ‘오’를 분석하기 위한 기준인데, 이런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형태소의 공시적인 용법이 고려되지 않거나 형태소가 의미를 가지는 존재라

- 는 점이 부정된다.
- #29# **#이론# #국교# #한교# <‘애’ 불규칙과 ‘응’ 불규칙 활용>** ‘파랗다’, ‘노랗다’ 등은 기원적으로 ‘파라하다’, ‘누러하다’ 등 ‘하다’를 가지는 동사들이었다. 그리하여 ‘X하다’ 동사의 현대 국어형인 ‘X하다’ 동사들이 특히 구어에서 ‘X해’로 나타나 이른바 ‘애’ 불규칙을 보이는 것처럼 ‘파랗다’, ‘노랗다’ 등도 ‘응’이 탈락한 후 ‘파래’, ‘노래’로 나타나는 것이다. 한글맞춤법이나 국어 교육 및 한국어 교육에서는 ‘파랗다’, ‘노랗다’ 등은 ‘응’ 불규칙 활용으로, ‘X하다’ 동사는 ‘여’ 불규칙(혹은 ‘애’ 불규칙)으로 불러 양자를 구분한다.
- #30# **#이론# #한교# <‘ㅏ, ㅑ’끼리의 결합에서의 탈락>** ‘ㅏ, ㅑ’로 끝나는 어간 뒤에 ‘ㅏ, ㅑ’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 중세 국어의 경우 탈락하지 않은 형태인 ‘가아서’가 수의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필수적으로 탈락이 일어난다. 이에 대해서는 어간의 ‘ㅏ, ㅑ’가 탈락한다는 주장도 있고 어미의 ‘ㅏ, ㅑ’가 탈락한다는 주장도 있다.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어교육에서는 화자가 자연스럽게 탈락하여 발음하므로 이런 탈락을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한국어교육에서는 필수적인 탈락임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 #31# **#이론# #국교# #한교# <모음 ‘ㅐ, ㅒ, ㅓ’ 뒤의 ‘ㅏ, ㅑ’ 탈락>** ‘ㅐ, ㅒ, ㅓ’로 끝나는 용언 어간이 ‘ㅏ, ㅑ’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는 경우 ‘ㅏ, ㅑ’는 발음상 탈락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하지만 표기상으로는 ‘개어서’처럼 탈락하지 않는 형태로 표기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 국어 교육이나 한국어 교육에서는 표기와 발음의 차이를 중심으로 이에 대해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 #32# **#국교# #한교# <모음 뒤에서의 ‘이(다)’의 ‘이’ 탈락>** ‘이(다)’의 ‘이’는 모음 뒤에 올 때 문어에서는 ‘이다’를 표기하기도 하지만 구어에서는 탈락시켜 발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에서는 문어에서도 ‘이다’의 ‘이’가 탈락한 형태로 적기도 한다. 사람에 따라서는 문어에서의 모음 뒤 ‘이’의 탈락이 규범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므로 국어 교육이나 한국어 교육에서는 모음 뒤에서 ‘이’가 수의적으로 탈락한다는 점을 교육 내용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 #33# **#이론# <접미사 ‘-엄’과 ‘-옹’>** ‘무덤’에 나타나는 ‘-엄’과 같은 접미사로 ‘주검’의 ‘-엄’이나 ‘마감’의 ‘-암’을 들기도 하는데, 이들이 같은 접미사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아울러 ‘지붕’에 쓰인 ‘-옹’과 같은 형태가 ‘마중’에서도 발견되지만 중세 국어 단계에서 ‘지붕’이 ‘집우흥’과 관련이 있음을 고려하면 역시 동일한 접미사 ‘-옹’이 결합한 것으로 보아야 할지 분명하지 않다.
- #34# **#이론# <한자어의 형태소 분석>** 한자어는 대체로 각각의 음절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 일 음절을 일 형태소로 분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보살(菩薩)’이나 ‘불란서(佛蘭西)’는 각각의 음절의 의미가 전체의 의미와 관련이 없어 시작적인 문자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라면 분석이 가능하지만 의미를 고려하는 형태소 분석은 가능하지 않다. 본문에서 제시한 것 이외에도 ‘혁명(革命), 총각(總角)’ 등의 보통 명사, ‘창원(昌原), 길동(吉童)’ 등의 인명이나 지명을 나타내는 고유 명사는 각 음절의 한자가 뜻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 뜻이 전체 단어의 뜻과 별다른 관계가 없어서 형태소 분석 여부에 이견이 있어 왔다. 특히 인명의 경우 항렬자를 쓰기도 하여 분석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 보이기도 한다. 황화상(2013:89)에서 언급했듯이 이상복(2012)에서는 각 한자의 뜻에 주목하여 이들 한자어에 대해서도 형태소 분석을 하였으나, 남기심(1968), 신창순(1969), 이익섭(1969), 성기철(1981) 등에서는 각 한자의 뜻이 전체 단어의 뜻과 별다른 관계가 없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들 한자어에 대해서는 형태소 분석을 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국어의 ‘밤낮’이 ‘항상’의 의미로 쓰일 때의 분석 여부가 문제가 되듯이 한자어인 ‘모순(矛盾)’, ‘갈등(葛藤)’처럼 이른바 융합 합성어의 경우도 분석에 대해 이견이 있어 왔다.

## ii. 단어

- ▶ 핵심어(keywords): 단어, 단일어, 복합어, 합성어, 파생어, 단어 구조, 단어 구성 요소, 직접 구성 요소 분석, 어근, 어간, 접사, 접두사, 접미사, 파생 접사, 굴절 접사, 어미
- ▶ 관련 항목: 조사, 어미, 단어 형성, 활용
- ▶ 표준화 대상 문법 용어: 어근, 어간, 복합어, 합성어, 직접 구성 요소, 직소

### 1. 단어의 정의

#### 1.1. 단어의 일반적 정의

단어(單語, word)는<sup>#1</sup> ‘최소 자립 형식(最小自立形式, a minimum free form)’으로 정의하는 것이 보통이다. 예를 들어 (1)에서 ‘그, 책, 벌써, 읽었니’와 같이 문장에서 홀로 쓰일 수 있는<sup>1)</sup> 단위 가운데 가장 작은 것을 단어로 보는 것이다. 물론 (1)에서 ‘그 책 벌써 읽었니’, ‘그 책’, ‘벌써 읽었니’ 등도 자립 형식이지만 최소가 아니므로 단어가 아니며, ‘읽었니’는 ‘읽, 었, 니’와 같이 더 작은 단위들로 나뉘지만 이들은 자립 형식이 아니므로 단어가 아니다. 이와 같이 단어는 최소 자립 형식으로서 이보다 큰 구, 그리고 이보다 작은 접사로부터 구별된다.

##### (1) 그 책 벌써 읽었니?

단어는 그 의미적 특성에 따라 ‘단일한 의미를 가지는 소리의 결합체’로 정의하기도 한다. 이는 단어가 의미를 가지는 단위라는 점에서 당연히 가능한 정의이다. 그런데 ‘추천(秋天)’은 하나의 단어이고, ‘가을 하늘’은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는 점을 의미 기준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똑같이 형태소로서 비슷한 뜻을 갖지만 ‘마구’는 단어이고, ‘짓-’은 단어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최소 자립 형식이라는 기준에서 보면 ‘가을 하늘’은 최소가 아니므로 단어가 아니며, ‘짓-’은 자립 형식이 아니므로 단어가 아니다.

단어를 최소 자립 형식으로 정의할 때 ‘손목’과 같은 합성어를 단어로 볼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손목’은 자립 형식이기는 하지만 더 작은 자립 형식들인 ‘손’과 ‘목’으로 나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문장에서 실제로 쓰일 때를 고려하면 ‘손목’도 최소 자립 형식이다. 예를 들어 (2)에서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로서는 ‘손

1) 이때의 자립성은 형태론적 자립성을 말한다. 곧 ‘그, 책, 벌써, 읽었니’는 다른 형태소의 도움 없이 문장에서 하나의 단위로 쓰이므로 형태론적으로 자립 형식이다. 참고로 의존 명사와 보조 용언(활용형)도 최소 자립 형식으로서의 단어에 포함된다. 물론 의존 명사는 관형 성분(관형어)에 의존적이며, 보조 용언은 본용언에 의존적이다. 그러나 이때의 의존성은 형태론적인 것이 아니라 통사론적인 것이므로 의존 명사와 보조 용언을 단어로 다루는 데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목'이 가장 작은 요소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2)와 같은 문장에 대한 분석은 '손목'까지만 가능하다.<sup>2)</sup>

(2) 손목에 시계를 차다.

'손목'과 같은 합성어도 최소 자립 형식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휴지(休止, pause), 분리성(分離性, separability), 고립성(孤立性, isolability)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단어를 정의하기도 한다.<sup>3)</sup> 곧 단어는 내부에 휴지를 둘 수도 없고 그 사이에 다른 요소를 넣어 분리할 수도 없는 고립된 문법 단위라는 것이다.<sup>#2##3#</sup>

## 1.2. 조사와 어미의 단어 인정 여부

국어 단어의 식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조사와 어미를 단어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주지하듯이 조사와 어미를 단어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어 왔다.

(3) 나는 책을 읽었다.

이 문장에서 조사와 어미를 모두 단어로 인정하면 단어는 6개 내지 7개가 되고<sup>4)</sup>, 조사만 단어로 인정하면 단어는 5개가 되며, 둘 다 인정하지 않으면 단어는 3개가 된다. 이들을 흔히 분석적 체계, 절충적 체계, 종합적 체계로 불러 왔다.<sup>5)</sup>

현재의 학교 문법을 비롯한 국어의 규범 문법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입장은 조사는 단어에 포함하고 어미는 단어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조사와 어미가 단어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사와 어미뿐 아니라 이들이 포함된 '체언+조사'와 '용언어간+어미'를 단어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체언+조사'와 '용언어간+어미'는 자립성, 분리성 등에서 차이가 난다. '체언+조사'는 최소의 자립 형식이 아니다. 체언은 조사에서 쉽게 분리되어 홀로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체언+조사' 전체는 단어가 아니며 최소의 자립 형식인 체언이 단어이고, 자립성을 갖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분리가 용이한 조사 역시 예외적으로 단어로 보는 것이 가능

2) '손목'을 '손'과 '목'으로 분석하는 것은 단어 차원의 분석이라는 점에서 문장 차원의 분석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아울러 '손목'은 '손'과 '목'의 의미의 합과는 다른 고유하고 고정된 의미를 갖는다고 보면, 이런 의미로는 '손목'이 최소 자립 형식이라고 할 수도 있다.

3) 자립성은 구어에서는 흔히 휴지를 사이에 둔 발화 단위로 나타나며, 문어에서는 주로 정서법에 따른 띄어쓰기로 나타난다. 그러나 발화상의 휴지와 정서법상의 띄어쓰기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의존명사는 실제 발화에서는 선행하는 요소에 결합하여 휴지 없이 발화되기도 하지만 정서법상으로는 띄어 쓴다.

4) 주지하듯이 어미가 여러 개 결합한 경우 모든 어미를 단어로 보아 단어의 수를 셀 수도 있고, 어미 결합체를 하나로 보고 단어의 수를 셀 수도 있다.

5) 김민수(1954)에 따르면 분석적 체계를 주장한 대표적 학자는 주시경이고, 절충적 체계를 주장한 대표적 학자는 최현배이며, 종합적 체계를 주장한 학자에는 람스테트(G. J. Ramstedt)를 비롯한 서양의 학자들이나 이승녕 등 역사문법가들이 많았다.

하다. 이에 비해 ‘용언 어간+어미’는 최소의 자립 형식이다. 용언 어간은 어미에서 분리되어 홀로 쓰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소 자립 형식인 ‘용언 어간+어미’ 전체가 단어가 되고, 용언 어간과 어미 각각은 단어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체언+조사’와 ‘용언 어간+어미’는 내적 안정성에서도 차이가 드러난다. (4)에서처럼 ‘체언+조사’의 경우 둘 이상의 조사가 결합할 때 얼마간의 의미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순서의 변화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 그러나 ‘용언 어간+어미’의 경우 매우 고정된 순서를 가진다.<sup>6)</sup> 따라서 상대적으로 내적 안정성을 가지는 ‘용언 어간+어미’는 전체가 단어이고, 그렇지 않은 ‘체언+조사’는 각각을 단어로 볼 수 있다.

(4) 가. 빵만으로, 빵으로만  
나. 잡으시었다, \*잡였으시다

우리는 조사는 단어이고 어미는 단어가 아니라는 관점에서 단어를 식별하는 기준을 적용해 보았다.<sup>#4#</sup> 만일 조사와 어미 중에서 어느 하나만을 단어에 포함한다면 조사를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지만<sup>#5#</sup> 이런 논의가 둘 다 단어이거나 둘 다 단어가 아니라는 주장을 배제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 1.3. 단어의 여러 측면들

단어의 정의가 어려운 것은 다른 문법 단위들과 마찬가지로 단어 또한 기호의 하나로 형식으로서의 소리와 내용으로서의 의미가 연결된 구조를 갖는 문법 단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어는 소리의 측면, 의미의 측면, 구조의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단어의 정의는 달라질 수 있다. 그리하여 학자들은 적게는 2가지, 크게는 7가지 혹은 그 이상으로 단어의 개념을 나누기도 한다.<sup>#6#</sup>

소리의 측면에서 바라본 단어가 음운론적 단어(音韻論的單語, phonological word)이다.<sup>#7#</sup> 음운론적 단어는 강세를 가진 언어에서 한 단어에는 한 음절만 강세를 받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강세가 부여되는 단위로 단어를 파악하거나,<sup>#8#</sup> 모음조화를 지키는 언어에서 모음조화가 적용되는 단위로 단어를 파악하는 등 음운 규칙(혹은 음운 현상)의 적용을 기준으로 파악한 단어 개념이다. 정서법적 단어는 띄어쓰기를 하는 표기 체계를 가진 언어에서 띄어쓰기의 단위를 단어로 본 것인데, ‘띄어 쓴 빈칸 사이의 글자 연쇄’처럼 정의할 수 있다. 정서법이 소리를 표기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정서법적 관점의 단어 역시 소리의 측면과 관련되는 단어 개념이다.

의미의 측면에서 바라본 단어가 의미론적 단어(意味論的單語, semantic word)이다. 이미 언급했듯이 단어는 단일한 의미를 가진 단위이므로 의미론적인 관점의 단어

6) 중세 국어의 경우 ‘하시더니’, ‘하더시니’처럼 어미의 순서가 교체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는 통시적인 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매우 예외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현대 국어의 경우 어미는 고영근·구본관(2008)에서 예시한 ‘하시었겠사옵니다’(‘존경법 어미-과거 어미-추측 어미-공손 어미-합쇼체 어미-직설법 어미-원칙법 어미-어말어미’)와 같이 고정된 순서를 가지고 나타난다.

개념이 성립한다. 흔히 사전 등재와 관련하여 단어를 정의하는 어휘론적 단어(語彙論的單語, lexical word) 역시 의미와 관련된 단어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어휘론적인 관점의 단어는 매우 널리 쓰이는 단어의 개념으로 단어가 사전의 표제어가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연스럽게 성립하는 단어의 개념이다. 어휘소(語彙素, lexeme)나 등재소(登載素, listeme) 등 어휘부와 관련된 단위들은 모두 어휘론적인 단어의 개념과 통한다.#9#

소리와 의미를 연결하는 구조의 관점에서 바라본 단어가 형태론적 단어(形態論的單語, morphological word)와 통사론적 단어(統辭論的單語, syntactic word)이다. 형태론적 단어란 앞에서 언급한바 단어를 ‘최소 자립 형식’으로 정의하는 개념과 관련이 깊다. ‘먹었다’는 최소 자립 형식이므로 단어이지만 ‘밥 먹었다’는 더 작은 자립 형식인 ‘밥’과 ‘먹었다’로 쪼갤 수 있으므로 단어가 아니라는 것이다.#10# 통사론적 단어의 개념은 단어가 통사부의 최초 단위라는 점에서 통사 구성에 참여하는 단위를 단어로 보는 관점이다. 최근 가장 많이 논의된 통사 원자(統辭原子, syntactic atom)가 이에 해당하는데#11#, 이에 따르면 국어의 조사나 어미 등은 통사 구성에 참여하는 단위이므로 당연히 단어가 된다.

이처럼 여러 측면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관통하는 하나의 정의를 내리기는 어려우며 어떤 언어 단위가 단어인지를 말하기는 더욱 어렵다. 사실 단어의 개념이 이렇게 다양한 것은 이들 단어의 하위 개념들이 언중들이 심리적으로 생각하는 단어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언어학의 각 영역의 단위를 단어로 명명했기 때문이다. 음운론적 단어가 음운 규칙의 적용 단위를 지칭한다든지, 통사 원자가 통사부에 참여하는 단위를 지칭한다든지, 관용구나 속담 등 우리가 단어보다 큰 단위로 생각하는 것이 어휘론적 단어가 되는 것 등이 그러하다.

단어의 개념을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제는 여러 측면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의 단어를 언어 연구에서 사용하지 말자는 제안이 제기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미 언급했듯이 단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언중들에게 심리적인 실재로서 존재하는 단위이며, 언어 교육적 목적이거나 조어론이나 품사론을 포함한 형태론, 통사론 등의 학문적 연구를 위해 필요한 개념이다.#12#

## 2. 단어의 구조

### 2.1. 단어의 구성 요소와 단어의 구조

하나 혹은 둘 이상의 부분이 모여 전체를 이룰 때 그 전체를 구성(構成, construction)이라고 하고, 그 부분을 구성 요소(構成要素, constituent)라고 한다. 단어 또한 하나의 형태소 혹은 둘 이상의 형태소(혹은 단어)가 모여 만들어지므로 하나의 구성이며, 따라서 이를 그 구성 요소들로 나눌 수 있다.

단어를 그 구성 요소들로 나누는 것은 단어의 의미(혹은 기능)는 일차적으로 이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섬사람’이 갖는 의미 ‘섬에 사는 사람’은 이를 구성하는 두 개의 요소 ‘섬’과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산 짐승’이 ‘산에 사는 짐승’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도 이와 다름이 없다. 이와 같이 구성 요소가 다르면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는 별개의 단어가 된다.

그런데 구성 요소가 같은 경우에도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는 별개의 단어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똥개’와 ‘개똥’은 구성 요소는 같지만 그 의미가 다르다. 곧 ‘똥개’는 ‘개’의 일종이지만 ‘개똥’은 ‘똥’의 일종이다. 이와 같이 구성 요소의 배열(혹은 결합 순서)이 다르면 그 의미가 다른 별개의 단어가 된다.

구성 요소가 셋 이상인 단어의 경우 그 의미는 구성 요소들 사이의 멀고 가까운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큰부리새’는 ‘부리가 있는 큰 새’가 아니라 ‘큰 부리를 가진 새’이며, ‘큰가슴근’은 ‘큰 가슴에 있는 근육’이 아니라 ‘가슴에 있는 큰 근육’이다. 두 단어가 구성 요소의 배열 양상은 비슷하지만 의미의 양상이 다른 것은 구성 요소들 사이의 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sup>7)</sup>

이와 같이 단어의 의미는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가 어떤 것들인지, 구성 요소들의 배열이 어떠한지, 구성 요소들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지 등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에 의해 드러나는 단어의 짜임새를 단어 구조(單語構造, word structure)라고 한다.<sup>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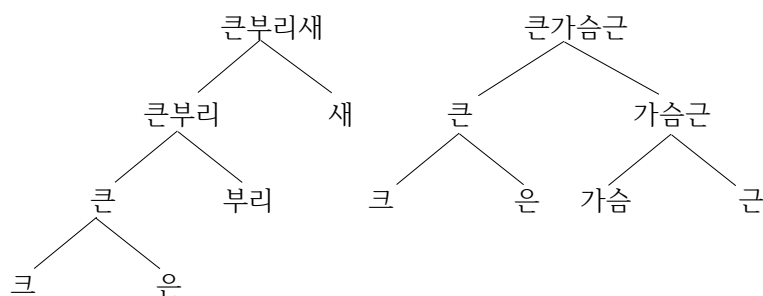
#### (5) 단어 구조

구성 요소, 구성 요소의 배열, 구성 요소들 사이의 관계에 의해 드러나는 단어의 짜임새

단어의 구조는 (6가)와 같이 각괄호([ ])를 써서 나타내기도 하고 (6나)와 같이 수형도(樹型圖, tree diagram)를 써서 나타내기도 한다.

#### (6) 가. [[[[크]은]부리]새], [[[크]은][가슴]근]]

나.



7) 이는 모든 문법 단위에서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통사 구성 ‘늙은 아버지의 외투’와 ‘늙은 아버지의 외투’는 단어의 배열 양상(‘용언의 관형사형+ 체언의 관형격형+ 체언’)은 같지만 단어들 사이의 관계가 달라서 의미의 양상이 다르다. 참고로 통사 구성에서는 ‘예쁜 영화의 손’, ‘젊은 남편과 아내’와 같이 하나의 구성이 단어들 사이의 관계(수식 관계)의 차이에 따라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뜻을 갖는 것들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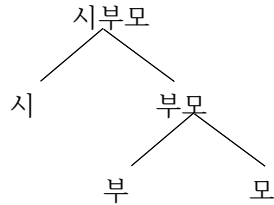
8) 단어 구조의 정의와 이에 관련된 앞의 설명은 황화상(2013ㄱ:59-61)을 참조한 것이다.

## 2.2. 단어 구조의 분석: 직접 구성 요소 분석

단어의 구조를 분석할 때에는 (6)과 같이 몇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때 각 단계의 구성에 참여하는 요소를 그 구성의 직접 구성 요소(直接構成要素, immediate constituent), 줄여서 직소(直素, IC)라고 한다. 예를 들어 (6)에서 ‘큰부리새’의 직접 구성 요소는 ‘큰부리’와 ‘새’이며, ‘큰가슴근’의 직접 구성 요소는 ‘큰’과 ‘가슴근’이다. 그리고 ‘큰부리’의 직접 구성 요소는 ‘큰’과 ‘부리’이며, ‘가슴근’의 직접 구성 요소는 ‘가슴’과 ‘근’이다. 끝으로 ‘큰’의 직접 구성 요소는 ‘크’와 ‘은’이다. 이와 같이 하나의 단어를 직접 구성 요소를 따져서 단계적으로 분석하는 일을 직접 구성 요소 분석, 줄여서 직소 분석(直素分析, IC 분석)이라고 한다.#13#

단어를 (6)과 같이 분석하는 것은 그 의미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어떤 단어를 직접 구성 요소로 분석할 때에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 단어의 의미를 고려해야 한다.#14# 예를 들어 ‘시부모’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뜻을 갖는 단어이므로, ‘시’가 ‘부모’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7)과 같은 구조로 분석한다.

### (7) ‘시부모’의 직접 구성 요소 분석



그런데 단어의 구조가 늘 단어의 의미만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단어의 구조는 다른 단어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명사(N, 혹은 부사Adv)+동사(V)+접미사(Suf)’의 형식을 갖는 복합 명사의 직접 구성 요소 분석을 살펴보자.#15#

### (8) 가. 해돋이, 편지꽃이, 줄넘기, ...

나. 마구잡이, 오래달리기, 두루뎅춤, ...

‘N+V+Suf’ 형식의 복합 명사는 구성 요소들 사이의 의미적 관계를 고려하면, 이를 떼면 ‘해돋이’는 ‘해가 뜨는’이 ‘현상’을 수식하는 의미 구조(‘[해가 뜨는] 현상’)를 갖는다는<sup>9)</sup> 점을 고려하면 일차적으로 ‘[[해돋이]]’와 같이 분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다만 ‘편지꽃이’의 경우 ‘연필꽃이, 책꽃이, 향꽃이’와 같이 동일한 외적 분포를 보이는, 혹은 ‘N+꽃이’의 계열 관계를 이루는 복합 명사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편지[꽃이]]’와 같은 분석도 가능하다.#16#

9) 이 밖에 김창섭(1983, 1996), 이정곤(1994) 등에서는 이들 복합 명사에서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Adv+V+Suf’ 형식의 복합 명사는 구성 요소들 사이의 의미적 관계를 고려하면, 그리고 부사는 동사를 수식하는 것이 보통이라는 국어 수식 구조의 일반성을 고려하면 ‘[[Adv+V]+Suf]’와 같이 분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sup>10)</sup> 다만 ‘오래달리기’와 같이 ‘V+Suf’가 이미 존재하는 단어인 경우에는 ‘[오래[달리기]]’와 같은 분석도 가능하다. 이는 ‘오래달리기’가 ‘이어달리기, 장거리 달리기, 단거리 달리기’ 등과 함께 ‘달리기’ 경기 가운데 하나라는 우리의 인식과도 맞는다.

이와 같이 단어 구조를 분석할 때에는 그 의미나 구조적 일반성을 일차적으로 고려하지만 때에 따라 계열 관계나 기존 단어의 포함 여부를 고려하기도 한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관점에 따라 단어 구조의 분석이 불일치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sup>17#</sup> 이를 괄호매김 역설(bracketing paradox)이라고 한다.<sup>11)</sup>

(9) 가. 의미, 구조적 일반성을 고려한 분석

[[편지[꽃]]이](=[편지를 꽃는] 물건), [[오래[달리]]기](=[오래 달리는] 일)

나. 계열 관계, 기존 단어의 포함 여부를 고려한 분석

[편지[꽃[이]]], [오래[달리[기]]]

### 3. 단어 구성 요소의 구분

#### 3.1. 어근과 접사, 어간과 어미

단어(복합어)를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어근(語根, root)과 접사(接辭, affix)로<sup>12)</sup> 나뉜다. 어근은 구성 요소 가운데 실질적 의미(혹은 어휘적 의미)를 갖는 구성 요소로서 단어의 중심을 이룬다. 그리고 접사는 구성 요소 가운데 형식적 의미(혹은 문법적 의미, 혹은 문법적 기능)를 가지고 어근에 덧붙는 구성 요소를 말한다. 예를 들어 ‘먹이’를 구성하는 두 개의 요소 가운데 ‘먹-’은 그 주된 역할이 ‘먹다’라는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어근이며, ‘-이’는 그 주된 역할이 ‘먹(다)’과는 다른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것이므로 접사이다. 그리고 ‘강물’을 구성하는 두 개의 요소 ‘강’과 ‘물’은 모두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어근이다. 어근은 단어의 중심을 이루는 구성 요소이므로 단어라면 반드시 하나 이상의 어근을 포함한다.

(10) 어근과 접사

10) 이에 대해서는 이익섭(1965), 허웅(1966=1975:230), 김창섭(1996) 등을 참조할 수 있다.

11) 괄호매김 역설은 하나의 단어가 관점에 따라 서로 다른 구조를 갖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transformational grammarian’은 형태론적으로는 [transformational [grammarian]]으로 분석되며 의미론적으로는 [[transformational grammar] ian] (‘변형 문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 분석되어 괄호매김 역설을 보인다. 이 밖에 ‘unhappier’와 같이 의미론적 분석([un happy] er), ‘more unhappy’와 음운론적 분석([un happy er]) 사이에 괄호매김 역설을 보이는 예도 있다(Spencer 1991:397-422 참조).

12) 여기에서의 접사는 파생 접사를 말한다. 넓은 의미의 접사는 파생 접사와 굴절 접사로 나뉘는데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가. 어근

복합어에서 실질적 의미를 갖는, 의미의 중심을 이루는 요소. 예) ‘먹이’의 ‘먹-’, ‘풋고추’의 ‘고추’, ‘강물’의 ‘강’과 ‘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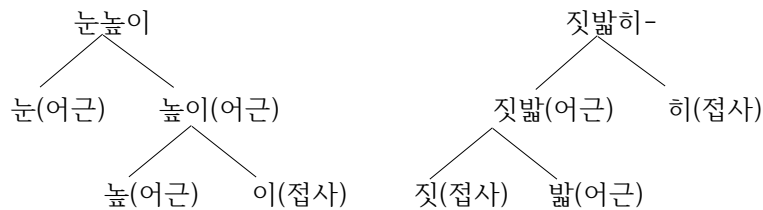
나. 접사

복합어에서 형식적 의미를 갖는, 어근에 덧붙는 요소. 예) ‘먹이’의 ‘-이’, ‘풋고추’의 ‘풋-’

셋 이상의 형태소로 구성된 단어는 각 단계에서 분석되는 직접 구성 요소를 대상으로 그 역할에 따라 어근과 접사를 구분한다. 이를테면 ‘눈높이’는 먼저 두 개의 구성 요소 ‘눈’과 ‘높이’로 분석되는데, 모두 실질적 의미를 갖는 어근들이다. 그리고 ‘높이’는 다시 두 개의 구성 요소 ‘높-’과 ‘-이’로 분석되는데, ‘높-’은 실질적 의미를 갖는 어근이고, ‘-이’는 명사를 파생하는 접사이다. 마찬가지로 ‘짓밟히-’는 먼저 어근 ‘짓밟-’과 접사 ‘히-’로 분석되며, ‘짓밟-’은 다시 접사 ‘짓-’과 어근 ‘밟-’으로 분석된다.#18#

(11) 가. ‘눈높이’의 어근과 접사

나. ‘짓밟히-’의 어근과 접사



한편 (용언의) 활용형에서는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구성 요소를 어간(語幹, stem)이라고 하고 형식적인 의미를 갖는 구성 요소를 어미(語尾, ending)라고 하여 복합어(파생어, 합성어)를 구성하는 요소들과 개념적으로 구별하는 것이 보통이다. 예를 들어 활용형 ‘먹고’에서 ‘먹-’은 ‘먹다’라는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므로 어간이며, ‘-고’는 그 주된 기능이 연결형을 만드는 것이므로 (연결) 어미이다.#19#

(12) 어간과 어미

가. 어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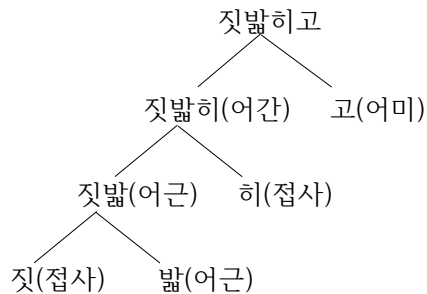
활용형에서 실질적 의미를 갖는, 의미의 중심을 이루는 요소. 예) ‘먹고, 먹는, 먹지, 먹느냐’의 ‘먹-’

나. 어미

활용형에서 형식적 의미를 갖는, 어간에 덧붙는 요소. 예) ‘먹고, 먹는, 먹지, 먹느냐’의 ‘-고, -는, -지, -느냐’

복합과 활용을 모두 포함하는 ‘짓밟히고’를 예로 들어 어근과 접사, 어간과 어미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3) ‘짓밟히고’의 어근과 어간



어근과 어간은 어떤 형태 단위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 쓰임에 따라 주어지는 유동적인 개념이다. 곧 어떤 형태 단위가 복합어에 나타날 때에는 어근이 되고 활용형에 나타날 때에는 어간이 된다. 이를테면 복합어 ‘먹이’의 구성 요소로서의 ‘먹-’은 어근이며, 활용형 ‘먹고’의 구성 요소로서의 ‘먹-’은 어간이다.#20#

### 3.2. 어근의 구분

앞서 단어를 구성하는 요소로서의 어근은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했다. 그런데 어근 가운데에는 (14)의 ‘딱, 아름’과 같이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것들도 있다.

(14) 딱(하다), 아름(답다)

의미는 뚜렷하지 않지만 이들이 어근인 것은 분명하다. 무엇보다도 이들이 나타나는 자리는 어근이 쓰이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곧 (14)에서 ‘딱’이 나타나는 자리에는 (15가)에서처럼 ‘건강, 가난, 청결’ 등의 어근이 쓰일 수 있으며, (14)에서 ‘아름’이 나타나는 자리에는 (15나)에서처럼 ‘정, 꽃, 참’ 등의 어근이 쓰일 수 있다.

(15) 가. 건강(하다), 가난(하다), 청결(하다)

나. 정(답다), 꽃(답다), 참(답다)

보통의 어근은 홀로 쓰이기도 하고 여러 복합어에 두루 나타나기도 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고 품사를 부여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딱, 아름’과 같은 어근은 (5)와 같은 파생어에서만 제한적으로 나타나므로 그 의미를 파악하기도 어렵고 특정한 품사를 부여하기도 어렵다. 이와 같이 제한적으로 쓰여서 그 의미와 품사가 분명하지 않은 어근을 ‘불규칙적 어근’이라고 한다. 그리고 의미와 품사가 분명한 어근을 이와 구별하여 ‘규칙적 어근’이라고 한다.#21#

### 3.3. 접사의 구분

접사는 어근과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어근의 앞에 오는 접두사(接頭辭, prefix)와 어근의 뒤에 오는 접미사(接尾辭, suffix)로 나뉜다. 예를 들어 ‘맨손’의 ‘맨-’과 ‘헛디디(다)’의 ‘헛-’은 어근의 앞에 오는 접두사이며, ‘먹이’의 ‘-이’와 ‘어른스럽(다)’의 ‘-스럽-’은 어근의 뒤에 오는 접미사이다.

#### (16) 접두사와 접미사

##### 가. 접두사

어근의 앞에 쓰여 어근과는 다른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접사. 예) 맨(손), 헛(디디다)

##### 나. 접미사

어근의 뒤에 쓰여 어근과는 다른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접사. 예) (먹)이, (어른)스럽-

접두사와 접미사는 어근과의 상대적 위치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문법적 기능에도 중요한 차이가 있다. 접두사는 어근을 의미적으로 수식할(혹은 한정할) 뿐 새롭게 만들어지는 단어(파생어)의 품사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은 명사 어근과 동사 어근에 모두 결합하는 접두사 ‘헛-’의 예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곧 (17)에서처럼 ‘헛-’이 명사 어근에 결합할 때에는 전체 파생어의 품사도 명사이며, ‘헛-’이 동사 어근에 결합할 때에는 전체 파생어의 품사도 동사이다. 이는 ‘헛-’ 파생어의 품사는 후행하는 어근이 결정한다는 것을 뜻한다.

#### (17) 접두 파생어의 품사

##### 가. ‘헛-’+명사 → 명사

헛고생, 헛수고, 헛걸음, 헛소문

##### 나. ‘헛-’+동사 → 동사

헛살다, 헛보다, 헛디디다, 헛먹다

이와 달리 접미사는 의미적 기능 외에도 새롭게 만들어지는 단어(파생어)의 품사를 결정하는 기능도 갖는다. 예를 들어 접미사 ‘-이’는 동사 어근에 결합하여 명사를 파생하며, 접미사 ‘-스럽-’은 명사 어근에 결합하여 형용사를 파생한다.

#### (18) 접미 파생어의 품사

##### 가. 동사+‘-이’ → 명사

먹이, 놀이, 벌이

##### 나. 명사+‘-스럽-’ → 형용사

어른스럽다, 감격스럽다, 경사스럽다

물론 접미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파생어 가운데에는 그 품사가 어근의 품사와 같은 것들도 있다. 예를 들어 ‘가위질, 나무꾼, 욱쟁이’의 품사는 모두 어근 ‘가위, 나무, 욱’과 같은 명사이다. 그러나 이들 파생어의 품사가 명사인 것은 어근이 명사여서가 아니라 접미사 ‘-질, -꾼, -쟁이’가 모두 명사를 파생하는 접미사들이기 때문이다. 접미사가 파생어의 품사를 결정한다는 것은 ‘-보’ 파생어의 예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곧 (19)에서처럼 접미사 ‘-보’는 동사와 형용사, 명사, 부사, 불규칙적 어근 등 다양한 성격의 어근에 결합하는데 어근의 다름에 관계없이 ‘-보’ 파생어는 모두 명사이다. 이는 ‘-보’가 명사를 파생하는 접미사로서 파생어의 품사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19) ‘-보’ 파생어의 품사

가. 동사/형용사+‘-보’ → 명사

먹보, 울보, 약보

나. 명사+‘-보’ → 명사

잠보, 꾀보, 겁보

다. 부사/불규칙적 어근+‘-보’ → 명사

똥똥보, 똥보, 땅딸보

이와 같이 접두사는 어근의 의미를 한정하는 기능(곧 한정적 기능)만 갖고 접미사는 파생어의 품사를 결정하는 기능(곧 지배적 기능)도 갖는다. 이는 우리말이 어떤 언어 단위의 문법적 자격을 결정하는 요소가 뒤에 오는 언어, 곧 후핵 언어(後核言語, head-final language)이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하면 접두사와 접미사의 기능의 차이는 그 위치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곧 접미사는 파생어의 맨 끝에 오므로 전체 파생어의 품사를 결정하지만, 접두사는 파생어의 맨 앞에 오므로 파생어의 품사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다.<sup>#22#</sup>

한편 (좁은 의미의) 접사와 어미를 묶어 (넓은 의미의) 접사로 포괄하고 이를 다시 파생 접사(派生接辭, derivational affix)와 굴절 접사(屈折接辭, conjugational affix)로 나누기도 한다. 그런데 파생 접사와 굴절 접사는 때에 따라 형태가 같아서 구별이 어려운 것도 있다. 그러나 파생 접사와 굴절 접사는 몇 가지 점에서 분명하게 구별된다.

첫째, 파생 접사(곧 좁은 의미의 접사)는 어근에 결합하여 어근과는 다른 새로운 단어를 만들며, 굴절 접사(곧 어미)는 어간에 결합하여 어간의 다양한 활용형을 만든다.<sup>13)</sup> 이를테면 파생 접사 ‘헛-, -이, -보’ 등은 어근 ‘먹-’에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 ‘헛먹(다), 먹이, 먹보’를 만들며, 굴절 접사 ‘-고, -는, -자’는 어간 ‘먹-’에 결합하여 활용형 ‘먹고, 먹는, 먹자’를 만든다.<sup>#23#</sup>

둘째, 파생 접사는 상대적으로 결합하는 어근에 제약이 크지만 굴절 접사는 거의

13) 따라서 굴절 접사의 결합형과 달리 파생 접사의 결합형은 사전에 표제어로 등재되는 것이 보통이다.

제약이 없다. 곧 파생 접사는 상대적으로 분포가 좁고 굴절 접사는 분포가 넓다. 예를 들어 파생 접사 ‘-이’는 ‘높다, 깊다, 길다’에는 결합하고(‘높이, 깊이, 길이’) ‘낮다, 얕다, 짧다’에는 결합하지 못하지만(\*‘낮이, \*얕이, \*짧이’), 굴절 접사 ‘-게’는 ‘높게, 깊게, 길게, 낮게, 얕게, 짧게’와 같이 모든 어근에 결합한다.

셋째, 파생 접사는 상대적으로 의미가 다양하지만 굴절 접사는 의미(혹은 기능)가 일정하다.<sup>14)</sup> 예를 들어 파생 접사 ‘-이’의 결합형 ‘젓먹이, 손톱깍이, 턱걸이’는 각각 사람, 사물, 일 등 다양한 뜻을 갖지만, 굴절 접사 ‘-고’의 결합형 ‘먹고, 깎고, 걸고’는 어근의 의미 차이 이외의 별다른 의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넷째, 파생 접사와 굴절 접사가 모두 나타날 때에는 파생 접사가 굴절 접사를 선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예를 들어 ‘어른스럽고’에서 파생 접사 ‘-스럽-’은 굴절 접사 ‘-고’를 선행한다. 이는 명사 어근 ‘어른’에 파생 접사 ‘-스럽-’이 결합하여 형용사가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만들어진 ‘어른스럽-’이 어간의 자격을 가지고 어미 ‘-고’와 결합한다는 것을 뜻한다. 마찬가지로 ‘헛디디고’는 파생 접사 ‘헛-’이 ‘디디-’에 결합하여 만들어진 ‘헛디디-’에 어미 ‘-고’가 결합한 것이다.

#### 4. 단어의 유형

단어는 크게 구성 요소가 하나여서 형태론적으로 분석되지 않는 단일어(單一語, simple word)와 구성 요소가 둘 이상이어서 형태론적 분석이 가능한 복합어(複合語, complex word)로 나뉜다.

(20) 가. 산, 가(다),<sup>15)</sup> 어느, 아주

나. 논밭, 한두 / 어른스럽(다), 높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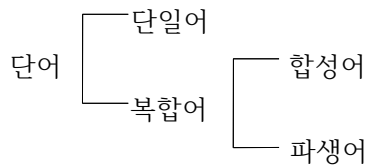
(20가)의 단어들은 모두 구성 요소가 하나인 단일어들이다. 이들을 구성하는 요소는 더 이상 형태론적 분석이 불가능한 (실질) 형태소이다. (20나)의 단어들은 모두 구성 요소가 둘 이상인 복합어들이다. 따라서 ‘논밭’은 ‘논’과 ‘밭’, ‘한두’는 ‘한’과 ‘두’, ‘어른스럽(다)’은 ‘어른’과 ‘-스럽-’, ‘높이’는 ‘높-’과 ‘-이’로 다시 분석된다.

복합어는 다시 구성 요소가 모두 어근인 합성어(合成語, compound word)와 구성 요소 가운데 어느 하나가 접사인 파생어(派生語, derived word)로 나뉜다.<sup>#24#</sup> (20나)에서 ‘논밭’과 ‘한두’는 각각 그 구성 요소 ‘논’과 ‘밭’, 그리고 ‘한’과 ‘두’가 모두 어근이므로 합성어이며, ‘어른스럽(다)’과 ‘높이’는 각각 그 구성 요소 가운데 하나인 ‘-스럽-’과 ‘-이’가 접사이므로 파생어이다.

14) 달리 말하면 파생 접사는 의미가 불규칙적이고 굴절 접사는 의미가 규칙적이다. 따라서 파생어는 의미의 예측이 어렵고 굴절형은 의미의 예측이 쉽다.

15) 용언(동사, 형용사)의 경우에는 어미를 제외한 어간만으로 단일어인지 복합어인지를 판단한다. 왜냐하면 용언은 자립성이 없고 늘 어미와 결합해서 쓰이므로, 그 기본형도 ‘가다’와 같이 종결 어미 ‘-다’가 결합한 형태로 잡는 것이 보통인데, ‘가다’ 전체를 가지고 판단할 경우 단일어는 없고 복합어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간만으로 단어의 유형을 판단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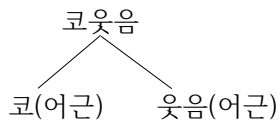
(21) 단어의 형태론적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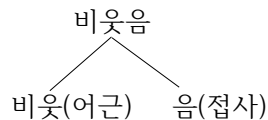
복합어 가운데에는 합성과 파생을 단계적으로 거쳐서 만들어진 것들도 있다. 이때에는 전체 복합어를 직접 구성 요소로 분석하여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를 판단한다. 곧 직접 구성 요소가 모두 어근이면 합성어이며, 직접 구성 요소 가운데 어느 하나가 접사이면 파생어이다. 예를 들어 ‘코웃음’은 ‘코’와 ‘웃음’으로 분석되는데 두 개의 직접 구성 요소가 모두 어근이므로 합성어이며, ‘비웃음’은 ‘비웃-’과 ‘-음’으로 분석되는데 직접 구성 요소 가운데 하나인 ‘-음’이 접사이므로 파생어이다.<sup>16)</sup>

(22) 직접 구성 요소 분석에 의한 합성어와 파생어의 구별

가. 합성어 ‘코웃음’



나. 파생어 ‘비웃음’



그런데 ‘해돋이, 편지꽃이, 줄넘기’와 같이 직접 구성 요소 분석으로도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의 판단이 어려운 복합어들도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들 ‘명사(N)+동사(V)+접미사(Suf)’ 형식의 복합 명사들은 선행하는 두 구성 요소의 결합형(‘N+V’)도 하나의 단어로 존재하지 않고 후행하는 두 구성 요소의 결합형(‘V+Suf’)도 하나의 단어로 존재하지 않아서 직접 구성 요소 분석 자체에 이견이 있기 때문이다.

참고 문헌

- 고영근(1973), 「현대국어의 접미사에 대한 구조적 연구(Ⅲ)-접미적 파생법의 기술방법을 중심으로」, 『어학연구』 9-1, 서울대 어학연구소, 64-74.  
 고영근(1974), 『국어 접미사의 연구』, 광문사.  
 고영근(2014), 「민족어 문법에서 “어기”란 과연 필요한 개념일까-지상 토론을 제안하면서-」, 『형태론』 16-1, 형태론학회, 89-106.  
 고영근·구본관(2008),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16) ‘코웃음’은 ‘코웃-’이 존재하지 않고 ‘코’와 ‘웃음’만 존재하며 ‘코소리를 내거나 코끝으로 가볍게 웃는 비난조의 웃음’이라는 뜻으로도 ‘코+웃음’의 분석이 자연스럽다. 그리고 ‘비웃음’은 ‘비웃-’(어떤 사람, 또는 그의 행동을 터무니없거나 어처구니없다고 여겨 알잡거나 업신여기다. 또는 그런 태도로 웃다)이 존재하며 ‘흥을 보듯이 빈정거리거나 업신여기는 일. 또는 그렇게 웃는 웃음’이라는 뜻으로도 ‘비웃+음’의 분석이 자연스럽다. (고영근·구본관 2008:202 참조)

- 구본관(1996=1998), 『15세기 국어 파생법에 대한 연구』, 태학사.
- 구본관(1999), 「파생접미사의 범위」, 『형태론』 1-1, 형태론학회, 1-20.
- 구본관(2002), 「형태론의 연구사」, 『한국어학』 16, 한국어학회, 1-48.
- 구본관(2005), 「국어 접미사의 분류에 대한 재검토」, 『우리말 연구 서른아홉 마당』, 태학사, 13-40.
- 김계곤(1969), 「현대국어의 뒷가지 처리에 대한 관견」, 『한글』 144, 한글학회, 95-139.
- 김민수(1954/1960), 『국어문법론 연구』, 통문관. [한국역대문법대계 1-98].
- 김양진(2008), 「접어와 기능어-형태론적 단위와 통사론적 단위」, 『한국어학』 38, 한국어학회, 1-31.
- 김영석(1998), 『영어형태론』, 한신문화사.
- 김창섭(1983), 「‘줄넘기’와 ‘갈림길’형 합성명사에 대하여」, 『국어학』 12, 국어학회, 73-99.
- 김창섭(1996), 『국어의 단어형성과 단어구조 연구』, 태학사.
- 남윤진(1996), 「국어 조사의 문법적 위치」, 『울산어문논집』 11, 울산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193-215.
- 노명희(2009), 「어근 개념의 재검토」, 『어문연구』 37-1, 어문연구학회, 59-84.
- 박영목 외(2012), 『독서와 문법 I』, 천재교육.
- 박진호(1994), 「통사적 결합 관계와 논항구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진호(2010), 「분포에 의한 단어 분류와 기능에 의한 단어 분류」,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언어연구소/한국 언어 유형론 연구회 공동 워크숍』,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신양인문학학술정보관(4동) 309호.
- 배주채 역(2008), 『언어의 중심 어휘』, 삼경문화사.
- 서울 대학교 국어 교육 연구소(2002), 『고등 학교 문법』, (주)두산.
- 성기철(1969), 「명사의 형태론적 구조」, 『국어교육』 15, 한국어교육학회, 1-18.
- 송철익(1992), 『국어의 파생어형성 연구』, 태학사.
- 시정곤(1993), 「‘음운적 단어’의 설정을 위한 시고」, 『우리어문연구』 6·7, 우리어문학회, 121-138.
- 시정곤(1994), 『국어의 단어형성 원리』, 국학자료원.
- 우순조(1997), 「국어 어미의 통사적 지위」, 『국어학』 30, 국어학회, 225-256.
- 유목상(1974), 「통어론적 구성에 의한 어형성에 관한 연구」, 『성곡논총』 5, 성곡학술문화재단, 103-124.
- 윤여탁 외(2012), 『독서와 문법 I』, (주)미래엔.
- 이남호 외(2012), 『독서와 문법 I』, 비상교육.
- 이삼형 외(2012), 『독서와 문법 I』, (주)지학사.
- 이석주(1989), 『국어형태론-복합어와 파생어 구조를 중심으로-』, 한샘출판주식회사.
- 이익섭(1965), 「국어 복합명사의 IC 분석」, 『국어국문학』 30, 국어국문학학회, 121-129.

- 이익섭(1975), 「국어 조어론의 몇 문제」, 『동양학』 5,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155-165.
- 이익섭·채완(1999), 『국어문법론강의』, 학연사.
- 이재인(1989), 「‘-이’ 명사의 형태론」, 『국어국문학논총Ⅲ(이정정연찬선생회갑기념)』, 820-835.
- 이재인(1991), 「파생접미사의 기술을 위한 한 방안」, 『석정이승옥선생회갑기념논총』, 235-314.
- 이정훈(2007), 「국어 어미의 통합단위」, 『한국어학』 37, 한국어학회, 149-179.
- 채현식(2003), 『유추에 의한 복합명사 형성 연구』, 태학사.
- 최규수(2010), 「어근과 어간의 개념에 대한 국어학사적 검토」, 『한글』 290, 한글학회, 173-201.
- 최응환(2005), 「교착소로서의 국어 어미에 대한 연구」, 『우리말글』 35, 우리말글학회, 121-148.
- 최형강(2009), 「‘형성소’와 ‘어근’ 개념의 재고를 통한 ‘어근 분리 현상’의 해석」, 『국어학』 56, 한국어학회, 33-60.
- 최형용(2002), 「어근과 어기에 대하여」, 『형태론』 4-2, 형태론학회, 301-318.
- 최형용(2003), 『국어 단어의 형태와 통사-통사적 결합어를 중심으로-』, 태학사.
- 최형용(2010), 「품사의 경계-조사, 어미, 어근, 접사를 중심으로」, 『한국어학』 47, 한국어학회, 61-92.
- 한정한(2009), 「단어를 다시 정의해야 하는 시급한 이유들」, 『언어』 34-3, 한국언어학회, 761-788.
- 한정한(2011), 「통사 단위 단어」, 『국어학』 60, 한국어학회, 211-232.
- 허웅(1966/1975),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
- 황화상(2001), 『국어 형태 단위의 의미와 단어 형성』, 월인.
- 황화상(2013ㄱ), 『현대국어 형태론(개정판)』, 지식과 교양.
- 황화상(2013ㄴ), 「유추, 규칙의 대안인가?-채현식(2003)을 중심으로-」, 『형태론』 15-2, 형태론학회, 204-224.
- 황화상(2014), 「형태 단위와 그 범주 설정에 대하여-어근, 어기, 어간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69, 국어국문학회, 85-110.
- Aronoff, M.(1994), *Morphology by itself*, Cambridge: The MIT Press.
- Di Sciullo, A. M. and E. Williams.(1987), *On the Definition of Word*, MA: MIT Press.
- Everaert, M., Evers, A., Huybregts, R. and Trommelen, M.(eds.)(1988), *Morphology and Modularity*, Dordrecht: Foris.
- Marchand, H.(1969), *The Categories and Types of Present-Day English Word-Formation*, Munich: C. H. Beck Verlagsbuchhandlung.
- Nida, E. A.(1949), *Morphology: The Descriptive Analysis of Word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Singleton, D.(2000), *Language and the Lexicon: An Introduction*, London: Edward Arnold.

Spencer, A.(1991), *Morphological Theory*, Oxford: Blackwell.

- #1# **#이론# <단어의 심리적 실재성>** 단어는 문법 단위 가운데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배우는 단위이며, 언중들에게 심리적으로 실재하는 단위이기도 하다. 단어가 심리적으로 실재하는 단위라는 언급은 국내외 여러 학자들이 언급하고 있다. Nida(1949:149)에서 단어는 모국어 화자의 직관(intuition)에 의존하는 바가 있다고 진술한 것도 그런 관점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 #2# **#이론# <단어와 자리 이동(transposition)>** Marchand(1969:1)에서처럼 자리 이동의 측면에 주목하여 단어를 ‘문장 안에서 자리 이동이 가능한 최소의 독립적인 불가분의 의미 있는 말’로 정의하기도 한다.
- #3# **#이론# <단어의 정의와 그 예외>** 본서에서는 단어를 자립성과 비분리성을 기준으로 정의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를 단어 아닌 것과 완벽하게 구별하기는 어렵다. 단어 가운데에는 ‘깨끗하다’와 같이 ‘깨끗은 하다’나 ‘깨끗도 하다’처럼 다른 요소를 넣어 분리하는 것이 가능한 것들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하면 어느 정도의 예외는 인정하면서 단어를 정의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일 수 있다. 이를테면 ‘깨끗하다’의 경우 ‘깨끗은 하다, 깨끗도 하다’와 같이 분리되더라도 이는 주로 보조사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예외적인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이익섭·채완(1999), 고영근·구본관(2008) 등의 국어학 개론서들에서 이와 같이 단어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예에 대해서는 예외로 처리했다.
- #4# **#이론##생활# <북한 문법에서의 조사와 어미>** 북한의 규범 문법에서는 조사와 어미를 ‘토’로 묶어 단어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 #5# **#한교# <조사의 단어 인정 여부와 한국어 교육>** 한국어를 영어와 비교하면 격조사 가운데 부사격 조사는 영어의 전치사에 대응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보조사의 경우 형용사나 부사에 대응되는 경우도 있어 조사를 단어로 다루는 것이 유용성이 있다.
- #6# **#이론# <단어의 하위 분류>** 어떤 측면에 주목하는지에 따라 단어의 하위 분류의 양상은 다르다. 박진호(1994)에서는 음운론적인 단어와 통사론적인 단어(통사 원자)로 나누었고, 시정곤(1993)에서는 어휘적 단어, 음운적 단어, 통사적 단어의 셋으로 나누었으며, 고영근·구본관(2008)에서는 음운론적인 단어, 문법론적인 단어, 어휘소 내지 어휘론적인 단어의 셋으로 나누었다. 또한 Aronoff(1994)에서도 단어에 음성 형식(sound form of a word), 문법적 단어(grammatical word), 어휘소(lexeme) 등의 개념이 혼재되어 있음을 언급하였고, 최형용(2003)에서는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음운론적 단어, 어휘적 단어, 문법적 단어를 구분하였다. 한편 Singleton(2000, 배주채 역 2008)에서는 음성학적 단어, 음운론적 단어, 문법적 단어, 의미적 단어, 정서법적 단어의 다섯으로 나누었고, 한정환(2009)에서는 더욱 세분하여 어휘적 단어, 음성적 단어, 음운적 단어, 형태적 단어, 통사적 단어, 의미적 단어, 정서법적 단어 등으로 나누었다.
- #7# **#이론# <음성학적 단어>** 음운론적 단어 외에 음성학적 단어를 설정하기도 한다. 음성학적 관점의 단어는 ‘소리가 나는 방식의 관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위’이다. 예를 들어 말속에서 휴지에 의해 분리되는 단위를 단어로 본다면 이는 음성학적 관점에서 단어를 정의한 것이다.
- #8# **#이론# <국어 음운 규칙의 적용과 단어>** 시정곤(1993)에서는 사잇소리 현상과 경복 방언의 성조를 고려하여 국어의 음운론적 단위를 설정하고 있다.
- #9# **#이론# <어휘부의 등재 단위와 단어>** 흔히 사전을 종이 사전과 머릿속 사전(mental lexicon)으로 구분한다. 머릿속 사전의 개념이 등장하기 전부터 사전의 등재 단위로서 단어의 다양한 굴절형의 추상체로서의 어휘소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지만 최근에는 머릿속 어휘부의 등재 단위로서 등재소가 논의되고 있다. 등재소는 기억 단위이므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어뿐 아니라 숙어, 속담과 같은 구나 문장이 포함되며, 연어까지를 포함하기도 한다.
- #10# **#이론# <형태론적 단어의 개념>** 앞서 언급했듯이 ‘최소 자립 형식’이라는 언급에서 자립은 구어에서는 휴지를 사이에 둔 발화 단위와 관련된다. 이를 고려하면 ‘최소 자립 형식’이라는 기준은 형태론적 단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음운론적 단어를 성립하게 하는 것이라는 관점(박진호 1994)도 가능하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자립을 ‘다른 형태소(혹은 단어)의 도움 없이 문장에서 쓰일 수 있는 속성’으로 이해하면 ‘최소 자립 형식’은 형태론적 단어를 정의하는 기준이 된다.
- #11# **#이론# <통사 원자>** 통사 원자는 Di Sciullo and Williams(1987)에서 제시된 용어로 이를 받아들인 박진호(1994) 등에 사용되면서 널리 언급되고 있다.
- #12# **#국교##한교##생활# <단어의 교육적 유용성>** 인간은 새로운 개념을 만들 때 단어 단위로 만들며, 외국어를 받아들일 때에도 단어를 우선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단어의 교육적 유용성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뿐만 아니라 단어를 분류한 품사는 국어 교육이나 한국어 교육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으며, 실생활에서도 사전의 이용 등에 필요한 개념이기도 하다. 특히 국어의 품사 분류가 서양의 전통 문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주요 언어의 품사 분류와 유사성이 많아 한국어 교육에서의 필요성도 매우 크다.
- #13# **#국교# <단어의 구조>** 학교 문법에서 단어의 구조(단어 구성 요소, 직접 구성 요소 분석)는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이삼형 외(2012)에서 ‘놀이터’가 ‘놀이’와 ‘터’라는 직접 구성 요소로 분석된다는 것을 간단하게 언급했을 뿐이다. 그 결과 어근과 형태소의 구별이 분명하지 못하고(서울 대학교 국어 교육 연구소 2002, 박영목 외 2012, 이남호 외 2012), 때에 따라서는 어근과 형태소가 동일시되기도 한다(윤여탁 외 2012). 그

- 려나 단어의 구조는 단어의 의미(혹은 기능)를 설명하고 합성어와 파생어를 구별하는 바탕이 되는 만큼 학교 문법에서 적극적으로 다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14# **#이론# <직접 구성 요소 분석의 기준>** 이익섭(1965)에서는 Nida(1949)를 참조하여 (1) 의미와의 관련성, (2) 보다 작은 단위에 의한 대치 가능성, (3) 언어 전 구조에 의한 지원도 등을 직접 구성 요소 분석의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 이에 따르면 ‘설늬은이’는 ‘늬기를 설늬었다’는 뜻을 가지며, 또 접두사 ‘설-’은 용언에만 연결될 뿐 명사에 연결되는 일은 없으므로 일차적으로 ‘[[설늬은]이]’로 분석된다.
- #15# **#이론# <‘X+V+Suf’형 복합 명사의 직접 구성 요소 분석>** <표준국어대사전>에는 ‘해돋이, 편지꽃이, 줄넘기’가 ‘해-돋이, 편지-꽃이, 줄-넘기’와 같은 형식으로 등재되어 있다. 이는 ‘젓먹이’가 ‘젓먹-이’로 등재된 것과 다른데 이를 비교해 보면 <표준국어대사전>에 복합어를 등재할 때 직접 구성 요소 분석을 어느 정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론 문법에서 이들 복합 명사에 대한 직접 구성 요소 분석은 X의 유형에 따라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 먼저 ‘Adv+V+Suf’형 복합 명사(예를 들어 ‘마구잡이’)의 경우 이익섭(1965), 허웅(1966=1975), 김계곤(1969), 김창섭(1983, 1996) 등에서는 ‘[[마구잡]이]’와 같이 파생어 구조로 분석했으나, 성기철(1969), 유목상(1974), 이석주(1989) 등에서는 ‘[마구[잡이]]’와 같이 합성어 구조로 분석했다. 다음으로 ‘N+V+Suf’형 복합 명사(예를 들어 ‘해돋이’)의 경우 허웅(1966=1975), 김계곤(1969), 이재인(1989, 1991), 송철의(1992) 등에서는 ‘[[해돋]이]’와 같이 파생어 구조로, 이익섭(1965), 성기철(1969), 유목상(1974), 이석주(1989) 등에서는 ‘[해[돋이]]’와 같이 합성어 구조로 분석했다. 한편 고영근(1973, 1974)에서는 ‘-걷이, -걸이, -꽃이, ...’ 등의 형태에 대해 동사를 바탕으로 형성되었지만 의존성을 갖는다고 보고 ‘준접미사’로 처리함으로써, 역시 파생어 구조로 분석했다.(김창섭 1996:118-119 주18, 주19, 황화상 2001:126 주42 참조)
- #16# **#이론# <복합 명사의 의미와 계열 관계, 그리고 직접 구성 요소 분석>** 이익섭(1965), 채현식(2003) 등에서는 외적 분포(혹은 계열 관계)를 고려하여 이를테면 ‘편지꽃이’를 ‘[편지[꽃이]]’로만 분석했다. 이와 달리 황화상(2013-)에서는 개인에 따라 서로 다른 분석이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곧 구성 요소들 사이의 의미적 관계를 먼저 고려하여 ‘[[편지꽃]이]]’로 분석할 수도 있고 계열 관계를 우선적으로 인식하여 ‘[편지[꽃이]]’로 분석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았다.
- #17# **#이론# <단어의 형태와 의미, 그리고 단어 구조의 분석>** 관점에 따라 단어 구조의 분석이 불일치하는 것은 ‘N+N’의 단순 구조를 갖는 복합어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서 국어 단어에 일반적인 것이다. 예를 들어 ‘옛장수’는 의미적으로는 ‘옛을 파는’이 ‘사람’을 수식하는 ‘[[옛을 파는] 사람]’으로 분석되지만, ‘파는 사람’이 ‘장수’에 대응함으로써 형태적으로는 ‘[옛[장수(=파는 사람)]]’로 분석된다(황화상 2001:131 참조). 이는 (9가)에서 ‘꽃은 물건’, ‘달리는 일’에 각각 ‘꽃이’, ‘달리기’가 대응함으로써 (9나)와 같이 분석되는 것과 다름이 없다.
- #18# **#이론##국교# <어근의 단위>** 일부 문법서와 일부 학교 문법서에서는 어근을 곧 실질 형태소로 본다. 물론 두 개의 형태소로 구성된 단어의 경우에는 어근이 곧 실질 형태소이다. 그러나 (11)에서 예시했듯이 셋 이상의 형태소로 구성된 단어에서는 어근이 형태소보다 클 수 있다. 이와 같이 어근은 본질적으로 형태소 단위로 한정할 수 없는 형태 범주이다.
- #19# **#이론##국교# <어간의 범위>** 이론 문법에서는 어미(활용 어미)와 함께 조사(공용 어미)를 굴절 접사의 하나로 보기도 한다. 이렇게 조사를 굴절 접사의 하나로 보면 체언도 공용형에 나타나는 어휘적인 요소로서의 어간(공용 어간)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조사를 단어의 하나로 보아 온 학교 문법의 전통에서는 체언은 어간이 되지 못한다.
- #20# **#이론# <형태 범주로서의 어근, 어간, 어기>** 어근, 어간, 어기는 형태 단위들 가운데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것들을 가리켜 이르는 형태 범주들이다. 이 가운데 어근과 어간은 이들이 각각 어떤 형태 단위들을 지칭하는 것인지에 대해 이견이 있다. 구체적인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이는 크게 형태 단위를 중심으로 형태 범주를 구분하는 관점(이익섭 1975, 구본관 1996=1998, 이익섭·채완 1999, 최규수 2010 등)과 형태론적 과정을 중심으로 형태 범주를 구분하는 관점(남기삼·고영근 1993, 황화상 2001, 2014, 최형용 2002, 고영근·구본관 2008, 최형강 2009 등)으로 나뉜다. 먼저 형태 단위를 중심으로 형태 범주를 구분하는 이익섭(1975)에서는 ‘굴절 접사(어미)와 직접 결합될 수 없으며 동시에 자립 형식도 아닌 단어의 중심부’를 어근, ‘굴절 접사와 직접 결합될 수 있거나 아니면 그 단독으로 단어가 될 수 있는 단어의 중심 부분’을 어간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르면 ‘웃-’은 ‘웃다’와 같이 활용형에 나타나거나 ‘웃음’과 같이 복합어에 나타나거나 관계없이 언제나 어간이다. 다음으로 형태론적 과정을 중심으로 형태 범주를 구분하는 고영근·구본관(2008)에서는 ‘파생이나 합성에서 의미상 중심이 되는 부분’을 어근, ‘용언이 활용할 때 중심이 되는 줄기 부분’을 어간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르면 ‘웃-’은 활용형 ‘웃다’에 나타날 때에는 어간이며, 복합어 ‘웃음’에 나타날 때에는 어근이다. 한편 어근과 어기는 이 둘을 모두 형태 범주로 설정해야 하는지 하는 데에서부터 이견이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어근(분석의 측면에서 단어를 구성하는 요소)과 어기(형성의 측면에서 단어를 형성하는 요소)를 모두 형태 범주로 인정하며, 이익섭(1975)에서도 어근과 어간을 묶어 접사의 대되는 것으로 어기를 설정했다. 이와 달리 남기삼·고영근(1993), 최형강(2009), 고영근(2014)와 같이 어근만 설정하고 어기는 따로 설정하지 않는 논의도 있다.
- #21# **#이론# <어근의 규칙성과 불규칙성>** 대체로 형태론적 과정을 중심으로 형태 범주를 구분하는 논의에서 어근을 규칙적인 것과 불규칙적인 것으로 나눈다. 이 가운데 불규칙적 어근은 ‘굴절 접사(어미)와 직접 결합될 수 없으며 동시에 자립 형식도 아닌 단어의 중심부’라는 점에서 이익섭(1975)의 체계에서는 어근에 해당하며,

- 규칙적 어근은 이익섭(1975)의 어간에 해당한다.
- #22# **#이론# <접사의 한정적 기능과 지배적 기능>** 남기삼·고영근(1993), 고영근·구본관(2008) 등에서는 ‘어근의 품사를 바꾸는지 어근의 뜻만 한정하는지’에 따라 어근의 품사를 바꾸는 지배적 접사와 어근의 품사는 바꾸지 못하고 뜻만 한정하는 한정적 접사로 나눈다. 이에 따르면 우리말의 접두사는 모두 한정적 접사이며 접미사 가운데에는 한정적 접사도 있고 지배적 접사도 있다. 그리고 접미사 ‘-보’는 때에 따라 지배적 접사(‘울보, 먹보’ 등)이기도 하고 한정적 접사(‘겹보, 웃보’ 등)이기도 하다. 이와 달리 황화상(2013ㄱ:152-154)에서는 접사의 지배적 기능을 ‘파생어의 품사를 결정하는’ 속성으로 이해하고, 지배적 접사라는 용어를 쓴다면 접미사는 모두 그 범주 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한정적 기능은 접두사는 물론 접미사도 가지므로 접사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 #23# **#이론# <파생 접사와 굴절 접사의 차이>** 파생 접사와 굴절 접사는 형식적인 의미(혹은 기능)를 가지며 각각 어근과 어간에 의존적이라는 공통성을 갖는다. 그러나 파생 접사의 기능이 어근에 관련된 것과 달리 굴절 접사의 기능은 어간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문장 전체에 관련된다. 이를테면 문장 ‘꽃이 활짝 피었다’에서 어미 ‘-었-’과 ‘-다’의 문법적 기능은 어간 ‘피-’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문장 ‘꽃이 활짝 피-’ 전체에 관련된다. 곧 ‘-었-’에 의해 표현되는 (과거) 시제는 문장이 갖는 문법 범주이며, ‘-다’는 문장을 (평서형으로) 종결하는 기능을 갖는다.
- #24# **#이론# <복합어의 구분>** 복합어는 합성어와 파생어로 나누는 것이 보통이지만 모든 복합어를 합성어나 파생어 가운데 어느 하나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합성어는 단어 형성법 가운데 합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복합어를 말하고, 파생어는 파생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복합어를 말하는데, 단어 형성법에는 합성과 파생 외에도 영파생(혹은 품사 전성), 음운 교체, 두자어 형성, 혼성 등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단어 형성법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 4.3.3. 통사론

#### i. 문장을 구성하는 문법 단위

- ▶ 핵심어(keywords): 어절(word phrase), 구(phrase), 절(clause), 문장(sentence)
- ▶ 관련 항목: 단어, 형태소, 발화문, 문장 성분, 억양
- ▶ 표준화 대상 문법 용어: 어절, 발화문, 의존형식(구속형식), 모문(모절), 관형절(관형사절), 겹문장(복문 혹은 복합문), 표제명사(head noun), 안긴문장(내포문)

#### 1. 문장의 구성단위

문법 기술에서 기본적인 전제는 문장을 이루는 주요 문법 단위에 대한 논의로부터 출발한다. 문장이나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형태론과 통사론, 그리고 담화론 영역이 달라질 수 있으며 문법의 기술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된다. 문장을 구성하는 단위로는 단어, 어절, 구, 절 등의 단위가 언급되어 왔다.<sup>#1#</sup>

한국어에서 어절은 띄어쓰기의 단위와 대체로 일치하며 조사와 어미 등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요소들은 앞의 말에 붙어서 한 어절을 이룬다. 어절이라는 단위는 의존형식인 조사를 단어로 인정한 결과 ‘체언+조사’를 포착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1) 빨간 장미가 색이 아주 예쁘게 피었다.

문장 (1)은 6개의 어절로 구성되어 있다. 부사 ‘아주’는 그 자체로 어절을 이루었고 ‘빨간’은 형용사 ‘빨강-’에 어미 ‘-ㄴ’이 결합되어 한 어절을 이루었고 ‘장미가’와 색이’는 명사 ‘장미’, ‘색’에 조사 ‘가’, ‘이’가 결합되었으며 ‘예쁘게’는 형용사 ‘예쁘-’에 어미 ‘-게’가 붙어서, ‘피었다’는 동사 ‘피-’에 어미 ‘-었-’과 ‘-다’가 결합되어 각각 어절을 이루고 있다.

어절을 단위로 문장 성분을 분석하게 되면 ‘빨간’은 관형어가 되고 ‘장미가’는 주어가 된다. 그러나 어절을 문장의 기본적인 구성단위로 보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문장 (1)의 주어는 ‘빨간 장미가’이다. 주격 조사 ‘가’는 ‘장미’가 아니라 ‘빨간 장미’에 붙어서 전체 문장의 주어를 이룬다. 즉 조사 ‘가’는 ‘장미’가 아니라 ‘빨간 장미’와 결합된 것이다. ‘예쁘게’의 어미 ‘-게’도 ‘예쁘-’가 아니라 ‘색이 아주 예쁘-’ 전체에 결합되어 절을 이룬다.

어절은 어순을 바꿀 때 기본 단위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국어의 어순은 어절 단위로 뒤섞기가 되는 것이 아니다.

(2) 가. \*장미가 빨간 색이 아주 예쁘게 피었다.

나. \*빨간 장미가 색이 예쁘게 아주 피었다.

다. 색이 아주 예쁘게 빨간 장미가 피었다.

(2)에서 어순에 있어서도 어절이 아니라 의미 단위로 뒤섞기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어에서 어절은 말뭉치와 같은 대규모의 언어 자료를 세는 단위로 사용되는 정도의 효용성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sup>#2##3#</sup>

문장은 표면적으로는 구성요소의 선적인 배열로 보이지만 구성요소 간의 결합은 계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문장 (1)은 다음의 (3)과 같은 12개의 통사 단위로 구성되어 있고 구성요소 간의 구조적 관계를 나타내 보면 (4)와 같다.

(3) 빨강-, -ㄴ, 장미, -가, 색, -이, 아주, 예쁘-, -게, 피-, -었-, -다

(4) [[[[[[[빨강-]-ㄴ] 장미]-가] [[[[색]-이] [[아주] [예쁘-]]]-게] 피-]]-었-]-다]

한국어에서 조사와 어미는 의존형식이므로 앞의 요소와 함께 하나의 음운론적 단위를 이룬다.<sup>1)</sup> 그러나 (4)에서 보듯 조사와 어미는 그 기능이 단어 단위를 넘어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통사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 명사형 어미, 관형사형 어미 등 전성 어미가 절에 결합되어 절 전체를 명사절이나 관형절로 만들거나 선어말 어미 ‘-었-’이 문장 전체의 시제를 결정하는 것과 같은 한국어의 문법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조사와 어미를 단어 내부의 요소가 아니라 독립된 통사 단위로 보는 (4)와 같은 관점이 필요하다.

그러나 문장을 문장성분으로 분석할 때는 어미를 독립된 단위로 보지 않고 용언 어간에 어미가 결합된 것을 하나의 단위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자립형식인 체언류에 결합되는 조사는 분리 가능성도 높고 의미나 기능도 어미에 비하여 분명한 점이 있어서 단어로 인정한다. 반면 어미는 기능이 문장 전체에 미치나 용언의 어간에 결합되어 분리하기도 어려우며 의미와 기능도 용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해석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어미를 독립적인 통사 단위로 다루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어 문장의 구성단위를 설명하는 데에 있어서 조사는 관형어를 포함한 체언구 전체에 결합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용언의 어간에 어미가 결합된 형태인 ‘어간+어미’를 하나의 단위로 보기로 한다.<sup>2)</sup> 이에 따라 (4)의 구조적 관계를 수정해 보이면 다음의 (5)와 같다.

(5) [[[빨강-ㄴ] 장미]-가] [[색]-이] [[아주] [[예쁘-게]] [피-었-다]]

(5)는 (4)와 달리 용언의 어간에 어미가 결합된 형태인 ‘빨간’, ‘예쁘게’, ‘피었다’를 하

1) ‘옷+안’과 같이 ‘체언+체언’이 발음될 때 [오단]처럼 절음화된 후 연음화되는 것과 달리 ‘체언+조사’인 ‘옷+이’는 절음화 과정 없이 연음화 규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음운론적으로는 하나의 단위로 볼 수 있다. ‘용언 어간+어미’인 ‘옷+으니’도 절음화 과정 없이 연음되어 [우스니]로 발음된다.

2) 이러한 해석은 형태론에서 조사는 단어로, 어미는 단어로 보지 않는 관점과 일치한다.

나의 단위로 보고 이 전체가 문장의 나머지 성분을 선택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한국어 문장이 서술어와 서술어가 요구하는 성분들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관점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어순 변이를 설명하는 데에도 용이한 점이 있다.

- (6) 가. 오늘도 비가 오겠지.  
 나. 비가 오겠지. 오늘도.  
 다. 오늘도 오겠지? 비가.

어미가 문장 전체와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보는 (4)의 구조는 (6)과 같은 어순 변이를 설명하기 어렵지만 ‘어간+어미’를 한 단위로 보는 (5)의 관점으로는 (6)의 어순 변이를 설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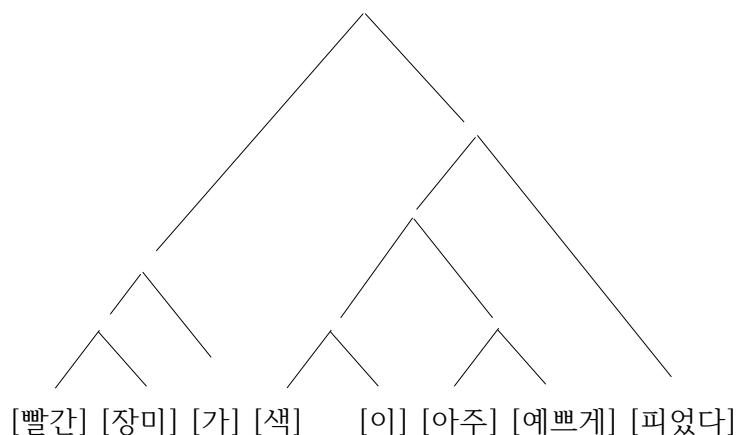
## 2. 단어(單語, words)<sup>3)</sup>

단어는 형태론에서 가장 큰 단위이며 통사론에서는 가장 작은 단위이다. 문장은 단어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문장 (1)은 다음과 같이 8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

- (7) 빨간, 장미, 가, 색, 이, 아주, 예쁘게, 피었다

위의 8개의 단어들은 계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통합되어 있다. 이를 나타내 보면 다음의 (8)과 같다.

(8)



## 3. 구(句, phrase)

3) 단어에 대한 정의는 형태론에서 상세히 서술하였으므로 여기서 반복하지는 않는다. 다만 단어가 통사론 층위에서 최소의 단위가 될 수 있음을 간단하게 기술하겠다.

형태론 층위에서 단어는 형태소와 같거나 크다. 형태소는 단어의 경우 형태소 단독으로도 단어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늘’은 형태소인 동시에 단어가 될 수 있다. 문장의 구성요소로서 구는 단어와 같거나 크다. 앞에서 ‘빨간’이나 ‘장미’, ‘색’ 등은 단어이지만 동시에 구이기도 하다.

(9) 문법단위 간의 관계

가. 형태소  $\leq$  단어

나. 단어  $\leq$  구

다. 구  $\leq$  문장

단어와 형태소의 관계를 보인 (9가)에서 단어는 형태소와 같거나 크다. 추상적인 개념인 형태론 층위에서 ‘하늘’이라는 형태소가 단어가 되면 구체성을 띤 언어 단위가 된다. 통사론에서 단어는 추상적인 요소이다. (9나)는 형태소가 곧 단어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단어도 문장 속에 들어가면 구라는 실제적 단위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즉 구는 단어와 같거나 단어보다 큰 단위이다.<sup>4)</sup> (8)에서 ‘빨간’은 단어인 동시에 형용사구이다.<sup>5)</sup> (9다)는 통사론 층위에서 구가 곧 문장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즉 문장은 구와 같거나 크다. (9가)는 형태론 영역에서, (9나), (9다)는 통사론 영역에서 단위 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형태론에서 구는 하나의 단어인 합성어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지만 문장 단위를 다루는 통사론에서 구는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단위가 된다. 구는 핵(核, head)과, 그것에 딸려 있는 말들을 한데 묶어 일컫는 말로 사용될 수 있다.<sup>6)</sup> 이러한 구의 정의는 구가 핵을 가지고 있으며 확장이 가능한 단위라는 것을 말해 준다. 구의 특성은 자립형식(free form)이라는 것이다.<sup>7)</sup>

(10) 가. 장미가 많이 피었다.

나. 빨간 장미가 색이 아주 예쁘게 피었다.

(10가)에서 자립형식인 ‘장미가’, ‘많이’, ‘피었다’는 각각 명사구, 부사구, 동사구가 된다. (10나)에서도 ‘빨간’, ‘장미가’, ‘색이’, ‘아주’, ‘예쁘게’, ‘피었다’가 자립형식이므로 각각 형용사구, 명사구, 명사구, 부사구, 형용사구, 동사구가 될 것이다. 구와 구가

4) 단어보다 큰 단위라는 말은 구와 단어의 단위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을 뜻한다기보다 두 개 이상의 단어들이 모여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5) ‘빨간’의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절이 될 수 있다.

6) 1985에 출간된 고등학교 문법책에서 구는 두 개 이상의 어절로 된 문장 단위의 한 가지로, 중심이 되는 말과 그것에 부속되는 말들을 한데 묶어 일컫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구의 정의는 ‘구’가 문장 단위를 넘어서는 부분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놓았다. 김기혁(1985:10)은 이러한 구에 대한 정의가 ‘구’의 구성에 대한 최소한도를 지정한 반면 최대한도를 지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무한확대의 가능성을 가진다고 보았다. 문장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단어이지만 단어가 실제 문장에 들어가 쓰이면 구 단위가 되는 것이다.

7) 구 중에서 최소자립형식(minimal free form)은 단어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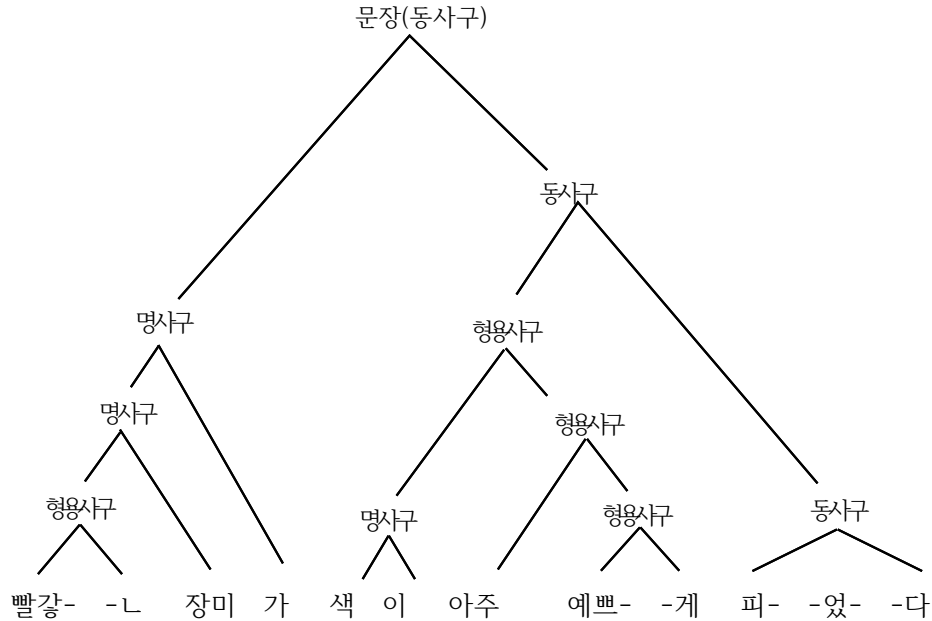
결합된 구성은 다시 구가 될 수 있다. ‘빨간 장미’는 어떠한 단위로 포착할 수 있는가? ‘빨간 장미’의 핵(head)은 ‘빨간’이 아니라 ‘장미’이다. 그러므로 ‘빨간 장미’는 명사구로 볼 수 있다. 구가 단어와 같거나 단어보다 큰 단위라는 정의는 조사 ‘가’가 ‘빨간 장미’뿐 아니라 (10가)와 같이 ‘장미’에도 결합될 수 있다는 사실을 포착해 준다.<sup>#4#</sup> 체언에 격조사가 결합된 형식을 명사구로 보는 것은 격조사가 생략될 수 있는 특성까지 고려한 것이다. 격조사뿐 아니라 체언에 보조사가 결합된 구의 경우도 명사구가 된다. 조사가 생략된 구나 체언에 조사가 결합된 것들을 모두 명사구로 볼 수 있다.<sup>8)</sup>

‘빨간 장미가’뿐 아니라 ‘아주 예쁘게’, ‘색이 아주 예쁘게’, ‘색이 아주 예쁘게 피었다’ 등도 핵이 있고 그것에 딸린 말들을 묶은 것이므로 구가 될 수 있다. 즉 문장 (1)을 분석한 (5)의 [ ]의 단위는 모두 구가 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문장 (1) 전체는 ‘피었다’를 핵으로 하는 동사구로 분석할 수도 있다. 동사구나 형용사구 등 용언구와 문장의 차이는 문말 억양의 존재 여부가 된다.<sup>9)</sup> (5)를 나무그림으로 보이면 다음의 (11)과 같다.

8) 체언에는 명사뿐 아니라 수사나 대명사도 있다. 명사구(Noun Phrase)라는 용어는 명사 자리에 수사나 대명사가 온 것까지를 포함한 것이다. 이를 체언구라고 할 수 있지만 체언이나 용언은 한국어 문법 기술에서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명사뿐 아니라 수사, 대명사 등 체언이 이루는 구를 지칭할 때 일반언어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명사구라는 용어를 선택하기로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동사구와 형용사구를 용언구 대신에 동사구 혹은 형용사구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는 것도 일반언어학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9) 입말에서의 문말 억양은 글말에서는 문장 부호 사용으로 확인할 수 있다. 동사구나 형용사구는 주어가 전제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절이나 문장이 될 수 있다. 절이라는 것은 후술하겠지만 문장의 기본 단위가 아니라 겹문장에서 나타나는 동사구나 형용사구들을 구별하여 부르는 용어이다. 그러므로 절이 구보다 큰 단위가 될 수 없다. 동사구나 형용사구에 문말 억양이 없거나 문장 부호가 사용되면 문장이 되는 것이다. 문말 억양에 대하여서는 음운론 ‘억양’ 부분을 기술할 것. 음운론 기술의 ‘문말 억양’의 정의를 가져 오면 다음과 같다. “억양구의 음높이 유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발화 마지막 억양구의 끝 음절에서 실현되는 음높이의 유형이다. 이 자리의 억양이 어떻게 실현되는가에 따라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과 같은 문장의 종결 유형이 달라지며, 화자의 다양한 태도와 감정을 청자에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위치가 문장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억양을 문말 억양이라고 부른다.”

(11)



#### 4. 절(節, clause)#5#

절은 구 중에서 주어와 서술어가 갖추어진 것을 말한다.#6# 절은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라기보다 주술 관계를 가진 구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문장 (1)에서 동사구와 형용사구는 ‘빨간’, ‘예쁘게’, ‘피었다’인데 이러한 용언구는 기본적으로 주어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절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색이 아주 예쁘게’나 ‘빨간 장미가 피었다’와 같이 절 안에 가시적으로 주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빨간’처럼 주어가 생략된 절이 있을 수 있다. (1)에서 찾을 수 있는 절은 다음의 (12)와 같다.

(12) 가. 빨간(관형절) ← [장미가 빨간] 장미

나. 색이 아주 예쁘게(부사절)

다. 장미가 피었다.(모절)

(12가)의 관형절과 (12나)의 부사절은 내포절(內包節, 안긴문장)의 일종이다. 이러한 내포절을 안고 있는 절은 (12다)의 ‘장미가 피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이는 모절(母節)이라고 부르는 것이 옳을 것이다.<sup>10)</sup> ‘빨간’에 관형절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빨간’이 뒤에 오는 표제명사 ‘장미’를 수식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 주어가 표제명사와 동일하므로 생략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빨간’은 단어인 동시에 형용사구이며

10) 모문(母文)이라는 용어는 내포절을 안고 있는 문장 전체를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 이러한 이유로 모절(母節)이라는 용어를 선택하기로 한다. 모절이 내포절을 안은 결과로 생긴 문장은 안은문장(내포문)이 된다.

관형절이 된다. 절의 명칭은 용언 어간에 결합되는 어말어미의 종류에 따른 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말어미는 종결어미와 비종결어미로 나누어진다. 비종결어미는 다시 연결어미와 전성어미로 나누어지는데 절은 연결어미가 결합되었느냐, 전성어미가 결합되었느냐에 따라 그 명칭이 달라진다.

(13) 농부들은 비가 내리기를 기다린다.

(13)의 밑줄친 부분은 동사구이며 주어와 서술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로 볼 수 있다. ‘비가 내리기’는 명사형 전성어미 ‘-기’가 결합되었으므로 명사절이다. 동사구라는 명칭은 구성 ‘비가 내리기’의 핵이 동사 ‘내리-’라는 것을 말해 주는 동시에 이러한 동사구의 속성으로 인하여 ‘내리기’가 ‘비가’를 주어로 선택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명사절’이라는 명칭은 ‘비가 내리기’라는 단위가 문장에서 명사와 동일하게 기능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 ‘비가 내리기’를 동사구이면서 명사절로 보는 것은 허용(1999)에서 두 자격법이라고 한 바 있는데 용언구로서의 기능과, 명사절로서 문장(13) 전체에서 목적어의 기능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명사절뿐 아니라 전성어미가 관여하는 관형사절, 부사절 등의 품사의 이름을 딴 절은 문장에서 해당 품사와 동일한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절’의 명칭이 항상 기능에 따라 붙여지는 것은 아니다. 다음의 (14)에서

(14) 가. 산이 높고 물이 많다.

나. 산이 높으니까 물이 많다.

(14가)는 연결어미 ‘-고’로 두 개의 문장이 연결된 것인데, ‘산이 높고’는 선행절, ‘물이 많다’는 후행절이라고 한다. 이러한 명칭은 문장에서의 기능과 관련이 없고 단지 어느 절이 먼저 오느냐를 나타내 줄 뿐이다. 종속적으로 연결된 (14나)의 경우는 앞의 것을 종속절, 뒤의 것을 주절로 부르게 된다. 이러한 절의 명칭은 절이 문장의 구성 단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말해 준다. 그러므로 절은 겹문장을 구성하는 홀문장을 가리킬 때 그 기능이나 순서를 표시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 5. 문장(文章, sentence)

문법의 최소 단위는 형태소이며 최대 단위는 문장이다.<sup>11)</sup> 이처럼 문장은 형태소와 함께 문법 연구의 최소와 최대의 한계선을 긋고 있다. 따라서 문장에 관한 개념 정립 없이 문법의 외연 확정은 생각할 수 없다. 여기서는 문법의 영역 확정을 위해 문장을 뜻매김하고자 한다.#7#

11) ‘문장’은 두 가지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그 첫 번째는 수사학의 용어로서 이때의 ‘문장’은 일상적이고 상식적인 의미의 ‘글’과 통한다. 두 번째로 ‘문장’은 문법 용어로서 문법 연구의 최대 단위를 뜻한다. 이 글은 언어학적 연구물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문법 연구의 최대 단위 ‘문장’에 관해 연구하려고 한다.

전통적으로 문장은 내적인 통일성과 외적인 독립성을 지녀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리고 이때의 내적 통일성은 하나의 통일된 생각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며, 외적 독립성은 다른 언어 표현에 구속되지 않음을 뜻한다. 이러한 전통적인 문장의 정의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여겨진다.<sup>#8#</sup> 이제 이 두 가지 문장의 요건이 현대적으로 어떻게 해석되어야 할지 확인해 보자.

### 5.1. 문장 성립의 필요충분조건은 ‘외적 독립’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특정 표현이 문장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내적으로 통일되고 외적으로 독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내적 통일성이란 의미적 완결성을 뜻하고 외적 독립성은 실제 발화에서 갖는 형식적 자립성을 말한다.

하나의 통일된 생각을 나타내야 한다는 내적 통일성은 문장이 갖추어야 할 필수 조건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문장만이 내적 통일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아래 예문 (15)의 문장 ‘가’와 ‘나’가 의미적 완결성을 갖추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들 예문의 밑줄 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문장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절’ 또한 의미적 완결성을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이들 역시 온전한 주술관계를 가지면서 하나의 통일된 생각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내적 통일성은 문장 성립의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다.

(15) 가. 어머니는 막내아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나. 순희는 남편이 새 집을 장만한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이와는 달리 실제 발화에서 외적 독립성을 지닌 요소들 즉 형식적 자립성을 갖춘 표현들은 자연스럽게 내적 통일성이라는 조건을 만족시키게 된다. 왜냐하면 인간의 실제 발화가 하나의 통일된 생각 없이 독립적으로 표현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적 독립성은 문장이 성립하는 데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 5.2. ‘외적 독립성’의 확인과 문장의 규정

특정 표현이 실제 발화에서 여타 표현에 구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일 경우 이들 표현에는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등 이른바 종결의 문장 부호가 붙는다. 그런데 이들 부호는 문자일 뿐 언어 그 자체는 아니다. 또 문장 종결을 뜻하는 종결어미들 역시 문장 성립의 필수 요건으로 생각될 수는 없다. 아래 (16나)와 (17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감탄사 및 부사만으로도 각각 한 문장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16) 가. 치우긴 치운 거야?

나. 그럼.

(17) 가. 나 그 사람하고 결혼하기로 했어.

나. 정말?

하나의 문장이라면 주성분을 모든 갖춘 온전한 문장에서부터 위와 같이 대부분의 주성분이 생략된 경우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장이 하나의 문말 억양을 수반한다. 예를 들어 위 예문 (16)과 (17)의 문장들은 아래 (16')과 (17')에서 볼 수 있듯이 각각 한 번씩의 문말 억양을 취하게 마련이다.

(16)' 가. 치우긴 치운 거야 ↗

나. 그럼 ↘↗

(17)' 가. 나 그 사람하고 결혼하기로 했어 ↘

나. 벌써 ↗

주어와 서술어를 갖춘 절에서는 위와 같은 문말 억양을 찾아 볼 수 없는 반면, 동일 화자의 발화라 하더라도 아래 예문에서와 같이 두 개 이상의 문장이라면 문말 억양도 문장의 숫자만큼 발견된다. 또 문말 억양은 문장 사이의 경계를 나타내기도 한다.

(18) 가. 그 놈이 야간 도주를 했던 말이야? 그게 정말이야?

나. 난 너를 그렇게 안 봤다. 정말 그렇게 보지 않았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18)' 가. 그 놈이 야간 도주를 했던 말이야 ↗ 그게 정말이야 ↗

나. 난 너를 그렇게 안 봤다 → 정말 그렇게 보지 않았어 →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

이러한 현상들은 문말 억양과 문장 사이에 일대일 대응 관계가 성립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문말 억양은 문장이 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되며, 가장 분명한 문장 분석의 수단이 될 수 있다.

결국 문장은 문말 억양과 문장부호에 의해 종결된 단위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문장의 정의 안에서 주어와 서술어 등 필요한 문장 성분들을 두루 갖춘 문장뿐 아니라 앞의 예문 (16), (17)과 같이 많은 성분들이 결여되거나 생략된 표현들까지도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된다.

### 5.3. 통사론의 대상로서의 '문장'의 범위

앞에서 정의한 문장은 문장의 외연으로서는 최대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장의 정의는 주술 관계를 갖추지 못한 소형문(minor sentence)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문장도 포함할 수 있다.<sup>12)</sup>

(19) 가. 나는 짜장면이다.

나. 물은 셀프입니다.

(19)와 같은 문장에서 ‘나는’과 ‘짜장면이다’나 ‘물은’과 ‘셀프입니다’는 주어와 서술어 관계를 맺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문말 억양에 의해 종결되었기 때문에 문장으로 볼 수 있다. 한국어에는 (19)와 같이 주술 관계를 상징할 수 없는 문장들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장들을 문장이 아니라고 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소형문을 포함해서 주술관계를 찾기 어려운 문장들은 특정한 맥락에서 사용될 때만이 구체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20) 가. (중국집에서) 오늘 점심에 뭐 먹을 거니?

나. 나는 짜장면이다.

(21) 가. 너는 자장면과 짜장면 중 어느 표기를 주로 사용하니?

나. 나는 짜장면이다.

(20)과 (21)에서 ‘나는 짜장면이다’라는 문장은 각각 다른 해석을 가진다. 비슷해 보이지만 주술 관계를 상징할 수 있는 ‘나는 학생이다’라는 문장이 문맥에 상관없이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과 비교할 때 ‘나는 짜장면이다’는 문장의 의미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사론은 문장의 내적 구조에 관한 연구이기 때문에 문장이 최대 단위가 된다. 그러므로 (19)와 같이 문장을 넘어서 구체적인 맥락이 있어야 해석이 가능한 문장이나 소형문과 같이 주술 관계가 상징되지 않은 문장들은 통사론의 대상에서 제외하게 된다.<sup>13)</sup> 이러한 문장들도 넓은 의미의 문장으로 볼 수 있지만 이들의 구성이나 해석에 관해서는 담화론에서 다루게 된다.

## 참고 문헌

강창석(2008), 「국어의 문장구조에 대하여」, 『인문학지』 37, 충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26.

강창석(2013), 「국어 문장의 구조와 특징」, 『개신어문연구』 37, 개신어문학회, 5-39.

고영근·구본관(2008),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교육인적자원부(2002), 『고등학교 문법』.

---

12) 김정대(2003:71-72)에서 Bloomfield는 주어-서술어 관계에 있는 문장을 전형문(full sentence), 그런 관계에 놓여 있지 않은 문장을 불구문(minor sentence)이라고 불렀고, Bloch·Trager에서는 이를 각각 완형문(major sentence)과 불구문(minor sentence)이라고 불렀다고 하였다. 이 글에서는 불구문 대신 소형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13) ‘나는 짜장면이다’는 ‘주제어(topic)-평언(comment)’ 구조 등으로 분석해야 하는데 이는 통사론 영역에서 다룰 개념은 아닌 것으로 본다. 이러한 문장에 대한 해석은 담화론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 김기혁(1985), 「문장 구성에서 단위의 문제」, 『연세어문학』 18,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5-32.
- 김기혁(1998), 「국어 문법의 단위」, 『논문집』 9, 상지대학교, 157-180.
- 김동식(2002), 「국어 문장의 기본 어순에 관하여: 어순 판별 기준의 설정을 위하여」, 『한신인문학연구』 3, 한신대학교 한신인문학연구소, 5-27.
- 남기심(1985), 「학교문법에 나타나는 문법 단위 ‘어절’(語節)에 대하여」, 『연세교육학』 26,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1-9.
- 남기심(2001), 『현대국어통사론』, 태학사.
- 남기심·고영근(1985/2011),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 문교부(1985), 『고등학교 문법』
- 서정욱(2001), 「<표준 국어문법론>의 “구(句)/절(節)” 개념과 중고등학교 국어교재」, 『한국어문연구』 13, 한국어문연구학회, 11-20.
- 서태룡(1996), 「국어 문법 단위의 통사 범주」, 『한국어문학연구』 31, 동악어문학회, 1-27.
- 신승용(2011), 「문법 교육에서 구(句)와 어(語)의 문제」, 『국어교육연구』 49, 국어교육학회, 153-178.
- 이관규(2002), 「국어의 문장 구성에 대한 연구와 전망」, 『한국어학』 16, 한국어학회, 105-147.
- 이기갑(1990), 「한국어의 어절 구조」, 『언어연구』 2, 서울대학교 언어연구회, 1-10.
- 이선웅·이은섭(2013), 「이론문법의 관점에서 본 학교문법」, 『국어국문학』 163, 국어국문학회, 249-277.
- 이희자(2002), 「‘의사소통의 최소단위’로서의 ‘발화문’과 ‘문장」, 『텍스트언어학』 13, 텍스트언어학회, 343-366.
- 임동훈(2011), 「한국어의 문장 유형과 용법」, 『국어학』 60, 국어학회, 323-359.
- 임홍빈·장소원(1995), 『국어문법론·I』,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 주세형(2004), 「학교 문법 다시 쓰기-언어 단위 문제를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20, 국어교육학회, 461-498.
- 최규수(2007), 「학교 문법의 문장의 성분과 짜임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글』 275, 한글학회, 165-192.
- 최웅환(2001), 「국어의 문장유형과 구조 기술」, 『문학과 언어』 23, 문학과언어연구회, 143-162.
- 최웅환(2010), 「국어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 『언어과학연구』 54, 언어과학회, 275-294.
- 최호철(1995), 「국어의 문법 단위와 문법 교육」, 『어문논집』 34, 안암어문학회, 637-657.
- 한정환(2009), 「단어를 다시 정의해야 하는 시급한 이유들」, 『언어』 34, 한국언어학회, 761-788.

한정환(2011), 「통사 단위 단어」, 『국어학』 60, 국어학회, 211-232.

허웅(1983), 『국어학』, 샘문화사.

Lyons, John(1977), *Semantics*1, 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 **#국교# <문장의 구성단위로서의 어절의 문제>** 학교문법에서는 어절이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라고 보고 있고 두 개 이상의 어절이 모여 하나의 단어와 동등한 역할을 하는 것을 구(句)라고 한다. 절(節) 역시 두 개 이상의 어절이 모여 하나의 의미 단위를 이룬다는 점에서 구와 비슷하나 주어와 서술어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구와 구별된다. 다시 말해서 학교문법에서는 단어가 모여 어절이 되고 어절이 모여 구나 절이 되며 이러한 단위들이 문장을 이룬다고 본다. 즉 단어, 어절, 구, 절, 문장은 작은 단위에서 큰 단위의 순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문장은 선적인 배열 순서만으로 규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평면적인 정의는 문장의 구조를 설명하지 못한다.

#2# **#국교# #생활# <어절의 효용성>** 어절은 문장에서 띄어쓰기의 단위이고 언어학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에게는 가장 손쉽게 포착되는 단위이다. 어절이 문장의 구조를 설명하는 문법단위로 적당하지는 않지만 국어교육문법이나 생활문법에서는 유용한 단위가 될 수 있다.

#3# **#이론# <어절의 문제점>** 남기심(1985)은 5개 문법 교과서에 설정되어 있는 ‘어절’이 어떤 성질의 문법 단위인지, 어절의 정의는 바르게 되어 있으며 그 설정은 필요한 것인지를 검토했다. 남기심(1985)에서 5개 문법 교과서의 어절에 관한 정의를 요약정리한 것에 따르면 첫째로, 어절은 문장 성분의 단위, 문장을 구성하는 단위, 문장을 직접 구성하는 단위, 문장의 단위, 자립시켜 말을 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의 부분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둘째로, 어절은 대체로 띄어쓰기의 단위와 일치한다고 설명하고 있었으며, 셋째로, 어절은 말할 때 꼭 붙여서 발음하며, 그 사이에 휴지를 둘 수 없는 말의 단위, 읽을 때 독립시켜 읽을 수 있는 앞과 뒤에 휴지가 올 수 있는 단위로 규정하고 있었다. 넷째로, 어절은 체언에 조사가 붙은 것, 용언에 어미가 붙은 것, 관형사, 부사, 감탄사가 각기 어절을 이루고, 불완전 명사는 그 위에 관형어와 함께, 그리고 보조용언은 그 앞에 오는 본용언과 함께 어절을 이루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남기심(1985)은 어절을 문장 성분의 단위로 규정하면 띄어쓰기의 단위와 문장 성분의 단위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다. 또 조사의 결합에 있어서 조사가 하나의 어절보다 더 큰 단위에 결합할 경우를 어절과 어떻게 조화시켜 설명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남기심(1985)은 국어에서 구속형식인 조사를 단어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자립형식의 개념은 국어에서 단어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는 아무 쓸모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소자립형식과 동일한 개념인 ‘어절’도 불필요하다고 보았다. 요컨대 어절은 통사론을 위한, 통사론 층위에서 필요한 개념은 아니며, ‘어절’은 breath group을 이루는 것으로 문법에서보다는 음운론에서 더 필요한 개념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어절은 통사론보다 음운론에서 더 필요한 단위일 수 있다. 어절은 띄어쓰기와 일치하지만 의존명사 구성이나 보조용언 구성 등 일부의 구성과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4# **#이론# <조사구와 어미구의 설정 문제>** 이론적으로 체언에 조사가 결합된 형태를 조사구라 하고 용언에 어미가 결합된 형태를 어미구라고 할 수 있으나 이렇게 되면 지나치게 이론적인 측면이 강하여 학습자나 대중들의 문법적인 지식을 지나치게 요구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론적으로는 조사구와 어미구를 설정하는 것이 설명력이 있기는 하지만 이에 관해서는 학계에서도 아직 논란 중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조사와 어미가 결합된 형태도 실질형태소를 핵으로 보아 체언구나 용언구로 설정한다.

#5# **#이론# <구와 절의 개념 문제>** 김기혁(1985:6)에 의하면 우리말본에 규정되어 있는 마디와 이은말의 구별은 철저히 표면에 나타난 문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렇게 표면적으로 어떠한 문장상의 필요성분이 있느냐 없느냐에 기준을 두었기 때문에 ‘문장’, ‘절’, ‘구’의 구별이 명확하다. 즉 문장은 주어 서술어를 갖추고 따로선 것을 뜻하고 ‘절’은 문장과 같이 주어 서술어를 갖추었으나 따로 서진 못하고 문장 안에서 특정한 자격을 갖고 그 문장의 일부가 되는 것이고 ‘구’는 주어 서술어의 짜임을 갖추지 못한 단어들의 모임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김기혁(1985:6)은 이러한 정의가 표면 현상의 중시에 따라 연관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의 상호관련성을 무시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즉 생략된 문장 성분이 있을 경우에 생략을 인정하면 동일한 문장 성분을 두고 구와 절의 구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기혁(1985:7)에 의하면 허웅(1983:265-276)에서는 심층의 인정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허웅(1983)에서는 우리말본과 달리 적절한 조건에 의해서 성분이 줄어 없어진 경우에도 ‘마디’로 다루고 있다.

#6# **#학교# <학교문법에서의 구와 절의 정의>** 이선웅·이은섭(2013)은 한국어 이론문법의 관점에서 학교문법 기술의 문제점 전반을 파헤치고 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선웅·이은섭(2013:254)은 먼저 ‘구’의 개념을 살피며 신승용(2011)의 비판, 곧 ‘합성어’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받아들인다면 어떤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다. 여기서는 정답이 ‘통사적 구성’이 되어야 하나, 학교문법에서는 ‘통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것을 그대로 쓸 수는 없고, 그 대안으로 ‘단어의 어울림’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이 표현을 사용하면 ‘한 단어’로서의 합성어와 ‘단어의 어울림’으로서의 통사적 구성의 개념을 대구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절’에 대해서 이선웅·이은섭(2013:256)은 학교문법에서 ‘절’을 ‘문장’보다 작은 단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전통문법에서 대개 절을 문장의 부분인 것으로 기술하여 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러한 처리의 장점은 복문을 기술할 경우에 문장의 한 부분인 절을 문장과 구분함으로써 복문에서의 절 단위를 매우 깔끔하게 기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절’을 문장의 한 부분

으로 기술한다면, 동일한 구성이 본질적으로 같은 기능을 하지만 포유문에서 절로 들어가 있는 경우(내가 자란 부산은 덥다)와 독립된 문장으로 제시된 경우(부산은 덥다)에 둘의 공통점을 통사적으로 포착해 줄 수 없다는 것을 한계로 지적했다. 따라서 이선웅·이은섭(2013:257)은 절이 개념적으로 반드시 문장의 일부여야 한다는 조건을 떼어내는 입장을 취했다.

주세형(2004:475)은 구와 절의 개념이 문장의 구조와 차별되는 점만을 부각하는 기존의 정의를 극복하고 모어 화자가 인식하는 해당 단위의 기능성에 주목하여 재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절과 대비하여 주어·서술어가 실현되지 않은 것이라고 규정한 기존의 구의 개념은 학습자에게 ‘구’가 ‘절문장’과 달리 가지는 차이점을 명제적 지식으로 던져 주는 것 이상의 생산적 문법 지식을 제공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주세형(2004:480)은 절과 문장처럼 ‘구’도 마찬가지로 담화 내에서 고유의 기능을 발휘하는데, 숙련된 필자는 구의 기능성을 인식하고 정보 구조에 따라 이를 문법 구조로 표상한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필자에게는 의도에 따라 일련의 사태를 조직하는 데 있어 언어 단위 ‘구, 절, 문장’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구, 절, 문장’ 단위를 숙련된 필자가 어떻게 ‘기능적으로 다루는지’에 따라 단위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주세형 2004:480).

최규수(2007:170)는 문법 단위들을 정의의 기준(의미, 구성, 표지/형식, 기능, 분포)에 따라 정리하고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째는 문장과 절이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가지는 데 비하여, 구는 그러한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는데 문장도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문장과 절이 주어와 서술어를 가지게 되면 당연히 ‘둘 이상의 어절’이 모인 것이 되는데, 정의에서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셋째는 절에 관한 정의에서 표지에 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규수(2007:175)는 정의의 기준을 수정하여 절에는 일반적으로 절의 표지가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어야 함을 보였다.

#7# **#이론# <문장의 범위: 소형문>** ‘불이야!’, ‘도둑이야!’ 등 주술 관계를 상정할 수 없는 문장을 소형문(minor sentence)이라고 한다. 소형문은 ‘정말이야?’나 ‘벌써?’처럼 문장성분이 생략된 문장과 달리 주어 등의 문장성분을 복원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문장으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가 논란이 된다. 소형문은 그 수가 많지 않고 대부분 고정적인 표현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문장의 범위에 포함하기 위하여 주술 관계와 관련된 문장의 정의를 바꿀 필요는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소형문은 문장의 특수한 유형으로 보되 통사론이 아니라 담화론에서 좀더 상세하게 다룰 필요성이 있다.

#8# **#이론# <문장의 정의>** 임흥빈·장소원(1995:194-195)에서는 전통적인 정의에 의하면 문장이란 ‘완전한 생각’을 나타내는 발화 또는 담화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정의와 관련해 문장이 ‘완전한 생각’을 나타낸다고 보는 것은 결함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문장은 원칙적으로 단어들이 결합되어 이룬 자립적인 통사적 구성으로, 서술어(또는 문장을 이루는 구성의 핵)가 요구하는 성분을 완전히 갖추어야 하며, 그 의미 관련이 온전해야 함과 동시에, 발화 상황과 관련하여 화자가 의도하는 의미 내용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의하였다.(임흥빈·장소원 1995:195) 김태엽(2008:133)에서는 문장을 낱말이 모여 하나의 완결된 생각이나 감정을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주어와 서술어를 가지고 있고 형식적으로 자립하는 언어 단위라고 설명한다. 문장은 여러 개의 작은 언어 단위가 모여 구성되는데, 의미를 가진 최소의 언어 단위인 형태소가 모여 형태론적 구성을 이루고, 형태론적 구성이 모여 통사론적 구성을 이루며, 통사론적 구성이 모여 문장을 이룬다고 보고 있다. 이익섭(1986/2011:145)은 문장이 어떤 더 큰 구성의 일부가 아닌, 구성 중 가장 큰 구성이며, 언어 형식 중 가장 큰 언어 형식이라고 설명한다. 문법 단위 중에서도 가장 큰 문법 단위로, 주어와 서술어를 갖추고 있는 것이 원칙이나 때로 이런 것을 생략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문장의 특성을 통하여 문장의 정의를 내리고자 한 연구는 김정대(2003), 장요한(2007) 등이 있다. 김정대(2003:65)에 의하면 ‘문장’이라는 말은 보통 두 가지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하나는 문자 언어로 표현된 수사학적 단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영어의 composition과 독일어의 Aufsatz에 해당하는 개념이고, 다른 하나는 음성 언어나 문자 언어로 표현된 문법학의 단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영어의 sentence와 독일어 Satz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김정대(2003)는 sentence를 대상으로 문장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했다. 김정대(2003)는 우선 전통문법에서와 기술언어학, 변형문법에서 각각 문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설명했다. 문장에 대한 전통적 정의를 보면 sentence의 어원은 라틴어의 sententia로 거슬러 올라가고, sententia는 ‘사고 방식, 의견, 의미’ 등의 뜻을 갖는 말로서 원래 논리학의 용어였던 것이 문법 용어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전통적으로 문장의 개념에, 문장은 곧 명제(proposition)라는 논리학적 측면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는 것은 이런 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명제에는 반드시 주사(subject)와 빈사(predicate)가 있어야 하듯이, 문장은 주사·빈사에 대응하는 개념인 주어와 서술어의 형식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문장에 대한 전통 문법학자들의 생각이었다. 전통문법에서 문장을 설명하는 “문장이란 일련의 단어가 모여 하나의 완결된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정의는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다. 그러나 문장을 명제와 관련지어 정의해 온 전통적인 생각에는 명제가 같으면 같은 문장인지, 의미적 완결성과 형식적 자립성을 갖추었지만 진리치를 갖지 못하는 표현은 문장이 아닌지의 두 가지 문제가 있다. 결국 명제를 중심으로 하여 완결된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 문장이라는 전통적인 정의에는 결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김정대 2003:68-70). 문장에 대한 기술언어학적 정의는 의미와 관련 있는 심리주의(mentalism)를 배제하고 순수하게 형식적 측면에서 문장을 정의하려 했다는 특징이 있다. Bloomfield의 “문장이란 보다 더 큰 언어 형식에 있는 어떤 문법적 구성에 포함되지 않는 독립된 언어 형식이다.”라는 말은 이런 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는 문장이란 그 자체가 완결된 구성으로서 다른 구성의 구성 성분이 되지 않

는 단위라는 의미이다. 기술언어학자들의 정의는 주어-서술어-목적어 등 필수 성분을 온전히 갖춘 표현도 더 큰 구성 속에 쓰이면 문장이 될 수 없지만, 단어 하나로 된 표현도 더 큰 구성 속에 쓰이지 않았다면 문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구체화시켜 주기도 한다.

변형 문법에서는 문장을 정의하려는 적극적인 시도를 찾기가 어렵다. 문장을 정의하기보다는 문장은 당연히 주어져 있는 존재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생성해 내는 절차를 발견하는 데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Chomsky가 “언어는 기본 요소의 유한 집합으로 구성되고 길이가 유한한 문장의 (유한 또는 무한의) 집합”이라고 말한 부분을 뒤집어 보면, “문장은 기본 요소의 유한 집합으로 구성되고 길이가 유한한 언어 단위이다.” 정도로 문장을 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김정대 2003:72-73).

장요한(2007)에서도 문장의 확장을 다루며 문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다. 장요한(2007:193-194)은 문장은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언어형식이며, 독립적인 단위로서 단어와 구, 절과 함께 문법단위로 사용되고 있지만, 문장의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 않음을 언급하며 김정대(2003)와 마찬가지로 문장의 정의를 전통문법학적 시각과 기술언어학적 시각에서 제시하고 있다. 전통문법학에서는 언어를 언어의 기호와 내용의 관계로 발전시켜 사고하고 이런 사고가 문장의 정의에도 반영되어 문장을 형식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에서 정의하고 있다. 기술언어학에서는 문장의 형식적 측면만을 고려하여 문장을 독립된 언어 형식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장요한(2007)은 이런 정의가 온전치 않음을 지적하고 문장이 무엇인지 정의를 하기 위해 국어 문장의 특성을 음운론적 특성, 통사론적 특성, 의미, 화용론적 특성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장요한 2007:197).

김정대(2003)와 장요한(2007)을 통해서 볼 때 기존의 문장에 대한 정의는 주로 전통문법이나 기술언어학의 정의를 따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러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기존의 문장에 대한 정의는 문장을 온전히 정의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 ii. 단문의 구조: 문장 성분

- ▶ 핵심어(keywords) : 문장 성분, 서술어, 주어, 목적어, 보어, 부사어, 관형어, 독립어
- ▶ 관련 항목 : 문장을 이루는 문법 단위, 문장의 유형, 복문의 구조, 격조사
- ▶ 표준화 대상 문법 용어 : 단문(홀문장), 복문(겹문장), 안긴문장, 모문, 표제명사

### 1. 문장 성분의 개념과 종류

한 언어로 만들어 낼 수 있는 문장의 수는 무한대이다. 그러나 무한대의 문장은 유한한 수의 기본적인 단위로 만들어진다. 유한한 수의 언어 단위는 음운일 수도 있고 형태소나 단어일 수도 있다. 문장의 구조에 초점을 맞추어 볼 때 문장은, 문장 안에서 일정한 기능을 담당하는 몇 가지의 단위(문장 성분)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의 (1)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자.

(1) 소녀가 허수아비 줄을 잡더니 흔들어 댕다. 허수아비가 자꾸 우쭐거리며 춤을 춘다. 소녀의 왼쪽 볼에 살포시 보조개가 패었다. (황순원 <소나기>의 일부)

(1)은 세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장의 경우 그 내부에 주술관계를 갖춘 구성이 다시 포함되어 있다. (1)의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처럼 두 개 이상의 단문(홀문장)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문장을 복문(겹문장)이라고 하는데 문장의 구조를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단문(홀문장)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을 단문(홀문장)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 (2) 가. 소녀가 허수아비 줄을 잡는다.  
나. 소녀가 허수아비 줄을 흔들어 댕다.  
다. 허수아비가 자꾸 우쭐거린다.  
라. 허수아비가 춤을 춘다.  
마. 소녀의 왼쪽 볼에 살포시 보조개가 패었다.

(2가)~(2마)의 문장들의 밑줄 친 부분은 한국어 문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성분인 서술어이다. 한국어의 문장은 서술어와, 서술어가 요구하는 문장 성분을 기본으로 하여 구성된다. (2가)의 서술어인 ‘잡는다’는 잡는 주체와 잡는 대상이 필요하다. 문장 (2가)는 잡는 주체인 ‘소녀가’와 잡는 대상인 ‘허수아비 줄을’, 그리고 ‘잡는다’로 이루어져 있다. 문장 (2나)도 (2가)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밑줄 친 ‘흔들어 댕다’는 ‘흔들다’와 ‘댄다’ 두 개의 서술어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2나)에서 ‘댄다’는 ‘소녀가 허수아비 줄을 흔들다’라는 문장에 의미를 더해 줄 뿐 ‘소녀가’나 ‘허수아

비 줄을'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2나)의 서술어는 '흔들어 댄다' 전체로 볼 수 있다. (2다)의 밑줄 친 부분인 '우쭐거린다'는 (2가)나 (2나)의 서술어처럼 동작의 대상이 필요하지는 않다. (2다)의 '자꾸'는 '우쭐거린다'를 수식하지만 생략되어도 문장의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성분이다. (2라)의 구조도 (2가), (2나)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2마)의 밑줄 친 부분 '패었다'는 서술어가 의미하는 동작의 주체인 '보조개가'뿐 아니라 '소녀의 왼쪽 볼에'라는 장소를 나타내는 성분이 하나 더 필요하다.

(2가), (2나)의 '소녀가', (2다), (2라)의 '허수아비가', (2마)의 '보조개가' 등은 문장에서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를 나타내는 주어의 기능을 하는 부분이다. (2)의 밑줄 친 부분은 주어의 동작, 상태 등을 풀이하는 기능을 하는 서술어이다. 서술어에 따라 '허수아비 줄을', '춤을'과 같은 동작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 성분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2다)의 '자꾸'와 같이 서술어의 의미를 수식하거나 '소녀의 왼쪽 볼에'처럼 장소를 나타내는 성분도 있다. (2)에서 나타난 '서술어, 주어, 목적어, 부사어' 이외에도 한국어에는 문장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문장 성분들이 더 나타날 수 있다.

(3) 가. 소년은 어른이 되었다.

나. "여기 참외, 맛있니?"

"그럼, 참외 맛도 좋지만 수박 맛은 더 좋다."

(3가)의 밑줄 친 부분은 서술어 '되었다'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으로 이러한 것들을 보어라 한다. (3나)의 밑줄 친 부분은 문장의 다른 성분들과 관련을 갖지 않는 부분으로 독립어라고 한다.

이렇게 주어진 문장은 문장에서 일정한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문장 성분들로 분석할 수 있다. 한국어에 존재하는 문장은 서술어가 몇 개의 문장 성분들을 요구하느냐에 따라 몇 가지 형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sup>#1#</sup>. 이러한 문장의 기본적인 형식을 기본 문형이라 한다. 문장 성분은 기본 문형에 포함되는 성분들과, 기본 문형의 설정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성분으로도 나누어 볼 수 있다.

문장 성분은 문장의 주된 골격을 이루는 주성분, 주로 주성분의 내용을 수식하는 부속 성분, 다른 문장 성분과 관계를 맺지 않는 독립 성분으로 나뉘어진다. 주성분에는 서술어, 주어, 목적어, 보어가 있고 부속 성분으로 부사어, 관형어가 있으며 독립 성분에는 독립어가 있다. 그리고 체언 성분의 경우 그 자격을 표시하는 격조사인 주격 조사, 목적격 조사, 보격 조사, 부사격 조사, 등에 의해 그 성분이 표시되는 경우가 많다.

## 2. 문장 성분의 분석

문장 성분 중 문장의 핵심이 되는 부분은 서술어이다. 문장 성분은 서술어와 직접

적으로 관계를 맺는 1차 성분과, 서술어와 직접 관계를 맺지 않는 2차 성분으로 다시 나눌 수 있다. 문장 성분 중 주어, 목적어, 보어, 부사어는 1차 성분이고 관형어와 독립어는 2차 성분이라고 할 수 있다. 문장 성분 분석에서는 1차 성분을 먼저 분석한 후 2차 성분을 분석하게 된다.

(4) 철수의 동생이 내 동생보다 밥을 많이 먹는다.

문장 (4)를 분석할 때 먼저 1차 성분인 주성분을 먼저 분석한 후 2차 성분을 분석한다.

(5) 문장 성분 분석의 예

가. 1차 성분 분석

철수의 동생이 - 주어

내 동생보다 - 부사어

밥을 - 목적어

많이 - 부사어

먹는다 - 서술어

나. 2차 성분 분석

철수의 - 관형어

내 - 관형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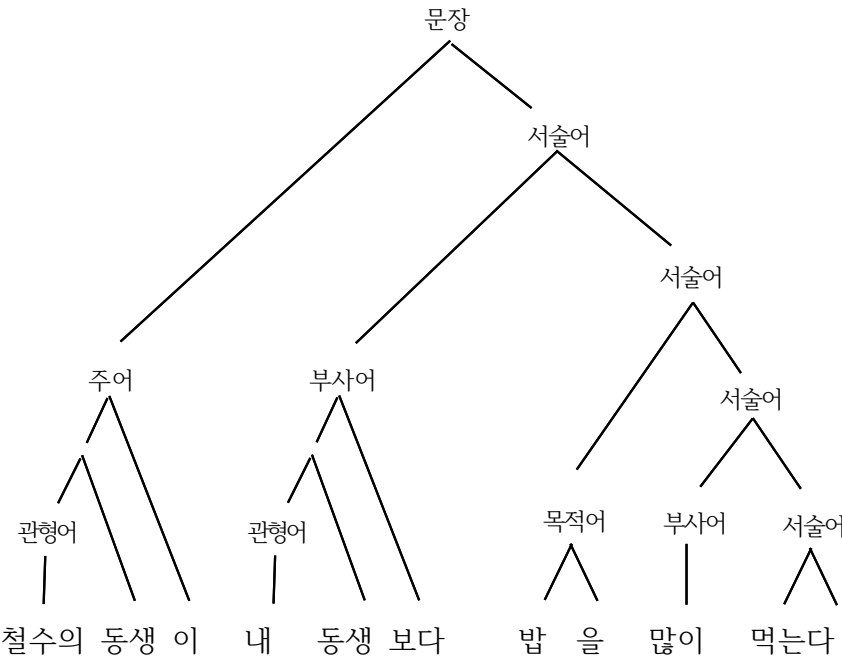
문장 성분을 분석한 결과, 문장 (4)의 구조를 다음의 (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6) [[[철수의]<sub>관형어</sub> 동생]이]<sub>주어</sub> [[[내]<sub>관형어</sub> 동생]보다]<sub>부사어</sub> [밥을]<sub>목적어</sub> [많이]<sub>부사어</sub> [먹는다]<sub>서술어</sub>

문장 (4)의 주어는 ‘철수의 동생’에 주어를 표시하는 격조사 ‘이/가’가 결합된 ‘철수의 동생이’이며 ‘내 동생’에 조사 ‘보다’가 붙어 부사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 ‘밥을’, ‘많이’, ‘먹는다’는 각각 목적어, 부사어, 서술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철수의’와 ‘내’는 서술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2차적인 분석 대상이 되는데 ‘철수의’와 ‘내’는 각각 뒤에 오는 체언을 수식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관형어가 된다. 관형어와 마찬가지로 부사어도 다른 성분을 수식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므로 2차적 성분으로 볼 수도 있지만 관형어가 체언하고만 관련을 맺는 것과 달리 부사어는 서술어를 수식하므로 서술어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는 성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비록 부사어가 수식 성분이나 부속 성분으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부사어 중에는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부사어들이 있으므로 부사어는 1차적 성분으로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다.

위 (6)의 문장 구조를 구성 요소들 사이의 계층구조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파악할 수도 있다.

(7)



### 3. 문장 성분

#### 3.1 주성분

##### 3.1.1 주어

##### 3.1.1.1. 주어의 성립

주어는 아래 (8)의 ‘가-다’에서와 같이 서술어가 표현하는 동작, 상태, 지정의 주체를 나타내는 성분으로, 체언 및 체언 자격을 갖는 요소에 주격 조사가 결합해 이루어짐이 보통이다. (8가)~(8다)에서는 체언이 주어로 사용되었고, (8라)에서는 체언에 상응하는 요소인 명사절이 주어가 되고 있다.

- (8) 가. 순희 어머니가 병원에 가셨다.(동작)
- 나. 순희 어머니가 아프시다.(상태)
- 다. 순희 어머니가 환자시다.(지정)
- 라. 순희도 입원했음이 밝혀졌다.(명사절 주어)

#### 3.1.1.2 주격 조사

특정 체언이 주어임을 표시하는 조사가 주격 조사이다. 국어의 주격 조사에는 위 예문 (8)에 사용된 ‘이/가’ 외에도 높임을 나타내는 ‘께서’가 더 있으며, ‘에서’ 형태 역시 주격 조사로서의 쓰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9) 가. 할아버지께서 출타하셨다.

나. 우리 학교에서 운동회를 개최했다.

위 예문 (9가)에는 일반적인 주격 조사 ‘이/가’가 아닌 조사 ‘께서’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주어인 ‘할아버지’를 특별히 존대하기 위해서이다. 예문 (9나)의 서술어는 특정 행위를 표현하고 있고 그 주체가 ‘우리 학교’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에서’ 조사가 이어진 ‘우리 학교에서’는 주어이고 ‘에서’는 주격 조사로 이해되는 것이다. 이처럼 ‘에서’가 주어를 표시하는 것은 선행하는 체언이 사람들의 모임인 단체나 조직을 뜻할 경우로 한정된다. 그리고 서술어에도 제약이 있어 아래 (10)에서 볼 수 있듯이 동사가 아닌 경우 올바른 문장을 만들기 어렵다.#2#

(10) 가. \*우리 학교에서 서울에 있다.

나. \*우리 학교에서 참 크다.

#### 3.1.1.3. 주격 조사 및 주어의 생략

‘이/가’ 주격 조사는 맥락을 통해 주술관계가 분명할 경우 생략될 수 있고, 주어 또한 주어에 관한 정보가 잉여적일 때 생략되는 경향이 있다. 예문 (11)과 (12)는 각각 주격 조사 ‘이/가’와 주어의 생략을 보여 준다.

(11) 가. 순희Ø 병원에 갔어.

나. 순희Ø 아프대.

다. 순희Ø 환자야.

(12) A. 엄마 어디 가셨니?

B. 직장에 가셨어요.(주어 생략)

#### 3.1.1.4. 주어의 통사적 특징

주어는 서술어에 결합하는 주제높임 선어말어미 ‘-시-’, 재귀대명사 ‘자기’ 그리고 불가산 명사 등에 이어지는 복수접미사 ‘들’과 어울리는 통사적 특성을 갖는다. 아래

예문 (13)~(15)는 이러한 특징들을 보여 주고 있다.

(13) 가. 김 선생님께서 출근하셨다.

나. \*김 군이 출근하셨다.

(14) 가. 명자는 자기 동생 이야기만 한다.

나. 명자는 명자 동생 이야기만 한다.

(15) 가. 물들 좀 떠오너라.

나. 빨리들 좀 걸어라.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주어가 높임의 대상일 경우 서술어에는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가 결합한다. (13가)가 올바른 문장임에 반해 (13나)가 비문이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14)의 두 예문은 3인칭 주어가 사용될 경우 이와 동일 지시 대상 체언이 이어지면 이 체언이 3인칭 재귀대명사 ‘자기’로 바뀌어야 함을 보여 준다.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14나)의 밑줄 친 두 체언은 그 지시대상이 동일할 수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15)의 두 예문에서는 주어가 2인칭 복수로 파악되는데 이는 수 파악이 가능한 요소가 아닌 ‘물’과 ‘빨리’에 이어진 복수접미사 ‘들’이 주어를 복수화하고 있기 때문이다.<sup>#3#</sup>

### 3.1.1.5. 중주어 구문

우리말에는 하나의 서술어를 가진 구조에 주어 형태가 두 개 이상 출현하는 사례들이 있다. 아래 (16)의 용례들이 바로 이런 경우들이다.<sup>1)</sup>

(16) 가. 토끼가 뿔가 많다.

나. 핸드폰은 삼성 핸드폰이 유명하다.

다.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치아가 좋으시다.

라. 자동차가 100대가 있다.

위 예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16)의 ‘가~다’에서는 앞의 주어 형식과 이어지는 주어 형식이 어떤 의미로든 전체와 부분 관계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라’에서는 이들이 특정 대상과 그 수량을 표시한다. 그런데 이들 문장의 서술어가 하나인 만

1) 한 문장에 주어가 둘 이상 나타난다 하더라도 해당 문장이 복문이라면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복문이란 주술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서술어는 하나밖에 보이지 않는데 주어 형식이 두 번 이상 출현하는 (16)과 같은 경우들로, 이들이 갖는 이러한 특이성 때문에 이들은 특별히 ‘중주어 구문’ 등으로 불려져 왔다. 따라서 ‘중주어 구문’은 복문을 전제로 한 용어법이 아니며 이런 의미에서 이들 구문을 서술절을 가진 복문으로 보는 이 글의 입장과 상치된다고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중주어 구문’은 (16) 유형의 문장들을 일컫는 전통적인 용어법이기에 이러한 전통을 존중하여 여기서도 이 용어법을 사용하기로 한다. 아울러 하나의 단문에 목적어가 둘 이상 나타나는 구문도 이틀에 맞춰 ‘중목적어 구문’으로 부르기로 한다.

큼 이들은 단문으로 여겨지기 쉽다. 그리고 이들이 진정한 의미의 단문이라면 주어 형식을 가진 두 체언을 모두 주어라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들 용례는 주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 해석되고 있다. 첫 번째는 주어 형태를 가진 두 성분 중 문두 성분은 주어가 아닌 이른바 주제어로 파악하는 방법이며, 두 번째는 이들을 단문이 아닌 복문으로 이해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주제어 설정의 문제 때문에 이들 예문은 일반적으로 서술절을 갖는 복문으로 여겨진다. 즉 이들이 아래와 같은 구조를 지니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다.#4#

- (16') 가. 토끼가 [피가 많다].  
 나. 핸드폰은 [삼성 핸드폰이 유명하다].  
 다.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치아가 좋으시다]].  
 라. 자동차가 [100대가 있다].

### 3.1.2 목적어

#### 3.1.2.1. 목적어의 성립과 목적격 조사

목적어는 서술 작용의 대상이 되는 문장성분으로 아래 예문 (17)에서 볼 수 있듯이 타동사 구문에 나타나며 체언이나 체언 자격을 갖는 요소와 목적격 조사 ‘을/를’이 결합하여 만들어진다.

- (17) 가. 어머니는 과일을 깎았다.  
 나. 장발장이 은춧대를 훔쳤다.  
 다. 우리는 조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다.

#### 3.1.2.2. 목적격 조사와 목적어의 생략

목적격 조사는 주격 조사 ‘이/가’와 마찬가지로 간단한 일상 대화 등 주술 관계가 분명할 경우 생략되는 경향이 있고, 맥락을 통해 목적어가 무엇인지 분명할 경우에는 목적어 또한 생략될 수 있다. 예문 (18)과 (19)는 각각 목적격 조사 ‘을/를’과 목적어의 생략을 보여 준다.

- (18) 가. 어머니는 과일 $\emptyset$  깎았어.  
 나. 그 사람이 은춧대 $\emptyset$  훔쳤니?  
 (19) A. 영희가 순희를 때렸니?  
 B. 예, 영희가 때렸어요.(목적어 생략)

### 3.1.2.3. 중목적어 구문

하나의 서술어와 두 개의 주어 형식이 하나의 구조를 이루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서술어와 둘 이상의 목적어가 어울리는 현상도 있다. 아래 (20)의 용례들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해 보자.

- (20) 가. 나는 그 아이를 허리를 잡았지.  
나. 어머니가 사과를 열두 상자를 샀다는군.  
다. 어머니는 영희를 며느리를 삼으셨다.  
라. 할아버지는 매달 순희를 용돈을 주신다.  
마. 미경이는 컴퓨터를 연구를 한다.  
바. 철수는 대통령을 꿈을 꾸고 있다.

표면상 두 개의 목적어를 가진 위 (20)은 세 가지로 다시 유형화할 수 있다. 우선 (20)의 ‘가, 나’에서는 서술어가 주어 외에 하나의 체언 성분만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주어와 두 개의 목적어가 사용되고 있다. 이때 두 개의 목적어가 전체와 부분, 종류와 수량을 나타냄으로써 이중목적어 구문이 된다. 이와는 달리 ‘다’와 ‘라’에서는 서술어의 의미가 충족되기 위해서는 목적어로 표시된 두 성분이 모두 필요한데, 이들 목적어 중 하나는 아래 (2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부사어로 바뀔 수 있다.

- (20') 다. 어머니는 영희를 며느리로 삼으셨다.  
라. 할아버지는 매달 순희에게 용돈을 주신다.

마지막으로 위 ‘마’와 ‘바’는 ‘연구하다’와 ‘꿈꾸다’ 등 한 단어로 사용될 만한 용언 내부에 목적격 조사가 이어짐으로써 이중목적어 구문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중목적어 구문은 이른바 이중주어 구문과 달리 복문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왜냐하면 그 구성에서 주어와 서술어를 갖춘 절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5#

### 3.1.2.4. 자동사 서술어와 목적격 조사

아래 예문 (21)과 (21')는 자동사 구문의 부사어 성분에 목적격 조사 ‘을/를’이 이어짐으로써 타동사 구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21) 가. 비행기가 머리 위에서 날고 있다.  
나. 순희는 방금 전에 학교에 갔다.  
(21') 가. 비행기가 머리 위를 날고 있다.

나. 순희는 방금 전에 학교를 갔다.

부사어 성분에 ‘을/를’이 이어져 목적어를 만드는 현상은 위 (20’)에서도 관찰한 바 있는데, 이러한 변화가 가능한 것은 동일한 현상에 대한 화자의 해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6##7#

### 3.1.3 서술어

#### 3.1.3.1. 서술어의 성립

서술어는 주어의 행위나 상태 등을 풀이하는 문장 성분으로 아래 예문 (22)에서와 같이 동사, 형용사 및 지정사가 그 역할을 담당한다.#8#

(22) 가. 철수가 귀국했구나.

나. 철수는 훌륭하다.

다. 철수는 귀빈이다.

#### 3.1.3.2. 서술어의 자릿수와 선택제약

특정한 서술어가 선택되면 이를 포함하는 절이나 문장은 일정한 수의 체언 성분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아래 예문 (23)의 서술어인 ‘아름답다’, ‘가다’는 주어만을 요구하고 ‘먹다’는 주어와 목적어를 요구하는데 이렇게 특정 서술어가 요구하는 체언 성분의 수를 자릿수라고 한다. 그리고 이들 서술어를 해당 자릿수에 따라 각각 한 자리 서술어, 두 자리 서술어 등으로 부른다.

(23) 가. 학교가 아름답다.(한 자리 서술어)

나. 비행기가 간다.(한 자리 서술어)

다. 아이가 젖을 먹는다.(두 자리 서술어)

일반적으로 자동사와 형용사는 한 자리 서술어이고 타동사는 두 자리 서술어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아래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런 생각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다. (24가)와 (24나)처럼 형용사나 자동사 서술어가 두 자리를 요구하기도 하며 (24다)와 (24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세 자리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도 있다.

(24) 가. 이것은 저것과 다르다.(두 자리 형용사 서술어)

나. 먹구름이 비로 변했다.(두 자리 자동사 서술어)

다. 어머니가 순희에게 용돈을 주셨다.(세 자리 타동사 서술어)

라. 순희는 휴지를 쓰레기통에 넣었다.(세 자리 타동사 서술어)

서술어는 일정한 자릿수를 요구할 뿐 아니라 특정한 자리에 일정한 속성을 가진 체언을 요구하기도 한다. 그리고 아래 (25)의 용례들은 이러한 원칙을 어겼기 때문에 이상한 문장들이 되고 만다. 즉 ‘웃다’의 주어 자리에는 사람만이 올 수 있으며, ‘먹다’의 목적어 자리에는 음식이 놓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입다’가 서술어 자리에 왔을 경우 ‘버선’은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없다.<sup>2)</sup>#9#

- (25) 가. \*물고기가 웃는다.  
나. \*순희가 그림자를 먹는다.  
다. \*어머니는 버선을 입었다.

이렇게 서술어에 따라 일정한 자리에 놓일 수 있는 체언이 제약되는 현상을 선택제약이라고 부른다.

### 3.1.4 보어

#### 3.1.4.1. 보어의 성립과 보격 조사

보어는 학교 문법에서 기술되고 있는 ‘되다’, ‘아니다’ 외에 ‘싫다’, ‘좋다’ 등 두 자리 심리형용사와 ‘맞다’ 등의 일부 자동사 서술어가 그 의미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성분으로 아래 (26)에서처럼 체언과 체언 구실을 하는 말에 보격 조사 ‘이/가’가 붙어 이루어진다.<sup>#10##11#</sup>

- (26) 가. 자네 형님이 군수가 됐다.  
나. 김 선생은 시장 후보가 아니었다.  
다. 난 잡곡밥이 싫어요.  
라. 난 잡곡밥이 좋다.  
마. 그 놈이 범인이 맞아.

#### 3.1.4.2. 보격 조사와 보어의 생략

아래 예문 (26')은 보격 조사가 일상 대화 등에서 쉽게 생략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고, 예문 (26'')은 적절한 문맥에서 보어 전체가 생략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이러한 생략은 정보의 잉여성에 기인한 것으로 여타 성분에서도 일반적으로 나타

2) 선택제약을 어긴 (25)와 같은 표현들도 문학작품이나 광고 등에서는 사용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장르에서 선택제약 위반이 가능한 것은 파격의 효과 때문일 것이므로 선택제약을 어긴 채 사용되는 이들 구문을 정상적인 표현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는 현상이다.

- (26') 가. 자네 형님이 군수Ø 됐어.  
나. 김 선생은 시장 후보Ø 아니야.  
다. 난 잡곡밥Ø 싫어요.  
라. 난 잡곡밥Ø 좋다.  
마. 그 놈이 범인Ø 맞아.  
(26'') A: 자네 형님이 군수 됐어.  
B: 우리 형님이 됐어요?(보어생략)

#### 3.1.4.3. 보어의 범위

경우에 따라서는 보어를 ‘주어, 목적어, 서술어 외의 필수성분’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그런데 보어를 이렇게 정의할 경우 위 용례에 나타나는 성분들 외에 아래 (27)에서 볼 수 있는 필수적인 부사어들도 보어의 범주 안에 들어가게 된다.

- (27) 가. 나는 너와 다르다.  
나. 명희는 음식 찌꺼기를 그릇에 넣었다.  
다. 어머니는 그 아이를 소양딸로 삼았다.

그러나 이들 필수적인 부사어에 사용되는 조사 ‘와, 예, 로’ 등은 아래 (2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수의적인 부사어를 만드는 데 두루 쓰인다. 따라서 (27)의 밑줄 친 요소들을 보어로 보게 되면 동일한 조사가 보격과 부사격 두 가지 기능을 갖는 것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필수적인 부사어와 수의적인 부사어의 의미 기능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여기서는 부사어도 서술어에 따라 필수적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들 요소를 보어가 아닌 필수적인 부사어로 파악한다.

- (28) 가. 나는 영희와 극장에 가겠다.  
나. 명희는 차를 극장 앞에 세운다.  
다. 아버지는 망치로 유리창을 깼다.

#### 3.1.4.4. 보어의 특성

보어는 아래와 같은 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 (29) 보어의 특성

- 가. 조사 ‘이/가’가 붙는다.#12#
- 나.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적인 성분이다.
- 다. 의미적인 기능은 서술의 대상이다.#13#
- 라. 관계관형절의 표제명사가 될 수 없다.
- 마. 결합되는 조사 ‘이/가’는 생략이 가능하다.

우선 ‘가’는 보어가 가지는 격 표지를 한정한 것이며 ‘나’는 문장의 주성분으로서의 조건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다’에서 보어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의미적인 역할이 서술의 대상으로 규정됨으로써 필수적 부사어가 가지는 동작이 이루어지는 장소, 이동의 목표 등의 의미와 구별된다. ‘라’는 보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의미·통사적으로 매우 긴밀함을 드러내 준다. 다음의 (30)에서 보듯이 목적어의 경우 관계관형절의 표제명사가 가능한 반면 보어는 표제명사가 될 수 없다.

- (30) 가. 철수는 집을 지었다. -> 철수가 지은 집
- 나. 철수는 어른이 되었다. -> \*철수가 된 어른
- 다. 나는 영희가 좋다. -> \*내가 좋은 영희

‘마’는 보어에 결합되는 조사 ‘가’가 주격 조사나 목적격 조사와 같은 종류의 조사임을 보여 준다.#14# 이 특성은 필수적 부사어에 결합되는 부사격 조사들이 뚜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 생략이 불가능한 것과 비교해 볼 수 있다. 다음의 (31)과 (32)에서 부사어와 보어에 결합되는 조사가 생략에서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sup>3)</sup>

- (31) 가. 나는 철수의 의견에 찬성한다.
- 가'. \*나는 철수의 의견Ø 찬성한다.
- 나. 그는 나를 바보로 여긴다.
- 나'. \*그는 나를 바보Ø 여긴다.
- (32) 가. 저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
- 가'. 저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Ø 되었다.
- 나. 나는 수다스러운 사람이 싫다.
- 나'. 나는 수다스러운 사람Ø 싫다.

## 3.2. 부속성분

### 3.2.1. 관형어

3) 물론 이러한 현상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특히 구어의 경우 ‘저 건물이 학교 비슷하게 생겼어’에서처럼 부사격 조사의 생략이 가능하기도 하다. 그러나 위 (31)와 (32)에서 볼 수 있듯이 부사격 조사와 보격 조사의 생략 가능성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 3.2.1.1. 관형어의 성립

관형어는 체언 앞에서 해당 체언을 수식하는 문장 성분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만들어진다.

- (33) 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나. 순희의 얼굴이 기억난다.  
다. 순희 얼굴이 기억난다.  
라.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봐!  
마. 푸른 하늘과 붉은 단풍  
바. 걱정이 팔자인 사람을 어찌겠니?  
사. 손가락을 들던 순간 .....

(33가)는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어로만 사용되는 관형사의 용례이다. (33나)와 (33다)는 체언이 관형어가 된 사례들인데, (33나)에서처럼 체언은 조사 ‘의’와 함께 관형어를 이룰 수도 있고 (33다)에서와 같이 조사 없이 관형어가 될 수도 있다. (33)의 ‘라-바’의 밑줄 친 부분들은 모두 ‘-는, -(으)ㄴ, -던’ 등의 관형사형 어미를 포함하는 관형어로 관형사형 어미는 동사와 형용사 그리고 지정사에 이어질 수 있다.

### 3.2.1.2. 관형어의 특성

관형어는 체언에 부속된 부속 성분으로 체언 없이 단독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성분이기도 하다. 따라서 (33)에서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체언을 생략한 (33')의 모든 용례들은 비문이 되거나 전혀 다른 문장이 되고 만다.

- (33') 가. \*새 새 담아야 한다.  
나. \*순희의 기억난다.  
다. \*순희 기억난다.(?)  
라. \*지나가는 붙잡고 물어봐!  
마. \*푸른 붉은  
바. \*걱정이 팔자인 어찌겠니?

### 3.2.1.3. 관형어의 종류와 중복

관형사를 지시관형사, 수관형사 및 성상관형사로 나눌 수 있듯이 관형어 역시 지시관형어, 수 관형어 그리고 성상 관형어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이 겹쳐 나타날 경우 이들의 상대적인 순서는 예문 (34)에서와 같이 지시 관형어, 수 관형어, 성상 관

형어 순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들의 상대적인 위치를 바꾼 아래 (34')와 (34'')는 모두 비문이 되고 만다.

- (34) 가. 그<sub>지시</sub> 두<sub>수</sub> 금발의<sub>성상</sub> 목사들은 .....  
 나. 저<sub>지시</sub> 세<sub>수</sub> 둥근<sub>성상</sub> 접시는 .....  
 (34') 가. \*두<sub>수</sub> 그<sub>지시</sub> 금발의<sub>성상</sub> 목사들은 .....  
 나. \*둥근<sub>성상</sub> 저<sub>지시</sub> 세<sub>수</sub> 접시는 .....  
 (34'') 가. \*그<sub>지시</sub> 금발의<sub>성상</sub> 두<sub>수</sub> 목사들은 .....  
 나. \*저<sub>지시</sub> 둥근<sub>성상</sub> 세<sub>수</sub> 접시는 .....

(34'가)에서는 지시 관형어와 수 관형어의 순서가 뒤바뀌었기 때문에 비문이 되었고 (34'나)에서는 맨 마지막에 놓여야 하는 성상 관형어가 맨 앞으로 나오므로써 비문이 되었다. (34''가)의 경우 성상 관형어와 수 관형어의 순서가 뒤바뀌었고 (34''나)에서는 맨 마지막에 있어야 할 성상 관형어가 지시 관형어와 수 관형어 사이에 놓였기 때문에 각각 비문이 된다.

### 3.2.2. 부사어

#### 3.2.2.1. 부사어의 성립

문장 내에서 부사어의 주된 기능은 용언을<sup>4)</sup> 수식하는 것이다. 주로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어와 달리 부사어는 용언뿐 아니라 관형어나 다른 부사어를 수식하기도 한다.<sup>5)</sup>

- (35) 가. 이번 시험 문제는 아주 쉽다.  
 나. 그는 노래를 아주 잘 부른다.  
 다. 집 앞에 아주 새 차가 한 대 서 있었다.

(35가)의 '아주'는 용언인 '쉽다'를 수식하고 (35나)의 '아주'는 뒤에 오는 부사 '잘'을 수식하며 (35다)의 '아주'는 관형어 '새'를 수식한다. (35)에서와 같이 부사어는 주로 다른 문장 성분을 수식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부사어는 수식의 기능뿐 아니라 문장이나 단어를 연결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sup>6)</sup>

4) 부사어가 수식하는 것을 용언이 아니라 서술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서술어는 관형사형 어미나 부사형 어미와 결합되면 서술어로서뿐 아니라 관형어나 부사어로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서술어 대신에 용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는 관형어가 주어나 목적어가 아닌 체언을 수식한다고 서술하는 것과 같다.  
 5) 잘 알려진 것처럼 부사가 체언을 수식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바로 옆에', '아주 부자가' 등에서 '바로', '아주' 등은 체언인 '옆'과 '부자'를 수식한다. 이럴 경우 이들의 품사는 부사이지만 이들이 담당하는 기능은 체언을 수식하는 것인 만큼 이들의 문장성분은 부사어가 아닌 관형어가 된다.  
 6)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부사가 독립어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그러나, 그러므로, 그

(36) 가. 원서 교부 및 접수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

나.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36)에서 부사어 ‘및’과 ‘그러므로’는 각각 단어와 문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35)와 (36)에서 예를 든 부사어는 모두 부사이다. 부사는 모두 그대로 부사어로 쓰일 수 있다. 부사뿐 아니라 체언에 부사격 조사가 붙은 말도 부사어가 된다.

(37) 가. 우리는 도서관에서 만나기로 했다.

나. 동생은 방금 집에 갔다.

다. 비바람에 꽃이 다 졌다.

라. 나는 아침에 달리기를 한다.

마. 영희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보다.

바. 사과를 칼로 잘랐다.

사. 나는 막내로 태어났다.

아. 개는 늑대와 비슷하다.

자. 나는 동생과 싸웠다.

차. 그는 나보다 걸음이 빠르다.

(37)의 밑줄 친 부분은 ‘에서’, ‘에’, ‘에게’, ‘로’, ‘와’ ‘보다’ 등 여러 가지 부사격 조사가 체언에 붙어 부사어가 된 것이다. 부사격 조사의 종류에 따라 장소, 목표점, 원인, 시간, 도구, 자격, 비교대상 등 다양한 의미를 나타낸다. 같은 부사격 조사라 해도 (37나), (37다), (37라)에서처럼 결합한 체언에 따라서 혹은 뒤에 오는 서술어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앞에서도 확인한 것처럼 체언에 부사격 조사가 붙어 부사어가 된 것 중에서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이 있다. (37나), (37마), (37사), (37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부사어가 없으면 불완전한 문장이 되기 때문에 이들은 서술어의 자릿수에도 포함되며 기본 문형을 설정할 때에도 고려의 대상이 된다.

아래 (38가)~(38다)는 용언 어간에 어미 ‘-게’가 결합된 활용형이 부사어로 사용된 예들이다. 그리고 (38라)는 용언에서 파생되어 나온 부사가 주어나 목적어 등을 수반한 채 부사어로 사용된 경우에 해당한다.<sup>7)</sup>

(38) 가. 다행스럽게도 어머니의 병세는 차츰 나아졌다.

나. 이상하게 오늘은 기분이 좋다.

---

리고’ 등의 접속부사가 여타의 독립어들처럼 뒤에 이어지는 문장과 유리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그 의미는 접속절의 의미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파악되며 접속절은 일종의 부사절로 여겨지므로, 여기서는 이들을 부사어로 보기로 한다.

7) (38라)에 사용된 형태소 ‘-이’는 부사를 만드는 파생접미사로 파악된다. 따라서 이때의 ‘없이’는 형용사가 아닌 부사이므로 결국 용언이 아닌 부사가 주어나 목적어 등의 문장성분들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이 문장에 사용된 ‘없이’에 용언의 속성이 일부 남아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 다. 학생들은 밤이 새도록 토론을 했다.  
 라. 그는 아무 이유도 없이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의 (39)의 밑줄 친 부분처럼 부사성 의존명사가 앞에 오는 관형어와 함께 부사어가 되기도 한다.

- (39) 가. 나는 내가 아는 대로 설명하였다.  
 나. 방 안은 숨소리가 들릴 만큼 조용했다.  
 다. 나는 벽에 기대앉은 채 잠이 들었다.

### 3.2.2.2. 부사어의 종류와 특성

부사어는 문장의 특정한 성분을 수식하는 성분부사어와,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문장부사어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sup>8)</sup> 앞에서 예로 든 것들 중 (38가)와 (38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성분부사어로 볼 수 있다. 문장부사어 중에는 ‘과연, 설마, 모름지기, 확실히, 만일, 제발, 부디...’ 등 수식하는 문장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나타내는 부사들이 많다.

- (40) 가. 과연 이 사람은 훌륭한 예술가로구나.  
 나. 설마 너까지 나를 의심하는 것은 아니겠지.  
 다. 제발 공부 좀 열심히 해라.  
 라. 모름지기 청년은 꿈을 가져야 한다.

(40)에서와 같이 문장부사어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기능을 하고 (40라)의 예처럼 ‘모름지기 ~어야 한다’와 같은 호응 관계를 이루기도 한다.

이들 문장부사어는 아래 (41)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대체적으로 이동이 자유스러운 속성을 갖는다.

- (41) 가. 설마 너까지 나를 의심하는 것은 아니겠지.  
 나. 너까지 설마 나를 의심하는 것은 아니겠지.  
 다. 너까지 나를 설마 의심하는 것은 아니겠지.  
 라. 너까지 나를 의심하는 것은 설마 아니겠지.

### 3.3. 독립성분

8) ‘문장부사어’의 수식 대상을 ‘절’로 볼 수 있기에 이를 ‘절부사어’로 부를 수도 있다. 그러나 ‘문장부사어’와 대립되는 용어가 ‘성분부사어’인 만큼 여기서는 ‘절부사어’가 아닌 ‘문장부사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 3.3.1. 독립어

독립어는 특정 문장의 내부 성분으로 인정되지만 여타의 문장 성분과 직접적인 구조적 관계가 없이 독립되어 있는 성분을 말한다. 독립어를 이루는 대표적인 품사는 감탄사이며 그 외에도 체언에 호격조사가 붙거나 호격조사 없이 체언 단독으로 독립어가 되기도 한다.<sup>9)</sup>

- (42) 가. 어, 이거 정말 이상하다.  
나. 얼씨구, 너 잘하는 짓이다.  
다. 철수야, 너 심부름 좀 해 줄래?  
라. 김 서방, 우리 딸 잘 부탁하네.  
마.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위 예문 (42) ‘가’와 ‘나’의 밑줄 친 단어는 감탄사이다. 감탄사는 이처럼 아무런 변화 없이 독립어가 된다. (42)의 ‘다’와 ‘라’는 2인칭을 표시하는 체언이 독립어가 되는 경우로 ‘다’에서 사용된 호격조사가 ‘라’에서는 사용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말의 경우 무정물 및 ‘하계체’ 이상의 상대에게는 호격조사를 붙일 수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42마)는 무정물 체언이 호격조사 없이 제시어로 사용된 용례인데 제시어도 독립어로 취급된다.

### 참고 문헌

- 강명윤(1995), 「주격 보어에 관한 소고」, 『생성문법연구』, 5권 2호, 한국생성문법학회, 391-417.  
강창석(2008), 「국어의 문장구조에 대하여」, 『인문학지』 37, 충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26.  
강창석(2013), 「국어 문장의 구조와 특징」, 『개신어문연구』 37, 개신어문학회, 5-39.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2008),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고려대 출판부.  
고석주(2004), 『현대 한국어 조사의 연구 I』, 한국문화사.  
고영근·구본관(2008),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고영근·남기심(1985/2011), 『표준 국어 문법론』(제3판), 탑출판사.  
교육인적자원부(2002가), 『고등학교 문법』.  
교육인적자원부(2002나), 『고등학교문법-교사용지도서』.  
구재희(2007), 「한국어 기본문형 교육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9) 감탄사는 여타의 문장성분과 특별한 관계없이 사용되기 때문에 독립어를 이루는 대표적인 품사가 된다. 그런데 감탄사에는 특별한 뜻 없이 사용되는 간투사가 포함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특별한 의미 없이 사용되는 간투사 역시 독립어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도 가능하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여타의 성분과 유리되어 있는 요소를 독립어라고 정의하는 한 간투사 역시 독립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 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권재일(1987), 「문법 기술에서의 ‘체계’에 대하여」, 『겨레어문학』 11, 겨레어문학회, 1-18.
- 권재일(2012), 『한국어 문법론』, 태학사.
- 김건희(2003), 「형용사의 주격 중출 구문과 여격 주어 구문에 대하여」, 『한말연구』 13, 한말연구학회, 1-37.
- 김건희(2014), 「단어, 품사, 문장성분의 분류에 대한 일고찰-상호 연관성과 변별성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71,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79-316.
- 김광해(1995), 『어휘연구의 실제와 응용』, 집문당.
- 김기혁(1985), 「문장 구성에서 단위의 문제」, 『연세어문학』 18,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5-32.
- 김기혁(1998), 「국어 문법의 단위」, 『논문집』 9, 상지대학교, 157-180.
- 김기혁(2006), 「국어 지정문과 존재문의 상관성」, 『한글』 271, 한글학회, 51-76.
- 김동식(2002), 「국어 문장의 기본 어순에 관하여: 어순 판별 기준의 설정을 위하여」, 『한신인문학연구』 3, 한신대학교 한신인문학연구소, 5-27.
- 김민국(2013), 「부사격 조사 ‘-로서’ 주어에 대한 연구」, 『한국어학』 60, 한국어학회, 111-142.
- 김병균(1995), 「국어 기본문형의 연구」, 『선문논총』 5, 선문대학교, 5-23.
- 김양진(2008), 「접어와 기능어-형태론적 단위와 통사론적 단위」, 『한국어학』 38, 한국어학회, 1-31.
- 김영희(1986), 「복합명사구, 복합동사구 그리고 겹목적어」, 『한글』 193, 한글학회, 47-77.
- 김원경(2010), 「보어 개념의 확장에 대하여-학교문법의 술어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44, 이중언어학회, 49-78.
- 김유미(2005), 「문형 사전을 위한 문형 빈도 조사」, 『인지과학』 16-2, 한국인지과학회, 123-140.
- 김의수(2007), 「문장은 내심적인가 외심적인가」, 『국어학』 49, 국어학회, 107-136.
- 김일웅(1984), 「풀이말의 결합가와 격」, 『한글』 186, 한글학회, 35-72.
- 김일웅(1991), 「낱말과 월성분」, 『우리말연구』 1, 우리말학회, 215-234.
- 김지홍(1990), 「문법기술의 일관성과 간결성 : 특히 학교문법의 부정문과 { - 게 } 어미 처리를 중심으로」, 『배달말교육』 8-1, 배달말교육학회, 43-78.
- 김태엽(2008), 『국어학 개론』, 역락.
- 김혜숙(1998), 「한국어 기본 문형 설정에 대하여 : 효과적인 국어교육을 위하여」, 『국어국문학』 122, 국어국문학회, 13-47.
- 남기심(1985), 「학교문법에 나타나는 문법 단위 ‘어절’(語節)에 대하여」, 『연세교육과학』 26,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1-9.
- 남기심(1986), 「서술절 설정은 타당한가」, 『국어학신연구』, 탑출판사, 남기심(1996) 『

- 국어 문법의 탐구 I』 태학사에 재록.
- 남기심(2001), 『현대국어통사론』, 태학사.
- 남기심·고영근(1985/2011), 『표준 국어 문법론 제3판』, 탑출판사.
- 목정수(2003), 『한국어 문법론』, 월인.
- 목정수(2004), 「記述動詞와 主觀動詞 앞의 ‘가形 成分’의 통사적 기능-單一主語說 정립을 위하여-」, 『어문연구』 32-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37-61.
- 민현식(1999), 『국어 문법 연구』, 역락.
- 박정규(2008), 「학교 문법에서의 기본 문형 정립을 위하여」, 『한국언어문학』 83, 한국언어학회, 5-36.
- 박진호(1994), 「통사적 결합 관계와 논항구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상규 외(2006),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사전』, 신원프라임.
- 서울 대학교 국어 교육 연구소(2002), 『고등 학교 문법』, (주)두산.
- 서정수(1994), 『국어문법』, 한양대학교 출판원.
- 서정욱(2001), 「<표준 국어문법론>의 “구(句)/절(節)” 개념과 중고등학교 국어교재」, 『한국어문연구』 13, 한국어문연구학회, 11-20.
- 서태룡(1996), 「국어 문법 단위의 통사 범주」, 『한국어문학연구』 31, 동악어문학회, 1-27.
- 성광수(1974), 「국어 보어 설정에 대한 재고」, 『국어국문학』 64, 국어국문학회, 95-101.
- 송복승(2005), 「“아니다” 구문에서 주격 보어의 격 실현」, 『배달말』 37, 배달말학회, 149-177.
- 송복승(2007), 「국어 보어의 특성과 범위 재론」, 『한국언어문학』 61, 한국언어학회, 5-29.
- 송원용(2006), 「국어문장성분 분석의 원리와 절차」, 『개신어문연구』 24, 개신어문학회, 5-31.
- 송창선(2008), 「현행 학교문법에서 보어 설정의 문제점」, 『국어교육연구』 43, 국어교육학회, 83-104.
- 송창선(2009), 「이른바 ‘이중 주어 구문’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국어교육연구』 45, 국어교육학회, 449-474.
- 송창선(2011), 「국어의 기본 문형 설정」, 『국어교육연구』 48, 국어교육학회, 233-256.
- 신서인(2006), 「구문 분석 말뭉치를 이용한 한국어 문형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서인(2009), 「동사 “생각하다”의 문형에 대한 고찰」, 『관악어문연구』 34, 서울대 국문과, 191-212.
- 신승용(2011), 「문법 교육에서 구(句)와 어(語)의 문제」, 『국어교육연구』 49, 국어교육학회, 153-178.
- 신지영 외(2012), 『한국어학의 이해』, 지식과 교양.

- 안명철(2001), 「이중주어 구문과 구-동사」, 『국어학』 38, 국어학회, 181-207.
- 安廓(1923), 『修正 朝鮮文法』, 滙東書館, 歷代韓國文法大系 Ⅰ26.
- 양명희(2006), 「보어와 학교문법」, 『한국어학』 32, 한국어학회, 167-192.
-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1998), 『연세 한국어사전』, 두산동아.
- 연제훈(1996), 「국어 여격주어 구문에 대한 범언어적 관점의 연구」, 『국어학』 28, 국어학회, 241-275.
- 염선모(1977), 「국어의 기본 문형에 대하여」, 『어문학』 36, 한국어문학회, 59-75.
- 오충연(2011), 「국어 어절의 통사적 내용」, 『한국어학』 53, 한국어학회, 281-312.
- 왕문용·민현식(1994), 『국어문법론의 이해』, 개문사.
- 우순조(1997), 「국어 어미의 통사적 지위」, 『국어학』 30, 국어학회, 225-256.
- 우형식(2001), 「보어의 범위에 대한 연구사적 접근」, 『한어문교육』 9,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109-132.
- 원해영(2013), 「한국어교육을 위한 기본문형 연구 : 필수논항과 격표지를 중심으로」, 『언어과학』 20-2, 한국언어과학회, 145-168.
- 俞吉濬(1909) 『大韓文典』, 同文館. 歷代韓國文法大系 Ⅰ06.
- 유현경(2005), 「형용사 구문의 주어에 대한 연구」, 『배달말』 37, 배달말학회, 177-210.
- 유현경(2010), 「국어 문법에서의 ‘가’ 보어 설정 문제-심리형용사 구문의 NP2를 중심으로-」, 『어문론총』 52, 한국문학언어학회, 1-28.
- 유현경(2014), 「문법 기술에서의 체계 정합성 문제 - 보어 기술을 중심으로 -」, 『국어학』 70, 국어학회.
- 유형선(1999), 「보어에 관한 一考」, 『한국어학』 9, 한국어학회, 181-203.
- 윤정원(2011), 「'조선어문장론'의 문장 유형 분류 연구-'표준국어문법론'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52, 국제어문학회, 41-80.
- 이관규(1993), 「기본문형의 몇 가지 문제」, 『우리어문연구』 6,7, 우리어문학회, 89-101.
- 이관규(1999/2002), 『개정판 학교 문법론』, 월인.
- 이관규(2002), 「국어의 문장 구성에 대한 연구와 전망」, 『한국어학』 16, 한국어학회, 105-147.
- 이관규(2005), 『국어 교육을 위한 국어문법론』, 집문당.
- 이광정(1980), 「한국어의 보어설정과 그 문형연구」, 『국어교육』 37, 한국국어교육학회, 95-114.
- 李奎昉(1923), 『新撰 朝鮮語法』, 以語堂. 歷代韓國文法大系 Ⅰ29.
- 이기갑(1990), 「한국어의 어절 구조」, 『언어연구』 2, 서울대학교 언어연구회, 1-10.
- 이선웅(2010), 「국어의 보어와 보격에 대하여」, 『최명옥 선생 정년 퇴임 기념 국어학 논총』, 태학사, 777-804.
- 이선웅(2012가), 「격의 개념과 분류」, 『어문연구』 40-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7-32.

- 이선웅(2012나), 『한국어 문법론의 개념어 연구』, 월인.
- 이선웅·이은섭(2013), 「이론문법의 관점에서 본 학교문법」, 『국어국문학』 163, 국어국문학회, 249-277.
- 이소영(1996), 「현대국어의 구어 문형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영경(2004), 「국어 ‘NP이’ 보어의 성격에 대한 고찰」, 『어문연구』 32-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37-163.
- 이윤미(2013), 「한국어의 비주격 주어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은섭(2011), 「보충어의 판별 문제와 어휘부 처리에 대한 시론」, 『어문학』 114, 한국어문학회, 87-118.
- 이익섭(1986/2011), 『국어학 개설』(제3판), 학연사.
- 이익섭·임흥빈(1985), 『국어문법론』, 학연사.
- 이익섭·채완(1999), 『국어문법론강의』, 학연사.
- 이정택(2010), 「이른바 주격조사 ‘-에서’에 관하여」, 『한말연구』 27, 한말연구학회, 195-212.
- 이정택(2011), 「주어를 제한하는 “NP+에서” 구성」, 『한말연구』 29, 한말연구학회, 281-295.
- 이정택(2012), 「우리말의 보어 설정」, 『한말연구』 31, 한말연구학회, 173-193.
- 이정훈(2007), 「국어 어미의 통합단위」, 『한국어학』 37, 한국어학회, 149-179.
- 이흥식(1998), 「문장 성분」, 『문법 연구와 자료』, 월인, 7-46.
- 이흥식(2000), 『국어 문장의 주성분 연구』, 월인.
- 이희승(1949), 『초급 국어 문법』, 박문출판사, 歷代韓國文法大系 1185.
- 이희자(2002), 「‘의사소통의 최소단위’로서의 ‘발화문’과 ‘문장」, 『텍스트언어학』 13, 텍스트언어학회, 343-366.
- 임동훈(1997), 「이중주어 구문의 통사 구조」, 『한국학보』 19,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31-64.
- 임동훈(2011), 「한국어의 문장 유형과 용법」, 『국어학』 60, 국어학회, 323-359.
- 임지룡 외(2005), 『학교문법과 문법교육』, 박이정.
- 임흥빈(1972), 「국어의 주제화 연구」, 『국어연구』 28.
- 임흥빈·장소원(1995), 『국어문법론1』,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장요한(2007), 「‘문장의 확장’에 대한 소고」, 『시학과 언어학』 14, 191-220.
- 정경일 외(2002), 『한국어의 탐구와 이해』, 박이정.
- 정인상(1990), 「주어」,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241-247.
- 정인승(1949), 『표준중등말본』, 신구문화사, 歷代韓國文法大系 1179.
- 조경순(2001), 「국어 보어에 대한 의미 구조론적 연구」, 『한국언어문학』 47, 한국언어문학회, 685-704.
- 조경순(2007), 「논항구조를 활용한 한국어 기본 문형 구조 연구」, 『한국언어문학』 61, 한국언어문학회, 103-121.

- 조형일(2008), 「학교문법에서의 보어 범주 재고」, 『국어교육연구』 21,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225-245.
- 주세형(2004), 「학교 문법 다시 쓰기-언어 단위 문제를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20, 국어교육학회, 461-498.
- 최규수(2007), 「학교 문법의 문장의 성분과 짜임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글』 275, 한글학회, 165-192.
- 최응환(2001), 「국어의 문장유형과 구조 기술」, 『문학과 언어』 23, 문학과언어연구회, 143-162.
- 최응환(2005), 「교착소로서의 국어 어미에 대한 연구」, 『우리말글』 35, 우리말글학회, 121-148.
- 최응환(2010), 「국어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 『언어과학연구』 54, 언어과학회, 275-294.
- 최현배(1937/1971), 『우리말본』, 정음문화사.
- 최형강(2005), 「주격 중출 구성에서의 보어」, 임홍빈 외 『우리말 연구 서른아홉 마당』, 태학사, 381-399.
- 최형기(1995), 「국어 문형 연구」, 『어문집』 29, 원광대학교, 171-186.
- 최형기(1995), 「국어 문형 연구(Ⅱ) : 문장 성분의 중출을 중심으로」, 『언어학』 3, 대한언어학회, 511-527.
- 최형기(2000), 「국어 보어에 관한 연구」, 『언어학』 8-3, 대한언어학회, 203-217.
- 최형용(2003), 『국어 단어의 형태와 통사-통사적 결합어를 중심으로-』, 태학사.
- 최형용(2005), 「격조사의 핵성에 대하여」, 임홍빈 외 『우리말 연구 서른아홉 마당』, 태학사, 401-418.
- 최형용(2010), 「품사의 경계-조사, 어미, 어근, 접사를 중심으로」, 『한국어학』 47, 한국어학회, 61-92.
- 최호철(1995), 「국어의 문법 단위와 문법 교육」, 『어문논집』 34, 안암어문학회, 637-657.
- 최호철(1995), 「국어의 보어에 대하여」, 『한국어학』 2-1, 한국어학회, 447-490.
- 한길(1980), 「국어의 기본 문형에 관하여」, 『연세어문학』 13, 연세대 국문과, 55-74.
- 한송화(2000), 『현대 국어 자동사 연구』, 한국문화사.
- 한영목(1976), 「국어의 기본 문형론」, 『어문연구』 9, 어문연구학회, 135-156.
- 한정한(2009), 「단어를 다시 정의해야 하는 시급한 이유들」, 『언어』 34, 한국언어학회, 761-788.
- 한정한(2011), 「통사 단위 단어」, 『국어학』 60, 국어학회, 211-232.
- 허웅(1983), 『국어학』, 샘문화사.
- 허웅(1995), 『20세기 우리말의 형태론』, 샘문화사.
- 허웅(1999), 『20세기 우리말의 통어론』, 샘문화사.
- 황화상, 최정혜(2003), 「한국어 어절의 형태론적 중의성 연구」, 『한국어학』 20, 한국어

학회, 287-311.

황화상(2006), 「조사 ‘에서’의 문법 범주」, 『배달말』 39, 배달말학회, 371-392.

황화상(2009), 「‘이서’의 문법적 기능과 문법 범주」, 『배달말』 44, 배달말학회, 1-27.

Song, S-C(1967), Some Transformational Rules in Korean, Doctorial Dissert.  
Indiana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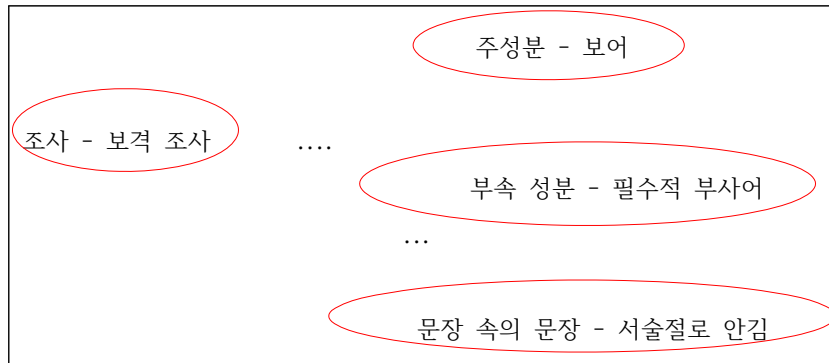
- #1# **#국교# #한교# <문장 성분과 기본 문형>** 문장 성분에 대한 논의는 기본 문형 설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국어 교육이나 한국어 교육에서 서술어와, 서술어가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수나 유형에 따라 기본 문형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는 읽기에서 유용한 분석의 틀이 될 수 있고 쓰기에서는 기본 문형에 따라 작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어는 영어의 5형식처럼 어순만으로 기본 문형을 설정하는 것보다 필수적인 문장 성분이 가지는 격 표지에 따라 기본 문형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한국어 교육에서 격 표지에 따라 기본 문형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 #2# **#이론# <부사격 조사 ‘에서’의 주어성>** 부사격 조사 ‘에서’의 주어 기능 표시는 일찍이 주시경(1910)에서 언급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들 ‘에서’ 구문이 갖는 여러 제약은 그 주어 표시 기능을 의심하게 한다. 한편 ‘에서’와 마찬가지로 여타의 격을 표시하는 조사가 주어를 나타내는 사례로는 ‘체언+에서’ 외에도 ‘체언+에게(께)’, ‘체언+로써’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이 주어의 자격을 갖는 것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주어와 관련된 통사적인 특징들이 이들 성분에서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체언+께’ 구성을 포함하는 ‘순회 할아버지께는 자기 손주가 제일 소중하시다.’와 ‘체언+로써’ 구성을 가진 ‘할아버지로서도 자기 손녀를 보낼 수가 없으셨다.’ 등에서는 ‘체언+께’와 ‘체언+로써’가 ‘-시-’와 호응할 뿐 아니라 재귀대명사 ‘자기’와 공지시 되고 있다. 이러한 통사적인 현상들은 주어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될 수 있기에 이들이 주어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국어에서 주어와 호응한다고 보기 어려운 ‘-시-’의 쓰임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어머니는 순회를 자기 집으로 보냈다’에서처럼 재귀대명사 ‘자기’는 의미상의 주어(순회)와도 공지시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이들 구성을 주어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 #3# **#이론# <복수 접미사 ‘-들’의 문제>** 불가산 명사 등에 이어지는 ‘-들’이 주어 외의 성분을 복수화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일례로 ‘순회가 아이들을 그 방으로들 보냈다’에서 ‘그 방으로들’의 ‘-들’은 목적어를 복수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영근·구본관(2008)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이 문장은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만큼 어색하다. 따라서 이 문장의 ‘-들’이 목적어를 복수화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현상은 문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그 의미를 이해하려는 노력의 산물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 #4# **#이론# <이중주어구문의 범위와 해석>** 이 외에 보어를 요구하는 문장도 동일한 외형을 갖는다. 그러나 보어를 요구하는 문장에서는 서술어가 주어 외에 보어 성분도 반드시 필요로 하므로 이를 이중주어문으로 보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을 취한다면 ‘나는 술이 싫다’와 같은 심리형용사 구문의 두 번째 체언 성분도 서술어가 반드시 요구하는 성분이므로 보어로 볼 수 있다. 결국 이중주어문이란 서술어가 요구하지 않는 주어 형식의 성분이 추가로 사용된 문장이 된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견해 중 생성문법적 해석을 제외한다면, 두 주어 형식 중 하나를 주체어로 해석함으로써 이들 문장을 주체어와 주어를 가진 구성으로 보는 방법과 이들을 서술절을 가진 복문으로 보고 두 개의 주어를 모두 인정하는 방법으로 나뉜다. 임동훈(1997)에서는 이들 두 가지 방법 중 주체어 설정이 갖는 문제를 비교적 명쾌하게 설명한 바 있다. 즉 주어 형식의 성분이 여럿일 경우 한 성분이 주어이면서 동시에 주체어가 되어야 함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이 글에서는 절표지 결여 등 서술절 설정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용언과 서술절의 본질에 입각해 설명하고 있다.
- #5# **#이론# <이중목적어 구문의 목적어 문제>** 이들 이중목적어 구문을 해석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일문일격의 원리에 따라 진정한 의미의 목적어는 하나밖에 없을 것이므로 나머지 하나는 진짜 목적어가 아니라는 해석이다. 이런 입장에 선다면 이중목적어 구문을 정상에서 벗어난 표현으로 이해하거나 두 개의 ‘을/를’ 중 하나 혹은 둘 모두를 목적격 조사가 아닌 보조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Song, S-C(1967)에서와 같이 두 번째 목적어는 동사구의 내부 목적어이며 첫 번째 목적어가 문장 전체의 목적어인 것으로 이해하는 방법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중목적어 구문이 심층적으로 복문이기 때문에 두 개의 목적어가 실현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방법도 있다.
- #6# **#이론# <자동사 구문에 나타나는 목적격 조사의 처리>** 자동사 구문에 나타나는 ‘체언+을/를’을 목적어로 보려는 생각은 최현배(1937)에서 비롯된다. 이 책에서는 이들을 “주관스런 남용적씨”라고 이름 지었다. 객관적으로 동사의 타동성을 받는 성분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말하는 사람은 이 성분을 목적어로 인지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자동사 구문과 목적어는 서로 배타적인 것이기에 이들 구문의 ‘체언+을/를’을 목적어로 볼 수 없다는 생각도 적지 않다. 그리고 이를 목적어로 보지 않을 경우 조사 ‘-을/를’은 보조사로 처리하는 것이 보통이나 이 경우에도 ‘을/를’의 의미 기능을 정확히 밝혀야 하는 문제가 남는다.
- #7# **#한교# <자동사 구문의 목적어>** 자동사 구문에 나타나는 목적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한국어교육에서 불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 #8# **#이론# <지정사 설정에 따르는 문제>** ‘이다’를 ‘서술격 조사’가 아닌 지정사로 보게 되면 격과 문장성분의 일대일 대응관계가 무너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타의 격조사가 체언과 서술어의 관계를 표시하는

반면 이른바 ‘서술적 조사’는 서술어를 이룬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러한 속성에 근거하여 최현배(1937)에서와 같이 ‘이다’를 용언의 하나인 지정사로 본다. 그런데 ‘이다’가 ‘지정사’로서 하나의 용언이라면 위 책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선행요소를 보어로 볼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이다’는 보어를 취하는 ‘아니다’와 매우 유사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다’는 자립성이 없어 선행하는 체언과 어울려 한 어절이 되어야만 사용될 수 있고, 이런 점에서 ‘체언+이다’는 ‘본용언+보조용언’ 구성과 동일한데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결합은 하나의 서술어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체언과 ‘이다’의 결합에는 보어의 표지인 보격 조사도 개입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다’를 지정사로 보되 일단 그 선행체언과 ‘이다’가 결합해 하나의 서술어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9# **#한교# <서술어의 선택계약>** 어느 언어에나 선택계약이 존재할 것이므로 일반적인 선택계약까지 한국어교육에서 다룰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다만 ‘(옷을)입다, (모자를)쓰다, (신을)신다, (반지를)끼다’나 ‘(문을)닫다, (눈을)감다, (입을)다물다’처럼 국어의 특징이 분명히 드러나는 선택계약은 강조해서 다룰 필요가 있을 것이다.

#10# **#국교# <보어와 관련된 문법 체계의 문제>** 2002년도 국어 교육 문법의 보어의 범위는 지나치게 좁아서 ‘나는 호랑이가 무섭다/싫다’ 등에서 필수적으로 나오는 ‘가’ 명사구의 경우 조사의 형태와 필수성 여부에서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이를 보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장들을 서술절로 처리하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표준 문법에서는 기존의 보격 조사를 ‘가’로 한정하되 보어의 범위를 서술어가 취하는 주어 이외의 필수적 ‘가’ 명사구까지로 확장하였다. 보어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문제는 격조사 중에서 보격 조사, 부사격 조사, 문장 성분 중에서 필수적 부사어, 그리고 문장의 확대의 서술절과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보어의 범위의 문제에 대해서 이해할 때 다음의 지도를 참고하여 여타의 주제와 함께 통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개념 지도> 개념 지도를 통하여 문법 체계의 다른 부분과의 관련성을 보여 줌



위의 개념 지도는 문장 성분이 격조사 체계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 준다. 보어라는 성분은 격조사 중 보격 조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보어의 범위 한정은 필수적 부사어와 관련된다. 보어의 문제는 중주어 구문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안긴문장 중 서술절의 문제와도 관련지을 수 있다. 이러한 개념 지도를 통한 문법 교육은 문법 기술이 체계의 정합성을 전제로 하며 하나의 문법적 문제가 다른 문제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논의되어야 함을 보여줄 수 있다.

#11# **#한교# <보어의 범위>** 한국어 교육 문법에서는 보어의 범위를 표준 문법보다 더 확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학습자들의 입장에서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요소들을 다 보어로 간주하는 것이 문장을 구성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이론 문법이나 국어 교육 문법에서는 보어가 격조사와 문장의 짜임새 등의 체계의 다른 부분과의 정합성이 중요하지만 조사와 어미 등의 문법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다른 언어에서 이러한 고려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언어학적으로 보어는 서술어가 요구하는 주어 이외의 필수적인 성분으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한국어 교육 문법에서는 ‘되다’, ‘아니다’, 심리형용사, 일부의 자동사 구문에 필수적으로 나오는 두 번째 명사구 이외에 서술어가 요구하는 ‘와’ 명사구, ‘에’ 명사구, ‘에게’ 명사구 등도 보어로 볼 수 있다.

#12# **#생활# <조사 ‘가’의 기능 구별>** 일반적으로 ‘가’를 주어 뒤에 붙는 표지로 알고 있지만 ‘가’는 주어와도 결합하고, 보어와도 결합하는 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문장의 성분을 분석할 때 표지가 같아서 주어와 보어를 혼동할 수도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13# **#이론# <보어의 의미역할>** 보어의 의미역할(theta-role)은 대상(Theme)이다. 보어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의미역할이 대상으로 규정됨으로써 필수적 부사어의 의미역할인 ‘처소(Location), 도달점(Goal), 수혜주(Benefactive)’ 등과 구별된다. 보어의 의미역할이 대상(Theme)인 것은 보어가 부사어가 아니라 오히려 목적어와 흡사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보어와 필수적인 부사어의 공통점은 서술어가 주어, 목적어 이외에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이라는 사실밖에 없다.

#14# **#이론# <보격 조사의 구조적 여부>**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보격 조사는 주격 조사나 목적격 조사와 함께 구조적 조사로 묶을 수 있을 것이다.

#### 4.3.4. 담화론

##### i . 담화의 성립과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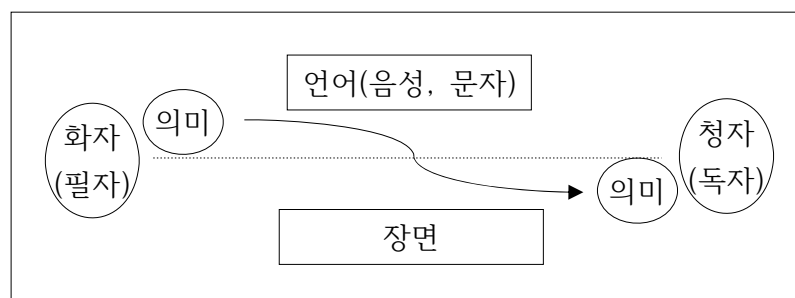
- ▶ 핵심어(keywords) : 담화, 발화, 문단, 단락, 담화 기능, 발화 기능, 탈맥락, 맥락 의존
- ▶ 관련 항목 : 문장, 단어, 형태소, 음운
- ▶ 표준화 대상 문법 용어 : 담화, 문단, 단락, 담화 특성, 장면

##### 1. 담화의 성립

###### 1.1. 담화의 개념

담화(discourse)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발신자(화자, 필자) 수신자(청자, 독자), 장면, 전달 내용(메시지, 의미), 전달 매체로서의 언어가 있어야 한다. 발신자는 발화를 생산하는 역할을, 수신자는 발화를 이해하는 역할을, 장면은 발화가 이루어지는 시간적·공간적 배경, 독자·청자가 처한 상황이나 사회·문화·역사적 배경, 공동체의 가치나 신념 등을 의미한다. 똑같은 문장이더라도 어떤 장면에서 발화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

언어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은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생각, 의미, 의도, 메시지를 의미한다. 담화를 구성하는 요소들 사이의 관계를 그림으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그림1-1> 담화의 구성 요소

<그림1-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담화는 의미나 생각, 의도를 전달하는 사람-화자(필자)-이 있어야 하고, 또 이를 수용하는 사람-청자(독자)-, 그리고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나 의도-메시지-, 또 이러한 작용이 일어나는 장면(상황)이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요소로 성립되는 담화는 일반적으로 발신자가 어떤 상황(장면)에서 어떤 의도(담화 기능)를 수신자에게 전달하고자 표현하는 문장이다.

담화는 일반적으로 문장 이상의 단위라고 정의된다. 다음 (1)을 보자.

(1) 사물이나 인물에 대하여 발표를 할 때에는 그 특성이 잘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사물을 설명할 때에는 모양이나 쓰임새 또는 그 대상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고릅니다. 상대방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을 찾아 알기 쉽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인물을 설명할 때에는 그 사람의 특징적인 모습이나 성격, 일대기, 일화, 업적 등을 생각합니다. 친구들이 들어 보았음직한 인물에 대하여 설명할 때에는 그 사람의 일대기나 업적, 그 사람과 관련된 재미있거나 중요한 일화를 이야기합니다. 또, 친구들이 모르는 인물에 대하여 설명할 때에는 그 사람의 특징적인 모습이나 성격을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1)은 모두 여섯 개의 문장의 연쇄로 이루어져 있는 문어 담화이다. 주제는 ‘사물이나 인물에 대해 발표할 때의 방법’이고 사물과 사람을 설명할 때 필요한 내용을 세부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다음은 대화 담화의 예이다.

(2) (음식점에서 주문하는 상황)

가. 점원: 주문하시겠습니까?

나. 손님: 전 짜장면 먹을게요.

(2') (점심 먹을 곳을 의논하는 상황)

가. 회사원1: 오늘 점심 어디로 갈까요?

나. 회사원2: 강남옥으로 가지요.

(2)는 식당에서 점원과 손님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화 담화이고 (2')은 두 회사원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화 담화로 하나의 주제로 계속 연쇄되어 나타날 수 있다. 이들 역시 문장과 문장의 연쇄로 이루어진 구어 담화이다.

이처럼 담화는 흔히 둘 이상의 문장이 하나의 주제를 향하여 발화되는 것을 말한다. 통사론적으로 담화는 문장보다 더 큰 단위로 두 개 이상의 문장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의되고, 의미론적으로는 하나의 주제를 향하여 기술되어 있는 것, 즉 의미적 완결성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개념 정의는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3) 가. (불 붙은 아파트를 가리켜 소리치며) 불이야.

나. (학교 앞) 서행

다. (강의동) 정숙

우선, 담화에서는 문장 이하 단위의 언어 표현이 사용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3가)는 ‘불이 났음’을 알리기 위하여 소리치는 장면에서 사용되는 것이고, (3나)는 ‘학교 앞의 도로에서 차를 천천히 운전해야 함’을 알리는 표지판에서 사용되는 것이며, (3

다)는 ‘강의동 건물 앞이니까 조용히 해 달라’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표현이다. (3가) ~ (3다)의 표현은 문장보다 더 큰 단위가 아니다. (3)은 명사와 조사가 결합한 형태이고 (3나), (3다)는 단어를 제시한 것이다. 이렇듯 비록 문장보다 더 작은 언어 표현이지만 이들은 특정한 상황에서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의미(의도)를 전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문장보다 작은 단위이지만 완결된 의미(의도)를 전달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또한, 단순히 문법적인 문장이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담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문법적인 문장의 연쇄이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담화로서의 기능이 매우 약한 경우도 있다.

(4) ㉠영호는 아침에 놀이공원에 갔다. ㉡놀이공원은 하루를 보내기에 매우 재미있는 곳이다. ㉢하루를 보내기에 재미있는 곳은 여러 곳이 있다. ㉣동물원도 그중 하나이다. ㉤동물원에는 호랑이가 살고 있다. ㉥호랑이는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야생 상태로 발견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발견되는 야생동물은 그 수가 점점 줄고 있다.

(4)는 모두 일곱 개의 문장이 연결되어 있다. 일곱 개의 문장은 모두 문법적인 문장이고 선후행 문장들 사이의 의미적인 관계도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일곱 개 문장 전체 연쇄는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지 일반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담화성(textuality)이 현저히 떨어진 경우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 경우조차도 ‘문법적인 문장의 연쇄이지만 문장 연쇄의 결속성(coherence)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례를 제시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적절한 담화로 간주될 수 있다.

담화의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담화로 성립하려면 의미론적으로 완결성을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의미론적 완결성에 대한 판정 여부는 주관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의미론적으로 (3가) ~ (3다)와 (4)는 하나의 주제를 향하여 의미적 완결성을 갖춘 것인지, 갖추지 않은 것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담화를 구성하는 발화 가운데는 문법적으로 적격하지 않은 문장조차도 사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담화를 통사론이나 의미론의 시각에서 정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결론적으로 담화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담화란 발신자가 특정한 장면에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수신자에게 전달하고자 표현하는 발화나 발화의 연쇄로 이루어진다. 담화의 단위는 발화이며, 발화는 흔히 문장보다 큰 단위이지만 때로는 문장보다 작은 단위로 나타나기도 한다.#1#

## 1.2. 담화와 언어 단위

일반적으로 언어 단위로 음운, 형태소, 단어, 문장을 든다. 언어 단위의 크기에 따른 나열이다. 담화를 문장보다 더 큰 언어 단위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다. 담화가 문장보다 더 큰 언어 단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차원이 같아야 한다. 담화도 문장, 단어,

형태소, 음운과 마찬가지로 추상적인 개념, 즉 랑그에 포함되는 것이어야 같은 차원의 단위로서 성립할 수 있다.#2#

음운은 단어나 형태소의 뜻을 변별해 주는 최소의 추상적인 단위를 말하는데 음운의 구체적인 실현이 변이음, 음성이다. 형태소는 의미를 가진 최소의 언어 단위로 더 분석을 하면 아무런 의미도 나타내지 못한다. ‘었’, ‘였’, ‘았’ 등은 모두 같은 형태소의 이형태들이다. 이 경우에도 형태소는 추상적인 실체이고 이형태는 구체적인 실체라고 할 수 있다. 단어는 의미를 지니고 자립적으로 쓰일 수 있는 언어 단위로 공통적인 의미 속성을 모아놓은 추상적인 실체이다. 이를 어휘소라고 할 수 있는데 어휘소가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을 개별 단어형이라고 부를 수 있다.

- (5) 가. 철수는 밥을 먹었다.  
나. 영희는 죽을 먹는다.  
다. 개가 밥을 먹다.

(5가)의 ‘먹었다’와 (5나)의 ‘먹는다’, (5다)의 ‘먹다’는 모두 구체적인 발화에서 부려 쓰인 말이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추상적인 <먹다>가 구체적으로 실현된 형태이다. 이처럼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을 ‘단어형’이라고 하는 데 비해 이들의 공통적 속성으로서의 추상적인 실체를 ‘어휘소’라고 하여 구체적인 실체로서의 단어와 추상적인 실체로서의 단어를 구분한다.

다음은 문장의 경우를 보자. 보통 문장은 완결된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최소의 언어 단위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성립하고 이들 사이의 의미적인 호응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 (6) 가. 영수: (날씨가 좋으니까 놀러 가자는 의도로)영수: 아, 오늘 날씨 정말 좋다.  
나. 기영: 오늘은 과제해야 해.  
(7) (혼자 독백으로)기영: 아, 오늘 날씨 정말 좋다.

(6가)와 (7)은 구체적으로 부려 쓰이는 상황에서는 각각 다르게 실현되고 그 전달 의도도 다르지만, 우리는 이를 같은 명제적 의미를 나타내는, 같은 문장이라고 한다. 같은 명제적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이라고 할 때는 추상적인 실체를 말한다.

이상에서 간단히 살펴본 것처럼 음운, 형태소, 단어, 문장은 모두 추상적인 실체이다. 그런데 담화의 경우는 추상적인 실체가 아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담화는 발신자, 수신자, 장면, 전달 내용(메시지, 의미), 전달 매체로서의 언어가 있어야 성립한다. 즉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단위이다. 음운은 뜻을 담고 있는 최소의 낱덩이가 아니라 고려의 대상이 아니지만, 형태소, 단어, 문장은 특정한 맥락에서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어떤 의도를 전달할 목적으로 음성적이든, 문자적이든 실현을 시킨 것은 담화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담화는 그 언어 단위의 크기와는 무관

한 것으로 형태소, 단어, 문장과 차원이 다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sup>#3#</sup> 음운, 형태소, 단어, 문장은 추상적인 실체로서 탈맥락적인 언어 단위인 데 비해, 담화는 구체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부러 쓰이는 맥락 의존적인 언어 단위이다.

앞의 (3가) ~ (3다)의 예를 다시 보자.

(3) 가. (불 붙은 아파트를 가리켜 소리치며) 불이야.

나. (학교 앞) 서행

다. (강의동) 정숙

(3가) ~ (3다)는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표현들이다. 모두 문장이 아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정확하게 의도를 전달하는 표현이다. 이처럼 의미상으로는 완결된 내용을 갖추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주어와 서술어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별도로 ‘소형문(minor sentence)’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소형문’의 문법적 특성이 무엇인지도 불분명하거나와 이러한 개념의 도입은 추상적인 실체와 구체적인 실체를 구분하지 못한 데서 연유한 것이라고 하겠다. (2가) ~ (2다)는 추상적인 실체로는 단어이고 구체적인 실체로는 담화라고 하여야 한다.

## 2. 담화의 단위

### 2.1. 담화와 발화<sup>#4#</sup>

다음 (8가) ~ (8다)의 예를 보자.

(8) 가. 미루나무 꼭대기

나. 하늘에 조각구름이 떠 있다.

다. 바람이 분다.

(8가)는 ‘구’, (8나)와 (8다)는 문장이며, 특히 (8가)는 의미적 완결성을 갖추고 있는 단어보다 큰 언어 단위이다. 그러나 주어와 서술어 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문장은 아니다. (8나)와 (8다)는 의미적 완결성을 갖추고 있으며 주술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문장이 된다. (8가) ~ (8다)의 구나 문장이 담화가 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맥락에서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어떤 의도를 전달하고자 해야 하며 그 의도를 수신자가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담화가 되기 어렵다.

누군가가 단지 (8가) ~ (8다)를 어떤 의도를 전달할 목적 없이 음성으로든 글로든 실현시켰다고 하자. 이 경우에는 추상적인 실체로서는 단어, 구, 문장이지만 담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비록 특정한 의도를 전달할 목적에서는 아니지만 음성적으로든 문자적으로든 구체적으로 실현되면 (8가) ~ (8다)를 추상적인 실체로서의 단어, 구,

문장과 구분하여 ‘발화’라고 명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발화는 언어 매체에 따라 문어 발화와 구어 발화로 구분할 수도 있고, 그 언어 단위에 따라 단어 차원의 발화, 문장 차원의 발화 등으로 구분하여 명명하는 것도 가능하다.

(2) (음식점에서 주문하는 상황)

가. 점원: 주문하시겠습니까?

나. 손님: 전 짜장면이에요.

(2') (점심 먹을 곳을 의논하는 상황)

가. 회사원1: 오늘 점심 어디로 갈까요?

나. 회사원2: 점심은 강남옥이지요.

대화 (2)와 대화 (2')은 각각의 상황에서 담화로 성립한다. (2가)와 (2나), (2'가)와 (2'나)는 각각의 대화쌍이 하나의 담화를 이룬다. 각각의 대화쌍을 통해 (2가), (2나), (2'가), (2'나)의 발화 의도가 무엇인지 확인 가능하다. 단어 차원이든 문장 차원이든 그것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을 ‘발화’라 하고,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확인 가능한, 통일성 있는 발화나 발화의 연쇄를 ‘담화’라고 할 수 있다.

앞의 예 (4)를 다시 보자.

(4) ㉠영호는 아침에 놀이공원에 갔다. ㉡놀이공원은 하루를 보내기에 매우 재미있는 곳이다. ㉢하루를 보내기에 재미있는 곳은 여러 곳이 있다. ㉣동물원도 그중 하나이다. ㉤동물원에는 호랑이가 살고 있다. ㉥호랑이는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야생 상태로 발견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발견되는 야생동물은 그 수가 점점 줄고 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4)은 일곱 개의 문장 차원의 발화 연쇄로 이루어져 있지만 하나의 주제를 향하고 있지 않으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발신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일곱 개의 문장 차원의 발화가 이어져 있더라도 담화가 아니거나 담화성이 매우 약하다.

(9) 가. 영희: 점심은 어디로 갈래?

나. 철수: 난 강남옥이지 뭐.

(10) 가. 점원: 주문은요?

나. 손님: 난 짜장면이요.

(9), (10)의 담화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표현들이다. (9나), (10나)는 발화이긴 하지만 통사적으로 문법적인 문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선택 제약을 어기고 있기 때문이다.

(9'나) 내가 강남옥이다.  
(10'나) 내가 짜장면이다.

(9'나), (10'나)는 문장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의미적으로 주술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문법적이지 않다. 그러나 (9), (10)의 대화 상황에서는 매우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표현들이다. 통사적으로는 성립하지 않지만 담화를 구성하는 이와 같은 경우에도 설명의 기능을 나타내는 (문장 차원의) 발화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문장은 추상적인 실체인 데 비해, 발화는 구체적인 실체로, 서로 차원이 다른 언어 단위이다. 또 발화는 발신자가 추상적인 언어 단위를 실제 상황에 표현한 것을 말하고 그 발화나 발화의 연쇄로 발신자의 의도가 수신자에게 이해될 때 그것을 담화라고 한다.

## 2.2. 담화의 하위 단위

앞의 장들에서는 담화와 음운, 형태소, 단어, 문장, 발화와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담화는 흔히 문장의 연쇄로 나타나므로 장문의 대화나 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전체 담화는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한 의미적 결속에 따라 다시 하위 단위로 구분해볼 수 있다.

먼저 문어에서의 하위 단위를 살펴보자. 전체 담화는 의미적인 결속성의 차이에 따라 더 잘게 나눌 수 있는데 이를 문단이라고 부른다.

문단은 하나의 중심 내용과 이를 상세화하는 세부 내용들로 이루어진다. 즉 발화의 연쇄가 하나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결속되어 있는 맥락 의존적인 언어 단위를 문단이라고 할 수 있다.

(11)

벼농사를 지키자.

최근 식생활 습관이 서구화되고 육류와 유제품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마다 쌀 소비량이 줄어 농가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1950년대에 비하여 농업 인구가 계속 줄고 있으며, 벼농사의 가치와 소중함도 점점 떨어지고 있다.

그러나 벼농사는 쌀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국토 환경과 사회를 유지시키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벼농사가 주는 여러 가지 이로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여 보아야 할 때이다.

첫째, 벼농사를 짓는 논은 홍수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논에서는 물을 채워 농작물을 재배한다. 논 주위를 논두렁으로 둘러싸고 논바닥을 평평하게 하여 3~10센티미터의 물을 채우는데, 이렇게 우리나라 논에 가둘 수 있는 물의 양은 춘천댐의 약 24배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논을 모두 없앤다면 6~8월 강우기의 홍수 사태가 더욱 많아질 것이다. 실제 중국에서는 양쯔 강 변의 논을 공장과 도시로 개발하면서 홍수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다.

둘째, 논은 환경을 깨끗하게 해 준다. 벼는 물을 정화하는데,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어 지하수가 되기 전에 빗물 속의 질소 화합물을 흡수하여 수질 오염을 막는다. 질소 화합물은 인체에는 유해하지만 벼에는 영양분으로 작용한다. 또 벼는 공기를 맑게 해 준다. 벼는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산소를 공급하는 식물로 밝혀졌다. 벼는 연간 약 2천만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약 1천 4백만 톤의 산소를 배출하여 공기를 정화시킨다.

셋째, 벼농사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에 도움이 된다. 정월 대보름, 단오, 추석 등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은 모두 농업에서 비롯되었다. 추수에 감사하고 이듬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춤과 노래를 즐기던 풍습이 오늘날의 추석이다. 풍물놀이, 두레 등의 오래된 전통문화도 벼농사에서 유래하였다. 이렇게 우리의 전통문화를 향유하고 보존하게 하는 벼농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쌀 소비량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1970년도에 136킬로그램에서 2008년에는 75.8킬로그램으로 줄었다. 이렇듯 쌀 소비량이 줄어들면서 논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벼농사는 국토를 지켜 주고 환경을 정화하며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구토 지킴이이자 전통문화를 보존하게 하는 문화 지킴이이다. 우리는 벼농사를 지켜야 한다. 우리가 먹는 밥 한 그릇이 벼농사를 지키는 힘이 될 것이다.

(11)은 여섯 개의 문단으로 구성된 담화이다. 첫 번째 문단은 세 개의 발화로 이루어져 있고, 두 번째 문단도 두 개의 발화, 세 번째 문단은 다섯 개, 네 번째 문단은 여섯 개, 다섯 번째 문단은 다섯 개, 여섯 번째 문단은 여섯 개의 발화로 이루어져 있다. 이 담화를 통하여 발신자는 ‘벼농사를 보호하자’고 수신자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뒤에서 다루겠지만 이와 같이 발신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화 기능’이라고 한다. 따라서 (11)의 담화 유형은 호소 담화, 담화 종류는 제안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첫 번째 문단은 ‘벼농사의 현실’을 중심 내용으로 하여 쌀 소비량의 감소, 벼농사의 가치와 소중함 약화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두 번째 문단은 벼농사의 이로움을 개관하고 있으며 세 번째 문단은 그 가운데 벼농사는 결국 홍수를 예방한다는 것이 중심 내용이고, 네 번째 문단은 환경을 깨끗하게 해 준다는 것이 중심 내용이며, 다섯 번째 문단은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중심 내용이다. 끝으로 여섯 번째 문단은 앞의 것을 요약하면서 주제를 강조하는 것으로 벼농사를 지키자는 것이 중심내용이다. 이처럼 여섯 개의 각 문단은 모두 중심 내용과 이를 뒷받침하는 세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5#

문단의 구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더 상위 개념에 해당하는 것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그 하위 개념은 그 중심 내용을 뒷받침하는 세부 내용이 되고 상위의 개념을 중심으로 하는 문단을 엮는 것도 가능하다. 이처럼 문단의 구분은 중심 내용을 어떤 수준으로 설정할 것이냐에 따라 가변적인 면이 있다. 예컨대 (11)의 예는 ‘벼농사를 지키자’를 중심으로 하여 전체를 하나의 문단으로 삼는다고 해서 틀린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 벼농사의 이로움을 구체적으로 부연하고 있는 셋째 문단부터 다섯째 문단을 하나의 문단으로 합치는 것도 가능하다. 이뿐만 아니라 벼농사의 이로움을 개관하는 둘째 문단과 이를 부연하고 있는 셋째 문단부터 다섯째 문단을 하나의 문단으로 합치는 것도 가능하다. 문단의 구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담화가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문단을 조직하는가에 따라 수신자의 수용성에 차이가 생긴다. 그러므로 문단의 조직 방법에 따라 담화성(textuality)에 변화가 생기게 된다.

문단은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해 놓은 개념이지만 발신자가 특정한 상황에서 담화 내적 구조를 알맞게 조직하여 응집성(cohesion)과 결속성(coherence) 있는 담화를 생산하기 위하여 또 수신자는 그 담화를 효과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담화의 하위 단위로 문단을 설정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문단보다 더 크지만 담화보다는 더 작은 의사소통 단위를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를 여기서는 ‘단락’이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12)

#### 국어의 문법적 특징

국어만이 가지고 있는 문법적 특징이 있다. 형태적 특징, 통사적 특징, 그 밖의 특징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1. 형태적 특징

국어는 첨가어(또는 교착어)이다. 즉, 어근(語根, 뿌리, root)에 파생접사나 어미가 붙어서 단어를 이룬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깨 뜨리 시 었 겠 더 군 요.”

1 2 3 4 5 6 7 8

1의 ‘깨-’는 어근이며, 2의 ‘-뜨리-’는 접사로서 ‘힘쭈’의 뜻을 나타낸다. 1의 ‘깨-’는 “유리창을 깨지 마라”에서와 같이 어근이면서 동시에 어간(語幹, 줄기, stem)이기도 하다. “유리창을 깨뜨리지 마라”와 같이 말할 수도 있는데 이때의 ‘깨뜨리-’는 ‘깨-’에 ‘-뜨리-’가 붙어서 이루어진 어간이다. 3의 ‘-시-’는 높임, (중략)

‘씨우개’는 어근 ‘쓰-’에 사역의 뜻을 보이는 접사 ‘-ㅣ우-’, 그리고 역시 접사인 ‘-개’가 차례로 붙어서 이루어진 것이다. ‘쓰-’는 “모자를 쓴다”라고 할 때의 어근인 ‘쓰-’이며 ‘-ㅣ우-’는 ‘띄우다, 재우다, …’에서 볼 수 있는 것이요, ‘-개’는 ‘덮개, 깔개 …’와 같은 말에서 쓰인 것과 똑같은 접사이다. (중략)

##### 2. 통사적 특징

(중략)

국어는 ‘주어+목적어+동사’의 문장 구성을 가지는 언어의 하나로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장 구성상의 특징이 있다. 국어에서는 모든 문법적 형태소(곧, 문장 안에서 체언의 기능을 보여 주는 조사, 용언의 활용어미 같은 것들)는 반드시 어근이나 어간 뒤에 온다. (중략)

1. 물이 산을 돌아 남쪽으로 흐른다.
2. 한 병사가 죽음을 무릅쓰고 적군의 전진을 저지하였다.

등의 예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밑줄 친 조사, 어미, 접사가 모두 어근 또는 어간 뒤에 쓰이고 있다.

국어에서 문장 성분의 자리 옮김이 자유롭다는 것은 제1장에서 잠깐 언급한 바가 있다.

3. (가) 냇물이 남쪽으로 흐른다.  
 (나) 남쪽으로 냇물이 흐른다.  
 (다) 남쪽으로 흐른다, 냇물이.  
 (라) 냇물이 흐른다, 남쪽으로.

(중략)

또 국어에서는 주어가 잇달아 나타나는 것 같은 문장 구성이 있는 점도 특이하다.

9. 영희가 마음씨가 곱다.
10. 그 책이 표지가 색깔이 마음에 든다.(중략)

이들은 모두 서술절을 서술어로 가진 예들이다. 9는 ‘영희가’가 주어이고, “마음씨가 곱다”가 서술어인데, 이것은 다시 주어, 서술어를 갖추어 가지고서 서술어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10에서는 서술절이 이중으로 되어 있다.

(중략)

### 3. 그 밖의 특징

국어에서는 주어가 없는 문장이 많이 쓰인다.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함께 주어가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 흔히 주어를 생략한다.

1. (가) “값이 얼마요?”  
 (나) “오천 원이오.”  
 (가) “너무 비싼데요.”  
 (나) “그럼 오백 원만 덜 받지요.”  
 (중략)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국어는 조사와 어미가 대단히 발달하여 다른 유형의 언어에서라면 부사와 같은 독립된 어휘로 나타내야 할 의미를 조사 혹은 어미로 나타낼 수가 있다.

조사는 문장 안에 쓰이는 체언에 문법적인 자격을 부여하는 이른바 격조사(格助詞) 이외에, 뜻을 보태 주기만 하는 조사가 있다. 다음의 밑줄 친 조사가 그러한 것이다.

7. 그가 노래는 잘 부르지만 시는 지을 줄 모른다.
8. 너만 갈 것이 아니라 나도 같이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중략)

이들을 보조사(補助詞)라고 하거니와 ‘은/는’은 ‘대조’(對照), ‘만’은 ‘단독임’, ‘도’는 ‘한 가지임’을 뜻한다. ‘마다, 이라도’, 그리고 그 밖의 ‘까지, 조차, 부터, (이)야, …’ 등의 보조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독특한 뜻을 보태어 주는 일을 한다. (중략)

또 부사형어미가 수십 개가 있어서 여러 가지 뜻의 부사절을 만든다. (후략)(남기심, 2001: 23 ~ 34)

(12)는 국어의 문법적 특징을 설명하는 글로 담화를 이루고 있다. 이 담화에서는 국어의 문법적 특징을 형태적 특징, 통사적 특징, 기타 세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담화 (12)에서는 각 범주의 세부적인 특징을 다시 문단을 나누어 나열하고 있다.

이처럼 세부적인 특징들이 문단을 이루어 나열되고 둘 이상의 문단이 합쳐져서 하나의 더 큰 언어 사용상의 단위가 구성될 때 이를 ‘단락’으로 보고자 한다.

단락은 문단의 개념과는 다르다. (11)에서 설명한 것처럼 문단은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데 비해, 단락은 하나 이상의 문단으로 이루어지며 한 담화에 반드시 대등한 수준의 단락이 둘 이상 존재할 때 설정이 가능하다. (12)는 국어의 문법적 특징을 세 단락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 담화이다. 세 단락은 모두 대등한 자격으로 성립하며 이 가운데 어느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두 단락이 통합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단락 역시 문단과 마찬가지로 의사소통의 필수적 단위라기보다 표현과 이해의 용이성을 위하여 편의상 갈라놓은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국어의 문법적 특징을 나타내는 세 단락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이어서 서술한다고 해서 담화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락 역시 문단과 마찬가지로 발신자가 특정한 상황에서 담화 내적 구조를 알맞게 조직하여 응집성과 결속성 있는 담화를 생산하고, 수신자가 그 담화를 효과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아 담화의 하위 단위로 설정하기로 한다.

흔히 문단과 단락의 개념이 문어 담화에서만 적용되는 언어 사용상의 단위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문단과 단락은 형식적인 차원의 개념이 아니라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한 의미 위계를 나타내는 단위로 파악한다면 구어 담화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우리가 어떤 주제에 대하여 토론을 하거나 발표를 하거나 연설을 할 때는 물론 대화를 할 때도 문단과 단락 차원의 의미적 위계가 고려되는 것은 당연하다.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문단과 단락은 응집성과 결속성 있는 담화를 생산하고 효과적으로 수용하게 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p>(13) 일상대화-취미  1: 20대.여자.대학생  2: 20대.남자.회사원  3: 20대.여자.회사원</p> <p>㉞-㉟  2: 아 나의 취미는.  뭐가 있지?  컴퓨터겠지 뭐~.  컴퓨터는 내가 초등학교 이 학년 때부터  했고,  지금까지도 하고 있고 처음에는,  처음에는,  처음에는 단순히 영화 보고,  그런 거 비슷한 거 한번 해 보고 싶어서  했는데, 이제는 ...않고 내 생활을 만들어  야겠지.</p>	<p>내가 숫자 놀음도 좋아하고.  1: 웃음  2: 숫자를 좋아하니까.  1: 취미이자 계획이자 미래에 계획이네.  2: 그지  1: 음  2: 기다려 봐.  말 끊지마.  1: 네.  2: 확실하게 말할 테니까.  잘 되면은,  진짜 멋진 사람되는 거고,  안되면 바보 되는 거야.  재미= 재미는 있을 거 같애.  내가 좋아하는 거라,  <u>1: 음 잘 할 거 같애.</u>  ㉞-㊱</p>
---	--

<p>거의 사무적으로 ...</p> <p>그래도 별로 좋지가 않은데</p> <p>그래도 내가 좋아하니까 열심히 한번 해 볼려구,</p> <p>1: 끝이야?</p> <p><u>취미 끝이야?</u></p> <p>㉔-㉕</p> <p>2: 내가 관심 있어하는 분야는 유닉스.</p> <p>씨버 관리 분야구,</p> <p>처음에는 피씨로 시작했다가 지금은,</p> <p>거의 서버 쪽으로 많이 옮겨 갔구,</p> <p>그걸 배울려면,</p> <p>보통 사람들이 많이 안 아는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아서 전문학원을 다녀야 되는 데,</p> <p>그걸 배울려고,</p> <p>이제는 회사를 때려 치고,</p> <p>공부를 좀 할려 그러고,</p> <p>그 와중에 틈 일도 좀 할려 그러고,</p> <p>사업 비슷한 것도 한번 해 볼려 그러구,</p> <p>나한테는 되게 어울리는 취미인 거 같애.</p>	<p>2: 그게</p> <p>씨버 관리자가,</p> <p>단지 컴퓨터만 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p> <p>전체적인 윤곽을 거의 씨유에 가까워.</p> <p>전체적인 윤곽을 잘 잡아야지 그런 관리를 할 수 있거든,</p> <p>그래서 책도 좀 많이 읽어야 되고,</p> <p>어~ 특기도 아니고 취미도 아니지만 내가 관심 있어하는 분야.</p> <p>지금은 비록 하는 게 없지만은 나중에는 아마 좋은 직장이 될 수 있을 거 같애.</p> <p>㉔-㉕</p> <p><u>그 답은 또 다른 취미는 운동.</u></p> <p>스포츠 중에서도 농구.</p> <p>농구는 고등학교 때도 클럽에 있었고,</p> <p>대학교 때도 클럽에 있었고,</p> <p>아 클럽이라 해서 뭐~ 대단한 거 아니구,</p> <p>맛세 만나서 그냥 술 먹거,</p> <p>술 먹으면서 농구하고,</p> <p>농구하고 술 먹고,</p>
<p>그런 거였어.</p> <p>농구는 뭐~ 나름대로,</p> <p>잘 한다 잘 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p> <p>땀 사람들이 봤을 땐 잘 한 대,</p> <p>잘 한 대</p> <p>그 정도야.</p> <p>1: 어 보고 싶어.</p> <p>㉔-㉕</p> <p>2: 잘 하진 못해.</p> <p>1: 농구 잘 하는 사람 잘 한다고 자부하는 남자들을 내가 꽤 봤거든,</p> <p>2: 응.</p> <p>3: &lt;웃음&gt;</p> <p>1: 근데 내가 봐서,</p> <p>진짜 잘 하네 이런 애를 못 봤어</p> <p>2: 나중에 한번 볼 기회가 있겠지 뭐~</p> <p>아주 잘하는 건 아니야 근데,</p> <p>1: 아 또 꼬리를 내리는데.</p> <p>2: 어?</p> <p>1: 꼬리를 내리는데,</p> <p>3: 어느 정도 자신이 차 있다.</p> <p>1: 애는 항상 자신감이 있어.</p> <p>2: 사람이 자신감이 있어야지.</p> <p>3: 맞아 자신감이 있어야지.</p>	<p>1: 난 자신감이 없어.</p> <p>2: 못하더라도 자신감이 있어야지 더 잘 할려고 노력할 거 아냐</p> <p>그런 거 마저도 없으면 어떡해.</p> <p>1: 죽어야지.</p> <p>2: 똥져 버려라 그냥 어 &lt;웃음&gt;</p> <p>3: &lt;웃음&gt;</p> <p>1: 알았다.</p> <p>3: &lt;웃음&gt;</p> <p>2: <u>내 취미는 여기까지.</u></p> <p>㉔-㉕</p> <p>3: 근데 막~ 취미 얘기할라 그러면 이것저것 막 섞여 가지구 장난 아닌데,</p> <p>나는 어~ 내 취미 생활로 뭔가 하나를 전문적으로 파고들고 싶은데</p> <p>난 여때까지 그러= 그렇게 하질 못 해 왔어</p> <p>1: 너 취미 많잖아.</p> <p>(이하 생략)</p> <p>서상규·구현정(2002: 348~358 참고)</p>

(13)은 ‘취미’에 대한 세 사람의 대화를 전사한 것이다. ㉞는 ‘2’의 취미와 관련된 대화이고 ㉟는 ‘3’의 취미와 관련된 대화가 시작되는 부분이다. ‘1’, ‘2’, ‘3’의 대화에서도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에 따라 문단을 구분하는 것도 가능하고, 누구의 ‘취미’를 얘기하는 순서인가에 따라 단락을 나누는 것도 가능하다. ㉞와 ㉟는 단락의 경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면 ㉞-㉟, ㉞-㉟, ㉞-㉟, ㉞-㉟, ㉞-㉟는 문단의 경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어에서는 ‘한 칸 들여쓰기’나 ‘차례 매김’ 등을 통해 문단이나 단락을 구분하는데 비해, 구어에서는 ‘쉽’과 같은 반언어나 비언어 또는 ‘차례 매김’ (13)의 밑줄 그은 ‘중심 내용 전환 표지’<sup>1)</sup> 등을 통해 구분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담화, 발화, 문단, 단락의 개념은 문어뿐만 아니라 구어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참고 문헌

- 고영근(1990), 「문장과 이야기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관악어문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구본관(2014), 「단어」, 『표준국어문법개발(2단계 제1차 워크숍 자료집)』.
- 구현정(2003), 「대화 텍스트의 구조」, 『텍스트 분석의 실제』(이석규 편), 역락.
- 구현정(2011), 「구어와 담화: 연구와 활용」, 『우리말연구』28, 우리말학회.
- 김용도(1998), 「언어학의 담화/텍스트 연구」, 『외대논총』18-1, 부산외국어대학교.
- 김종현(2012), 「국어과 교육과정을 위한 담화 개념의 위상」, 『국어교육학연구』44, 국어교육학회.
- 김지영(2014), 「텍스트 기반 어휘 교육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노석기(1984), 「국어의 담화와 문장에 대한 특성 비교」, 『한글』184, 한글학회.
- 서상규·규현정 공편((2002), 『한국어 구어 연구(1)-구어 전사 말뭉치와 그 활용-』,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한국문화사.
- 서혁(1995), 「담화의 기능 및 유형」, 『국어교육학연구』5-1, 국어교육학회.
- 이병규(2013ㄱ), 「표준문법 정립을 위한 담화론의 논점 탐색」, 『문법 교육』 19, 한국문법교육학회.
- 이병규(2013ㄴ), 「담화」, 『개념 있는 국어 문법(김홍범 외)』, (주)지학사.
- 이성만(2010), 「텍스트에서 담화로-텍스트언어학의 확장」, 『텍스트언어학』29, 한국텍스트언어학회.
- 전영옥(2009), 「구어와 담화 연구」, 『한국어학』45, 한국어학회.
- 김봉순(2001), 「국어교육을 위한 텍스트 언어학」, 『국어교육학연구』 12, 국어교육학회.

1) 대화에서 중심 내용(문단) 전환 표지는 주로 대화의 상대방이 중심 내용을 옮기기 위해 사용하거나 화자가 새로운 중심 내용(문단)으로 옮겨가기 위하여 사용한다. (14)의 밑줄 그은 부분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류관수(1986), 「담화 분석의 방법론적 접근(1)-문장 단위를 중심으로」, 『외국문화연구』 86-1. 조선대
- 이성만(2007), 「텍스트 언어학의 현황과 전망-텍스트 기술의 기본 차원들」, 『우리말연구』 20, 우리말연구학회.
- 이희자(2002), 「의사소통의 최소 단위」로서의 ‘발화문’과 ‘문장」, 『텍스트언어학』 13, 텍스트 언어학회.
- 주세형(2004), 「학교 문법 다시 쓰기-언어 단위 문제를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20, 국어교육학회.
- 고영근(1995), 『단어, 문장, 텍스트』, 한국문화사.
- 고영근(1999), 『텍스트이론』, 아르케.
- 박영순(2008), 『한국어 담화·텍스트론』, 한국문화사.
- 백용학(1993), 『화용론과 담화분석』, 동아대학교출판부.
- 송경숙(2002), 『담화분석: 대화 및 토론 분석의 실제』, 한국문화사.
- 이석규 편(2003), 『텍스트 분석의 실제』, 역락.
- 이원표 옮김(1997), 『담화연구의 기초』, 한국문화사. (Renkema, J.(1993), Discourse studies: an introductory textbook, Amsterdam: Philadelphia: J. Benjamins.)
- 정희자(2009), 『담화와 문법 그리고 의미』, 한국문화사.
- 남기심(2001), 『현대국어통사론』, 태학사.
- Foucault, M. (1972), *The Archaeology of Knowledge and the Discourse on Language*, New York: Pantheon.
- Harris. Z. (1951), *Methods in Structural Linguistic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yons, John(1977), *Semantics 1, 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chiffrin, D. (1994), *Approaches to Discourse Analysis*. Oxford: Blackwell.

- 
- #1# **#국교# <담화의 개념>**국어 과목이나 독서와 문법의 담화 부분에서는 담화를 문장보다 큰 단위라는 관점을 많이 취하고 있다. 담화의 성립 조건에 부합하는 개념 정의가 요구된다.
- #2# **#이론# #국교# <문장의 개념>**학술적인 논의에서는 물론 국어 과목에서 추상적인 실체로서의 언어 단위와 구체적인 실체로서의 언어 단위가 구분되지 않은 채 같은 용어로 혼용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단어, 문장이 그러하다. 따라서 화용론적으로 문장의 화행 기능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통사론적으로는 문장이 아닌 언어 형식들(불이야!, 나는 짜장면이다.)의 설명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추상적인 실체로서의 언어 단위와 구체적으로 부러 쓰이는 언어 단위는 차이가 다른 것으로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구된다.
- #3# **#이론# <문장의 개념>**Lyons(1977)에서는 추상적인 문장을 ‘체계문(system sentence)’, 발화된 문장을 ‘쓰인문(text sentence)’으로 명명한 바 있다. ‘체계문’이든 ‘쓰인문’이든 문장을 가리킨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형태론적인 단어도 담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추상과 구체(실제)에 따라 문장을 ‘체계문’과 ‘쓰인문’으로 구분한 Lyons(1977)의 개념과 용어를 수용하지 않는다.
- #4# **#이론# #국교# <발화의 개념>**‘발화’도 ‘담화’와 마찬가지로 구어만을 가리키느냐 문어까지 포함하느냐를 두고 혼란이 있다. 발화를 구어에 한정하는 경우 문어에 대한 대응 용어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제한한 논의는 없다. 발화를 구어와 문어를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이를 구분해야 할 때는 구어(적) 발화, 문어(적) 발화로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구어 문법과 문어 문법이 다르지 않다면 구어, 문어라는 용어 자체가 발화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도 가능하다.
- #5# **#이론# <문단의 담화 성립 여부>**각 문단은 ‘버농사를 지키자’라는 주제의 담화 속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각 문단이 개별적으로 일정한 담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정보 전달, 호소, 약속, 친교, 선언 등과 같은 담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발신자가 개별 문단을 전개하는 것은 호소 기능

을 하는 ‘벼농사를 지키자’라는 담화를 담화답게 구성하기 위하여 담화의 특성(통일성, 응집성, 정보성, 의도성, 수용성, 상황성, 상호텍스트성)을 고려하여 도입한 것이지 각 개별 문단 별도의 담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단을 전개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각 문단이 별도의 담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하면 이 경우 각 문단은 전체 글의 문단의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전체 담화와 다른 별도의 담화라고 해야 한다.

## ii. 담화의 구성 요소

- ▶ 핵심어(keywords) : 화자(필자), 청자(독자), 메시지(전언), 상황(장면)
- ▶ 관련 항목 : 화행, 문장, 단어
- ▶ 표준화 대상 문법 용어 : 메시지, 맥락, 상황

### 1. 담화 구성 요소와 전달 매체

앞 절에서 담화는 발화의 연쇄로 이루어진 언어 생산 단위로, 내적으로 맥락화된 수행된 언어라고 정의했다. 여기에서 수행된 언어라 함은 담화를 구성하는 요소인 화자, 청자, 메시지(발화의도), (상황)맥락이 전제됨을 의미한다. 이것들은 담화 연구의 주요한 변인이 된다.

담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앞 절에서 제시한 것처럼 의미나 생각, 의도를 전달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또 이를 수용하는 사람, 그리고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메시지), 또 이러한 작용이 일어나는 상황(장면)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특정 상황(장면)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형식은 기능으로부터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고 발신자의 의도와 분리될 수 없으므로, 담화 연구는 담화 참여자, 언어 형식, 담화 기능, 담화 상황(장면)을 함께 다루게 된다.

또한 담화는 의사소통을 위하여 사용하는 언어 행위이므로, 담화 연구는 직관에 근거한 인위적 자료가 아닌 실제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담화는 음운, 형태, 통사에 이어지는 다음 단계의 언어 단위인 동시에, 문장 이하 단위의 이론적 언어 연구와 대비되는 실제적 언어 연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실제 언어 수행의 결과인 담화는 맥락 의존적으로만 해석되고 필연적으로 추론을 수반하게 되므로, 담화에서의 언어 사용에 대한 분석은 인간 생활에서 언어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독립해서 해석되기 어렵다.

담화는 전달 매체에 따라 문어 담화와 구어 담화로 구분할 수 있다.<sup>#1#</sup> ‘구어 담화’는 일정한 의사소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된 구어 언어 형식을 가리키며, ‘문어 담화’는 이것이 문자 언어로 쓰인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구어 담화와 문어 담화가 단순히 구어나 문어나 하는 언어 자료 차이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sup>1)</sup> 즉, 구어 담화와 문어 담화는 담화 참여자, 담화의 구조나 사용되는 어휘, 표현, 상황(장면) 등에 있어서 맥락의 차이를 보인다. 구어 담화인 말하기와 듣기는 동시적으로 발생하여 화자와 청자가 교대되면서 상호 교섭하여 조화를 이루는 일련의 과정으로, 의미들이 상호 교섭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창조해 가는 과정임에 반하여, 문어 담화는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순차적으로 소통된다.<sup>2)</sup> 실제

1) Lyons(1977:320)에서는 매체(medium)를 경로(channel)과 구별하여 매체를 문자 매체, 음성 매체로 구분한다. 매체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상이할 수 있다.

2) 구어성 문어 중 실시간 채팅과 같은 장르는 일반 문어에 비해 동시적 소통에 가깝다. 다만, 상대방의 표정과 같은 동반언어적 특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구어와는 구별된다.

로 이러한 차이는 구어 담화와 문어 담화의 연구 방법론에서 두드러진다. 구어 담화 자료는 직접 대화의 현장에서의 녹취나 녹화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전사의 단계를 거치게 되며, 전사된 자료를 통해 언어적, 동반언어적 특징을 분석한다. 구어 담화에서는 화자와 청자가 동시에 언어를 수행하며, 현장에서의 대화 분석을 통해 소통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연구자들은 구어 담화 자료의 분석을 통해서, 대화의 구조나 순서, 대화에 나타난 화자의 의도, 대화의 전략 등을 주로 연구하게 된다.<sup>3)</sup> 이에 반해 문어 담화는 주로 전자화된 문서나 인쇄된 문서를 통해 수집하게 된다. 문자 외에는 동반언어적 특징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필자의 배려 없이는 집필 의도를 완전히 해석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어, 구어 담화에 비해 해석의 자의성이 넓어질 수 있다. 모든 문어 담화 역시 독자를 전제하고 있다고 하나, 독자의 참여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독자가 구체화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구어와는 달리 참여자 정보나 상황 정보가 적극적으로 다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문어 담화 연구는 주로 필자의 의도에 초점이 주어지며, 문어 담화 자체의 통일성이나 응집성, 문체 등의 연구에 초점을 두게 된다.

실상 구어나 문어나를 나누는 것은 연구를 위한 구분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구어성 문어와 문어성 구어 자료가 존재하고 구어나 문어 모두 담화의 특성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단순히 구어나 문어나의 구분과 더불어, 대면성과 동시성을 전제로 한 상호작용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나 아니면 비대면적이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른 구분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강의’와 같은 구어 담화는 대면성은 있으나 동시성보다는 일방향성이 크고, ‘연설, 선언문 낭독’과 같은 구어 담화는 미리 준비된 원고로 청자와의 상호성이 미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이메일, SNS’와 같은 경우에는 비록 문어이기는 하나, 실시간 상호성을 가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구어 자료] <--> [문어성 구어] <--> [구어성 문어] <--> [문어 자료]

아울러 담화의 연구에 있어 고민해 볼 영역은 담화 자료의 범위이다. 언어를 다루는 학자들은 언어 자료에만 한정하는 경우가 많다. 학자에 따라 구체적인 언어 자료에만 한정할 것인지, 비언어적 요소, 포스터와 같은 언어가 보조적인 자료, 비언어적 사건이나 현상까지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나뉘기도 한다.<sup>4)</sup>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언어 자료에만 한정하기로 하며, 담화의 구성 요소로 인해 달라지는 언어 표

3) 구어 담화에 초점을 두어 ‘대화 분석’에 초점을 둔 연구가 많은데, ‘대화 분석’은 언어학적 측면에서 대화를 분석하는 연구로, 사회학자 Sacks, Schegloff, Jefferson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들은 사회적 사례, 인접쌍, 대화의 내적 구조, 말순서 취하기 등에 관심을 가지고, 선호 조직에 대한 분석(인접쌍 간의), 화제의 조직(대화 참여자 간의 협력적 상호작용 분석), 비언어적 반응표시의 기능에 대한 연구(담화표지, 반응표시), 비언어적 측면에 대한 분석 등의 세부 주제에 관심을 가졌다. 일상 대화와 제도 상황에서의 대화 사이에 존재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연구하는 비평적 담화 분석(사회적 관행, 힘, 불공정의 측면 연구)을 파생하기도 했다.

4) 하지만 최근 국어교육이나 한국어교육에서는 매체 활용 교육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므로, 이해와 표현이라는 영역을 고려할 때 담화 자료를 언어적 자료에만 한정할 것인가도 논의거리가 될 것이다.

현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 2. 담화 참여자

담화는 참여자에 따라, 의사소통 목적에 따라, 의사소통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담화 참여자 요소에 대해 살펴보자. 화자(필자)는 전언을 전달하는 사람이며 청자(독자)는 전달 받는 사람이다. 담화는 화자(필자)와 청자(독자)가 생각과 느낌을 소통하여 협력적으로 의미를 구성하는 상호교섭적 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화자(필자)는 청자(독자)와 청자(독자)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담화를 구성해야 한다.

화자(필자) 요인	청자(독자) 요인	화청자 관계 요인
나이	수준	성별 관계, 연령
성별	요구	차이, 지위 차이,
계층	태도	친소 관계, 관계
---	--	유형
		--

구어 담화 연구에서 화자의 정보는 나이, 성별, 계층 등에 따라 세분되어 연구되기도 한다. 아울러 화자가 선택하는 언어 표현은 청자의 수준, 요구, 태도 등을 분석해서 선택된다. 또한 참여자 간의 관계에 따라 용인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발화할 때 의사소통의 적절성에 위배되지 않으며, 이를 위해 화자는 효과적인 전달 전략을 고안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대인 담화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도 의사소통 전략은 달라질 수 있는데, 이에 따라 높임, 서법, 심리적 태도를 나타내는 언어 표현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아래 구어에서의 예 (1)과 (2)를 보면, 서로 상이한 화청자 요인이나 화청자 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데, 이는 담화의 구성 요소를 고려한 담화 단위에서만 해석될 수 있는 것들이다.

(1) 가: 날씨가 참 좋네 그려.

나: 가을이 온 게지.

(2) 가: 날씨가 참 좋습니다.

나: 가을이 온 것 아니겠니? 참 좋구나.

반면에 문어 담화 연구에서는 필자의 나이나 성별, 계층과 같은 변인보다는 필자의 집필 목적이나 독자의 요구나 수준을 고려한 적절한 담화인지에 초점이 주어진다. 필자는 작문의 목적이나 특성에 따라 적절한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여 글의 정보를 탐색·선택·조직함으로써 의미를 구성하고, 새롭게 구성된 의미를 배경 지식에 통합하여

이를 여러 가지 문제 해결 상황에서 활용하게 된다. 이를 위해 필자는 반복, 생략, 대용, 지시, 접속, 담화표지 등과 같은 다양한 언어 표현을 활용한다. 문어의 독자의 역할은 구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할 수 있으나, 모든 필자는 잠정적 독자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는 순차적인 상호성을 가진다. 독자라는 존재는 수동적인 존재는 아니며 필자의 글을 읽고 의미를 구성하는 능동적 사고 행위를 하는 주체이므로, 결국 필자와 독자는 집필과 독서를 통해 사회적 소통을 이룬다는 점에서 상호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3. 메시지(발화 의도)

메시지는 화자(필자)가 청자(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발화 의도를 말한다. 이는 의사소통의 목적과 직접 연계된다. 의사소통의 목적은 구어 담화나 문어 담화나에 따라 달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구어 담화에서는 화자의 대화 목적이 지식 정보의 습득, 문제의 해결, 대인 관계 형성 및 유지 발전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따라서 화자가 의도하고 있는 발화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의사소통의 전략이 필요하다. 즉 대화 참여자에 따른 발화 전략, 발화 의도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발화 전략, 의사소통 상황에 따른 적절한 발화 전략을 알아야 한다. 화자는 청자의 나이, 화자와 청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한 적절한 발화의 선택과 다양한 의사소통의 상황(대화, 토론, 토의, 발표 연설, 면접 등)에 따른 적절한 발화를 선택해야 한다. 이러한 발화 의도는 언어적 표현 외에도 동반언어적 표현으로도 나타나 주도과 협력의 상호작용을 이끌어낸다.

이에 반해 문어 담화에서의 필자의 작문 목적은 자기 성찰, 학습을 위한 글쓰기, 정보 전달, 사회적 행위를 위한 작문 등으로 구분된다. 문어 담화에서의 필자의 발화는 대면의 독자를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즉각적인 반응과 피드백을 얻을 수 없다는 점에서 논리성을 요구하는 영역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작문은 일정한 독자를 염두에 두고, 글을 통한 독자와의 소통을 통해 사회 문화적 흐름에 참여하고 기여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사회적 행위라고 규정된다. 따라서 구어 담화이든 문어 담화이든 간에 청자(독자)를 염두에 둔 구체적인 담화 유형에 따른 효율적인 의사소통 전략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 4. 맥락

그런데 앞서 제시한 담화 구성 요소 중 화자의 발화 의도나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항상 성공적으로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 대화 참여자 변수를 비롯하여 상황 맥락 등의 다양한 맥락<sup>2)</sup> 변인의 영향을 받아 전달하고자 했던 의도나 메시지가 달라지기도 하므로 상황 맥락을 살피는 일은 중요하다. 언어는 일종의 사회적 행위이기 때문에 화자와 청자가 처한 광범위한 상황 맥락과 무관하게 존재할 수 없으며, 맥락

은 발화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맥락은 특정 발화의 해석에 필수적인 요소일 뿐 아니라 발화의 생성 단계에서부터 발화의 형식과 내용, 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sup>5)</sup> 따라서 담화의 올바른 해석을 위해서는 상황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3##4#

먼저 상황 맥락에 대해 살펴보자. 시공간인 상황 맥락 즉,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의 상황 맥락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말할 내용이나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sup>6)</sup>

다음으로 사회문화적 맥락, 즉 의사소통에 관여하는 사회문화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서로 다른 장면에서 같은 의사소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각각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표현을 선택하여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말한다는 의미이다. 상황에 따라 교실 담화, 병원 담화, 법원 담화, 판매 담화 등과 같이 구분될 수도 있다.<sup>7)</sup> 또한 시대마다 그 시대만의 말 문화가 있다. 이러한 말의 문화는 연령에 따라, 사회적 계층에 따라, 성의 차이에 따라 달리 형성되기도 한다. 사회·문화적 맥락은 담화와 글의 수용, 생산 활동에 간접적으로 작용하는 맥락으로 역사적·사회적 상황, 이데올로기, 공동체의 가치·신념 등을 포함한다. 어떤 담화의 의미와 해석은 일반적인 사회적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상호 간에 의존되어 있다. 담화를 생성하거나 수용할 때, 담화의 참여자들은 필연적으로 사회 맥락에 근거한다. 우리의 전통 언어 예절은 높임법이나 친인척 간의 호칭 등에서 상당히 엄격하고 복잡한 체계를 지니고 있다. 특히 웃어른이나 연장자에 대한 언어 예절은 신중하고 깃들한데, 이들은 사회문화적 맥락이 작용하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대부분의 담화 참여자들은 이미 축적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이 사용했던 담화들을 반복하거나 변용하기 때문에, 담화 참여자들은 담화의 관습에 의해 약간의 개인적인 차이는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그 사회문화적 맥락에 근거하여 일반화된 담화를 다시 생산한다고도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경향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기도 한다.

이상으로 담화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살펴보았다. 사실, 담화를 각각의 구성 요소들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맞물려 있다. 즉, 담화의 구성 요소 간의 총체적이고 역동적인 관계가 담화의 생산과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담화에서의 언어 표현을 연구한다는 것은 문장 단위에서는 설명할 수 없으나, 상황 맥락 속에서 설명할 수 있는 언어 현상, 언어 규칙을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태도에는 담화의 구조와 해석에 유의미한 통일된 규칙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는 관점이 들어 있다. 아울러 담화가 가지는 상호작용적 기능은 화자의 다양한 문법 선택에 있어 영향을 미친다. 화자는 발화 의도의 효율적인 전달을 위해, 화제/평언 구조, 도치, 문장 성분의

5) 학자에 따라 맥락(context)과 상황(context of situation)이라는 용어는 혼용되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화자, 청자, 전언, 상황 등의 담화 요소를 포함하는 담화 환경 전체를 맥락이라고 칭하고, 화자, 청자를 제외한 것을 상황(context of situation)이라고 칭하기로 한다.

6) 격식적 장면과 비격식적 장면, 제3자 유무를 포함될 수도 있다.

7) Hewings & Hewings(2005)에서는 특정한 직업적, 사회적 그룹이 반복적인 의사소통 상황에 놓이면서 특징적인 문법 구조, 텍스트나 담화를 조직하는 방식인 언어사용역(register)을 개발하게 된다고 하였다. 담화공동체가 특정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해 관례화된 일련의 언어적 관습을 의미한다.

이동, 대치, 생략, 피사동 표현, 보조사의 표현 등을 활용하는데, 이들은 모두 화자의 발화 의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또한 화자는 청자를 고려하면서 문장 종결법, 높임법, 화행 등을 선택한다. 아울러 상황 맥락에 비추어 구어체와 문어체에 부합하는 표현, 담화 장르에 맞는 표현, 격식 및 비격식 표현의 적절한 사용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상황 맥락과 언어 형식의 밀접한 상호 관련성을 주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담화의 구성 요소를 총체적으로 연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참고 문헌

- 고영근(1990), “문장과 이야기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관악어문연구』, 서울대학교 국문과.
- 고영근(1995), 『단어, 문장, 텍스트』, 한국문화사.
- 구현정(2003), “대화 텍스트의 구조”, 『텍스트 분석의 실제』(이석규 편), 역락.
- 구현정(2011), “구어와 담화: 연구와 활용”, 『우리말연구』28, 우리말학회.
- 김용도(1998), “언어학의 담화/텍스트 연구”, 『외대논총』18-1, 부산외국어대학교.
- 김종현(2012), “국어과 교육과정을 위한 담화개념의 위상”, 『국어교육학연구』44, 국어교육학회.
- 노석기(1984), “국어의 담화와 문장에 대한 특성 비교”, 『한글』184, 한글학회.
- 노석기(1990), “우리말 담화의 결속관계 연구”, 『한글』208, 한글학회.
- 박영순(1994), 『한국어의미론』, 고려대학교 출판부.
- 박영순(2008), 『한국어 담화·텍스트론』, 한국문화사.
- 박정준(1994), “담화의 텍스트 언어학적 분석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백용학(1993), 『화용론과 담화분석』, 동아대학교출판부.
- 서혁(1994), “담화의 분석과 화제, 초점에 대하여”, 『선청어문』22-1, 서울대학교국어교육과.
- 서혁(1995), “담화의 기능 및 유형”, 『국어교육학연구』5-1, 국어교육학회.
- 송경숙(2002), 『담화분석: 대화 및 토론 분석의 실제』, 한국문화사.
- 송경숙(2005), 『담화 화용론』, 한국문화사.
- 신현숙(1997), “21세기 담화 의미 연구의 방향”, 『한국어의미학』1, 한국어의미학회.
- 이경남(1996), “문장문법에서 담화문법으로의 확대 필요성”, 『영어교육』51-2, 한국영어교육학회.
- 이석규 편(2003), 『텍스트 분석의 실제』, 역락.
- 이성만(2010), “텍스트에서 담화로-텍스트언어학의 확장”, 『텍스트언어학』29, 한국텍스트언어학회.
- 이용주(1993), 『한국어의 의미와 문법 I -기본적인 관점-』, 삼지원.
- 이원표 옮김(1997), 『담화연구의 기초』, 한국문화사. (Renkema, J.(1993), *Discourse studies: an introductory textbook*, Amsterdam; Philadelphia: J.

Benjamins.)

이원표(2001), 『담화분석: 방법론과 화용 및 사회언어학적 연구의 실례』, 한국문화사.

임규홍(2007), “국어 담화분석 연구의 현황과 전망”, 『우리말연구』20, 우리말학회.

임지룡(1992), 『국어 의미론』, 탑출판사.

장석진(1985), 『화용론연구』, 탑출판사.

전영옥(1999), “한국어 담화에 나타난 반복표현 연구: 유형, 분포 및 기능”, 상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전영옥(2009), “구어와 담화 연구”, 『한국어학』45, 한국어학회.

정희자(2008), 『담화와 문법』, 한국문화사.

정희자(2009), 『담화와 문법 그리고 의미』, 한국문화사.

Foucault, M. (1972), *The Archaeology of Knowledge and the Discourse on Language*, New York: Pantheon.

Harris, Z. (1951), *Methods in Structural Linguistic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Schiffrin, D. (1994), *Approaches to Discourse Analysis*. Oxford: Blackwell.

#1# **#이론# #교육# <담화 연구의 목표>** 학문 분야와 언어교육 분야는 담화 연구의 목표에 있어 차이를 가질 수 있다. 먼저, 학문 연구에서는 사용되는 언어의 속성에 관심을 두는 반면, 언어교육 분야에서는 언어가 사용되는 현상이나 언어 사용의 과정, 언어가 인간의 의사소통에 사용되는 현상에 관심을 둔다. 둘째로는 학문 연구가 담화의 문법성 내지는 규칙성을 발견하는 데에 초점을 둔다면, 언어교육 분야에서는 이를 넘어서서 교육적 유용성(규칙성 외에 이를 사용하는 창조성)에도 초점을 두게 된다. 즉, 학문 연구가 언어적 관습이나 담화의 관습을 탐구한다면, 언어교육은 언어 사용자들이 이미 사용하는 담화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관심을 가지며, 이를 위한 교육내용, 교수학습법, 평가에의 적용까지 고려한다는 점이다. 다만 국어교육에서는 담화의 규칙을 이미 사용자들이 알고 있으므로 교육적 활용(어떻게)을 더 중시한다면, 한국어교육에서는 학습자들은 이를 알 직관이 없으므로, 언어적, 담화적 관습의 내용(무엇을)과 더불어 효율적 사용(어떻게) 모두가 중요한 연구가 된다.

#2# **#이론# <맥락의 범위>** 학자별로 ‘맥락’에 대한 개념 정의는 연구 주제나 목적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며, 맥락의 세부 범주나 유형에 대한 논의도 다양하다. 서로 다른 배경지식과 서로 다른 연구의 패러다임을 가진 연구자들은 맥락적 요소들을 각자 서로 다른 방법으로 범주화하고 연구의 목적에 따라 제각기 다르게 범주화된 것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Lyons(1977:306)는 맥락을 “언어 사건의 참여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발화의 형식, 적정성, 혹은 의미를 체계적으로 결정하는 모든 요인들”로 규정하였다. Blommaert(2005:251)의 경우는 맥락을 담화가 생산되고, 소통되고 해석되는 조건의 총체라 보았다. Hymes(1974)는 맥락의 구성 요소를 (1)상황: 물리적 공간이나 시간, (2)참여자: 참여자 간의 관계와 상호작용 목적, (3)텍스트: 메시지의 내용, (4)상호작용과 해석을 위한 사회적 규범: 형식, 장르, 전달, 사회적 규범 등의 네 가지로 보았다. 후에 이 관점을 발전시켜 대화를 분석하기 위한 맥락 요인의 체크리스트로 SPEAKING 모델을 제시하였다. SPEAKING은 어두 줄임말로서 Situation, Participants, Ends, Act Sequence, Key, Instrumentalities, Norms, Genres를 나타낸다. Halliday(1978:11)는 상황 맥락을 내용(Field), 주체(Tenor), 텍스트 양식(Mode)으로 나눠 체계화시켰다. Hewings & Hewings(2005)에서는 발화와 맥락 범주를 근접 언어 맥락(local linguistic context), 광범위 언어 맥락(wider linguistic context), 근접 상황 맥락(local situational context), 광범위 사회문화적 맥락(wider socio-cultural context)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국교# <맥락의 범위>** 이재기(2006): 텍스트 생산, 수용 과정에서 작용하는 물리적, 정신적 요소라고 규정함 ① 어떤 상황(상황 맥락, 사회문화 맥락)에서 ② 어떤 화자(주체 맥락)가 ③ 어떤 청자(주체 맥락)에게 ④ 어떤 주제(주체 맥락)에 대해서 ⑤어떤 형식(형식 맥락)으로, 서울대학교국어교육연구소(1999): ① 발화(發話)의 표현과 해석에 관여하는 정보, 또는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언어적·물리적·사회적·문화적 요소, ②언어적 표현은 전후에 또 다른 언어 요소들과 인접하여 존재하는데, 이때 인접한 언어 요소들로 된 언어적 맥락(이를테면 linguistic context, literary context, co-text, environment 등), ③ 화자, 청자를 포함한 시간·공간 등의 물리적 상황인 상황적 맥락(context of situation), ④그 밖에 언어 표현이 속한 세계의 사회적 맥락, 문화적 맥락 등 여러 유형의 맥락이 있다

**#3##국교# <담화 연구의 범위>** 국어교육 분야에서 담화 연구를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언어학적인 것에 머물지 않고 인지적, 사회적인 것으로 확대하여 텍스트의 다양한 면을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김봉순 2001), 국어교육의 목표는 훌륭한 언어 사용자를 길러내기 위한 것이므로, 사회와의 연계가 필수라는 것이다. 그간 국어교육 연구에서는 단순히 담화의 원리뿐만 아니라 표현과 이해의 언어 사용의 원리를 도입하는 데에 노력하였다. 담화 구조에 대한 연구는 구조 분석 원리, 교육 내용, 교육 방법, 평가 등의 연구로 이어졌고, 표현과 이해에서 전략적 활용의 유용성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결속성에 대한 연구도 많았는데, 이는 표현과 이해의 핵심 문제인 주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담화의 기능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데, 모국어화자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텍스트의 유형에 대한 연구는 교재 선정과 교재 집필과 연계해서 이루어져 왔다.

**#4# #한교# <담화 연구의 내용>**한국어 교육에서는 담화의 개념을 아는 것보다는 학습자가 담화의 의미, 발화의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을 중요시한다. 외국인 학습자의 입장에서 어떤 단어나 문장 또는 그 연쇄가 수행하는 발화의 기능을 이해하는 것이 의사소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수행된 언어 행위의 이해에 중요한 담화 구성의 화용적 제약, 담화의 종류에 따른 사용상의 차이에도 주목한다. 또한 국어교육과는 달리 담화의 기능에 대한 연구도 매우 중요한데, 외국인 학습자에게는 담화의 기능에 대한 언어적 직관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담화의 유형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이는 담화 유형 연구가 교재 개발에는 연계가 되지만, 한국어 학습자는 모든 유형의 담화를 알 필요는 없고 수업에서 다루는 담화가 일부 담화 유형에만 국한되므로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다고도 볼 수 있다. 아울러 담화의 한국어적 변별성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발화의 선택은 말과 말의 연결체에서 일어나고, 상황이나 사회 문화 가치나 믿음 체계에 따라서도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어교육에서는 언어 간 사용의 차이나 문화와의 연계 교수도 필수적이다. 또한 담화 목적에 따른, 담화 집단에 따른, 담화 상황에 따른 담화의 분석에도 관심을 가진다.

## 5. 표준 국어 문법의 웹서비스 설계

### 5.1. 표준 국어 문법의 웹서비스 설계 방향 설정

표준 국어 문법을 웹서비스할 때 그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은 어떤 내용을 누구에게 웹서비스할 것인가, 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첫째, 향후 표준 국어 문법을 웹서비스하기 이전에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콘텐츠의 질을 확보하는 것이다. 웹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 글의 형태나 구조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콘텐츠의 질이 좋지 않으면 어떤 형태나 구조로 제시해도 웹서비스 만족도가 높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향후 웹서비스될 표준 국어 문법의 내용을 충실하게 기술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표준 국어 문법을 웹서비스할 때 웹서비스 대상 역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 대상이 국어학 전공자라면 표준 국어 문법의 전문을 PDF 파일로 제공하는 것으로 충분하겠지만 대국민 서비스를 지향할 경우에는 키워드별로 정리하여 국어 문법 지식을 요구하는 요구자가 적절하게 그 키워드를 검색해서 해당 내용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어 문법 지식을 요구하는 요구자들이 대체로 어떤 국어 문법 지식을 요구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키워드를 추출하고 표준 국어 문법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 5.2. 웹서비스를 고려한 표준 국어 문법 기술 모형 설계

웹서비스를 고려한 표준 국어 문법 기술 모형 설계 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 ○ 문법 용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활용

표준 국어 문법이 완성된 후 그 결과물을 온라인으로 서비스할 때는 중요 문법 용어의 경우 하이퍼링크를 이용하여 해당 문법 용어를, 또 다른 관점에서는 어떤 용어로 사용하는지, 용어상의 쟁점 등의 내용을 서비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의 내용을 따로 모으면 향후 문법 용어 사전 개발에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표준 국어 문법 기술 시 하이퍼링크 대상 문법 용어를 표시하여 따로 정리하고, 문법 용어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 ○ 적용 문법 내용 분류 정리

표준 국어 문법을 웹서비스할 때 기본 화면에는 핵심 문법부 기술이 제공될 것이다. 이때 국어 교육 문법, 한국어 교육 문법, 생활 문법적 관점이나 내용은 핵심 문법

부 기술의 해당 항목에서 하이퍼링크로 제공될 수 있다. 그리고 각 해당 적용 문법부의 내용은 각각 이론 문법, 국어 교육 문법, 한국어 교육 문법, 생활 문법별로 해당 내용을 따로 모아 볼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옵션이나 하이퍼링크로 제공되는 해당 문법의 내용은 따로 모아 향후 각 문법을 개발하는 데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온라인 서비스를 위해 표준 국어 문법 기술 시 적용 문법부와 관련된 내용은 핵심 문법부를 기술하면서 해당 항목에 주석을 달고 적용 문법 중 어떤 문법인지를 표시하고 따로 분류하여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특히 생활 문법부의 기술 시에는 『표준 국어 대사전』이나 온라인 국어생활종합상담의 관련 항목과 연관되는 부분이 있다면 따로 표시해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보어의 개념과 범위’에서 ‘가’가 주어에만 결합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은 『표준 국어 대사전』의 ‘가’ 항목과 관련이 있고, 온라인 국어생활종합상담의 ‘보어’와 관련된 질문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국립국어원에서 웹상으로 제공하는 내용과 관련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들은 특히 규범과 언어생활과 관련이 있으므로 생활 문법에서 기술하면서 『표준 국어 대사전』, <국어생활종합상담> 등의 분류 표시와 함께 분류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주석에 따로 분류해서 기술된 적용 문법적 관점은 향후 해당 문법을 개발하는 데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 5.3. 표준 국어 문법의 웹서비스를 위한 고려 사항

이번 단계에서는 향후 제공될 표준 국어 문법의 웹서비스를 위해 다음의 세 가지 고려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남은 기간 동안 다양하고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 및 해결을 해야 할 것이다.

첫째, 웹서비스의 형태. 어떠한 콘텐츠든 이것이 웹상에 제공될 때는 해당 웹의 형태에 따라 콘텐츠를 그 형태에 맞게 바꿀 필요가 있다. 즉, 텍스트 자체를 그대로 웹서비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단행본의 텍스트를 웹상에서 시각화하여 보여 줄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키워드 검색 방식. 앞에서 이야기한 바 있듯이, 표준 국어 문법이 향후 웹서비스될 때 대국민 서비스를 지향한다면 텍스트 전문을 웹서비스하기보다는 키워드를 검색할 수 있게끔 웹서비스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일반 포털의 검색 방법과 같이 텍스트의 제목, 본문 등을 곧바로 검색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검색어에 따라 가장 적절한 본문의 내용이 제시될 수 있도록 키워드 검색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때에는 제목이나 목차, 본문의 내용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예문 역시 검색 대상이 될 수 있다. 가령, 국어 문법 지식이 풍부하지 않은 일반 언중들은 ‘굳이’라는 표기와 ‘[구지]’라는 발음과의 괴리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검색어로 ‘구지’를 검색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검색자가 ‘구지’를 검색하면 ‘음운론’ 영역의 ‘구개음화’의 내용이 검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표준 국어 문법은 국어 문법 지식이 총망라되어 있는 일종의 교과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인바 이와 관련이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과 연동 및 링크가 되어야 더 풍부하고 정확한 지식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표준 국어 문법의 특정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이와 관련이 있는 사전이나 ‘국립국어원’의 ‘온라인 가나다’ 등 인접 콘텐츠를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표준 국어 문법과 인접 콘텐츠를 연동 및 링크할 때 그 기본적인 원칙이나 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상 세 가지 사항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논의 사항들이 더 추가되어야 더욱 효과적이고 완성도 높은 웹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이다.

## 6. 학계 의견 수렴 - 자문회의, 워크숍 결과

이번 연구에서는 총 3회의 자문회의와 2회의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자문회의와 워크숍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6.1. 자문회의 결과<sup>8)</sup>

#### 6.1.1. 1차 자문회의 결과

##### (1) 1차 자문회의(전문가 자문회의) 개관

- 일시 : 2014년 5월 1일 16:00~18:00
- 장소 : 국립국어원 2층 대회의실
- 주제 : 표준 국어 문법 개발(2단계) 수행 체계와 계획 검토
- 참석자
  - 자문위원 : 이문규, 신현숙, 최경봉, 최은규
  - 국립국어원 : 민현식, 정희원, 이승재, 이대성
  - 참여 연구원 : 유현경, 강현화, 구본관, 김성규, 이정택, 한재영, 황화상

##### (2) 전문가 자문위원 자문 내용

###### 가. 표준 국어 문법의 성격과 목적

표준 국어 문법의 성격과 목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보완되어야 한다. 첫째, 국어의 특질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는 언어 일반론에 대한 기술이 총론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표준 국어 문법의 궁극적 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쟁점 선정 및 기술이 진행되어야 한다. 셋째, 표준 국어 문법의 목적에 따라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세부 영역을 배제하거나 포함해야 한다.

표준 국어 문법은 다음과 같은 성격을 지녀야 할 것이다. 첫째, 교육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적용 및 활용 가능할 정도의 실용성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맹목적인 체계성 추구를 경계하고 쟁점에 따라 열린 결론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실제 현실 언어를 설명할 수 있도록 실제 언어 자료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 나. 학교 문법과의 연계성

참조문법 및 기반문법으로서의 표준 국어 문법은 학교 문법과 직접적으로 동일시되지 않는다. 하지만 표준 국어 문법이 완성되었을 때 그 파급력이 가장 클 것으로

---

8) 자문회의 회의록의 자세한 내용은 별첨 CD의 [부록3]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상되는 것은 학교 문법 영역이다. 따라서 학교 문법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그에 따라 표준 국어 문법에서 다루어야 할 영역이나 쟁점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현재 학교 문법은 닫힌 체계가 아닌 열린 체계를 지향하고 있다. 표준 국어 문법도 모든 쟁점에 대하여 하나의 답을 내리는 대신 결론을 열어 둘 필요가 있다.

나아가 표준 국어 문법은 학교 문법, 한국어 교육 문법 등 각각의 영역에서 참조하고자 하는 개념을 두루 갖춘 포괄적인 체계를 이루어야 한다.

#### 다. 한국어 교육과의 연계성

한국어 교육에서는 다른 적용 분야에 비하여 언어 표현의 의미나 기능 등이 강조되는 면이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쟁점들을 기술할 때 실제로 각 영역에 적용할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쟁점에 따라 적용 모형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 라. 문법 용어 표준화 원칙과 방향

표준적인 문법 용어를 정비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원칙과 방향성이 제시되었다. 첫째, 언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를 선정해야 한다. 둘째, 보편적 용어를 추구하되, 국어 교육이나 학문 분야에서의 현실적인 수용성을 고려해서 전통적인 용어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기존에 용어 표준화와 관련해서 진행된 연구 결과물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용어의 정비 과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의 개념에 대하여 여러 용어가 혼재할 경우, 기본적으로 모든 용어를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 용어 간의 개념 차이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비교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용어 선택 및 권장안이 마련될 것이다.

#### 마. 의미론 영역 추가의 문제

표준 국어 문법 개발의 1단계와 2단계에서는 기술 영역을 ‘총론,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담화론’의 다섯 가지로 한정하였으나, ‘의미론’ 영역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가 학교 문법과의 관계를 염두에 둔다면 ‘어휘 의미론’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 교육에서도 어휘 교육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추후 단계에서라도 의미론에 대한 기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단, 의미론 영역의 추가는 예산 문제 등 실제적인 문제와 연동하여 추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한다.

#### 바. 다양한 연구자들의 협업 필요

표준 국어 문법은 소수의 연구자들에 의한 연구 결과물이기보다는 다수의 연구자들이 고루 참여하여 이루어진 결과물이어야 한다. 자문위원 구성에 국어학, 국어 교육, 한국어 교육 전문가뿐 아니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전문위원이나 웹서비스 전문가 등을 섭외하는 것을 고려할 만하다.

## 6.1.2. 2차 자문회의의 결과

### (1) 2차 자문회의(원로 자문회의) 개관

- 일시 : 2014년 8월 22일 11:00~13:30
- 장소 : 마리(연대 동문)
- 참석자
  - 자문위원 : 고영근, 남기심, 박갑수, 임용기, 장경희, 홍재성
  - 국립국어원 : 정희원, 이대성
  - 참여 연구원 : 유현경, 강현화, 구본관, 김성규, 한재영

### (2) 전문가 자문위원 자문 내용

#### 가. 표준문법에 대한 거시적 견해

##### 1) 표준문법의 성격

1단계에 제시되었던 표준문법의 목적이 2단계에서는 다소 축소된 면이 있는데, 가령 국어학계의 표준이 되는 문법을 제시하고자 했던 것을 삭제한 것은 적절해 보인다. 그러나 일반 언어 사용자들의 지침이 될 수 있는 문법을 지향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규범 문법으로 기능할 위험은 없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표준문법은 일반적인 성인 한국어 화자의 국어 문법의 구성을 보여 주어야 하며, 다양한 외국어들 사이에 한국어를 위치시켰을 때 한국어의 특징을 객관적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 2) 표준문법의 범위

현재 표준문법에서 상정한 문법 범주는 음운, 형태, 통사, 담화로 나뉘어 있으며, 어휘론이 중요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영역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미 표준문법 개발 사업이 2단계에 접어든 만큼 현재로서는 어휘론을 새로운 영역으로 추가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형태론에서 한국어 어휘의 특징이 기술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 나. 표준문법의 각 영역에 대한 미시적 견해

##### 1) 총론

유형론적 관점에서 한국어의 어휘는 분류사나 흉내말이 매우 발달하고, 동사의 수는 많은 반면 형용사의 수는 매우 적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한국어는 목적어뿐만 아니라 주어도 유표적으로 나타나는 유표적 주격-대격언어이다. 이러한 한국어의 유형

론적 특징은 국어 교육 및 한국어 교육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

## 2) 음운론

먼저 음운론의 상세범주화에 있어서는 중범주 ‘음성’ 아래에서 ‘이음’이 다루어지고 있으나, 이음(또는 변이음)은 음소의 개념을 전제하기 때문에 이를 중범주 ‘음소’ 아래로 옮기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또한 중범주 ‘운소’에는 그 세부항목으로 ‘음장’, ‘억양’, ‘휴지’를 두었으나, 음장과 억양이 초분절 요소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에 ‘운소’의 하위 범주로 설정할 수 있는 것과 달리, ‘휴지’는 초분절 요소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별도의 영역에서 다루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재고되어야 한다.

발음과 체계를 구별하여 기술하는 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컨대 본문 기술에서 제시한 ‘한국어의 모음사각도’와 같은 것은 체계가 아닌 발음의 위치를 드러내기 위해 설정한 것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표준 발음, 허용 발음, 현실 발음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개별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그 밖에 음운적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에 있어서도 몇 가지 견해가 제안되었다. 먼저 /ㅎ/이 마찰음 중 유기음(aspirated)으로 분류한 것이 유기음의 기존 개념과 상충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ㄴ/을 상향이중모음으로 다룬 것은 이중모음의 전체 체계를 균형 있게 만들어 주는 장점이 있으나, 현실 발음과 괴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하향이중모음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다 적절해 보인다.

## 3) 형태론

‘어기’의 설정으로 국어 구조의 보편적 혹은 개별적 특성이 더 드러난다고 할 수 없고 설명이 더 간결해진다고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수용하는 데에 큰 장점이 없다.

형태론에서 문제가 되는 영역 중의 하나가 한자어의 형태소 분석인데, 한자어 자체를 합성명사로 다루면서 형태소 분석은 지양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한자어 형태소 분석 문제는 중국어가 음절어고 그를 적는 한자가 표의문자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다른 언어에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토론이 필요하다.

조사는 어미와 마찬가지로 구속형태소이지만 활용어미와 같은 굴곡어미로만 처리하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불규칙성을 특징으로 하는 ‘접사’로 처리할 수도 없다. 어미와 조사를 ‘문법소’ 혹은 ‘문법접미소’와 같은 이름으로 묶을 수는 있을 것이나 이러한 처리가 국어 문법을 더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인지는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

공형태소나 어원소와 같이 공시적으로 형태소 분석이 어려운 요소라 하더라도, 형태소 분석은 공시적인 의미나 용법에 따라 분석하는 것이 옳다. 일반 대중은 어원 지식이 없다. 아동의 언어 학습, 외국인의 한국어 학습은 공시적 구조를 알아가는 과정이다.

복합어 또는 합성어의 직접성분 분석(IC분석)이 애매한 경우가 없지 않으나 ‘편지꽃

이’와 같은 경우에는 [[편지][꽃이]]가 옳다. ‘연필꽃이’, ‘명함꽃이’ 같은 말이 공시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을 상기해 보아야 한다.

#### 4) 통사론

통사론 기술을 위해서는 문법 단위에 대한 올바른 정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단어’의 정의에 대한 문제는 그 해결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존 ‘단어’의 개념이 비교적 보편화되어 있는 만큼 새로운 제안이 수용되기 힘들다. 따라서 ‘단어’에 대한 새로운 정의는 대안으로서 제시하고, 융통성 있게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어절’은 국어 현상을 현실적으로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내적 기능상으로는 불필요한 측면이 있다는 점도 무시하기 어렵다.

먼저 ‘절’은 ‘내포문’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유명무실해진 개념인데, 가령 현재 문법 체계를 보면 ‘내포문’의 종류에 ‘명사절, 부사절, 관형사절’ 등을 설정하여서 용어에 혼란이 있다. ‘어절’, ‘절’ 등 문장을 구성하는 주요 단위의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의가 다소 모호하므로 보다 명료한 서술이 필요하다. 특히 합리적 수준에서 보편적 동의가 가능한 개념 정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 5) 담화론

문장을 넘어서는 단위에 대한 용어로는 ‘담화’와 ‘텍스트’가 쓰일 수 있는데, 전자가 ‘행위’에 초점을 둔 용어라면 후자는 ‘구성체’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6) 용어

한자어를 의도적으로 배격하고자 한다면 ‘높임법’이 적절할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한자어를 모두 배격하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다른 한자어 용어의 가능성도 열어두는 것이 좋다. 보다 중요한 것은 높임에 관련한 표현에는 주체나 상대, 객체 등을 높이기 위한 것도 있지만 낮추기 위한 것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들 개념이 모두 드러낼 수 있는 용어를 선택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높임법’은 전자의 개념만 드러내기 때문에 적절한 용어라고 볼 수 없으며, ‘공대법’이나 비교적 최근에 쓰이기 시작한 ‘대우법’이 적절하다.

‘조어론’이나 ‘조어법’보다 ‘단어 형성론’이나 ‘단어형성법’이 더 쉬워서 쓰는 것이라면 ‘단어 만들기’, ‘단어 만드는 법’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고유어와 한자어의 용어 충돌에 있어서는 무조건 한자어를 배격해야 한다는 등의 이분법적 논리보다는 각 개념에 따라 보다 좋은 용어를 선택하는 융통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더불어 국어학계에서는 음운론 용어를 비롯해서 문법 용어 전반에 걸쳐 일본 문법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무비판적으로 수용된 경향이 있다. 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다. 국어교육 관점에서의 표준문법

### 1) 국어교육의 문법 범위

표준문법은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으로의 적용을 염두에 두고 개발되고 있으나, 실제 국어교육을 위한 교과서에는 문법의 개념이 다소 좁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 가령, 어휘나 담화는 국어 문법의 기본 구조를 파악하는 데에 있어서는 반드시 다루어야 하는 내용은 아니다. 또한 현재 학교 교육에서 문법은 점차 축소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 학교 교육 안에서 국어 문법의 설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표준문법이 이론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보편성을 추구하고, 지나치게 심화된 내용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 2) 교육적 의의 반영

음운론의 현실 발음과 표준 발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표준문법은 ‘기술문법’이 아니므로 교육적 의의를 잘 드러내기 위해서 현실 발음보다 표준 발음에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

### 3) 문법 용어 문제

국어학계에서 오래된 용어 문제 중의 하나는 품사명이다. 대립되는 용어 문제에 있어서는 편의를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복수 용어를 허용하거나 제2안을 제시하는 등 융통성 있는 견해도 요구된다. 또한 문법 용어는 국어학 전공자가 아니라도 누구나 용어를 통해 개념을 예상할 수 있도록, 용어와 개념 사이의 긴밀성을 드러내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높임 관련 용어에 있어서 ‘높임법’은 낮춤 관련 표현을 포함하기 못하기 때문에 적절한 용어로 볼 수 없다.

## 6.1.3. 3차 자문회의의 결과

### (1) 3차 자문회의(전문가 자문회의) 개관

- 일시 : 2014년 11월 21일 16:00~18:00
- 장소 : 서울교육대학교 인문관 301호
- 참석자
  - 자문위원 : 남길임, 이미혜, 주세형, 한성우
  - 국립국어원 : 정희원, 이대성
  - 참여 연구원 : 유현경, 강현화, 구본관, 김성규, 김홍범, 이정택, 이진호, 한재영, 황화상

### (2) 전문가 자문위원 자문 내용

#### 가. 음운론

먼저 음운론의 내용 전반에 대해서는 언어학이나 음운론의 지나치게 일반적인 내용은 삭제해도 무방해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다. 음장, 억양, 휴지, 음절은 전체 체계에 맞추어서 추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더불어 세부 항목으로는 반모음, 이중모음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반모음에서는 /j, w/, 이중모음으로는 /의/의 처리 방식이 논의되었다. 그 밖에는 음성, 음소에 대한 표시를 일관성 있게 해야 하며(예. 따옴표 유무, 로마자 표기 여부 등) 음소 읽는 방법(‘ㄱ’- ‘그’, ‘기역’)에 따라 후행 조사를 맞추어 기술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 나. 형태론

형태론 영역에서는 크게 형태소와 단어의 문제에 대한 자문이 이루어졌다. 먼저 형태소와 관련해서는 이형태의 유형에서, 본문에서는 ‘음운적 조건/형태적 조건’ 정도만을 다루면 될 것이며, 통사적 이형태(문법적 이형태) 등은 이론 문법의 적용부에서 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단어의 문제와 관련해서 ‘단어’의 정의가 문제가 많지만, ‘조사’의 단어 지위 여부도 각주가 아닌 본문에서 입장을 밝혀 다루어질 필요가 있고, 정의 자체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용어의 도입이 매우 유익한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히려 학생들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서 지양하는 것이 좋겠고, ‘해돋이’류 직접성분 분석의 문제를 현행 학교문법보다 풍부하게 다루는 것은 좋지만, 쟁점에 대한 연구자들의 견해는 미주로 옮겨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 다. 통사론

통사론 영역에서는 어절, 문장의 기본 단위 등에 대한 자문이 주로 이루어졌다. 먼저 문장의 기본 단위로서 단어의 문제와 관련하여, 어절을 음운론적 단위로 한다 하더라도, 단어를 문장의 기본 단위로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단어’의 지위를 형태론의 최대 단위, 통사론의 최소 단위로 보고, ‘단어 $\leq$ 구’가 문장을 구성하는 것으로 기술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문법 단위 간의 관계를 보인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문과 쓰임문의 관계는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현행 ‘문장성분:격조사’의 일대일 대응 체계에서는 보격조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지정사를 형용사의 일종으로 볼 때 이 대응 체계가 깨지는 현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접속부사의 담화적 기능과 상관없이 문장성분의 기술은 체계성과 일관성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 라. 담화론

담화론 전반적인 내용이나 형식 차원에서 논의된 것으로는 본문과 미주로 나눈 내용의 난이도가 영역별로 상이하다는 문제가 있었고, 이러한 적용 문법부가 실제 교육

현장에서 효용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다음으로 국어 교육에서는 부분으로서의 담화를 다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화를 다루고자 한다면, 그 범위와 구체적으로 다룰 내용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여러 분야에서 다루어진 담화의 정의와 범위를 소개해 주고 서로의 관련성을 설명해 주고 사용 측면의 담화가 충분히 반영되는 것이 좋겠다고 보았다. 그 밖에 매체, 상황 맥락, 텍스트성의 하위 항목 등에 대하여 용어를 정치하게 정의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마지막으로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양태를 적극적으로 다루되, 문장유형, 서법, 화행 등과 분명하게 구분해서 기술해야 한다고 하였다.

## 6.2. 워크숍 결과<sup>9)</sup>

### 6.2.1. 1차 워크숍 결과

#### (1) 1차 워크숍 개관

- 주제 : 문법 기술에 있어서 언어 단위의 문제
- 일시 : 2014년 7월 18일(금) 오후 2시~6시
- 장소 : 서울교육대학교 인문관 302호 세미나실
- 사회 : 김성규(서울대)
- 참석자
  - 참여 연구원 : 유현경, 한재영, 김홍범, 김성규, 이진호, 황화상, 이정택, 이병규
  - 국립국어원 : 이승재, 이대성
  - 토론자 : 김현, 한정환, 박철우, 주세형
- 프로그램

시간	발표
2:00~2:10	개회
2:10~2:30	국어 문법 용어 정비 및 표준화 방향 제시 한재영(한신대)/김홍범(한남대)
2:30~2:50	음운론 김성규(서울대)/이진호(전남대)
2:50~3:20	1부 토론(김현, 한정환, 박철우, 주세형)
3:20~3:40	휴식(1)
3:40~4:00	형태론 구본관(서울대)/황화상(서강대)

9) 워크숍 토론 내용의 자세한 내용은 별첨 CD의 [부록4]에서 확인할 수 있다.

4:00~4:20	통사론 유현경(연세대)/이정택(서울여대)
4:20~4:40	담화론 강현화(연세대)/이병규(서울교대)
4:40~5:00	휴식(2)
5:00~6:00	2부 토론(김현, 한정환, 박철우, 주세형)
6:00	폐회

## (2) 워크숍 토론 내용

### 가. 표준문법에 대한 거시적 견해

#### 1) ‘표준’의 성격과 표준문법의 기술 범위

각 영역별로 논쟁이 많은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때로는 분명한 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관점을 제시해 주는 단언적인 기술도 필요하다. 더불어 표준 문법에서 구체적인 쟁점 사안들에 대해 어느 정도로 기술할지 그 구체적인 기준은 추후 다른 영역들과 보조를 맞추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교육적 관점에서 ‘표준화’라는 것이 국어학에서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한 표준화인가, 혹은 교육 분야에서 활용될 기준을 위한 표준화인가가 모호하다. 만약 교육 분야를 고려한 표준 문법이라면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준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들이 실제 활용하는 자습서에 나타난 오류를 참고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표준이 국어학적인 표준인가 교육 현장에서의 표준인가의 문제에 관하여는 교육의 장이 표준화의 기준이 되어야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지나치게 국어학적이거나 범용성을 추구하면 결과물의 활용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범용성을 추구하되 내부적으로는 활용 대상이 명확하게 있어야 할 것이다.

### 나. 각 영역별 원고에 대한 미시적 견해

#### 1) 음운론

음운론에 대해서는 단모음을 명확히 정의하고 현실 발음과의 괴리를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교육적 관점에서 음운론 영역은 학부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로 기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2) 형태론

형태론에 대해서는, 어근과 어간의 개념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므로 이를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 단어는 단어를 정의 내리기보다는 단어 성립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단어의 정의에서, 최소 자립 형식에 대한 부분에 오해가 있으므로 최소

자립 형식의 개념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다.

### 3) 통사론

통사론에 대해서는, 어절이 통사론의 단위가 되기 위해서는 어절이 문장 성분이 되어야 하지만 어절은 문장 성분이 아니라 음운론적 기준에 의한 단위이므로 문제가 있다, 통사론에서 어미가 단어가 아니라면 어미가 문장에서 기능을 할 수 없고 사실 어미가 붙으면 어미구가 되어야 한다, 절을 두 어절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생략을 복원하는 것을 전제해야 하는데 절에서 중요한 개념은 주어이다, 문장을 정의할 때 의미적 완결성은 명제 단위가 되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다.

### 4) 담화론

담화론에 대해서는, 담화는 통사부와 전혀 관계가 없고 담화는 발화에서 turn shift가 일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두 개 이상의 문장이 곧 담화가 되지는 않는다, 담화, 발화, 화용론에서의 화행과 같은 용어가 혼란스럽다, 다른 영역의 개념으로 담화론을 정의하는 것은 곤란하다, 문법에서 화용적인 요소를 어디까지 포함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두 문장 이상의 단위들은 작문에서 이야기할 성질의 것이라는 등의 의견이 있었다.

### 5) 용어

용어와 관련해서는, 국어 문법 용어에 대한 영역별·수준별 사전을 첨부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용어를 하나로 정할 때 후보 용어들을 보여 주고 어떤 용어를 택했는지를 밝혀 줄 필요가 있다, 용어 사전에 용어에 대한 정의도 소개해야 하는데 이때 유형론적 논의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다.

특히 용어 표준화 원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용어 표준화 원칙이 구체적으로 적용될 때, 제시한 6개의 원칙 중 어느 것이 적용이 되는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확장가능성 원칙을 적용할 때 우리가 새롭게 만든 용어가 확장가능성을 지니는지도 중요하겠지만, 기존의 용어에서 확장가능성이 높은 용어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다. 또한 교육적 관점에서는 어떤 것이 더 상위 개념인지, 혹은 더 중핵이 되는 개념인지 그 체계를 고려해서 확장가능성 원칙을 적용해야 하므로, 타당한 체계를 고려하는 것은 용어 표준화 과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더불어 이때 분류 체계를 단지 국어학의 정합성만을 염두에 둔 체계로 상정할 것인지, 교육에서 계층성을 염두에 둔 체계로 상정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표준화의 원칙 중 교육을 고려한 원칙이 없다는 점이 아쉽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6.2.2. 2차 워크숍 결과

## (1) 2차 워크숍 개관

- 일시 : 2014년 10월 17일(금) 오후 2시~6시
- 장소 : 국립국어원 2층 대회의실
- 사회 : 유현경(연세대)
- 참석자
  - 참여 연구원 : 유현경, 강현화, 구본관, 김성규, 이병규, 이정택, 한재영, 황화상
  - 국립국어원 : 이승재, 이대성
  - 토론자 : 김양진, 김은성, 정철, 한성우
- 프로그램

시간	발표
2:00~2:10	개회
2:10~2:25	용어/총론 한재영(한신대)/김홍범(한남대)
2:25~2:40	음운론 김성규(서울대)/이진호(전남대)
2:40~2:55	형태론 구본관(서울대)/황화상(서강대)
2:55~3:55	1부 토론 김양진(경희대), 김은성(이화여대), 한성우(인하대)
3:55~4:10	휴식(1)
4:10~4:25	통사론 유현경(연세대)/이정택(서울여대)
4:25~4:40	담화론 강현화(연세대)/이병규(서울교대)
4:40~4:50	콘텐츠의 웹서비스 문제 정철(다음)
4:50~5:00	휴식(2)
5:00~6:00	2부 토론 김양진(경희대), 김은성(이화여대), 한성우(인하대), 정철(다음)
6:00	폐회

## (2) 워크숍 토론 내용

### 가. 표준 국어 문법에 대한 거시적 견해

표준 문법의 철학이 있어야 전체 원고 집필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표준 문법은 개론적인 성격보다는 표준적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원고를 다른 의견이나 견해들을 포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집필해야 할 것이다. 현재 의미론 영역이 빠져 있는 만큼 의미론에서 다루어질 만한 내용이 각 영역에서 어느 정도 다루어져야 한다.

#### 나. 각 영역별 원고에 대한 미시적 견해

##### 1) 총론

총론에 대해서는 총론을 소략하게 다루는 것은 괜찮지만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려주면서 핵심이 되는 내용은 빠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 2) 음운론

음운론에 대해서는 최소대립쌍에 대한 설명 부분은 예문으로 보여 주는 것이 나을 듯하다. 방언에서 ‘ㅅ’, ‘ㅆ’가 구별되지 않는다는 기술은 특정 어휘의 문제일 수 있다. 음운론적 단어에 대한 기술이 필요해 보인다. 휴지에 대한 기술에 초점화에 대한 기술이 필요해 보인다. 휴지가 자음과 동일한 역할을 한다는 진술에 ‘단독형’과 같은 부수적인 설명이 덧붙으면 좋겠다. ‘의’를 상향이중모음으로 볼지, 하향이중모음으로 볼지는 학계의 오래된 쟁점으로 학문적, 역사적인 어느 한 쪽을 택해도 괴리가 있으므로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자면 현실발음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있다. 휴지, 강세, 억양은 넣지 않는 것이 나아 보인다. 활음, 반모음은 이른 시기부터 함께 쓰인 용어이므로 이 두 용어를 혼용하게 된 경위나 사정을 밝히면 이중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변이음 등의 내용에서 한국어 교육 등을 겨냥하여 서술의 방향을 고민할 필요는 없다고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다.

##### 3) 형태론

형태론에서는 형태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미이기 때문에 형태소의 의미를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형태를 제시할 때 주로 문법 형태소를 제시하는데 어휘 형태소의 예도 제시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음운적 조건에 의한 교체’나 ‘형태적 조건에 의한 교체’는 각각을 ‘선행 음절의 말음에 따른 교체’나 ‘선행 형태에 따른 교체’ 등으로 써주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규칙적 교체와 불규칙적 교체에서 ‘으’ 탈락 문제도 포함해야 한다. 형태소 논의에서는 보조 용언이 매우 중요한데 보조 용언이 빠져 있다. ‘파래’를 설명할 때는 ‘ㅎ’이 탈락하고 어미와 융합되었다고 설명하였는데 ‘날이 개서’를 설명할 때는 어미의 일부가 탈락되었다고 기술하여 설명이 혼란스럽다. ‘오솔길’은 유일 형태소가 아닐 수도 있으므로 좀 더 분명한 ‘착하다’의 ‘착’과 같은 것을 예로 드는 것이 나을 듯하다. 한자어 형태소 분석에 있어 3자어의 사례들이 빠져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해돋이’를 ‘해-돋이’로 보고 있는데 표준 문법에서는 사전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분석적 관점에서는 어근과 접사로 보지만 형성적 관점에서는 어기와

접사로 본다는 논의들을 다 보여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어근과 어간을 묶어서 어기라고 보는 논의는 이미 오래된 논의이다, 규칙이나 유추, 반복 등 여러 가지 단어 만드는 방법을 보여 주는 것이 좋을 듯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 4) 통사론

통사론에 대해서는 문장 성분의 개념과 종류에서 명사문을 문장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문장 성분의 개념이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서술이 있어야 한다, 비주격주어가 표준적으로 이야기할 항목인가, 격조사의 의미가 빠져 있는데 사전적인 의미라도 설명해 준다면 표준성을 이야기할 때 도움이 될 것이다, 이중 주어 구문은 보어의 논의와 연관이 있으므로 보어의 확장과 이중주어 설정을 함께 논의하면 좋을 듯하다, 주제는 독립어 문제와도 연결되므로 어디에서든 다루어져야 할 듯하다, 자동사 서술어와 목적어의 부분에서 전형성으로 타동사와 다른 서술어를 구분하면 논의가 더 분명해질 듯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 5) 용어

용어와 관련해서는 표준화 원칙에 ‘일상성의 원칙’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분야에 따라 같은 개념에 대해 다른 용어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해서도 통일된 용어를 설정해야 하는지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 다. 국어 교육 관점에서의 견해

국어 교육에서는 문법이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포괄의 문제이다. 즉, 한 가지 견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쟁점을 중심으로 포괄적으로 토론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준 문법은 이러한 국어 교육의 요구에 부합할 만한 원천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상세범주화가 계열성, 또는 구조적 체계성을 중시해서 이루어져야 전체 체계가 한 눈에 들어올 수 있으며, 이것이 학습자로 하여금 이해를 용이하게 한다. 또한 국어 교육에서는 예문도 매우 중요하다. 현실화된 예문을 사용하고 쟁점이 되는 예문도 함께 제시하여 첫 번째 예문은 설명력이 가장 높은 것, 두 번째 예문은 문제가 되는 것 등으로 구조화시켜 예문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법 지식을 설명함에 있어 접근성이 높아야 한다. 따라서 문장의 구조를 설명할 때 각 괄호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수형도와 같은 시각적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국어 교육에서는 용어의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 대중성이 높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가장 대중성이 높은 용어는 교과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국어 교육에서는 담화를 설명할 때 장면이나 상황 같은 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특히 담화의 경우 한 가지 견해를 선택하는 것보다 포괄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라. 웹서비스 설계에 대한 토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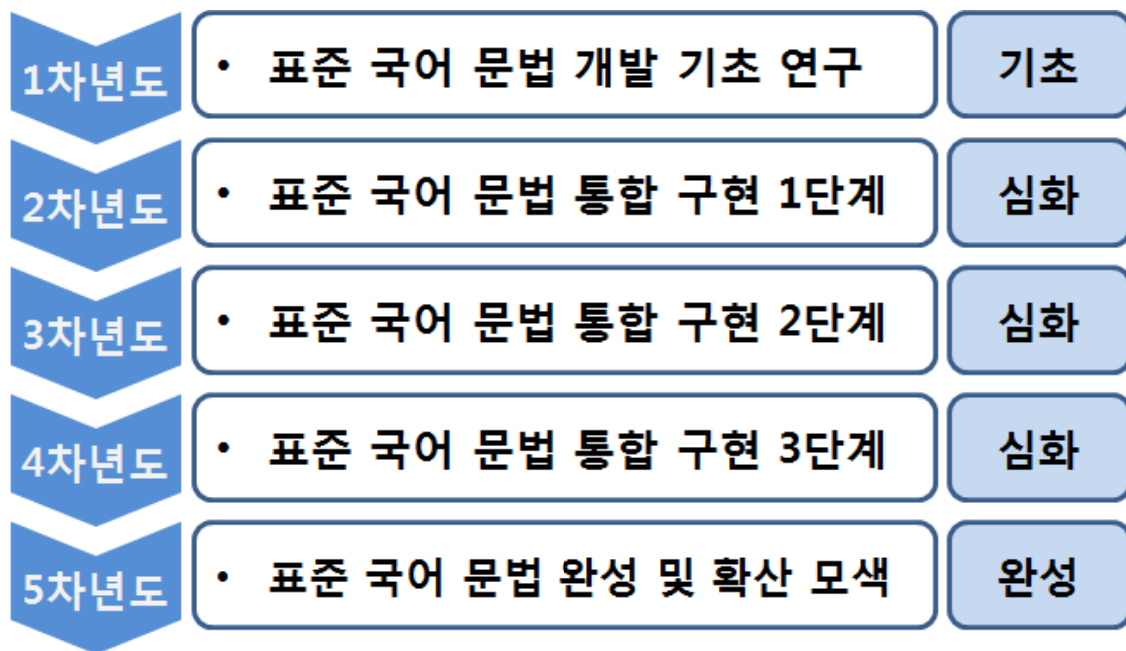
표준 문법을 웹서비스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이 누구냐이다. 그 대상이 전공자라면 전문을 PDF 파일로 제공해도 충분하지만 대국민 서비스를 지향할 경우 검색 위주로 제공하는 것이 좋다. 웹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 글의 형태나 구조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원고의 질을 높이는 게 더욱 중요하다.

웹서비스를 위해 다음의 세 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웹서비스의 모형을 시각화해서 제시하는 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즉, 텍스트 자체를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식으로 단행본의 텍스트를 시각화해서 보여 줄 것인지 구체적으로 상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웹서비스에서 사용될 검색 방식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일반 포탈의 검색 방법을 따라 텍스트의 제목, 본문 등이 무차별적으로 검색 대상이 되기보다는 검색어에 따라 가장 적절한 본분이 제시될 수 있도록 미리 검색 방법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연동 및 링크를 설정하는 기본적인 원칙이나 방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가령, 기존의 규범사전이나 온라인 가나다 등의 내용과 어떻게 연동되어서 웹서비스 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

## Ⅳ. 향후 일정 및 계획

### 1. 5개년 계획의 단계 설정

표준 국어 문법은 총 5년에 걸친 연구 기간을 통해 완성된다. 1단계에서는 표준 국어 문법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로 표준 국어 문법의 개념과 성격, 기술 방향을 설계하고, 향후 표준 국어 문법 기술을 위해 쟁점 발굴, 상세범주화와 기술 모형을 제시하였다. 2, 3, 4단계는 실제 표준 국어 문법을 통합적으로 구현하는 단계로, 1단계의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하여 상세범주화 체계를 재조정하고, 문법 용어를 표준화하면서 표준 국어 문법 기술의 내용을 1차적으로 완성한다. 5단계에서는 앞서 기술된 내용을 대상으로 전체 체계와 용어의 정합성을 맞추어 표준 국어 문법을 최종 완성하고 웹서비스를 통한 보급과 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모색한다.



<그림4-1> 5개년 계획의 단계

### 2. 단계별 세부 연구 계획

3단계부터 5단계까지 이루어질 연구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3단계: 표준 국어 문법 통합 구현(2)

상세범주화 체계 및 위계화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쟁점을 상세하게 분석하며, 2단

계에서 확정된 모형에 따라 문법 내용을 기술한다. 문법 용어 표준화 안에 따라 용어를 표준화한 뒤 이를 문법 기술에 반영한다.

- ① 상세범주화 체계 및 위계화 점검 : 1단계와 2단계에 걸쳐 확립한 상세범주화 체계 및 위계화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확정한다.
- ② 쟁점 상세 분석 : 1단계에서 발굴한 쟁점 항목 중 3단계 문법 내용 기술 범위에 포함된 쟁점 항목을 점검한다. 수정한 쟁점 항목을 대상으로 관련 주요 논저를 선정·수집하여 각 쟁점 항목에 대해 상세 분석한다.
- ③ 표준화된 용어를 문법 기술에 반영 : 2단계에서 제시한 용어 표준화 원칙에 따라 2단계 문법 내용 기술 범위에 문법 용어를 표준화하고 3단계의 문법 내용 기술에 사용된 문법 용어에 대한 기초 자료를 구축한다.
- ④ 모형에 따른 문법 기술 : 2단계에서 확정된 모형에 따라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담화론 전체 내용의 40%를 기술한다.
- ⑤ 2단계 문법 내용 기술 수정과 체계 정합성 확보: 3단계의 문법 내용 기술과 관련하여 수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2단계의 문법 내용의 기술을 수정, 보완하여 표준 국어 문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한다.

#### ◀ 4단계: 표준 국어 문법 통합 구현(3)

해결하지 못한 쟁점을 마지막으로 점검하여 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술을 완료한다. 문법 용어 표준화 작업을 완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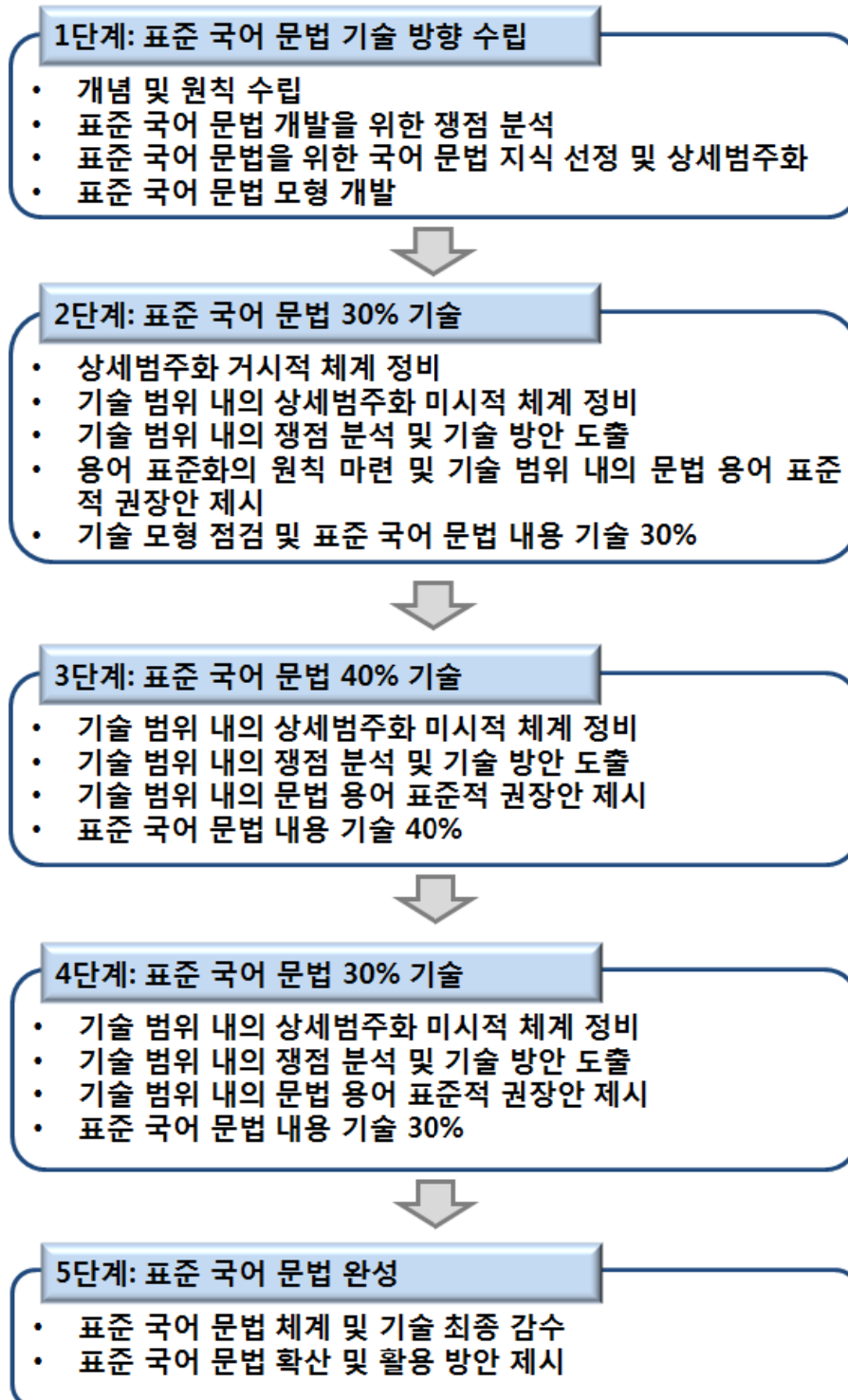
- ① 상세범주화 체계 및 위계화 점검 : 1, 2, 3단계에 걸쳐 확립한 상세범주화 체계 및 위계화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확정한다.
- ② 쟁점 분석 및 완료 : 1단계에서 발굴한 쟁점 항목 중 4단계 문법 내용 기술 범위에 포함된 쟁점 항목을 점검한다. 수정한 쟁점 항목을 대상으로 관련 주요 논저를 선정·수집하여 각 쟁점 항목에 대해 상세 분석한다.
- ③ 용어 표준화 완료 : 3단계의 문법 기술에서 사용된 문법 용어의 표준안을 마련하고 4단계에서 사용된 문법 용어의 기초 자료를 구축한다.
- ④ 문법 기술 완료 : 확정된 모형에 따라 전체 내용의 30%를 기술하여 기술을 완료한다.
- ⑤ 문법의 체계 정합성 점검: 2단계부터 4단계에 걸쳐 기술된 문법 내용을 검토하여 표준 국어 문법 전체의 체계 정합성을 점검한다.

#### ◀ 5단계: 표준 국어 문법 완성 및 확산 모색 단계

5단계는 4년에 걸쳐 이루어진 연구를 마무리하는 단계로 쟁점별로 기술한 내용의 전체 체계를 맞추고, 용어 및 기술을 정리하는 단계이다.

- ① 용어 정리 및 정비 : 4단계에서 사용된 문법 용어의 표준안을 제시하고 표준 문법 전체의 용어를 정비하고 관련 용어 전체를 비교 제시한다. 문법 용어의 표준안에 따라 문법 내용 기술에서 사용된 문법 용어를 일관성 있게 정비한다.
- ② 감수 의견 수렴 및 재서술 : 기술된 항목에 대한 최종 감수를 진행하고 문제가 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재서술을 한다.
- ③ 관련 항목 체계 정비 : 관련 항목을 비교하여 항목 간 서술의 차이점을 조정하고 관련 항목을 체계적으로 제시한다.
- ④ 적용 문법 기술 정비 : 핵심 문법 기술이 확정됨에 따라 미주로 기술된 적용 문법 내용 기술을 전문가 자문을 받아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수정, 보완한다.
- ⑤ 표준 국어 문법의 확산 및 활용 가능성 모색: 향후 과제 제시는 표준 국어 문법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문법 및 일반 대중을 위한 성인 문법, 언론·출판계를 위한 준거 틀로서의 문법, 표준 문법의 번역 및 온라인 서비스, 다른 언어로의 번역 등 표준 문법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모색한다. 사업의 결과물은 사업 종료 후 문법서 형태의 인쇄물로 발간되고, 온라인 서비스를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표준 국어 문법 개발의 각 단계별 목표와 결과물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4-2> 5개년 사업의 단계별 이행 계획

## 참고 문헌

### 1. 단행본·논문

- 강명윤(1995), “주격 보어에 관한 소고”, 『생성문법연구』5-2, 한국생성문법학회.
- 강범모(2010), 『언어(개정3판)』, 한국문화사.
- 강복수·유창균(1968), 『문법』, 형설출판사.
- 강상호(1989), 『조선어 입말체 연구』, 사회과학출판사.
- 강순경(1996), “남북한의 모음분석”, 『어학연구』 32-1, 서울대 어학연구소.
- 강승혜(2005), “교육 과정의 연구사와 변천사”, 『한국어 교육론』1, 한국문화사.
- 강여순(2008), “문법 평가의 실태와 개선 방안”, 『국어교과교육학회 전국학술대회(제18회) 발표집』, 국어교과교육학회.
- 강옥미(2011), 『한국어 음운론』, 태학사.
- 강이연(2008), “최초의 한국어 문법서 GRAMMAIRE COREENNE 연구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수법과 번역학적 의의”, 『프랑스어문교육』29,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
- 강창석(1984), “국어의 음절 구조와 음운 현상”, 『국어학』 13, 국어학회.
- 강창석(1990), “음절”,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 강창석(2008), “국어의 문장구조에 대하여”, 『인문학지』 37, 충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 강창석(2013), “국어 문장의 구조와 특징”, 『개신어문연구』 37, 개신어문학회.
- 강현화(2007ㄱ), “한국어 교재의 문형 유형 분석 - 문형 등급화를 위해”, 『한국어 교육』 18-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강현화(2007ㄴ), “한국어 표현문형 담화기능과의 상관성 분석 연구 -지시적 화행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34, 이중언어학회.
- 강현화(2009), “최신 문법교수 이론의 경향과 한국어 교육에의 적용”, 『문법 교육』11, 한국문법교육학회.
- 강현화(2012), “한국어 교육에서의 담화 기반 문법 연구 : 부정 표현의 맥락 문법을 활용하여”, 『Foreign languages education』19-3, 한국의국어교육학회.
- 강현화·이미혜(2011), 『한국어 교육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강희숙(2007), 『시로 읽는 국어 정서법』, 글누림.
- 강희숙(2010), 『국어 정서법의 이해』, 역락.
- 강희숙(2012), “통신언어에 나타난 역문법화 현상 고찰-접두사 “개-”의 용법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61, 한민족어문학회.
- 고경태(2008), “한국어 교육을 위한 문법 체계에 대하여”, 『한국어학』41, 한국어학회.
- 고광모(1991), “국어의 보상적 장음화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고석주(2004), 『현대 한국어 조사의 연구 I』, 한국문화사.
- 고영근(1973), “현대국어의 접미사에 대한 구조적 연구(Ⅲ)-접미적 파생법의 기술방법을 중심으로”, 『어학연구』 9-1.
- 고영근(1974), 『국어 접미사의 연구』, 광문사.
- 고영근(1978), “형태소의 분석한계”, 『언어학』3, 한국언어학회.
- 고영근(1983), 『國語文法の 研究』, 탑출판사.

- 고영근(1988), “학교문법의 전통과 통일화 문제”, 『선청어문』16·17, 서울대 국어교육과.
- 고영근(1990), “문장과 이야기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관악어문연구』15,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고영근(1991), “불연속형태에 대한 논의”,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연구회 편, 『국어학의 새로운 인식과 전개』, 민음사.
- 고영근(1992), “형태소란 도대체 무엇인가”, 『남사이근수박사 환력기념논총』, 간행위원회.
- 고영근(1993), 『우리말의 총체서술과 문법체계』, 일지사.
- 고영근(1994), 『통일시대의 語文問題』, 길벗.
- 고영근(1995), 『단어·문장·텍스트』, 한국문화사.
- 고영근(1999ㄱ), 『國語形態論研究(증보판)』, 서울대학교 출판사.
- 고영근(1999ㄴ), 『텍스트 이론-언어문학통합론의 이론과 실제』, 아르케.
- 고영근(2000), “우리나라 학교 문법의 역사”, 『새국어생활』10-2, 국립국어연구원.
- 고영근(2001), 『역대한국문법의 통합적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 고영근(2004), “국어문법교육의 방향 탐색”, 『우리말연구』15, 우리말학회.
- 고영근(2005), “형태소의 교체와 형태론의 범위”, 『국어학』46, 국어학회.
- 고영근(2007), 『한국어의 시제 서법 동작상(보정판)』, 태학사.
- 고영근(2009), “언어유형론과 민족어 문법 연구”, 『관악어문연구』34,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고영근(2014), “민족어 문법에서 “어기”란 과연 필요한 개념일까-지상 토론을 제안하면서-”, 『형태론』 16-1, 형태론학회.
- 고영근·구본관(2008),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 고영근·남기심(1983), 『국어의 통사·의미론』, 탑출판사.
- 고인경(2008), “학교문법과 한국어교육문법의 표준화 방안 연구 : 고등학교 『문법』과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1』의 비교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재설(1992), “‘구두담이’형 합성명사에 대하여”, 『서강어문』8-1, 서강어문학회.
- 고춘화(2009), “사고력 함양을 위한 문법 교육 방안 연구: 명사의 의미 기능과 교육방안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35, 국어교육학회.
- 고춘화(2010), “교육 문법의 목적과 성격 연구”, 『새국어교육』84, 한국국어교육학회.
- 곽충구(2003), “현대국어의 모음체계와 그 변화의 방향”, 『국어학』41, 국어학회.
- 교육과정평가원(1998), “국가 교육과정에 근거한 평가기준 및 도구 개발 연구 -고등학교 국어-”, 연구보고 RRE 98-3-3.
- 교육과정평가원(1999), “고등학교 국어과 수행평가의 이론과 실제”, 연구보고 RRE 99-1-2.
- 교육과학기술부(2008),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Ⅲ) 국어, 도덕, 사회,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2008),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Ⅲ) 국어, 도덕, 사회,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2008),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2 국어,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2009),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 고등학교 교육과정-국어』.
- 교육과학기술부(2009),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국어』.
- 교육과학기술부(2012),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3호 [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 교육인적자원부(2007), 『국어과 교육과정 별책5, 교육인적자원부』.
- 구본관(1996=1998), 『15세기 국어 파생법에 대한 연구』, 태학사.
- 구본관(1997), “의미와 통사범주를 바꾸지 않는 접미사류에 대하여”, 『국어학』 29, 국어학회.

구본관(1998), “단일 어기 가설과 국어 파생 규칙”, 『어학연구』34-1,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구본관(1999), “파생접미사의 범위”, 『형태론』1-1.  
 구본관(2001), “수사와 수관형사의 형태론”, 『형태론』3-2.  
 구본관(2002ㄱ), “파생어 형성과 의미”, 『국어학』39, 국어학회.  
 구본관(2002ㄴ), “형태론의 연구사”, 『한국어학』16, 한국어학회.  
 구본관(2005), “국어 접미사의 분류에 대한 재검토”, 『우리말 연구 서른아홉 마당』, 태학사.  
 구본관(2009), “패러다임의 변화와 문법 교육의 방향”, 『어문학』103, 한국어문학회.  
 구본관(2014), “단어”, 『표준국어문법개발(2단계 제1차 워크숍 자료집)』.  
 구본관·신명선(2011), “원리 중심의 문법 교육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연구』27,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구재희(2007), “한국어 기본문형 교육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구현정(1998), “말뭉치 바탕 구어 연구”, 『언어과학연구』32, 언어과학회.  
 구현정(2002), “조건 담화와 공손법”, 『언어과학연구』23, 언어과학회.  
 구현정(2003), “대화 텍스트의 구조”, 『텍스트 분석의 실제』(이석규 편), 역락.  
 구현정(2009), “경어법의 표준 화법 실태와 개선 방안”, 『화법연구』15, 한국화법학회.  
 구현정(2011), “구어와 담화: 연구와 활용”, 『우리말연구』28, 우리말학회.  
 국립국어원(2005ㄱ),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1 : 체계 편』, 커뮤니케이션북스.  
 국립국어원(2005ㄴ),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2 : 용법 편』, 커뮤니케이션북스.  
 국어연구소(1984), “학교 문법 교과서의 변천 과정”, 『국어생활』1, 국어연구소.  
 권경근(2001), “현대국어에서의 모음 체계 변화의 움직임에 대하여”, 『언어학』 30, 한국언어학회.  
 권경근(2005), “국어의 음운론적 세기에 대하여”, 『한글』 270, 한글학회.  
 권재일(1987), “문법 기술에서의 ‘체계’에 대하여”, 『겨레어문학』11, 건국대국어국문학연구회.  
 권재일(1995), “국어학적 관점에서 본 언어 지식 영역의 지도 내용”, 『국어교육연구』2,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권재일(2000), “한국어 교육을 위한 표준 문법의 개발 방향”, 『새국어생활』10-2, 국립국어연구원.  
 권재일(2012), 『한국어 문법론』, 태학사.  
 권재일·김윤한·문양수·남승호·전종호(1997), “통사구조와 운율 구조의 상관성 연구-중의성 해소 양상을 중심으로-”, 『언어학』 20, 한국언어학회.  
 김건희(2003), “형용사의 주격 중출 구문과 여격 주어 구문에 대하여”, 『한말연구』 13, 한말연구학회.  
 김건희(2014ㄱ), “이형태 설정의 문제”, 『어문학』123, 한국어문학회.  
 김건희(2014ㄴ), “단어, 품사, 문장성분의 분류에 대한 일고찰-상호 연관성과 변별성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71,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김경아(2000), 『국어의 음운표시와 음운과정』, 태학사.  
 김경훈(1996), “현대 국어의 부사어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경현(2003), “二重母音 ‘-ㄴ-’의 통시적 변화”, 『어문연구』 31-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김계곤(1969), “현대국어의 뒷가지 처리에 대한 관견”, 『한글』 144, 한글학회.  
 김광해(1992), “문법과 탐구학습”, 『선청어문』20,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김광해(1995ㄱ), 『어휘연구의 실제와 응용』, 집문당.

- 김광해(1995), “언어 지식 영역의 교수 학습 방법”, 『국어교육연구』2,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 김광해(1997), 『국어지식 교육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광해 외(1999), 『국어지식 탐구』, 박이정.
- 김규훈(2010), “텍스트 중심 문법교육의 원리”, 『새국어교육』85, 한국국어교육학회.
- 김규훈(2010), “텍스트 중심 문법교육의 실행 방안: ‘음운과 음운 체계’의 교수-학습을 중심으로”, 『우리말교육현장연구』4, 우리말교육현장학회.
- 김규훈(2012), “문법교육의 소통적 관점에 대한 고찰-텍스트 중심성 원리의 해석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92, 한국국어교육학회.
- 김금숙(2007), “한국어 시제 오류 분석과 교수 방안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기용(2003), “고등학교 문법 교육의 문제점과 새로운 방안 모색”,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기혁(1985), “문장 구성에서 단위의 문제”, 『연세어문학』 18,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김기혁(1995), 『국어 문법 연구』, 박이정.
- 김기혁(1998), “국어 문법의 단위”, 『논문집』 9, 상지대학교.
- 김기혁(2006), “국어 지정문과 존재문의 상관성”, 『한글』 271, 한글학회.
- 김남미(2010), “교양과정 학생의 문법 선수학습 수준 분석”, 『새국어교육』86, 한국국어교육학회.
- 김동식(1993), “현대 국어 동사의 통사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동식(2002), “국어 문장의 기본 어순에 관하여: 어순 판별 기준의 설정을 위하여”, 『한신인문학연구』 3, 한신대학교 한신인문학연구소.
- 김두봉(1916), 『조선말본』, 신문관.
- 김무림·김옥영(2009), 『국어음운론』, 새문사.
- 김무식(2001), “음형대분석을 이용한 이중모음 ‘ㄴ’의 특징 연구”, 『어문학』 72, 한국어문학회.
- 김민국(2013), “부사격 조사 ‘-로서’ 주어에 대한 연구”, 『한국어학』 60, 한국어학회.
- 김민수(1960), 『國語文法論研究』, 통문관.
- 김민수(1971), 『국어문법론』, 일조각.
- 김민수(1979), 『문법』, 어문각.
- 김민수(1983), 『新國語學(全訂版)』, 일조각.
- 김민영(2002), “한자어 형태소의 유형 분석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민정(2002), “고등학교 국어과 문법 교과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병균(1995), “국어 기본문형의 연구”, 『선문논총』 5, 선문대학교.
- 김봉순(1996), “텍스트의 의미 구조와 표지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봉순(2001), “국어 교육을 위한 텍스트 언어학”, 『국어교육학연구』12, 국어교육학회.
- 김상훈·성철재·이정철(1997), “운율구 경계현상 분석 및 텍스트에서의 운율구 추출”, 『한국음향학회지』 16-1, 한국음향학회.
- 김서형(2005), “한국어 문법 교육 연구의 검토”, 『문법교육』3, 한국문법교육학회.
- 김선미(1997), “한국어의 리듬 단위와 문법 구조-음성 합성에서 리듬 구현의 자연성 향상을 위한 음성·언어학적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선철(1994), “국어 악센트의 연구의 방향”, 『언어학』 16, 한국언어학회.
- 김선철(2003), 『표준 발음 실태 조사 II』, 국립국어원.
- 김선철(2005), 『국어 억양의 음운론』, 경진문화사.
- 김선철(2006), 『중국어의 음운론적 변이 양상』, 경진문화사.
- 김선철(2012), “/ㅎ/에 대한 음운론적 연구: /ㅎ/의 성격과 ㅎ-말음 용언을 중심으로-”, 『언

- 어학』 64, 한국언어학회.
- 김선희(1994ㄱ), “감탄사와 담화 표지의 관련성”, 『우리말연구』1, 우리말학회.
- 김선희(1994ㄴ), “체언 수식 부사의 의미 분석”, 『한글』187, 한글학회.
- 김성규(1987), “어휘소 설정과 음운현상”, 『국어연구』77, 국어연구회.
- 김성규(1988), “비자동적 교체의 공시적 기술”, 『관악어문연구』 13,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김성규(1999), “잠재적 휴지의 실현”, 『선청어문』 27, 서울대 국어교육과.
- 김성규(2006), “음장의 변화 방향-1음절 용언 어간을 중심으로-”, 『이병근선생퇴임기념 국어학논총』, 태학사.
- 김성규·정승철(2005), 『소리와 발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김성규·정승철(2013), 『소리와 발음』,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김성규·김소영(2013), “표준 문법 정립을 위한 음운론 분야의 논점 탐색”, 『제19차 문법교육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집』, 한국문법교육학회.
- 김성근(1995), 『조선어어음론연구』, 사회과학출판사.
- 김소영(2009), “이중모음 /의/의 통시적 변화 연구”, 『국어연구』 213, 서울대 국어연구회.
- 김수진·차재은·오재혁(2011), “발화 요소와 발화 유형”, 『한국어 의미학』 36.
- 김양진(2008), “접어와 기능어-형태론적 단위와 통사론적 단위”, 『한국어학』38, 한국어학회.
- 김영석(1998), 『영어형태론』, 한신문화사.
- 김영선(1997), 『우리말 음절 구조의 선호성에 따른 음운 현상에 대한 역사적 연구』, 세종출판사.
- 김영옥(1997), “공형태소에 대하여”, 『전농어문연구』 9, 서울시립대학교.
- 김영옥(1998), “국어사교육은 과연 필요한가?”, 『선청어문』26,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 김영옥(1999), “통시적 형태분석의 문법사적 의미”, 『형태론』1-1.
- 김영희(1986), “복합명사구, 복합동사구 그리고 겹목적어”, 『한글』 193, 한글학회.
- 김영희(1988), 『한국어 통사론의 모색』, 탑출판사.
- 김영희(1998), 『한국어 통사론을 위한 논의』, 한국문화사.
- 김영희(2005), 『한국어 통사현상의 의의』, 역락.
- 김영희(2010), “한결 문법 : 그 체계적 특징”, 『애산학보』36, 애산학회.
- 김옥영(2012), “방언 자료를 활용한 문법교육 방안”, 『새국어교육』93, 한국국어교육학회.
- 김완진(1964), “중세국어 이중모음의 음운론적 해석”, 『학술원 논문집(인문사회과학편)』 4, 대한민국의학술원.
- 김완진(1972), “형태론적 현안의 음운론적 극복을 위하여-이른바 장모음의 경우-”, 『동아문화』 11, 서울대 동아문화연구소.
- 김왕규 외(2002), 『한국어능력시험의 평가기준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용도(1998), “언어학의 담화/텍스트 연구”, 『외대논총』18-1, 부산외국어대학교.
- 김용석(2006), ““학교문법”의 정체성에 대하여”, 『문법교육』4, 한국문법교육학회.
- 김용한(2006), “1922~1975 사이에 간행된 한문 문법서(漢文 文法書)의 품사 이론 연구(品詞理論 研究)”, 『한자 한문교육』17,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 김원경(2010), “보어 개념의 확장에 대하여-학교문법의 술어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44, 이중언어학회.
- 김유미(2005ㄱ), “문형 사전을 위한 문형 빈도 조사”, 『인지과학』 16-2, 한국인지과학회.
- 김유미(2005ㄴ), “한국어 교육에서 자동 문형 검사기 설계를 위한 문형 추출”,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유범(2008), “이형태교체의 조건과 중세국어 이형태교체의 몇 문제”, 『국어국문학』149, 국어국문학회.
- 김유정(1998),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 -문법 지식 항목 선정과 단계화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9-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김윤경(1984), 『나라말본』, 동명사.
- 김은성(2004), “외국의 국어지식교육 쇄신 동향: 언어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어학회 제32차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어학회.
- 김은성(2005), “국어 문법 교육의 태도 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은성(2008), “국어 문법 교육에서 ‘텍스트’ 처리의 문제”, 『국어교육학연구』33, 국어교육학회.
- 김은성(2009), “문법 교수·학습 방법 구체화를 위한 수업 의사소통 양상 연구: 교사의 문법적 지식 설명하기를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36, 국어교육학회.
- 김은성(2012ㄱ), “문법 학습 경험 맥락에 따른 문법 학습 촉진 요인의 보편성과 특수성”, 『새국어교육』90, 한국국어교육학회.
- 김은성(2012ㄴ), “초등 문법과 태도 교육”, 『한국초등국어교육』50,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 김의수(2007), “문장은 내심적인가 외심적인가”, 『국어학』 49, 국어학회.
- 김일웅(1984), “풀이말의 결합가와 격”, 『한글』186, 한글학회.
- 김일웅(1991), “낱말과 월성분”, 『우리말연구』1, 우리말학회.
- 김재욱(2003ㄱ),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 - 한국어 교육 문법의 제시 원리와 체계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22, 이중언어학회.
- 김재욱(2003ㄴ), 『한국어 문법 형태 연구』, 한국문화사.
- 김재욱(2007), “국어 문법과 한국어 문법의 체계 분석”, 『한민족어문학』51, 한민족어문학회.
- 김재욱(2009),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내용 설정 연구 - 교육 문법 내용의 영역, 등급과 순서 제시”, 『문법교육』10, 한국문법교육학회.
- 김재욱(2010), “한국어 읽기에서의 문법 교육”, 『문법 교육』12, 한국문법교육학회.
- 김정남(2005), 『국어 형용사의 연구』, 역락.
- 김정숙(1992), “한국어 교육 과정과 교과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정우(2004), “합성어 내부 경계의 음운론적 의의-가휴지와 잠재 휴지”, 『배달말』 35.
- 김정은·이소영(2001),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표준 문법-조사, 어미, 관용표현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19, 이중언어학회.
- 김정태(1996), 『국어 과도음 연구』, 박이정.
- 김정훈(2000), “Microsoft Power Point를 이용한 초급 한국어 구조 학습”, 『한국어교육』 11-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김제열(2001), “한국어 교육에서 기초 문법 지식 항목의 선정과 배열 연구”, 『한국어교육』 12-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김종규(1989), “중세국어 모음의 연결 제약과 음운 현상”,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종규(2006), “음운현상의 수의성과 음장”, 『어문학』92, 한국어문학회.
- 김종규(2010), “이중모음의 운율구조와 음장”, 『어문학』 110, 한국어문학회.
- 김종규(2010), “이중모음의 음운론적 성격에 대하여”, 『어문연구』 38-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 김종도(1996), “상 의미의 이중성 연구”, 『담화와 인지』3, 담화인지언어학회.
- 김종록(2008), 『외국인을 위한 「표준한국어문법」』, 박이정.
- 김종현(2012), “국어과 교육과정을 위한 담화 개념의 위상”, 『국어교육학연구』44, 국어교육학회.

- 김주필(1999), “국어의 음절 내부 구조와 음운 현상”, 『애산학보』 23, 애산학회.
- 김지영(2014), “텍스트 기반 어휘 교육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지은(1998), 『우리말 양태용언 구문에 대한 연구(말뭉치기반 국어학총서 4)』, 한국문화사.
- 김지은(2002), “관형절의 한 유형에 관한 연구”, 『애산학보』27, 애산학회.
- 김지홍(1990), “문법기술의 일관성과 간결성 : 특히 학교문법의 부정문과 { - 게 } 어미 처리를 중심으로”, 『배달말교육』 8-1, 배달말교육학회.
- 김진우(1976) “국어음운론에 있어서의 모음 음장의 기능”, 『어문연구』 9, 어문연구학회.
- 김진우(2007), 『언어』, 탑출판사.
- 김차균(1981), “음절이론과 국어의 음운규칙”, 『논문집』 8-1, 충남대학교.
- 김차균(1999), 『우리말의 시제 구조와 상 인식』, 태학사.
- 김창섭(1983), “‘줄넘기’와 ‘갈림길’형 합성명사에 대하여”, 『국어학』12, 국어학회.
- 김창섭(1984), “형용사 파생접미사들의 기능과 의미”, 『진단학보』58, 진단학회.
- 김창섭(1996), 『국어의 단어형성과 단어구조연구』, 태학사.
- 김태엽(2008), 『국어학 개론』, 역락.
- 김 현(2008), “/ㅏ/의 음성 실현과 그 실현 조건”, 『국어학』 52, 국어학회.
- 김현수(1993), “중등학교 국어 교육에서의 언어지식 영역 교재 개발 시론”,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혜숙(1998), “한국어 기본 문형 설정에 대하여 : 효과적인 국어교육을 위하여”, 『국어국문학』 122, 국어국문학회.
- 김혜숙(2000), “매체 언어의 국어 교육적 수용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하여 : 특히 국어 지식 영역(문법 교육)에 광고 언어를 적용하기 위하여”, 『한국어문학연구』36, 동악어문학회.
- 김혜숙(2005), “사회언어학 연구와 국어 교육의 연계성-국어 교육에 미치는 사회언어학적 영향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141, 국어국문학회.
- 김혜숙(2009), “사회문화적 의사소통과 국어 교육 : 사회 방언과 국어 교육”, 『국어교육학연구』35, 국어교육학회.
- 김혜숙(2012), “상호문화적 국어 교육의 교수-학습 방향 모색-다문화 사회의 통합형 문법교육을 위하여”, 『새국어교육』93, 한국국어교육학회.
- 김혜영(2013), “국어학의 연구 성과와 학교 문법 교육 내용의 변천”, 『한국어학』58, 한국어학회.
- 김호정(2006), “담화 차원의 문법 교육 내용 연구”, 『텍스트언어학』21, 한국텍스트언어학회.
- 김호정(2008), “한국어 교재 내의 문법 용어 계량 연구”, 『언어과학연구』46, 언어과학회.
- 김홍범(2004), “탐구학습을 위한 학교 문법의 어말 어미 체계 고찰”, 『한말연구』15, 한말연구학회.
- 김홍범(2008), “문법 교육을 위한 탐구 학습 자료 개발 연구”, 『겨레어문학』41, 겨레어문학회.
- 김홍범(2013), “학교문법의 개념 정립을 위한 ‘독서와 문법’ 교과서와 지도서 분석”, 『제19차 문법교육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집』, 한국문법교육학회.
- 나진석(1971), 『우리말의 때매김 연구』, 과학사.
- 남가영(2008), “문법 탐구 경험의 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남가영(2009), “문법 지식의 응용화 방향: 신문 텍스트에 나타난 ‘-(다)는 것이다’ 구문의 의미 화행을 중심으로”, 『형태론』11-2.
- 남가영(2011), “문법교육용 텍스트의 개념 및 범주”, 『국어교육』136, 한국어교육학회.
- 남가영 외(2007), “학교 문법 품사 설정 및 용어 결정의 과정과 문제점”, 『우리말연구』21,

우리말학회.

남가영 외(2007ㄴ), “문법 용어를 통한 문법 지식의 구조 체계화 연구 (2): 형태”, 『우리말연구』21, 우리말학회.

남기식(2011), “전통 문법서에 나타난 연결 어미 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남기심(1968), “구조 언어학의 형태소 분석 방법론에 대하여”, 『행정 이상헌 선행 회갑기념논문집』.

남기심(1981), “국어 존대법의 기능”, 『人文科學』 45,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남기심(1982), “국어의 공식적 기술과 형태소의 분석”, 『형태』(이병근 외 편 1993), 태학사.

남기심(1985), “학교문법에 나타나는 문법 단위 ‘어절(語節)’에 대하여”, 『연세교육과학』26,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남기심(1986ㄱ), “서술절 설정은 타당한가”, 『국어학신연구』, 탑출판사, 남기심(1996) 『국어문법의 탐구 I』 태학사에 재록.

남기심(1986ㄴ), “이형태의 상보적 구성과 통사적 구성”, 『한글』193, 한글학회, 495-503.

남기심(1996), 『국어문법의 탐구 1』, 태학사.

남기심(2001ㄱ), 『현대 국어 통사론』, 태학사.

남기심(2001ㄴ), “한국어 표준 문법의 필요성과 개발 방향”, 『제2차 한국어세계화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남기심(편)(1993), 『국어 조사의 용법』, 서광학술자료사.

남기심·고영근(1985/2011), 『표준 국어 문법론(제3판)』, 탑출판사.

남기심·고영근·이익섭(1975), 『現代國語文法(論文選)』, 계명대출판부사.

남기심·이정민·이홍배(1980), 『언어학개론』, 탑출판사.

남기심 외(1999),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방법과 실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남길임(2004), 『현대 국어 「있다」 구문 연구(말뭉치기반 국어연구총서 12)』, 한국문화사.

남윤진(1996), “국어 조사의 문법적 위치”, 『울산어문논집』11, 울산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노대규(1983), 『국어의 감탄문 문법』, 보성문화사.

노명희(1990), “한자어의 어휘형태론적 특성에 관한 연구”, 『국어연구』95, 국어연구회.

노명희(1997), “한자어 형태론”, 『국어학』29, 국어학회.

노명희(2004), 『현대 국어 한자어 연구(국어학총서 49)』, 태학사.

노명희(2009), “어근 개념의 재검토”, 『어문연구』 37-1, 어문연구학회.

노석기(1984), “국어의 담화와 문장에 대한 특성 비교”, 『한글』184, 한글학회.

노석기(1990), “우리말 담화의 결속관계 연구”, 『한글』208, 한글학회.

도수희(1983), “한국어 음운사에 있어서 부음 y에 대하여”, 『한글』 179, 한글학회.

류관수(1986), “담화 분석의 방법론적 접근(1)-문장 단위를 중심으로”, 『외국문화연구』 86-1, 조선대.

류성기(2000), “국어교육에서의 담화교육”, 『새국어교육』 59-1, 한국국어교육학회.

류윤도(2009), “문법화 현상의 교육내용과 교육방법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리의도(1995), “‘국어 지식’의 본질과 교재화”, 『한국초등국어교육』11,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리의도(1999/2004), 『(리의도 교수의) 이야기 한글 맞춤법』, 석필.

리의도(2005), “초등학교 국어과 발음 단원의 변천에 대한 고찰”, 『한국초등국어교육』29,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 목정수(2003), 『한국어 문법론』, 월인.
- 목정수(2004), “記述動詞와 主觀動詞 앞의 ‘가形 成分’의 통사적 기능-單一主語說 정립을 위하여-”, 『어문연구』32-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 목정수(2013), 『한국어, 보편과 특수 사이』, 태학사.
- 문교부(1985), 『고등학교 문법』.
- 문교부(1988), 『한글맞춤법』.
- 문숙영(2009), 『한국어의 시제 범주(국어학총서 66)』, 태학사.
- 문영은(2012), “텍스트 중심 문법교육 내용 연구: 연설 텍스트의 이중 부정 표현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민광준(2002), “자국어 능력 배양을 위한 일본의 노력”, 『새국어생활』12-2, 국립국어연구원.
- 민현식(1992), “문법 교육의 목표와 내용: 현행 학교 문법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국어 교육』79-80, 한국국어교육연구회.
- 민현식(1994), “형태론의 주요 개념과 문법 교육”, 『선칭어문』22, 서울대 국어교육과.
- 민현식(1999ㄱ), 『국어 문법 연구』, 역락.
- 민현식(1999ㄴ), 『국어정서법 연구』, 태학사.
- 민현식(2000ㄱ), 『국어 교육을 위한 응용국어학 연구』, 서울대 출판부.
- 민현식(2000ㄴ),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의 현황과 과제”, 『새국어생활』10-2, 국립국어연구원.
- 민현식(2002ㄱ), “‘부사성’의 문법적 의미”, 『한국어의미학』10, 한국어의미학회.
- 민현식(2002ㄴ), “국어지식의 위계화 방안 연구”, 『국어교육』108,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 민현식(2003), “국어 문법과 한국어 문법의 상관성”, 『한국어교육』14-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민현식(2004), “한국어 표준교육과정 기술 방안”, 『한국어교육』15-1,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 민현식(2005), “문법 교육의 표준화와 다양화의 과제”, 『국어교육연구』16,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민현식(2006ㄱ),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과 문법 교육의 과제”, 『문법교육』4, 한국문법교육학회.
- 민현식(2006ㄴ), “사범대 문법 교육 과정의 구성과 문법 교육의 개선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연구』17,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 민현식(2007), “문법 교육의 반성과 교과서 개발의 방향”, 『국어교육연구』19,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 민현식(2008ㄱ), “한글 맞춤법 교육의 체계화 방안: 문법 교육과 맞춤법 교육의 관계 정립을 위한 試論”, 『국어교육연구』21,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 민현식(2008ㄴ), “국어학의 성과와 미래 국어교육에의 적용”, 『국어교육』126, 한국어교육학회.
- 민현식(2008ㄷ), “한국어 교육을 위한 문법 기반 언어 기능의 통합과정 구조화 방법론 연구”, 『국어교육연구』22,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 민현식(2009ㄱ), “한국어 교육용 문법 요소의 위계화에 대하여”, 『국어교육연구』23,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 민현식(2009ㄴ), “국내 국어 교육 정책의 반성과 전망”, 『국어교육학연구』36, 국어교육학회.
- 민현식(2010), “통합적 문법 교육의 의의와 방향”, 『문법교육』12, 한국문법교육학회.
- 민현식 외(2005), 『한국어 교육론 : 한국어 교육의 역사와 전망 2』, 한국문화사.
- 박덕유(2002), 『문법교육의 탐구』, 한국문화사.
- 박덕유(2004), “현행(제7차) 문법 교과서 내용 분석”, 『문법교육』1, 한국문법교육학회.

- 박덕유(2005ㄱ), 『문법교육의 이론과 실제』, 역락.
- 박덕유(2005ㄴ), “문법 지식 지도의 필요성과 발전 방향”, 『새국어교육』71, 한국국어교육학회.
- 박덕유(2011), “국어 어문 규정의 두음 법칙 위계화 연구”, 『새국어교육』88, 한국국어교육학회.
- 박동호(2004),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교육 과정”, 『문법교육』1, 한국문법교육학회.
- 박동호(2007), “한국어 문법의 체계와 교육내용 구축 방안”, 『이중언어학』34, 이중언어학회.
- 박문자(2007), 『한국어 교육문법과 의존 구성 연구』, 박이정.
- 박선우(2008), “현대국어의 /의/는 이중모음인가?-/의/의 음향적·지각적 특성에 대한 검토-”, 『우리말연구』 23, 우리말학회.
- 박선훈(2004), “오류분석을 통한 한국어 시제 및 상 교육 방안 연구 - 일본어권 문법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승빈(1935), 『朝鮮語學』, 조선어학연구회.
- 박영목 외(2003), 『국어 교육학 원론』, 박이정.
- 박영목 외(2005), 『국어 교육론 2-국어 문법·기능 교육론』, 한국문화사.
- 박영목 외(2012),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I·II』, (주)천재교육.
- 박영순(1994), 『한국어의미론』, 고려대학교 출판부.
- 박영순(1998), 『한국어 문법 교육론』, 박이정.
- 박영순(2004),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월인.
- 박영순(2005), 『국어문법 교육론』, 박이정.
- 박영순(2008), 『한국어 담화·텍스트론』, 한국문화사.
- 박재연(2010), “이형태 교체와 관련한 몇 문제”, 『국어학』58, 국어학회.
- 박재현(2013), 『국어 교육을 위한 의사소통 이론』, (주)사회평론.
- 박재현 외(2008ㄱ), “국어 문법 교육 용어 계량 연구(2): 단어”, 『국어교육연구』21,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박재현 외(2008ㄴ), “국어 문법 교육 용어 계량 연구(3): 문장”, 『새국어교육』80, 한국국어교육학회.
- 박정규(1996), 『대화분석론(개정증보판)』, 역락.
- 박정규(2010), “현행 학교 문법에 나타난 두 가지 모순점-“자릿수” 설정과 관련하여-”, 『우리말연구』27, 우리말학회.
- 박정규(2012), “학교 문법에서의 기본 문형 정립을 위하여”, 『한국언어문학』 83, 한국언어문학학회.
- 박정준(1994), “담화의 텍스트 언어학적 분석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지홍(1981), 『현대우리말본』, 문성출판사.
- 박진호(1994), “통사적 결합관계와 논항구조”, 『국어연구』123, 국어연구회.
- 박진호(2003), “한국어의 동사와 문법요소의 결합양상”,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진호(2010), “분포에 의한 단어 분류와 기능에 의한 단어 분류”,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언어연구소/한국 언어 유형론 연구회 공동 워크숍』,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신양인문학학술정보관(4동) 309호.
- 박진호(2011), “시제, 상, 양태”, 『국어학』60, 국어학회.
- 박창원(1987), “표면음성제약과 음운현상-고성지역어의 음절구조를 중심으로”, 『국어학』 16, 국어학회.
- 박창원(1988), “15세기 국어의 이중모음”, 『경남어문논집』 창간호, 경남대학교.
- 박창해(2007), 『현대 한국어 통어론 연구』, 연세대학교 출판부.

- 박형우(2006), “국어 교육에서의 중세 국어 문법 교육”, 『문법교육』4, 한국문법교육학회.
- 박혜진(2010), “단어 형성법 교육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방성원(2002), “한국어 교육용 문법 용어의 표준화 방안”, 『한국어교육』13-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방성원(2004), “한국어 문법화 형태의 교육 방안 - '다고' 관련 형태의 문법 지식 항목 선정과 배열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15-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배재연 외(1999), “음성 환경에 따른 한국어 폐쇄음의 음향적 특성 : 시간적 특성을 중심으로”, 『음성과학』 5-2, 한국음성학회.
- 배주채(1989), “음절말자음과 어간말자음의 음운론”, 『국어연구』 91, 서울대 국어연구회.
- 배주채(1991), “고흥방언 “아” 활용형의 음운론적 고찰”, 『국어학의 새로운 인식과 전개』, 민음사.
- 배주채(1996), 『국어음운론 개설』, 신구문화사.
- 배주채(2003), 『한국어의 발음』, 삼경문화사.
- 배주채 역(2008), 『언어의 중심 어휘』, 삼경문화사.
- 배주채(2011), 『국어음운론 개설(개정판)』, 신구문화사.
- 배주채(2013), 『한국어의 발음(개정판(2판))』, 삼경문화사.
- 백봉자(1991ㄱ), “한국어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 작업”, 『교육한글』4, 한글학회.
- 백봉자(1991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그 정립을 위한 한 방안”, 『동방학지』71-72,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 백봉자(200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문법-피동/사동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12-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백봉자(2006), 『외국어로서 한국어 문법 사전』, 하우.
- 백용학(1993), 『화용론과 담화분석』, 동아대학교출판부.
- 백인수·강희숙(1999), “사범대학 국어 교육학과 교육과정 모형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교과교육연구』2-1, 조선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교과교육연구소.
- 서강대 국문과 엮음(2005), 『국어국문학, 미래의 길을 묻다-향후 10년의 지형도-』, 태학사.
- 서광수 외(2005), 『한국어 표현문법』, 한국문화사.
- 서덕현(2000), “학교 문법에 수용된 문법 이론에 대한 소고”, 『국어교육학연구』10, 국어교육학회.
-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2002ㄱ), 『고등학교 문법』, 교육인적자원부.
-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2002ㄴ), 『고등학교 문법-교사용 지도서』, 교육인적자원부.
- 서울대 대학원 국어연구회 편(1990),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 서정수(1976), “국어 시상 형태의 의미 분석 연구”, 『문법연구』3, 한국문법교육학회.
- 서정수(1981), “합성어에 관한 문제”, 『한글』173·174, 한글학회.
- 서정수(1983), 『존대법의 연구』, 한신문화사.
- 서정수(1996), 『국어문법』, 한양대학교 출판원.
- 서정수(200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새 문법 체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27, 연세대학교 언어교육연구원.
- 서정수(2005), 『한국어의 부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 서정수(2006), 『국어문법』, 한세.
- 서정욱(2001), “<표준 국어문법론>의 “구(句)/절(節)” 개념과 중고등학교 국어교재”, 『한국어

- 문연구』 13, 한국어문연구학회.
- 서태룡(1985), “정동사어미의 형태론”, 『진단학보』 60, 진단학회.
- 서태룡(1996), “국어 문법 단위의 통사 범주”, 『한국어문학연구』 31, 동악어문학회.
- 서태룡(2006), “국어 품사 통용은 이제 그만”, 『국어학논총』, 태학사.
- 서혁(1994), “담화의 분석과 화제, 초점에 대하여”, 『선청어문』 22-1, 서울대학교국어교육과.
- 서혁(1995), “담화의 기능 및 유형”, 『국어교육학연구』 5-1, 국어교육학회.
- 서효현(2012), “시간 표현의 문법 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석주연(2005),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형교육의 방향에 대한 일고찰”, 『한국어교육』 16-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성광수(1974), “국어 보어 설정에 대한 재고”, 『국어국문학』 64, 국어국문학회.
- 성광수(1988ㄱ), “한국어 문법의 내용과 설명”,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13-1,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 성광수(1988ㄴ), “국어 형태소의 유형과 의미”, 『한국어문교육』 3,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1-19.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1985), 『고등학교 문법』,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성기철(1969), “명사의 형태론적 구조”, 『국어교육』 15.
- 성기철(1981), “형태론”, 『국어학신강』.
- 성기철(2002), “국어학과 국어 교육”, 『국어교육』 108,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 성기철(2007가), 『한국어 문법론 연구』, 역락.
- 성기철(2007나), 『한국어 대우법 연구』, 역락.
- 성낙수(2010), “학교 문법 품사 설정 및 용어 결정의 과정과 문제점”, 『문법 교육』 12, 한국문법교육학회.
- 성철재(1995), “한국어 리듬의 실험음성학적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손남익(1995), 『국어 부사 연구』, 박이정.
- 손호민(2008), “한국어의 유형적 특징”, 『한글』 282, 한글학회, 61-95.
- 송경숙(2002), 『담화분석: 대화 및 토론 분석의 실제』, 한국문화사.
- 송경숙(2005), 『담화 화용론』, 한국문화사.
- 송복승(2005), ““아니다” 구문에서 주격 보어의 격 실현”, 『배달말』 37, 배달말학회.
- 송복승(2007), “국어 보어의 특성과 범위 재론”, 『한국언어문학』 61, 한국언어문학회.
- 송석중(1993), 『한국어 문법의 새 조명』, 지식산업사.
- 송원용(2005), 『국어 어휘부와 단어형성(국어학총서 50)』, 태학사.
- 송원용(2006), “국어문장성분 분석의 원리와 절차”, 『개신어문연구』 24, 개신어문학회.
- 송창선(2008), “현행 학교문법에서 보어 설정의 문제점”, 『국어교육연구』 43, 국어교육학회.
- 송창선(2009), “이른바 ‘이중 주어 구문’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국어교육연구』 45, 국어교육학회.
- 송창선(2011), “국어의 기본 문형 설정”, 『국어교육연구』 48, 국어교육학회.
- 송철의(1982), “국어의 음절문제와 자음의 분포제약에 대하여”, 『관악어문연구』 7, 서울대 국문과.
- 송철의(1992ㄱ), 『국어의 파생어형성 연구』, 태학사.
- 송철의(1992ㄴ), “국어 음운론연구 1세기”, 『국어국문학 40년』, 집문당.
- 송철의(1993), “자음의 발음”, 『새국어생활』 3-1, 국립국어연구원.

- 송철의(1995), “국어의 활음화와 관련된 몇 문제”, 『단국어문논집』 1, 단국대 국문과.
- 송철의(2000), “형태론과 음운론”, 『국어학』35, 국어학회.
- 송철의(2008), 『한국어 형태음운론적 연구』, 태학사.
- 송현정(1998), “한국어의 호응 관계에 대한 국어 교육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송현정(2006), 『문법 교육의 이해와 실제』, 한국문화사.
- 시정곤(1993), “‘음운적 단어’의 설정을 위한 시고”, 『우리어문연구』6,7-1, 우리어문학회.
- 시정곤(1994), 『국어의 단어형성 원리』, 국학자료원.
- 시정곤(1998), 『국어의 단어형성 원리(수정판)』, 한국문화사.
- 시정곤(2006가), “국어 형태론에서의 생산성 문제에 대한 연구”, 『형태론』8-2.
- 시정곤(2006나), 『현대 국어 형태론의 연구』, 월인.
- 시정곤(2006다), 『현대 국어 통사론의 연구』, 월인.
- 시정곤(2010), “공형태소와 형태 분석에 대하여”, 『국어학』57, 국어학회.
- 신명선(2006ㄱ), “개정 문법 교육 과정의 지향점과 교과서 개발의 방향에 관한 연구”, 『문법 교육』5, 한국문법교육학회.
- 신명선(2006ㄴ), “통합적 문법 교육론에 관한 담론 분석”, 『한국어학』31, 국어학회.
- 신명선(2008ㄱ),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문법 교육 내용에 대한 고찰”, 『국어교육학연구』 31,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신명선(2008ㄴ), “읽기 교육과 문법”, 『문식성 교육 연구』, 한국문화사.
- 신명선(2010), “인지 의미론의 연구 성과를 활용한 문법 교육 내용 개선 방안 연구”, 『한국어 의미학』31, 한국어의미학회.
- 신서인(2006), “구문 분석 말뭉치를 이용한 한국어 문형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신서인(2009), “동사 “생각하다”의 문형에 대한 고찰”, 『관악어문연구』 34, 서울대 국문과.
- 신승용(1996), “치음의 통시적 변화와 음운론적 해석”, 서강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신승용(2007), 『국어 음절 음운론』, 박이정.
- 신승용(2010), “이중모음의 정의와 이중모음에서의 분절음 탈락-‘wi→i~u’, ‘iy→i~i’를 중심으로-”, 『배달말』 50, 배달말학회.
- 신승용(2011), “문법 교육에서 구(句)와 어(語)의 문제”, 『국어교육연구』 49, 국어교육학회.
- 신지연(1998), 『국어 지시용언 연구(국어학총서 28)』, 태학사.
- 신지영(1999), “이중모음 /-i/의 통시적 연구”, 『민족문화연구』 32,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신지영(2000ㄱ), 『말소리의 이해』, 한국문화사.
- 신지영(2000ㄴ), “국어 평음의 음성적 실현에 대한 음운론적 해석-평폐쇄음을 중심으로-”, 『한글』 250, 한글학회.
- 신지영(2006), “표준 발음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어학』 30, 국어학회.
- 신지영(2011), 『한국어의 말소리』, 지식과교양.
- 신지영(2013), “소통과 공감을 위한 전달력 높은 말하기의 조건”, 『어문논집』 69, 민족어문학회.
- 신지영·차재은(2003), 『우리말 소리의 체계』, 한국문화사.
- 신지영 외(2012), 『한국어학의 이해』, 지식과교양.
- 신창순(1969), “한자어 소고”, 『국어국문학』 42·43, 국어국문학회.
- 신현숙(1997), “21세기 담화 의미 연구의 방향”, 『한국어의미학』1, 한국어의미학회.
- 신호철(2007), “국어 교육의 상보적 통합: 문법 영역을 중심으로”, 『문법교육』7, 한국문법교육학회.

- 신호철(2010ㄱ), “국어과 문법 영역의 연계성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호철(2010ㄴ), “국어 교육에서 ‘통합’에 대한 관점”, 『한말연구』27, 한말연구학회.
- 심 반(2011), “한국어 시제 체계의 교육 방안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심영택(2004), “문법 지식의 교수학적 변환 연구”, 『국어교육학연구』21, 국어교육학회.
- 심영택(2006), “통합적 문법 교육에 관한 담론 분석”, 『한국어학』31, 한국어학회.
- 심영택 외(1995), “문법 지식의 확대 사용 전략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심재기(1982), 『國語語彙論』, 집문당.
- 안명철(2001), “이중주어 구문과 구-동사”, 『국어학』 38, 국어학회.
- 안병섭(2007), “휴지(pause)의 역할에 대한 반성적 검토”, 『우리어문연구』 28.
- 안주호(2003), 『국어 교육을 위한 문법탐구』, 한국문화사.
- 야마시다 카즈미(2002), “일본어 모어 학습자를 위한 ‘하다’ 교육 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상철(1988), A revised theory of syllabic phonology, 『언어』 13-2, 한국언어학회.
- 安 廓(1923), 『修正 朝鮮文法』, 滙東書館, 歷代韓國文法大系 1126.
- 양동휘(1978), “국어관형절의 시제”, 『한글』162, 한글학회.
- 양동휘(1979), “국어의 피사동”, 『한글』166, 한글학회.
- 양명희(1998), 『현대 국어 대용어에 대한 연구』, 태학사.
- 양명희(2002), “洪起文의 국어 문법 研究”, 『어문연구』30-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 양명희(2006), “보어와 학교문법”, 『한국어학』32, 한국어학회.
- 양순임(2001), “유기음과 성문 열림도”, 『우리말 연구』 11, 우리말학회.
- 양정호(2004), “형태소 개념과 국어사 기술”, 『한국문화』34.
- 엄태수(1996), “현대국어의 이중모음화 현상에 대하여”, 『언어』 21, 한국언어학회.
- 연제훈(1996), “국어 여격주어 구문에 대한 범언어적 관점의 연구”, 『국어학』 28, 국어학회.
- 연재훈(2008), “한국어에 능격성이 존재하는가”, 『한글』282, 한글학회.
- 염선모(1977), “국어의 기본 문형에 대하여”, 『어문학』 36, 한국어문학회.
- 오옥매(2008), “초창기 한국어 문법 용어에 대한 연구 : 1987년~1937년 문법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오충연(1997), “국어 조사의 격표지 기능에 관한 소고 : 주격표지를 중심으로”, 『송실어문』 13, 송실어문학회.
- 오충연(2001), “상과 성분구조 : 이중주어문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129, 국어국문학회.
- 오충연(2002), “목적어와 상”, 『송실어문』18, 송실어문학회.
- 오충연(2006), 『상과 통사구조』, 태학사.
- 오충연(2011), “국어 어절의 통사적 내용-지시체계를 제안함-”, 『한국어학』 53, 한국어학회.
- 오현아(2004), “국어 순화 태도 형성을 위한 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현아(2008), “정확성 중심 문법 교육관에 대한 반성적 고찰”, 『새국어교육』80, 한국국어교육학회.
- 오현아(2010), “표현 문법 관점의 문장 초점화 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왕문용(2005), 『문법 교육 변천사, 국어 교육론 2』, 한국문화사.
- 왕문용·민현식(1993), 『국어 문법론의 이해』, 개문사.
- 우순조(1997), “국어 어미의 통사적 지위”, 『국어학』30, 국어학회, 225-256.
- 우인혜(1997), 『우리말 피동 연구』, 한국문화사.

- 우인혜(2008), “국어문법과 한국어문법의 차이에 대한 연구-높임 표현 교수법을 중심으로”, 『문법교육』9, 한국문법교육학회.
- 우창현(2002), “학교 국어 교육에서의 효율적인 말하기, 듣기 교육”, 『시학과 언어학』4, 시학과 언어학회.
- 우창현(2003), “국어 교육에서 확인되는 겹받침 오류 : 초등학교 6학년을 중심으로”, 『어문학』81, 한국어문학회.
- 우창현(2011), “방언 한국어 교육을 위한 문법 표현 비교 -시제 선어말 어미를 중심으로-”, 『인문연구』63,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우형식(1996), 『국어 타동구문 연구』, 박이정.
- 우형식(2001ㄱ), “보어의 범위에 대한 연구사적 접근”, 『한어문교육』 9,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 우형식(2001ㄴ), 『한국어 분류사의 범주화 기능 연구』, 박이정.
- 우형식(2002ㄱ), “문법 교육과 탐구 학습: 단어 형성법의 경우”, 『교육논총』4,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 우형식(2002ㄴ), “한국어 문법 교육의 체계와 방법론-토론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제18차 학술대회 발표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우형식(2005), “한국어 문법 교육의 전망”, 『교육논총』6,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 우형식(2010), “한국어 교육 문법의 체계와 내용 범주”, 『우리말연구』26, 우리말학회.
- 원해영(2013), “한국어교육을 위한 기본문형 연구 : 필수논항과 격표지를 중심으로”, 『언어과학』 20-2, 한국언어과학회.
- 俞吉濬(1909) 『大韓文典』, 同文館. 歷代韓國文法大系 106.
- 유동석(1995), 『국어의 매개변인문법』, 신구문화사.
- 유목상(1974), “통어론적 구성에 의한 어형성에 관한 연구”, 『성곡논총』 5.
- 유석훈(2001), “외국어로서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구축의 필요성과 자료 분석”, 『한국어교육』 12-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유재원(1985), “현대국어의 모음충돌 회피 현상에 대하여”, 한글 189, 한글학회.
- 유종혁(2010), “문법 교육에서의 교수-학습 요인 분석 연구: 탐구학습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필재(2001), “서울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현경(1986), “국어 접속문의 통사적 특질에 대하여”, 『한글』251, 한글학회.
- 유현경(1998), 『국어 형용사 연구(말뭉치 기반 국어 연구 총서 3)』, 한국문화사.
- 유현경(2003), ““주다” 구문에 나타나는 조사 “에게”와 “에””, 『한국어학』20, 한국어학회.
- 유현경(2005), “형용사 구문의 주어에 대한 연구”, 『배달말』 37, 배달말학회.
- 유현경(2006), “형용사에 결합된 어미 ‘-게’ 연구”, 『한글』273, 한글학회.
- 유현경(2007), “‘에게’와 유정성”, 『형태론』9-2.
- 유현경(2010), “국어 문법에서의 ‘가’ 보어 설정 문제- 심리형용사 구문의 NP2를 중심으로 -”, 『어문론총』52, 한국문학언어학회.
- 유현경(2011), “접속과 내포”, 『국어학』60, 국어학회.
- 유현경 외(2011), 『(7인의 젊은 학자들이 본) 한국어 통사론의 현상과 이론』, 태학사.
- 유현경(2013), “표준 문법의 필요성과 개념”, 『제19차 문법교육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집』, 한국문법교육학회.
- 유현경(2014), “문법 기술에서의 체계 정합성 문제 - 보어 기술을 중심으로 -”, 『국어학』 70,

국어학회.

- 유현경·이정택(2014), “문장을 이루는 문법 단위의 문제-‘어절, 구, 절, 문장’을 중심으로-”, 『표준국어문법개발(2단계) 제1차 워크숍 자료집』.
- 유형선(1999), “보어에 관한 一考”, 『한국어학』9, 한국어학회.
- 유혜령(2002), “학교문법에서의 ‘이다’ 처리 재고”, 『청람어문교육』24, 청람어문교육학회.
- 유혜령(2005), “국어 지식 교육을 위한 ‘국어 연결 어미’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윤국한(2003), “문법의 목표와 국어 지식 교육”, 『청람어문교육』26, 청람어문교육학회.
- 윤석민(2000), 『현대 국어의 문장 종결법 연구(텍스트언어학총서 4)』, 집문당.
- 윤여탁 외(2012),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I·II』, (주)미래엔.
- 윤정원(2011), “『조선어문장론』의 문장 유형 분류 연구-『표준국어문법론』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국제어문』52, 국제어문학회.
- 윤희섭(2007), “영어 활용, 반모음, 이중모음에 대한 음성 및 음운적 재고”, 『영어영문학 연구』49-3, 한국중앙영어영문학학회.
- 윤희원(1988), “문법 교육 강좌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 『논문집』33, 한국어 교육연구회.
- 은희철(2013), “의학 전문용어 순화, 제작과 관련된 갈등 및 해결 방안”, 『한국사전학회 제23차 전국학술대회』, 한국사전학회.
- 이강로(1971), “현대 국어의 토씨(助詞)에 대한 기초연구 : 우리말본과 13 종류의 문법서를 대상으로”, 『논문집』6, 한국어 교육연구회.
- 이경남(1996), “문장문법에서 담화문법으로의 확대 필요성”, 『영어교육』51-2, 한국영어교육학회.
- 이경현(2007), “학습자를 고려한 문법교육내용의 위계화-중학교 국어과 문법단원 분석을 중심으로”, 『문법교육』7, 한국문법교육학회.
- 이경희(2000), “국어의 /ㅅ/는 평음인가 격음인가”, 『국어학』36, 한국어학회.
- 이관규(1993), “기본문형의 몇 가지 문제”, 『우리어문연구』6,7, 우리어문학회.
- 이관규(1998ㄱ), “학교 문법의 내용 체계”, 『새국어교육』56, 한국국어교육학회.
- 이관규(1998ㄴ), “학교 문법의 성격과 역사”, 『어문논집』37, 안암어문학회.
- 이관규(2001ㄱ),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표준 문법의 내용 체계 -1차년도(2000년)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17, 우리어문학회.
- 이관규(2001ㄴ), “학교 문법 교육에 있어서 탐구 학습의 효율성과 한계점에 대한 실증적 연구”, 『국어교육』106,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 이관규(2002ㄱ), “국어의 문장 구성에 대한 연구와 전망”, 『한국어학』16, 한국어학회.
- 이관규(2002ㄴ), 『학교문법론(개정판)』, 월인.
- 이관규(2004), “국어사 교육의 위계화”, 『국어교육학』20, 국어교육학회.
- 이관규(2005), 『국어 교육을 위한 국어 문법론』, 집문당.
- 이관규(2009), “통합적 문법 교육의 의의와 방법”, 『문법교육』11, 한국문법교육학회.
- 이관규(2010), “학교 문법과 한국어 문법의 성격과 내용 체계”, 『문법교육』13, 한국문법교육학회.
- 이관규(2011ㄱ), “어휘 교육의 발전 방향 탐색: 문법 교육과 어휘 교육”, 『국어교육학연구』40, 국어교육학회.
- 이관규(2011ㄴ), “통합적 국어 교육의 가치와 ‘독서와 문법’”, 『국어교과교육연구』18, 국어교과교육학회.
- 이관규(2013), 『학교 문법 교육론(개정판)』,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이관규 외 역(2004), 『문법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한국문화사.
- 이관규 외(2009), 『중학교 문법』, 오딘.
- 이관희(2009), “문법교육 위계화를 위한 방법론 개발-품사 교육을 대상으로”, 『문법교육』10, 한국문법교육학회.
- 이관희(2010), “문법으로 텍스트 읽기의 기능성 탐색: 신문 텍스트에 쓰인 ‘도록 하’와 ‘게 하’를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25, 서울대학교 국어교육학회.
- 이관희(2012ㄱ), “국어 문법교육 내용 표상화 방식으로서의 비유 연구 : 교양 문법서의 설명 방식으로 중심으로”, 『한국중원언어학회 학술발표회 자료집』, 한국중원언어학회.
- 이관희(2012ㄴ), “문법 설명 텍스트에 쓰인 비유적 표상의 양상- 교양 문법서를 대상으로-”, 『한말연구』31, 한말연구학회.
- 이광정(1980), “한국어의 보어설정과 그 문형연구”, 『국어교육』 37, 한국국어교육학회.
- 이광정(1987), 『국어품사분류의 역사적 발전에 관한 연구』, 한신문화사.
- 이광정(2003), 『국어문법연구 1』, 역락.
- 李奎昉(1923), 『新撰 朝鮮語法』, 以語堂. 歷代韓國文法大系 Ⅰ29.
- 이극로(1932), “조선말의 홑소리”, 『한글』 4, 한글학회.
- 이기갑(1990), “한국어의 어절 구조”, 『언어연구』 2, 서울대학교 언어연구회.
- 이기문(1981), 『韓國語形成史』, 삼성문화미술재단.
- 이기문(2000), “현대 한국어의 변화들에 대한 단상”, 『서울말 연구』 1, 박이정.
- 이남순(1998ㄱ), 『格과 格 標識』, 월인.
- 이남순(1998ㄴ), 『時制·相敘法』, 월인.
- 이남운(2007), “‘국어 문법’ 교육의 전개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남호 외(2012),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I·II』, (주)비상교육.
- 이대규(1994), “문법 수업 설계의 방법”, 『선청어문』22,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 이도영(1998), “언어 사용 영역의 내용 체계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도영(1999), “국어과 교육 내용으로서의 국어사”, 『선청어문』27,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 이문규(2004), 『국어 교육을 위한 현대 국어 음운론』, 한국문화사.
- 이문규(2010), “문법교육론의 쟁점과 문법 교육의 내용”, 『국어교육』133, 한국어교육학회.
- 이문규(2012), “2011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과 문법 교육”, 『국어교육연구』50, 국어 교육학회.
- 이미혜(2002), “한국어 문법 교육에서 ‘표현항목’ 설정에 대한 연구”, 『한국어교육』13-2, 국 제한국어교육학회.
- 이미혜(2005), 『한국어 문법 항목 교육 연구』, 박이정.
- 이미혜(2009), “한국어 문법 교육의 목표 -국어 문법 교육과의 차별성-”, 『문법교육』10, 한국 문법교육학회.
- 이병건(1976), 『현대한국어의 생성음운론』, 일지사.
- 이병규(2005), “국어 지식 교육의 성격과 국어과 교육의 영역 체계”, 『국어교육학연구』22, 국 어교육학회.
- 이병규(2006), “문법 영역의 내용 선정 방법 연구”, 『문법교육』6, 한국문법교육학회.
- 이병규(2008ㄱ), “국어과의 문법 교육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의 특징 비교 연구”, 『이중언어학』38, 이중언어학회.
- 이병규(2008ㄴ), “새 국어과 교육과정 문법 영역의 비판적 이해”, 『한국초등국어교육』37, 한 국초등국어교육학회.

- 이병규(2012), “국어 문법 교육의 원리 탐구”, 『새국어교육』90, 한국국어교육학회.
- 이병규(2013ㄱ), “표준문법 정립을 위한 담화론의 논점 탐색”, 『문법 교육』 19, 한국문법교육학회.
- 이병규(2013ㄴ), “담화”, 『개념 있는 국어 문법(김홍범 외)』, (주)지학사.
- 이병근(1973), “동해안방언의 이중모음에 대하여”, 『진단학보』 36, 진단학회.
- 이병근(1978), “국어의 장모음화와 보상성”, 『국어학』6, 국어학회.
- 이병근(1980), “동시조음 규칙과 자음 체계-Prestopped Nasals를 중심으로-”, 『말소리』 1, 대한음성학회.
- 이병근(1981), 『음운현상에 있어서의 제약』, 탑출판사.
- 이병근·최명옥(1997), 『국어음운론』,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 이삼형 외(2012),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I·II』, (주)지학사.
- 이상신(2002), “반모음 y의 음절 구조적 지위와 음절화에 의한 방언분화”, 『관악어문연구』 27, 서울대 국문과.
- 이상복(2012), “국어의 형태소 분석에 대한 일고찰(1)-고유명사를 중심으로-”, 『배달말』50, 배달말학회.
- 이상억(2000), “음장 및 성조”, 『새국어생활』10-1, 국립국어연구원.
- 이상태(2008), “교육문법의 체계 구성에 관한 연구”, 『어문학』102, 한국어문학회.
- 이석주(1989), 『국어형태론-복합어와 파생어 구조를 중심으로-』, 한샘출판주식회사.
- 이석규 편(2003), 『텍스트 분석의 실제』, 역락.
- 이석주·이주행(2007), 『한국어학 개론(신정판)』, 보고서.
- 이선영(2009), “한국 전통 문법서에 나타난 ‘시제’ 인식에 대한 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선웅(2001), “국어의 양태체계 확립을 위한 시론”, 『관악어문연구』26,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이선웅(2005), 『국어 명사의 논항구조 연구』, 월인.
- 이선웅(2010ㄱ), “국어 교육의 학교문법과 한국어 교육의 표준 문법”, 『어문논집』43, 중앙어문학회.
- 이선웅(2010ㄴ), “국어의 보어와 보격에 대하여”, 『최명옥 선생 정년 퇴임 기념 국어학 논총』, 태학사.
- 이선웅(2012ㄱ), “격의 개념과 분류”, 『어문연구』 40-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 이선웅(2012ㄴ), 『한국어 문법론의 개념어 연구』, 월인.
- 이선웅·이은섭(2013), “이론문법의 관점에서 본 학교문법”, 『국어국문학』 163, 국어국문학회.
- 이성만(1994), “텍스트구조의 이해”, 『텍스트언어학 1』, 서광학술자료사.
- 이성만(2007), “텍스트 언어학의 현황과 전망-텍스트 기술의 기본 차원들”, 『우리말연구』 20, 우리말연구학회.
- 이성만(2010), “텍스트에서 담화로-텍스트언어학의 확장”, 『텍스트언어학』29, 한국텍스트언어학회.
- 이성영(1995), “언어 지식 영역 지도의 필요성과 방향”, 『국어교육연구』2, 서울대 국어 교육연구소.
- 이성영(1998), “교육문법의 체제 연구”, 『국어교육학』8, 국어교육학회.
- 이소영(1996), “현대국어의 구어 문형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승녕(1954), 『국어음운론연구 제1집 ‘ㄱ’음고(수정보수판)』, 을유문화사.
- 이승재(1980), “구례지역어의 음운체계”, 『국어연구』 45, 서울대 국어연구회.
- 이승재(1990), “자음체계 및 중화”,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 이승재(1993), “모음의 발음”, 『국어생활』 3-1, 국립국어연구원.
- 이영경(2004), “국어 ‘NP이’ 보어의 성격에 대한 고찰”, 『어문연구』 32-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 이영주(2007), “통합적 문법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문법교육』 7, 한국문법교육학회.
- 이영택(2003), 『학교문법의 이해』, 형설출판사.
- 이용주(1990), “언어 단위에 대하여”, 『국어교육』 69·70, 한국국어교육연구회.
- 이용주(1991), “담화단위로서의 (적격)문에 대하여”, 『국어교육』 71·72, 한국국어교육연구회.
- 이용주(1993), 『한국어의 의미와 문법 I -기본적인 관점-』, 삼지원.
- 이용주(1995), 『국어 교육의 반성과 개혁』, 서울대 출판부.
- 이원표 옮김(1997), 『담화연구의 기초』, 한국문화사. (Renkema, J.(1993), Discourse studies: an introductory textbook, Amsterdam: Philadelphia: J. Benjamins.)
- 이원표(2001), 『담화분석: 방법론과 화용 및 사회언어학적 연구의 실례』, 한국문화사.
- 이유라(2011), “관형사형 어미의 시제적 기능에 대한 연구”,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윤미(2013), “한국어의 비주격 주어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은경(2000), 『국어의 연결 어미 연구 (국어학총서 31)』, 태학사.
- 이은경(2010), “역대 학교 문법의 연결 어미와 부사형 어미”, 『한국어학』 46, 한국어학회.
- 이은기(2005), “오류 분석을 통한 한국어 관형절 시제 교수 방안 연구 -일본인 문법 사용자를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은섭(2011), “보충어의 판별 문제와 어휘부 처리에 대한 시론”, 『어문학』 114, 한국어문학회.
- 이은희(1993), “언어 지식 영역 교재 구안 방식에 관한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3, 국어 교육학회.
- 이은희(1995), “언어 지식 영역 교수 학습 방법 연구”, 『국어교육』 87·88, 한국국어교육연구회.
- 이은희(2000), 『텍스트 언어학과 국어 교육』, 서울대 출판부.
- 이은희(2001), “국어지식교육과 텍스트언어학”, 『텍스트언어학』 10, 한국텍스트언어학회.
- 이은희(2004), “‘문법 교육 과정 변천’에 대한 토론문”, 『제1회 한국 문법 교육학회 전국학술대회자료집』, 한국문법교육학회.
- 이응백(1968), “국어 모음의 음가에 대하여”, 『국어교육』 14, 한국국어교육연구회.
- 이익섭(1965), “국어 복합명사의 IC 분석”, 『국어국문학』 30, 국어국문학회.
- 이익섭(1969), “한자어의 비일음절 단일어에 대하여”, 『김재원 박사 회갑기념 논총』.
- 이익섭(1974), “國語 敬語法의 體系化 問題”, 『국어학』 2, 국어학회.
- 이익섭(1975), “국어 조어론의 몇 문제”, 『동양학』 5,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 이익섭(2011), 『국어학 개설(3판)』, 학연사.
- 이익섭·임홍빈(1983), 『國語文法論』, 학연사.
- 이익섭·채 완(1999), 『국어 문법론 강의』, 학연사.
- 이재성(2001), 『한국어의 시제와 상』, 국학자료원.
- 이재인(1989), “‘-이’ 명사의 형태론”, 『국어국문학논총Ⅲ(이정정연찬선생회갑기념)』.
- 이재인(1991), “파생접미사의 기술을 위한 한 방안”, 『석정이승욱선생회갑기념논총』.
- 이정택(2001), “문장의 성립과 문법”, 『국어 문법의 탐구 V』, 태학사.
- 이정택(2008), “한국어문법의 본질과 기술의 원칙”, 『겨레어문학』 41, 겨레어문학회.

- 이정택(2010ㄱ), “이른바 주격조사 ‘-에서’에 관하여”, 『한말연구』 27, 한말연구학회.
- 이정택(2010ㄴ), “형태소의 유형: 바람직한 용어법의 정립을 위하여”, 『인문논총』19, 서울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이정택(2011), “주어를 제한하는 “NP+에서” 구성”, 『한말연구』 29, 한말연구학회.
- 이정택(2012), “우리말의 보어 설정”, 『한말연구』31, 한말연구학회.
- 이정훈(2007), “국어 어미의 통합단위”, 『한국어학』37, 한국어학회, 149-179.
- 이정희(1999), “한국어 학습자의 시제 오류 분석 연구”, 『새 천년맞이 제10차 국제학술회의』,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이지영(2007), “한국어 교육을 위한 문법 연구의 방향”, 『한국어문학연구』48, 한국어문학연구학회.
- 이진호(2005), 『국어 음운론 강의』, 삼경문화사.
- 이진호(2007), “국어의 기저형 설정 조건”, 『어문학』96, 한국어문학회.
- 이진호(2009), 『국어 음운 교육 변천사』, 박이정.
- 이진호(2010), “국어 이중모음의 구성에 대한 연구사적 고찰”, 『이중모음』, 태학사.
- 이진호(2011), “국어 반모음화에 따른 운소 변동의 통시적 고찰”, 『국어학』, 한국어학회.
- 이진호(2012), 『한국어의 표준 발음과 현실 발음』, 아카넷.
- 이진호(2014), 『개정 국어 음운론 강의』, 삼경문화사.
- 이찬규·유해준(2009), “한국어 교육 문법 위계화 방안 연구 - ‘-겠-’을 중심으로-”, 『語文論集』40, 중앙어문학회.
- 이창근(2005), “탐구 학습에 관한 연구 동향 고찰: 국어 지식 영역을 중심으로”, 『청람어문교육』31, 청람어문교육학회.
- 이창호(2010), “발화 중 휴지시간이 갖는 의미”, 『한국어학』 46, 한국어학회.
- 이철수(1985), “학교문법의 성격”, 『국어교육』53, 한국국어교육연구회.
- 이춘근(2001), “문법 교육의 목적과 내용 체계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춘근(2002), 『문법교육론』, 이희.
- 이충우(1994), “국어 교육에서의 언어학”, 『선청어문』22,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 이충우(1997), “국어 교육 문법 연구”, 『국어교육학연구』7, 국어교육학회.
- 이충우(2004), “문법 교육의 개선 방안”, 『제1회 한국 문법 교육학회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한국문법교육학회.
- 이충우·주경희 공역(1993), 『언어 과학과 언어 교수』, 국학자료원.
- 이필영(1994), “대등절과 종속절에 대하여”, 『선청어문』22, 서울대 국어교육과.
- 이필영(1997), “언어 지식 교육의 내용 체계에 관하여”, 『제8회 한국국어 교육연구회 발표대회』, 한국국어교육연구회.
- 이해영(1998), “문법 교수의 원리와 실제”, 『이중언어학』15, 이중언어학회.
- 이해영(2003),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법 교육”, 『국어교육』112, 한국어교육학회.
- 이혁화(2002ㄱ), “교체에 대하여”, 『형태론』4-1.
- 이혁화(2002ㄴ), “국어 반모음 ‘ㄷ’의 음성학과 음운론”, 『어학연구』 38-1, 서울대 언어교육원.
- 이혁화(2012), “국어 음운론의 용어 ‘반모음, 이중모음, 중성’에 대한 검토”, 『한글』 296, 한글학회.
- 이현복(1970), “현대 서울 말의 모음 음가”, 『어학연구』 7-1, 서울대 언어교육원.
- 이현복(1974), “국어 말토막과 자음의 음가”, 『한글』 154, 한글학회.

- 이호영(1991), “한국어의 억양 체계”, 『언어학』 13, 한국언어학회.
- 이호영(1996), 『국어음성학』, 태학사.
- 이호영(1997), 『국어운율론』, 한국연구원.
- 임흥빈(1982), “기술보다는 설명을 중시하는 형태론의 기능정립을 위하여”, 『한국학보』8-1, 일지사.
- 이흥식(1990), “현대 국어 관형절 연구”, 『국어연구』98,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이흥식(1998), “문장 성분”, 『문법 연구와 자료』, 월인.
- 이흥식(2000), 『국어 문장의 주성분 연구』, 월인.
- 이흥식(2010), “형태소와 문법 기술”, 『어문학』109, 한국어문학회.
- 이희승(1949), 『초등국어문법』, 박문출판사.
- 이희승(1955), 『국어학개설』, 민중서관.
- 이희승(1957), 『새고등문법』, 일조각.
- 이희승(1968), 『새문법』, 일조각.
- 이희자(1995), “‘~이다’와 발화문”, 『주시경학보』 13, 주시경연구소.
- 이희자(2001), “언어교육과 텍스트언어학 ; 한국어교재 텍스트의 효율적인 분석 방법론 1 -” 주제부”의 텍스트 결속 기능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10, 한국텍스트언어학회.
- 이희자(2002), “의사소통의 최소 단위’로서의 ‘발화문’과 ‘문장’”, 『텍스트언어학』 13, 텍스트언어학회.
- 임규홍(2006), “‘담화문법’ 교육에 대하여”, 『문법교육』4, 한국문법교육학회.
- 임규홍(2007), “국어 담화분석 연구의 현황과 전망”, 『우리말연구』20, 우리말학회.
- 임동훈(1991), “현대 국어 형식명사 연구”, 『국어연구』103,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임동훈(1995), “통사론과 통사단위”, 『어학연구』31-1,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 임동훈(1997), “이중주어 구문의 통사 구조”, 『한국학보』 19,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 임동훈(2000), 『한국어 어미 ‘-시-’의 문법(국어학총서 37)』, 태학사.
- 임동훈(2004), “한국어 조사의 하위 부류와 결합 유형”, 『국어학』43, 국어학회.
- 임동훈(2006), “현대 국어 경어법의 체계”, 『국어학』47, 국어학회.
- 임동훈(2011), “한국어의 문장 유형과 용법”, 『국어학』 60, 국어학회.
- 임성규 외(2011), 『새 초등 국어과 교육론』, 교육과학사.
- 임지룡(1992), 『국어 의미론』, 탑출판사.
- 임지룡(1997), “학교 문법의 새 교과서 내용 검토: 의미·이야기 편”, 『한글사랑』봄호, 한글사.
- 임지룡 외(2005), 『학교문법과 문법교육』, 박이정.
- 임지룡 외(2010), 『문법 교육론』, 역락.
- 임철성(2002), “초급 한국어 교육용 어휘 선정 연구”, 『국어교육학연구』14, 국어교육학회.
- 임철성(2007), “2007년 개정 ‘문법’ 교육과정 검토”, 『우리말교육현장연구』창간호, 우리말교육현장학회.
- 임철성(2009), “교육문법의 교육 방향 연구”, 『국어교육학연구』36, 국어교육학회.
- 임철성(2010), “자국어 문법 교육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의 성격 비교 연구”, 『문법교육』13, 한국문법교육학회.
- 임철성(2011), “국어과 교육과정의 현실과 지향 : 다시 ‘통합’을 논하며”, 『국어교과교육연구』 18, 국어교과교육학회.

- 임철성·한창훈(2005), “새로운 국어 교과서의 개발 전략 탐색”, 『국어문학』40, 국어문학회.
- 임호빈 외(1997/2010),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workbook』, 연세대학교 출판부.
- 임홍빈(1972), “국어의 주제화 연구”, 『국어연구』 28.
- 임홍빈(1982), “기술보다는 설명을 중시하는 형태론의 기능 정립을 위하여”, 『한국학보』 8-1, 일지사.
- 임홍빈(1984), “문종결의 논리와 수행역양”, 『말』 9,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 임홍빈(1985), “國語의 文法的 特徵에 대하여”, 『국어생활』2, 국어연구소.
- 임홍빈(1987), “국어 부정문의 통사와 의미”, 『국어생활』10, 국어연구소.
- 임홍빈(1993), “국어 역양의 기본 역양과 특징”, 『새국어생활』 3-1, 국립국어원.
- 임홍빈(1998ㄱ), 『국어문법의 심층 1』, 태학사.
- 임홍빈(1998ㄴ), 『국어문법의 심층 2』, 태학사.
- 임홍빈(1998ㄷ), 『국어문법의 심층 3』, 태학사.
- 임홍빈(2000), “학교 문법, 표준 문법, 규범 문법의 개념과 정의”, 『새국어생활』10-2, 한국국어교육학회.
- 임홍빈(2001), 『바른 국어생활과 문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임홍빈(2005), 『우리말에 대한 성찰 1』, 태학사.
- 임홍빈(2007), 『한국어 주제와 통사 분석』, 서울대학교 출판부.
- 임홍빈·장소원(1995), 『국어문법론 I』,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 장경희(1985), 『現代國語의 樣態範疇研究』, 塔出版社.
- 장경희(1994), “김윤경 선생의 문법 체계와 그 특성 : 《나라말본》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문화연구』25,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장경희(1995), “국어 접속 어미의 의미 구조”, 『한글』227, 한글학회.
- 장경희(2008), “국어의 대화구조”, 『한양어문연구』16, 한국언어문화학회.
- 장광군(2001), “중국 학생을 위한 한국어 문법교육방안의 초보적 구상”, 『외국어로서의 한국 어교육』25-1,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 장려려(2011), “중국내 한국어 교재의 문법 지식 항목 분석 연구”, 배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미라(2008), “한국어 인용문의 교육 내용 선정과 배열에 관한 연구”, 『이중언어학』38, 이중언어학회.
- 장석진(1985), 『화용론연구』, 탑출판사.
- 장요한(2007), “‘문장의 확장’에 대한 소고”, 『시학과 언어학』 14, 시학과 언어학회.
- 장윤희(1999), “공형태 분석의 타당성 검토”, 『형태론』 1-2, 형태론 편집위원회.
- 장윤희(2006), “문법 내용의 국어 교과서 구현 방안 연구”, 『국어교육』120, 한국어교육학회.
- 장하일(1949), “표준말본1-2”, 『역대한국문법대계』 175, 박이정.
- 장하일(1956), “표준말본3”, 『역대한국문법대계』176, 박이정.
- 전광현(1990), “음장·역양·악센트”,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연구회 편.
- 전영철(2007), 국어 복수 표현의 의미론-“들”의 통합적 해석, 『언어학』49, 한국언어학회.
- 정경일 외(2002), 『한국어의 탐구와 이해(개정판)』, 박이정.
- 정달영(2012), “학교문법의 통일 과정과 한국어 문법 용어의 표준화”, 『한민족문화연구』41, 한민족문화학회.
- 정문수(1984), “상적 특성에 따른 한국어 풀이씨의 분류”, 『문법연구』5, 문법연구회.
- 정승철(1997), “자음의 변화”, 『국어사연구』, 태학사.

- 정승철·정인호 편(2010), 『이중모음』, 태학사.
- 정연찬(1968), “경남방언의 모음체계”, 『국어국문학논집』 2, 단국대학교.
- 정연찬(1991), “현대 국어 이중모음 체계를 다시 생각해 본다”, 『석정 이승옥 선생 회갑기념 논총』.
- 정연찬(1997), 『한국어음운론』(개정판), 한국문화사.
- 정열모(1946), 『신편고등문법』, 한글문화사.
- 전영옥(1999), “한국어 담화에 나타난 반복표현 연구: 유형, 분포 및 기능”, 상명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 전영옥(2009), “구어와 담화 연구”, 『한국어학』45, 한국어학회.
- 정용수(1983), “규범문법 체계의 문제점 분석 연구”, 『새국어교육』37-1, 한국국어교육학회.
- 정인상(1990), “주어”,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 정인승(1949), 『표준중등말본』, 어문각.
- 정인승(1956ㄱ), “표준 고등 말본”, 『역대한국문법대계』 Ⅱ83, 신구문화사.
- 정인승(1956ㄴ), “표준 중등 말본”, 『역대한국문법대계』 Ⅱ81, 신구문화사.
- 정인승(1968), 『표준 문법』, 계몽사.
- 정인호(2004), “하강 이중모음과 부동 이중모음의 음변화”, 『어문연구』 32-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 정지은(2007), “문법 지식의 교수적 변환에 관한 연구 - 고등학교 “높임법” 수업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희자(1998), 『담화와 문법』,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 정희자(2008), 『담화와 문법』, 한국문화사.
- 정희자(2009), 『담화와 문법 그리고 의미』, 한국문화사.
- 정희정(2000), 『한국어 명사 연구』, 월인.
- 정희정(2004), “한국어 문법 교육의 목표 설정을 위한 제안”, 『문법교육』1, 한국문법교육학회.
- 제민경(2011), “텍스트 중심 문법교육의 방향 탐색: 신문 텍스트의 ‘전망이다’ 구문을 중심으로”, 『국어교육』134, 한국어교육학회.
- 조경순(2001), “국어 보어에 대한 의미 구조론적 연구”, 『한국언어문학』47, 한국언어문학회.
- 조경순(2007), “논항구조를 활용한 한국어 기본 문형 구조 연구”, 『한국언어문학』 61, 한국언어문학회.
- 조규빈(2005), 『학교 국어 문법의 이해』, 문원각.
- 조규태(2000), “우리말 ‘ㄱ+ ㅅ’의 준말에 대하여”, 『한글』 249, 한글학회.
- 조영미(2009), 『한국어 문법 교육 연구 현황 검토』, 한성문화회.
- 조형일(2008), “학교문법에서의 보어 범주 재고”, 『국어교육연구』 21,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 조형일(2011), “읽기에서의 어휘 시소러스(thesaurus)의 응용”, 『국어교육학연구』41, 국어교육학회.
- 주경희(2003), “학교 문법 용어 검토 : 의미론·화용론 분야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134, 국어국문학회.
- 주세형(2003), “국어지식 영역의 패러다임: 구조와 기능”, 『교과교육학연구』7-2, 이화여자대학교 교과교육연구소.
- 주세형(2004), “학교 문법 다시 쓰기-언어 단위 문제를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20, 국어교육학회.

- 주세형(2005ㄱ), “통합적 문법 교육 내용 설계의 원리와 실제 연구”, 서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주세형(2005ㄴ), “통합적 문법 교육 내용 설계 - ‘의미를 구성하는 문법 지식’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27, 이중언어학회.
- 주세형(2006ㄱ), “문법 교재 개발의 모형”, 『문법교육』5, 한국문법교육학회.
- 주세형(2006ㄴ), 『문법교육론과 국어학적 지식의 지평 확장』, 역락.
- 주세형(2007ㄱ), “‘문법 교사의 수업 전문성 평가 모형’에 대한 현장 교사의 인식 실태 연구”, 『새국어교육』77, 寒國국어교육학회.
- 주세형(2007ㄴ), “초등 교육과 교사의 문법 수업 전문성 신장 방안 연구”, 『어문교육』35, 보고사.
- 주세형(2008ㄱ), “학교 문법 다시 쓰기, 2: ‘숙련자의 문법 탐구 방법’을 중심으로”, 『국어교육』126, 한국어교육학회.
- 주세형(2008ㄴ), “교실 문화 개선을 위한 문법 교수 학습 방법 개발의 방향”, 『청람어문교육』38, 청람어문교육학회.
- 주세형 외 역(2007), 『장르, 텍스트, 문법: 쓰기 교육을 위한 문법』, 박이정.
- 주시경(1910), 『國語文法』, 박문서관.
- 주시경(1914), 『말의 소리』, 신문관.
- 지민제(1993), “소리의 길이”, 『새국어생활』3-1, 국립국어연구원.
- 지현숙(2009), “‘교육 문법’에 있어서 한국어 구어 문법을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에 대하여”, 『한국어학』45, 한국어학회.
- 채 완(1993), “특수조사 목록의 재검토”, 『국어학』23, 국어학회.
- 채 완(2011), “일석 이희승 선생의 학교 문법 체계”, 『애산학보』37, 애산학회.
- 채현식(2003), 『유추에 의한 복합명사 연구(국어학총서 46)』, 태학사.
- 최경봉(2006), “문법 교과서의 내용 체계상 문제점과 개선 방안”, 『국어국문학』142, 국어국문학학회.
- 최규수(2003), “낱말관과 문법 체계의 관계 : 국어학사의 관점에서”, 『언어과학』10-2, 한국언어과학회.
- 최규수(2006), “형태론의 체계와 문법 용어 사용의 문제 : 국어학사의 관점에서”, 『우리말연구』18, 우리말학회.
- 최규수(2007), “학교 문법의 문장의 성분과 짜임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글』275, 한글학회.
- 최규수(2009), 『한국어 통사론 입문』, 박이정.
- 최규수(2010), “어근과 어간의 개념에 대한 국어학사적 검토”, 『한글』290, 한글학회.
- 최동주(1997), “현대 국어 특수조사에 대한 통사적 고찰”, 『국어학』30, 국어학회.
- 최동주(2006), “선어말 어미의 배열순서와 분포의 광협”, 『형태론』8-2.
- 최명식(1988), 『조선말구두어문법』, 료녕출판사, 심양.
- 최명옥(1982), 『월성지역어의 음운론』, 영남대 출판부.
- 최명옥(1998ㄱ), 『한국어 方言研究의 실제』, 태학사.
- 최명옥(1998ㄴ), 『國語音韻論과 資料』, 태학사.
- 최명옥(2004), 『국어 음운론』, 태학사.
- 최명옥(2008), 『국어 음운론(2판)』, 태학사.
- 최미숙 외(2008), 『국어 교육의 이해』, 사회평론.
- 최숙희 역(1996), 『문법 이론과 언어 습득』, 동인.

- 최영환(1993), “합성명사의 지도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영환(1995), “언어 능력 신장의 관점에서 본 언어 지식 영역의 지도 내용”, 『국어교육연구』 2,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 최영환(2003), 『국어 교육학의 지평』, 삼지원.
- 최영환(2005), “언어 능력 신장의 관점에서 본 언어 지식 영역의 지도 내용”, 『국어교육연구』 2,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 최웅환(2001), “국어의 문장유형과 구조 기술”, 『문학과 언어』 23, 문학과언어연구회.
- 최웅환(2005), “교착소로서의 국어 어미에 대한 연구”, 『우리말 글』35, 우리말글학회.
- 최웅환(2008), “형태소의 유형 분류”, 『문학과 언어』30, 문학과언어연구회.
- 최웅환(2010), “국어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 『언어과학연구』 54, 언어과학회.
- 최윤곤(2007),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구문표현 연구』, 한국문화사.
- 최인자(2008), 『국어 교육연구의 문제와 방법들』, 역락.
- 최재희(2011), “학교문법의 겹문장 체계 기술 방안 연구”, 『한글』292, 한글학회.
- 최전승(2008), 『국어학의 이해』, 태학사.
- 최중삼(1982), “學校文法の 文章論 研究 : 現行 人文系高等學校 文法書を 中心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지현 외(2007), 『국어과 교수·학습 방법(국어교육학총서3)』, 역락.
- 최진희 외(2008), “계사(copula)에 대한 한·영 대조 연구-한영 병렬 말뭉치를 이용하여-(미발간 보고서)”.
- 최창렬 외(2004), 『국어과 교수법』, 역락.
- 최해주(2007), “한국어 피동, 사동 표현의 효율적인 교육방안 연구 -한국어 문법서 및 교재 분석과 학습자 오류 유형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78, 한국국어교육학회.
- 최현배(1929), 『우리말본 첫재매』, 연희전문학교 출판부.
- 최현배(1937), 『우리말본』, 연희전문학교 출판부.
- 최현배(1937/1971), 『우리말본(최종판)』, 정음문화사.
- 최현섭 외(1996/2002), 『국어 교육학 개론』, 삼지원.
- 최형강(2004), “국어의 격조사구 보어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최형강(2005), “주격 중출 구성에서의 보어”, 임흥빈 외 『우리말 연구 서른아홉 마당』, 태학사.
- 최형강(2009), “‘형성소’와 ‘어근’ 개념의 재고를 통한 ‘어근 분리 현상’의 해석”, 『국어학』 56, 국어학회.
- 최형기(1995ㄱ), “국어 문형 연구”, 『어문집』 29, 원광대학교.
- 최형기(1995ㄴ), “국어 문형 연구(Ⅱ) : 문장 성분의 중출을 중심으로”, 『언어학』 3, 대한언어학회.
- 최형기(2000), “국어 보어에 관한 연구”, 『언어학』8-3, 대한언어학회.
- 최형용(1999), “국어의 단어 구조에 대하여”, 『형태론』1-2.
- 최형용(2000), “단어 형성과 직접 성분 분석”, 『국어학』36, 국어학회.
- 최형용(2002), “어근과 어기에 대하여”, 『형태론』4-2.
- 최형용(2003ㄱ), 『국어 단어의 형태와 통사-통사적 결합어를 중심으로-』, 태학사.
- 최형용(2003ㄴ), “규범 문법과 학문 문법의 친소”, 『한중인문학연구』11, 중한인문과학연구회.
- 최형용(2005), “격조사의 핵성에 대하여”, 임흥빈 외 『우리말 연구 서른아홉 마당』, 태학사.
- 최형용(2010), “품사의 경계-조사, 어미, 어근, 접사를 중심으로”, 『한국어학』47, 한국어학회.

- 최호철(1995ㄱ), “국어의 문법 단위와 문법 교육”, 『어문논집』 34, 안암어문학회.
- 최호철(1995ㄴ), “국어의 보어에 대하여”, 『한국어학』 2-1, 한국어학회.
- 최호철 외(2009), 『국어 문법 교과서 연구』, 제이앤씨.
- 표진이(1975), “한국어 폐색자음의 음향음성학적 양상”, 『한글』 155, 한글학회.
- 하광호(2002), “자국민에 대한 미국의 영어 교육”, 『새국어생활』 12-2, 국립국어연구원.
- 하재근(1999), “한국 전통 문법서에 나타난 ‘대우법’에 대한 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치근(2010), 『우리말 파생형태론』, 경진.
- 한국어교육학회 편찬위원회 편(2005), 『국어교육론2: 국어문법·기능교육론』, 한국문화사.
- 한길(1980), “국어의 기본 문형에 관하여”, 『연세어문학』 13, 연세대 국문과.
- 한길(2006), “우리말의 융합 형태소와 형태소 중복 현상”, 『인문과학연구』 15,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한동완(1996), 『국어의 시제 연구(국어학총서 24)』, 태학사.
- 한선혜(2002), “자국어 능력 배양을 위한 프랑스의 노력”, 『새국어생활』 12-2, 국립국어연구원.
- 한송화(2000), 『현대 국어 자동사 연구(말뭉치 기반 국어 연구 총서 7)』, 한국문화사.
- 한송화(2005), “중급 교재의 문법 교수요목 선정을 위한 연구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4급 교재를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30,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 한송화(2006),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에서의 새로운 문법 체계를 위하여 - 형식 문법에서 기능 문법으로-”, 『한국어교육』 17-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한송화(2009),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법 교육 방법론”, 『문법교육』 10, 한국문법교육학회.
- 한영균(1985), “음운변화와 어휘부의 재구조화”, 『관악어문연구』 10,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한영균(1988), “비음절화 규칙의 통시적 변화와 그 의미”, 『울산어문논집』 4, 울산대 국문과.
- 한영목(1976), “국어의 기본 문형론”, 『어문연구』 9, 어문연구학회.
- 한재영 외(2008가), 『한국어 교수법(한국어 교육총서 2)』, 태학사.
- 한재영 외(2008나), 『한국어 문법교육(한국어 교육총서 4)』, 태학사.
- 한정한(2009), “단어를 다시 정의해야 하는 시급한 이유들”, 『언어』 34-3, 한국언어학회, 761-788.
- 한정한(2011), “통사 단위 단어”, 『국어학』 60, 국어학회.
- 한혜연(2002), “문법 교육에서의 구성주의 수업 적용 방안”,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허 용 외(2005),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학 개론』, 박이정.
- 허 웅(1963), 『國語學概論』, 정음사.
- 허 웅(1965ㄱ), 『國語音韻論』, 정음사.
- 허 웅(1965ㄴ), 『(개고신판) 국어 음운학』, 정음사.
- 허 웅(1966/1975),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
- 허 웅(1968), 『표준 문법』, 신구문화사.
- 허 웅(1979), 『문법』, 과학사.
- 허 웅(1980), 『언어학』, 샘문화사.
- 허 웅(1983), 『국어학』, 샘문화사.
- 허 웅(1985), 『국어 음운학』, 샘문화사.
- 허 웅(1999), 『20세기 우리말의 통어론』, 샘문화사.

- 허 웅(2000), 『20세기 우리말 형태론(고친판)』, 샘문화사.
- 허재영(2004), “문법 교육 과정 변천”, 『문법교육』1, 한국문법교육학회.
- 허재영(2006), 『국어과 교육의 이해와 탐색』, 박이정.
- 허철구(2012), “통사론 교육과 교과서”, 『한국어학』57, 한국어학회.
- 홍종선 외(1998), 『근대국어 문법의 이해』, 박이정.
- 홍현수(1983), “중학교 국어 문법 교육의 새로운 방향”, 『교육논총』3,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황화상(2000), “국어 형태 구조 연구”, 『한국어학』11-1, 한국어학회.
- 황화상(2001), 『국어 형태 단위의 의미와 단어 형성』, 월인.
- 황화상(2005), “국어 문법 교육의 효율성 제고 방안 - 문법 교과서의 ‘국어 알기’ 영역의 구성을 중심으로 -”, 『문법교육』3, 한국문법교육학회.
- 황화상(2006), “조사 ‘에서’의 문법 범주”, 『배달말』 39, 배달말학회.
- 황화상(2009), “‘이서’의 문법적 기능과 문법 범주”, 『배달말』 44, 배달말학회.
- 황화상(2013ㄱ), 『현대국어 형태론(개정판)』, 지식과 교양.
- 황화상(2013ㄴ), “유추, 규칙의 대안인가?-채현식(2003)을 중심으로-”, 『형태론』 15-2.
- 황화상·최정혜(2013), “한국어 어절의 형태론적 중의성 연구”, 『한국어학』 20, 한국어학회.
- Aronoff, M.(1994), *Morphology by itself*, Cambridge: The MIT Press.
- Bright Harley (edit) (1995), *Lexical Issues in Language Learning*, Amsterdam ; Philadelphia :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Celce-Murica, Marianne & Hilles, Sharon(1988), *Techniques and Resources in Teaching Grammar*,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 Cowie, A.P.(1998), *Phraseology: Theory, Analysis, and Applications*,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 David Singleton(2000), *Language and the Lexicon*, London : Arnold.
- Di Sciullo, A. M. and E. Williams.(1987), *On the Definition of Word*, MA: MIT Press.
- Ellis, Rod(2002), *The Place of Grammar Instruction in the Second/Foreign Language Curriculum*, In Hinkel, Eli & Fotos, Sandra(2002), New York : Routledge.
- Everaert, M., Evers, A., Huybregts, R. and Trommelen, M.(eds.)(1988), *Morphology and Modularity*, Dordrecht: Foris.
- Foucault, M. (1972), *The Archaeology of Knowledge and the Discourse on Language*, New York: Pantheon.
- George Woolard(2000), Collocation - Encouraging learner independence, *Teaching Collocation*, Hove : Language Teaching Publications.
- Guy Cook(2003), *Discourse*, London : Oxford University Press.
- Harris. Z. (1951), *Methods in Structural Linguistic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inkel, Eli & Fotos, Sandra(2002), *New Perspectives on Grammar Teaching in Second Language Classrooms*, Mahwah, N.J. : L. Erlbaum Associates.
- Hockett, C. F.(1958), *A Course in Modern Linguistics*, Macmillan.
- James R Nattinger & Jenette S DeCarrico(2001 2rd), *Lexical Phrases and Language Teaching*, London : Oxford University Press.

- Jun, S.-A.(1993), *The Phonetics and Phonology of Korean Prosody*, PhD dissertation: Ohio State University.
- Kang, Ongmi(1993), *Korean Prosodic Phonology*, Seoul:Taehaksa.
- Lee, H. Y.(1990), *The structure of Korean prosody*, PhD dissertation: London University.
- Lewis, Michael(1993), *The Lexical Approach*, London : Language Teaching Publications.
- Lyons J.(1968), *Introduction to Theoretical Linguis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yons, J.(1977), *Semantics 1, 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rchand, H.(1969), *The Categories and Types of Present-Day English Word-Formation*, Munich: C. H. Beck Verlagsbuchhandlung.
- Mohanan K.P.(1986), *The Theory of Lexical Phonology*, Dordrecht: D. Reidel Publishing Company.
- Nida, E.(1949), *Morphology: the Descriptive Analysis of Word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Oldin, Terence(1994), *Perspectives on Pedagogical Grammar*,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ennington, Martha C.(2002), *Grammar and Communication: New Directions in Theory and Practice*, In Hinkel, Eli & Fotos, Sandra(2002), New York : Routledge.
- Pesetsky, D.(1985), Morphology and Logical Form, *LI* 16.
- Pike K.L.(1945), *The Intonation of American English*,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Pike K.L.(1947), *Phonemics: A technique for Reducing Languages to Writing*,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Richards, Jack C.(2002), *Addressing the Grammar Gap in Task Work*, In Richards, Jack C. & Renandya, Willy A.(2002),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elkirk, E.(1982), *The Syntax of Words*, Cambridge, MA: MIT Press.
- Schiffrin, D. (1994), *Approaches to Discourse Analysis*. Oxford: Blackwell.
- Siegel, D.(1974=1979), *Topics in English Morphology*, New York: Garland.
- Singleton, D.(2000), *Language and the Lexicon: An Introduction*, London: Edward Arnold.
- Song, S-C(1967), *Some Transformational Rules in Korean*, Doctorial Dissert. Indiana University.
- Spencer, A.(1991), *Morphological Theory*, Oxford: Blackwell.
- Sproat, R.(1984), On bracketing paradoxes, *MITWPL* 7, 110-30.
- Sproat, R.(1985), A note on rebracketing in morphology, *MITWPL* 6, 199-205.
- Sproat, R.(1988), Bracketing paradoxes, cliticization and other topics: the mapping between syntactic and phonological structure, In Everaert et al.(eds.).
- Thornbury, Scott(1999, 2nd. 2000), *How to Teach Grammar*, Harlow : Longman.
- Ur, Penny(1988), *Grammar Practice Activities*,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Wajnryb, Ruth(1990, 2001), *Grammar Dictation*,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Williams, E.(1981), On the notions 'lexically related' and 'head of a word', *LI* 12.

## 2. 사전류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2008),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고려대 출판부.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 국어대사전』, 두산동아.

남영신 엮음(1987), 『우리말 분류사전』, 한강문화사.

문영호 외(1993), 『조선어빈도수사전』,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박용수 엮음(1989), 『우리말 갈래사전』, 한길사.

서상규 외(2006),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 신원프라임.

신현숙 외(2000), 『의미로 분류한 현대 한국어 학습사전』, 한국문화사.

野間秀樹(1998), 『조선어 분류 기초 어휘집』, 일본 동경외국어대학 조선어학연구실.

연세대 언어정보연구원(1998), 『연세한국어사전』, 두산동아.

연세대 언어정보연구원(2000), 『연세초등국어사전』, 두산동아.

이상억(1995), 『외국인을 위한 기초 한국어사전』, HOLLYM.

조성식 편(1998), 『영어학사전』, 신아사.

<Abstract>

## Development of Standard Korean Grammar 2014

This project aims to develop standard Korean grammar as a reference for general language users and also for relevant academic fields, including Korean linguistics,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Koreans, and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foreigners.

The project consists of the following six parts:

### **(1) Investigation of the Categorization and Hierarchy of Specific Items of Grammatical Knowledge**

We examined the classification system developed in the first stage of this project (Basic Research for Developing Standard Korean Grammar) with a focus on the consistency of the grammatical system and the hierarchy of items which comprise grammatical knowledge. The research was conducted as follows. First, we determined the criteria for investigating the classification system that considers the system's consistency and hierarchical order. Then, we carried out a macroscopic-microscopic examination of the classification system. Macroscopically, we thoroughly examined the systematic consistency among phonology, morphology, syntax, and pragmatics, as well as inspect the compatibilities and hierarchies of the major categories in each subfield of Korean linguistics. Microscopically, we investigated the consistencies and hierarchies of the sub-categories. To date, 30% of the total classification system has been examined.

### **(2) Exhaustive Analysis of Unresolved Issues in Grammatical Description**

We analyzed a number of unresolved issues when describing Korean grammar by exploring grammatical items designated for developing standard Korean grammar; to date, 30% of the grammatical items have been examined, and academic publications and other materials concerning the issues have been collected. In addition, we developed a

description method for unresolved issues through multiple advisory conferences and workshops. This description method has also been applied to our current analysis of all such issues.

### **(3) Proposal for Standardized Grammatical Terms**

Realizing the importance of standardizing grammatical jargon, we organized the Committee for the Standardization of Grammatical Terms to establish criteria for standardizing grammatical terminology, and we attempted a proposal for standardizing grammatical terms. Specifically, first we established a set of standardization principles and examined possible terminologies for normalization. Then, we designated a list of grammatical terms currently requiring standardization.

### **(4) Description of Grammatical Contents in Linguistic Subfields**

We conducted research on grammatical contents in the linguistic subfields of phonology, morphology, syntax, and discourse; to date, 30% of all the items in our classification system have been described. The research process was as follows: we first selected grammatical items for description by examining existing classification systems in each linguistic subfield, and then we described the grammatical contents of each subfield using the model of standard Korean grammar description that was developed in the preceding stage of this project.

### **(5) Design of the Web Service for Standard Korean Grammar**

To offer a future online web service for access to our system, we developed an initial outline of the online system and designed a model of proper description for standard Korean grammar. We also held discussions regarding various practical considerations when offering standard Korean grammar through such online web services.

### **(6) Feedback from Academic Professionals: Advisory Conferences and Workshops**

To better evaluate and revise our project results, we continuously

collected feedback from a wide range of professionals in academia through the hosting of a number of advisory conferences and workshops regarding our interim findings. Advisory conferences focused on examining and revising the grammatical descriptions proposed by this project, while workshops dealt with currently unresolved grammatical issues. To further enhance the professionalism and efficiency of the project, we have separated the advisory conferences into two types: senior conferences and professional conferences. Senior advisory conferences place added emphasis on macroscopic perspectives, including the overall purpose or direction of the project, whereas professional advisory conferences concentrate more on practical aspects, such as revisions of our grammatical descriptions. To date, advisory conferences have been held three times, in May, August, and November, while workshops have been conducted twice, in July and October; the July workshop focused on obtaining feedback from professional researchers about the first half of the project results, while the October workshop focused on the results of the second half.

Key words: standard Korean grammar, standardization of grammar, reference grammar, basic grammar, hierarchy, grammatical terminology, web service

Project Director : Hyunkyung Yoo (Yonsei University)

연구 책임자 : 유현경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공동 연구원 : 강현화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구본관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김성규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김홍범 (한남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이병규 (서울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부교수)  
이정택 (서울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이진호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한재영 (한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황화상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이대성 (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  
연구 보조원 : 전후민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김소영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주향아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강계림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발행인: 국립국어원장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775, 전송 02-2669-9727

인쇄일: 2014년 12월 18일

발행일: 2014년 12월 18일

인 쇄: 독수리사

※ 이 책은 국립국어원의 용역비로 수행한 ‘2014년 표준 국어 문법 개발’  
사업의 결과물을 발간한 것입니다.